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일 자 | 2016. 7. 7(목) ~ 10(일)

| 장 소 | 당진시청, 세한대 당진캠퍼스,
당진 및 내포지역

자료집5
분과회의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13분과 [특별] 대중국 교류
- 14분과 [특별]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 15분과 [특별] 당진항 활성화
- 16분과 [특별]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 세부 프로그램

제1일차 <전체회의> 7월 7일(목) 13:30~18:2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시청 대강장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개 회 식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3:30~14:00

- 개회사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
- 환영사 : 당진시장 김홍장, 세한대 총장 이승훈
- 축 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충남도지사 안희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당진시의회의장

기조발표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4:00~14:30

-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백제모델
- 발표 : 윤명철(동국대)

주제발표

사회 :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14:40~15:10

- [주제발표 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발표 : 최미순(세한대) ●토론 : 김승진(선장, 팀 아라파니)

15:10~15:40

- [주제발표 2]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 발표 : 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론 : 임용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5:50~16:20

- [주제발표 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 발표 : 권덕영(부산외대) ●토론 : 윤재운(대구대)

16:20~16:50

- [주제발표 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 발표 : 이윤선(목포대) ●토론 : 정병모(경주대)

종합토론

17:00~18:20

- 좌장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참석 : 전체회의 발표자, 토론자

제2일차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 7월 8일(금) 09:00~18:3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1관, 2관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오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09:00~12:00	[1분과]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좌장 : 박종기(국민대)	205호
	[3분과]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좌장 : 이근우(부경대)	206호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좌장 : 송화섭(전주대)	207호
	[7분과]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좌장 : 홍석준(목포대)	306호
	[9분과] 도서해양 생태자원 ●좌장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307호
	[11분과-특별] 해양문화유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좌장 : 광유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8호
	[13분과-특별] 대중국 교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좌장 : 오석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6호
	[15분과-특별] 당진항 활성화 (한국해운물류학회) ●좌장 : 이철영(한국해양대)	407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좌장 : 김보한(단국대)	205호
	[4분과]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좌장 : 김동전(제주대)	206호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좌장 : 배정희(한국해양대)	207호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좌장 : 김동현(청암대)	306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10분과]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좌장 : 김민영 (군산대)	307호
	[12분과-특별] 해양레저스포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좌장 : 이영오 (세한대)	308호
	[14분과-특별]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당진항토문화연구소) ●좌장 :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406호
	[16분과-특별]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좌장 : 권덕영 (부산외국어대)	407호

융합토론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본부관(1관) 5층 대공연장

16:40~18:30	●좌장 :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발표 : 분과별 좌장
-------------	--------------------------------	--------------

제3일차 <내포지역 해양문화 답사> 7월 9일(토) 09:00~

- 대 주 제 : 현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태안·보령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토)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굴포운하유적
10:00-11:00	굴포운하 답사
11:00-12:00	굴포운하 → 태안 안흥정터
12:00-12:40	안흥정터
12:40-13:40	맛있는 점심식사
13:40-14:00	식당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4:40-15: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
15:00-16:00	태안보존센터 → 안면운하
16:00-16:30	안면운하
16:30-17:30	안면운하→충청수영성
17:30-18:30	충청수영성, 계급장군청덕비
18:30-19:30	맛있는 저녁식사
19:30-20:45	충청수영성 → 세한대 당진캠퍼스

제4일차 <당진 및 난지도 해양문화 답사> 7월 10일(일) 09:0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일)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도비도선착장
10:00-10:20	티케팅, 승선자 명단 작성
10:20-10:50	도비도선착장 → 소난지도
10:50-11:20	*항일의병총
11:20-11:50	소난지도→도비도선착장
11:50-13:00	맛있는 점심(도비도 선착장 근처)
13:00-13:50	도비도선착장→당진안국사지
13:50-14:40	당진안국사지 및 매항암각
14:40-15:10	당진안국사지→당진 무공사
15:10-15:40	당진 무공사(복지검장군 유적지)
15:40-16:20	당진 무공사→세한대 당진캠퍼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2009년 목포에서 시작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삼척(2011년 2회), 여수(2012년 3회, 2013년 4회), 경주(2014년 5회), 목포(2015년 6회) 등지를 거쳐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 7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월 7일에 개최되어 우연히도 행운의 숫자 7이 세 개 모였으니 행운이 넘쳐흐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해양 관련 논문은 약 1,000여 편에 달합니다. 이번 당진 대회는 전체회의와 16개 분과를 통해서 2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행운의 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첫날 당진시청에서 전체 회의, 둘째 날 세한대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충남 내포지역의 해양 문화와 당진 난지도를 답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일부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시의 전격적인 지원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참하고 충청남도도 후원에 가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대회를 이끌어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현지 대학인 세한대학교가 대회장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재단도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바다와 섬을 소재로 삼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열린 학술 난장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바다와 섬을 학문 연구에 끌어들이 욕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문 연구의 풍토를 서서히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8회 대회는 군산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 논의가 있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차기 개최지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문화의 연구와 해양사상의 고취 및 확산을 위해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2016년 7월 7일

공동 개최 및 후원 기관들을 대표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배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 모두 각기 푸른빛을 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당진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7회 전국해양학자문화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국 도서해양 전문 연구자 여러분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9년 첫 개최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해양 연구자들이 각양각색의 해양 관련 주제를 총망라하며 그 범위와 깊이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발전하기까지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해양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 바다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해양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를 바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두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환황해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육성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도권을 잇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당진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항만으로 키워나가는 동시에 김승진 선장의 요트세계일주 모험인 왜목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해양레저스포츠제전 유치로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당진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풍성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당진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자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장 김 홍 장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 그리고 학술토론의 장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4일간에 걸쳐 학술토론과 인근 지역 답사, 그리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가 준비한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서해안시대의 다른 중심인 당진에서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을 경제 번영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의 무대로 그 효용성을 넓혀가는 충청남도의 도정 방향과 어우러져 특별한 의의가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세한대가 공동으로 귀한 손님맞이 채비를 하였으니, 열띤 학술토론의 장을 만 들어주시고, 고귀한 학술적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대학 당진캠퍼스에 머무시는 동안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없이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에서 열리는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축 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황해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충남을 방문해 주신 해양 전문가 여러분과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는 2012년 도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홍성·예산지역)로 이전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환황해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많은 갈등과 전쟁, 침략이 있었습니다. 황해 역시 제국주의 시기,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 큰 전쟁의 시기까지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환황해지역은 평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문물은 황해를 건너 이곳 충남의 옛 나라인 백제에서 꽃을 피웠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져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황해는 한·중·일 고대 3국의 공동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황해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로 이어진 우리가 이 바다를 통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광복절에 환황해지역을 돈과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으로, 그리고 집단안보 체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EU수준의 공동체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고대의 황해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충남은 환황해지역 ‘평화의 제도화’라는 목표 아래 이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과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인 환황해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지방의회와의 연합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저명한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충남의 해안을 답사하는 것은 우리 충남이 그리는 ‘아시아의 지중해, 황해’라는 미래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축 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더위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뜨겁다고 하지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전 세계의 인류가 공유하는 총유의 자원으로서 지구적 잠재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문화에 대해 집약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도 7회째를 맞는 시점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대주제로 항만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의 한자지명을 보면 당나라 唐, 나루 津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매우 가까워 일찍이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항만시설은 5천톤~20만톤 규모 35선석이 있으며 2015년 물동량 6931만7천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목마을에 중국 기업이 1150억규모의 마리나항만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등 항만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민들의 항만과 해양관광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거점 구축에 관한 방안,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니 참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주관과 주최를 담당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의원 어 기 구

축 사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이끌어주신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이번 대회가 당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신 충청남도 당진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등의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제3회 대회부터 도서관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볼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해양학자들은 역사, 문화, 과학, 경제, 정치,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양시대, 해양문화강국으로 나가는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회가 역사시대의 국제 항구이자 신해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 미래의 원동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께서는 해양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대회를 단편적인 학문의 연구를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적 해안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우리나라 해양문화연구의 마당으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해양문화학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한번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 귀 영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롤리가 남긴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는 세계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해산물과 각종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관광과 레포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만과 해양관광물류의 개발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 일부 도시의 전유물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충남도내 각 시군의 공동 관심사인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문가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충남 무역항, 특히 당진항 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빛나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의회 의장

축 사

오늘 이곳 충청남도 당진에서 전국에서 모인 해양학자들과 함께 환황해권 역사와 문화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로부터 시작해도 황해와 함께 천오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일구워 왔고, 그에 앞서 선사시대를 아우르면 수 천년 동안 황해와 함께 생활 터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 속 세계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알려주고 있어 충청남도는 황해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황해권’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황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거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장 호 수

축 사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분들이 다함께 모이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 곳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고대 동아시아 해양 강국 백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당진(唐津)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중국 당나라와 교류했던 해상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또 다른 항구 한진(漢津) 역시 그 지명에서 이곳이 중국 한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냉전과 갈등의 바다였던 황해가 이제 다시 교류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도 해양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에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고, 해양수산물 출범시켰으며, ‘해양건도,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 라는 해양수산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진 또한 시대를 넘어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황해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여러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왜목 마리나항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과 당진이 환황해 시대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로 알려진 당진시가 해양도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충남과 당진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국의 해양문화학자들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과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의 당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진에서 행복한 3박 4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자료집 1 목차

전체회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백제모델 윤명철 동국대학교	36
〈주제발표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53
〈주제발표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0
〈주제발표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93
〈주제발표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이윤선 목포대학교	105
〈토론문1〉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승진 팀 아라파니	121
〈토론문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용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4
〈토론문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재운 대구대학교	126
〈토론문4〉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병모 경주대학교	128

● 자료집 2 목차

[Session 1]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 彗星 서영교 중원대학교	37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44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나오코 큐슈박물관	51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사유리·시바모토 타쿠미 큐슈박물관	58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66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병건 동원대학교	72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학로 백제부흥전쟁기념사업회	78
왕건의 고려건국과 해양세력 강봉룡 목포대학교	84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 김명진 경북대학교	92
고려시대 內浦地域의 佛教寺院 배상현 동서문물연구원	99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번성론과 소극론 박종기 국민대학교	105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현황 조명일 군산대학교박물관	112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도서(섬) 인문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 홍영의 국민대학교	119

● 자료집 2 목차

[Session 2]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잇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박영철 군산대학교	129
1323년 신안선의 항로 윤용혁 공주대학교	135
13세기 서해안 해참 분석 이종수 중앙대학교	139
임진왜란 초기해전의 연구 제장명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46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한성일 부산대학교	152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한정훈 목포대학교	159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김수태 충남대학교	165
서해 최대의 험지 안흥량과 굴포운하 문경호 대전과학고등학교	170
백제 백강과 백촌강 서정석 공주대학교	176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김보한 단국대학교	181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최재영 경주대학교	186
문명 간 교류 유형 비교연구 김정하 부산외국어대학교	195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임용덕 제주대학교	20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3]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문종 전북대학교	211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6
조선후기 왜관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장순순 전북대학교	223
조선후기 대일무역과 구무(求貿)의 전개 이승민 동국대학교	233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公木) 김영록 부산대학교	240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 향로 탐사 공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246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근우 부경대학교	253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철호 동국대학교	259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보영 동국대학교	267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수희 영남대학교	274
방계현상과 바닷길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276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탁현진 목포대학교	28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4]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재홍 국민대학교	291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 선박 고찰 이효웅 이사부기념사업회	296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 입지변화 박지훈 공주대학교	302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정신 한남대학교	308
고려~조선시대 하천 제방에 대하여 차순철 동국문화연구원	315
토정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용기 목포 MBC	322
조선후기 '해도진인설'의 의미 박상현 부산대학교	330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 김동전 제주대학교	336
근세 동아시아 어보의 역사 김문기 부경대학교	346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임학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55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류창호 인하대학교 박물관	361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69
충남 당진군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창섭 부산대학교	374

● 자료집 3 목차

[Session 5]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러콘텐츠 이창식 세명대학교	36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송화섭·김경미 전주대학교	37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의 西學의 意義와 한계 김치완 제주대학교	48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오문수 오마이뉴스	56
절걸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박흥주 곳연구소	62
남해군의 정월대보름 민속대축제 정의연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64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정서경 목포대학교	72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김영술 전남대학교	77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김승훈 제주대학교	83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신근영 고려대학교	89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남석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5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9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전인평 중앙대학교	107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김정예 서울시립대학교	11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6]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비네타, 발트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배정희 한국해양대학교	120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김낙현 한국해양대학교	126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의 정체 장정태 동국대학교	133
역사인물 홍가와라와 「홍길동전」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설성경 연세대학교	140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김기림 조선대학교	147
〈최척전〉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이채경 성균관대학교	154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김미령 조선대학교	163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박해람 성신여자대학교	170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학의 의미 정석원 부산대학교	177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조미라 목포대학교	180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430.3m) 천기철 한국사진작가협회	187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손희하 전남대학교	19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7]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문서를 통해 본 염전과 염부이야기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
어업민속의 지역성 권삼문 여헌기념관	208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박혜영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14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신용희 금강뉴스	222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9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 보양식 4선 임여호 한국수산회	235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편성철 목포대학교	238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51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57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이재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65
오징어의 모든 것 :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이정연 목포대학교	271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활용 연구 박성혜 광주여자대학교	278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홍석준 목포대학교	284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최홍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94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이유리 목포대학교	300

● 자료집 3 목차

[Session 8]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생 자크 조가비 콩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미라 이화여자대학교	308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영란 조선대학교	313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 김형서 세한대학교	322
제주 - 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330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36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영숙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342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재완 남도 마실길	349
장보고의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대호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355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차혜영 한양대학교	359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지수 태안문화원	366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정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371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현 청암대학교	377

● 자료집 4 목차

[Session 9] 도서해양 생태자원

기후변화와 매립에 의한 경기만의 기초생태 변화 최중기 인하대학교	36
기후변화에 따른 함평만 염생식물 생장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이점숙 군산대학교	40
해안사구에서 식물 생장 및 생리적 반응을 적용한 외래식물 관리방안 명현호 국립공원연구원	4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경관 변화 박정원 국립공원연구원	45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지역 해빈의 계절적 변화 장성건 국립공원연구원	53
신안군 수개 도서의 염생식물 분포 특성 양효식 목포대학교	60
해양쓰레기와 해양생물 피해 특성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64
전남 신안군 지역의 교량 건설과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구조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68
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해안선 잔존유정의 변화 김진석 국립공원연구원	74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의 외래식물 관리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	80
해양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최종관 국립공원연구원	85
연륙교 건설에 따른 어촌 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의 변화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88
신안군 자은면 도서자생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5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0]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세월호 사건으로 영향 받은 국내법제와 내용 연구	104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국내 해양사고의 특성 분석	111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의 도서 관리 동향	115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수 목적 무인도서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120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한국의 견해	126
김영주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교육,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	129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전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근무장소에 따른 특성의 차이	134
조유향 초당대학교	
『섬』 정의(定義)의 혼선과 정립에 관한 고찰	139
신순호 목포대학교	
군산항 관련 사진·통계자료의 현황과 연구방향	145
김민영 군산대학교	
연태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한중경제의 신기회	150
김덕수 중국절강해양대학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1] 특별-해양문화유산

국립어업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전시 방향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7
조선통신사선 원형복원을 위한 추정설계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3
3D스캐닝을 활용한 고선박 선형복원 강원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9
수중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기본적 법률 및 관리체계 정용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5
수중 출수 금속문화재의 물리적 클리닝 적용 실험 연구 김서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9
『세계의 배』 역사 전시 구성의 사례 진호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4
고려 삼별초 유형 일고찰 윤형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8
신안선 유물 출수 양상의 고고학적 검토 조진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2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수습 도자기의 현황과 성격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7
역사기록 속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신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4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2] 특별-해양레저스포츠

“원동컵” 국제범선경기 왕보기 청도범선협회	212
남한강 수변 레저스포츠 시설 활성화 방안 고재곤 여주대학교	213
해수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주성택 경희대학교	220
수변지역 선진사례 박창욱 여주대학교	221
수변지역 체육시설 활용방안 이용수 여주대학교	222
한국의 해양스포츠 연안산업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인 류효정 (주)라라마린아카데미	223
해양레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홍석호 성결대학교	228
수도권 주민 ‘생존수영’의 장으로서 한강 활용에 관하여 박진 서울여자대학교	232
해양 수상스키 쇼의 초대 박정수 한서대학교	235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박종욱 세한대학교	245
스킨스쿠버시설과 장소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유동균 세한대학교	242
마리나 시설의 범죄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적용방안 함주일 대구과학대학교	246
해양레포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규길 세한대학교	250
생활체육으로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모색 김영주 세한대학교	251
해양레저스포츠안전관리 이영오 세한대학교	264
스포츠권의 법리 심재영 세한대학교	268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3] 특별-대중국 교류

한중FTA가 충남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36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43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종화 충남연구원	49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55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향 송두범 충남연구원	65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원표 충남연구원	7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희정 한밭대학교	75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관계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6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경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7
남송 학인 정신보의 고려 이거경위와 그 의미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4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정환 교회사연구소	100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4] 특별-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김추윤 신한대학교	108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이은우 충청문화연구소	118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	127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황의호 보령향토문화연구소	132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유승광 공주대학교	141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147
내포(마한)지방의 문화와 서해 박태신 예산향토문화연구소	156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김영곤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62
황해 근대 해양문학의 한 검토 김영미 공주대학교	169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정 일 목포대학교	176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5] 특별-당진항 활성화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186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203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214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232
강상곤 영진공사 기획실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6] 특별-화성 당성과 항해 실�크로드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기동 한양대학교	262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실�크로드 길 팀 윌리엄 런던대학교	268
화성 당성 제3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김기룡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70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화중 고려문화재연구원	277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상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85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복진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소	291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일교 수원여자대학교	299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성일·이병준 한양대문화재연구소	304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 실�크로드 모이다 링보박물관	313
《管子》“发、朝鮮之文皮”의 고고학적 탐색 왕 청 산둥대학교	320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효재 서울대학교	341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유전 前국립문화재연구소	348
동아시아 결상이식 분포와 교류관계 마쓰우라 유리치로 동경국립박물관	354



13분과 [특별]

대중국 교류

한중FTA가 충남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종화	충남연구원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향	송두범	충남연구원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원표	충남연구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희정	한밭대학교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대중국관계	오석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경복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남송 학인 정신보의 고려 이거경위와 그 의미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정환	교회사연구소



한중FTA가 충남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¹⁾

강 마 아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1. 서론

한중FTA는 그간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4년간 협상 추진경과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이르렀다. 농림업 분야의 협상내용을 요약해보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타결, 개방에 따른 직접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농림축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3%), 일반품목 589개(36.6%)로 합의, 이 중 216개 품목은 즉시 철폐, 나머지 양허제외 548개 품목 제외한 847개 품목은 점진적 개방을 결정하였고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농림축산물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로 타결, 주로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로서 중장기 위기 품목이 될 처지이다.

어업 분야의 협상내용을 요약해보면, 초민감품목은 87개(13.7%)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의 품목이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서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중국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율 100%를 유도해 우리 수산물 수출확대 가능성도 커진 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중FTA 발효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고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FTA가 충남 농림어업에 미치는 직

1) 주: 본 논문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자료: 1. 충청남도(2015), 한중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최종보고서

2. 강마아 외(2015),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충남리포트 제199호, 충남연구원

간접 피해액을 추정하여 정량적인 영향을 분석하였고 충남의 시군별 피해품목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충남 및 권역별 농림어업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충남의 피해액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 및 결과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직간접 피해액을 추정하여 정량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표 1]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액 총괄

(단위 : 억 원)

구분		지역	농업	임업	어업	계
직접피해액	① 한중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48.0	-29.1	-104.0	-181.1
		충남	-8.8	-5.5	-24.4	-38.7
간접피해액	②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5,191	미산정	미산정	-5,191.0
		충남	-897.6	미산정	미산정	-897.6
	③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연평균 피해액	전국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0.0
		충남	-561.5	미산정	-19.1	-580.6
소계		충남	-1,467.9	-5.5	-43.5	-1,516.9
※ 참고 : 직접피해액	① 한중FTA로 인한 20년 누적 피해액	전국	-958.0	-582.0	-2,079.0	-3,619.0
		충남	-175.0	-110.5	-491.5	-777.0

첫째, 직접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한중FTA로 인한 국가 전체 연평균 피해액 중 충남의 농림어업 비중을 감안한 피해액 산출이다. 한중FTA로 인하여 전국의 농림어업 연평균 피해액은 181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이를 근거로 충남의 농림어업 비중 - 농업은 면적 기준 13.6%, 임업은 면적 기준 18.6%, 어업은 생산액 기준 7.1% - 을 감안하여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약 38.7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즉, 농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48억 원, 충남은 8.8억 원 생산액 감소, 임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29억 원, 충남은 5.5억 원 생산액 감소, 어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104억 원, 충남은 24.4억 원 생산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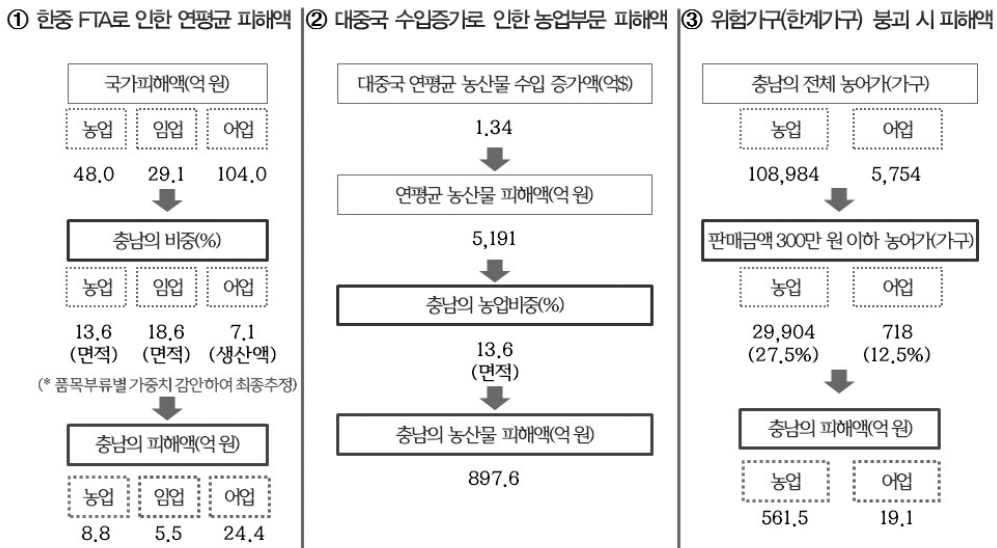
둘째, 간접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이도 대중국 연평균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가 전체 피해액 중 충남의 농업 비중을 감안한 피해액 산출이다. 대중국 연평균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1.34억 달러이고 이로 인해서 전국의 농업 연평균 피해액은 5,191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이를 근거로 충남의 농업 비중 - 면적기준 13.6% - 을 감안하여 충남의 농업 연평균 피해액은 **약 897.6억 원**으로 추정하였

다. 즉, 농업 부문에서는 관세효과 없이 매년 1.34억 달러씩 증가하여 국가는 5,191억 원 생산액 감소, 충남은 897.6억 원 생산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간접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충남의 위험가구(한계가구)가 붕괴했을 때를 고려한 피해액 산출이다. 위험가구(한계가구)는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가구로 설정하였고 이들 가구가 한중FTA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고 붕괴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단,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는 자연적 감소로 인한 원인이 주를 이루지만 한중FTA로 인해 붕괴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가 필요하다. 가구수와 연간 판매금액 누적액을 합산한 결과인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약 580.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즉, 충남의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농가(통계청, 2010)는 전체의 27.5%인 29,904가구, 어가(통계청, 2010)는 전체의 12.5%인 718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연간 판매금액 누적액을 합산하면 약 **580.6억 원** 생산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3가지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직접피해액은 연평균 38.7억 원, 간접피해액은 연평균 1,478.2억 원(897.6억 원 + 580.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그림 1> 참고).

[그림 1] 분석방법 프로세스와 피해액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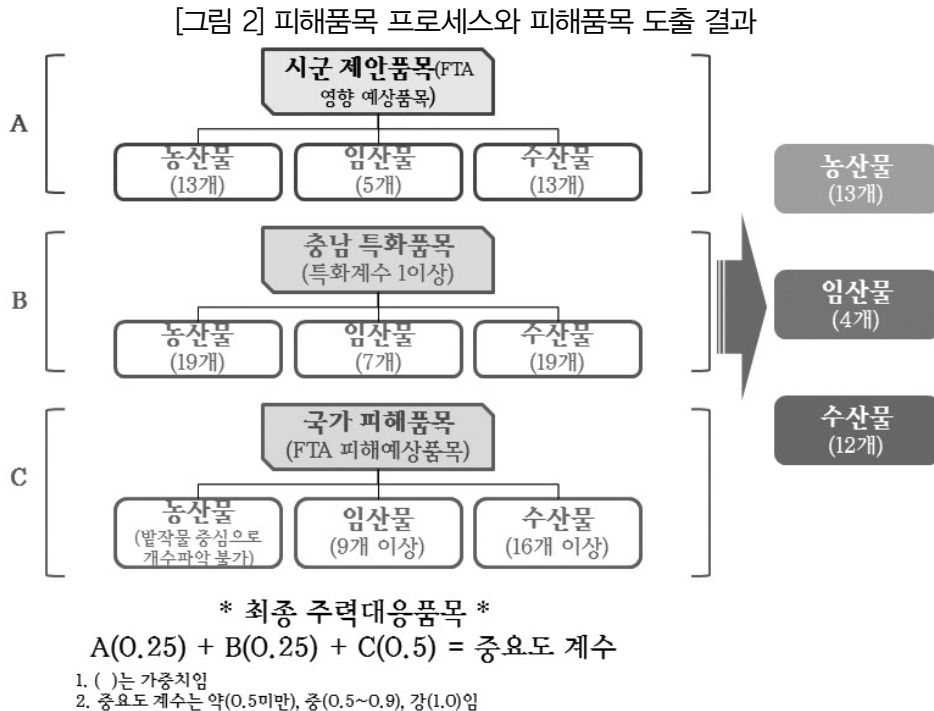
자료 : 1. 농업과 임업은 농림어업총조사(2010)
2. 어업은 수산정보포털통계(201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주 : 충남의 연간 농림수산물 생산액 3.9조 원~4조 원 수준

자료 : 농업과 어업은 농림어업총조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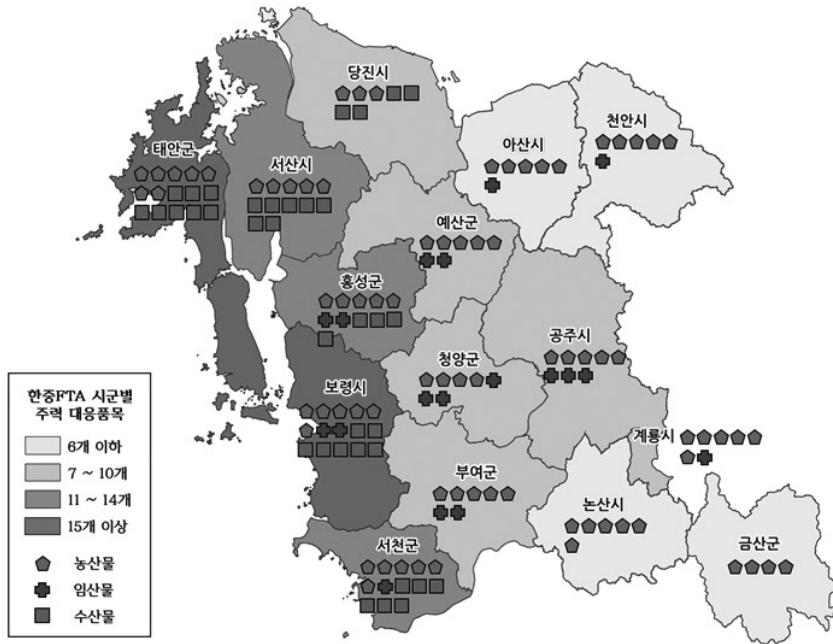
3. 충남의 시군별 피해품목 도출

중요도 계수를 바탕으로 한 충남의 시군별 피해품목 도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그림 2>와 같이 피해품목 프로세스를 3단계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품목을 도출하였다. (A)는 한중FTA로 인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품목을 의미하고, (B)는 충남의 농림수산물 품목 중 특화계수가 1 이상인 품목을 의미하며, (C)는 한중FTA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시한 피해예상 품목군을 의미한다. 충남의 피해품목 도출 결과 농산물은 13개, 임산물은 4개, 수산물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림 3>과 같이 앞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시군별 피해품목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서해안 인근에 있는「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이 농산물과 수산물 동시에 포함되어서 한중FTA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충남의 시군별 피해품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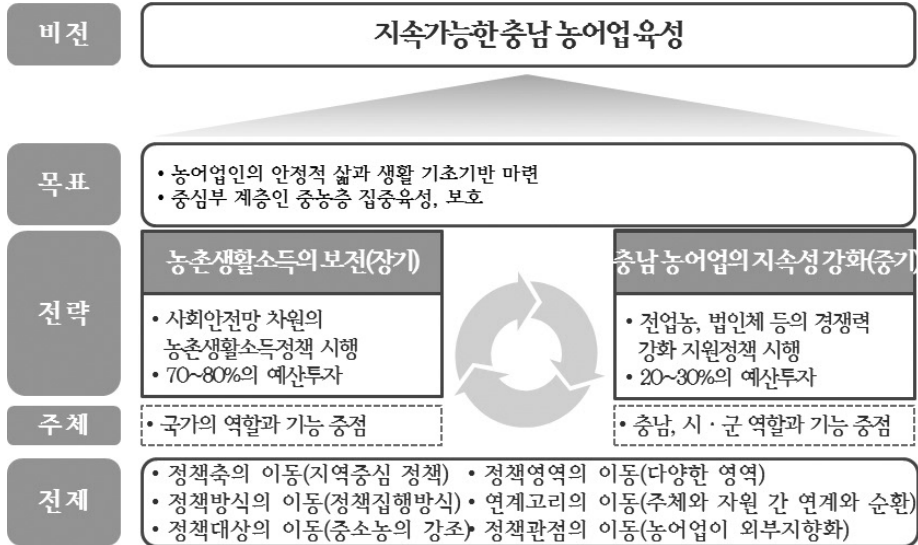
4. 대응방안

한중FTA로 인하여 충남의 농림어업 대응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몇가지 핵심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금번 한중FTA 발효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누적적인 피해 축적에 대한 포괄적 정책구상, 한중FTA에 따른 농어가의 심리적 위험인식 및 경영불안정성 심화 현상, 기존 FTA 대책내용에 관한 실효성에 의문 제기 및 정책신뢰도 저하 문제,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 지표 악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은 (과거,현재) 경쟁력 강화 정책일로에서 벗어나서 (미래) 농어가의 존립과 유지 기반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키워드는 다수의 중소농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 전업농을 살리는 농어업 지속성 강화, 기존 대책의 신뢰성과 실효성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집중이다. 이를 통해 충남 및 권역별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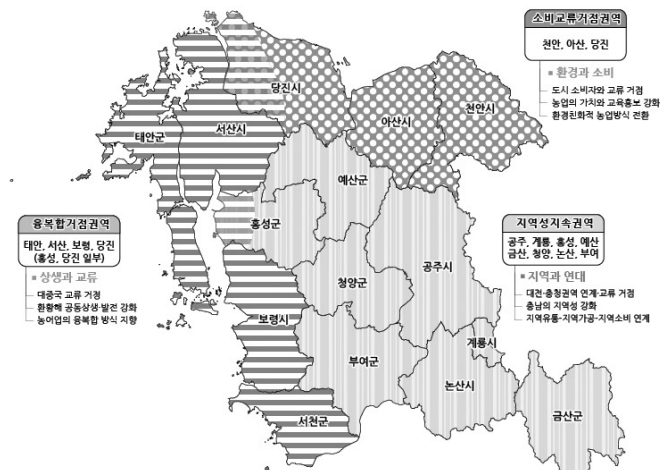
첫째, <그림 4>와 같이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 중 비전은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으로, 목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삶과 생활 기초기반 마련, 중심부 계층인 중농층 집중육성 및 보호”로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중기적으로 충남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도출하였다.

[그림 4]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



둘째, <그림 5>와 같이 충남의 권역별 대응방안 기본구상은 북부권을 소비자과 교류하는 거점 권역으로, 서해안권을 농어업의 융복합 권역이자 중국과 충남의 대중국 교류 거점 권역으로, 내륙금강권을 지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권역으로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즉, 북부권인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환경과 소비 측면 강조한 방향으로, 서해안권인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은 상생과 교류 측면 강조한 방향으로, 내륙금강권인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은 지역과 연대를 강조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권역별 대응방안 기본구상



5. 결론

한중FTA가 충남 농림어업에 미치는 직간접 피해액을 추정하여 정량적인 영향을 3가지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첫째,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직접 피해액은 38.7억 원, 둘째,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이도 대중국 연평균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간접 피해액은 897.6억 원, 셋째, 충남의 위험가구(한계가구)가 붕괴했을 때를 고려한 충남의 연평균 간접 피해액은 580.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충남의 피해품목 도출 결과, 최종적으로 농산물 13개, 임산물 4개, 수산물 12개가 도출되었고 시군별로는 서해안 인근에 있는「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이 농산물과 수산물 동시에 포함되어서 한중FTA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충남 및 권역별 농림어업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 중 비전은“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으로, 목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삶과 생활 기초기반 마련, 중심부 계층인 중농층 집중육성 및 보호”로 설정, 추진전략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중기적으로 충남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도출하였다.

둘째, 충남의 권역별 대응방안 기본구상은 북부권을 소비자와 교류하는 거점 권역으로, 서해안권을 농어업의 융복합 권역이자 중국과 충남의 대중국 교류 거점 권역으로, 내륙금강권을 지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마야 외(2015),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충남리포트 제199호, 충남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충청남도(2015),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최종보고서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 경 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백제지역에 속했던 충남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공주(옛 지명 熊津)와 부여는 북방민족의 문화를 잘 계승해 일본으로 전파했으며, 당진(唐津)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서산과 태안 지역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다. 백제의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와 교류를 하며 쇠락했던 백제를 부흥시키기도 했다. 부여에서 발견돼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한 금동대향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국의 향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한 이후 충남도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등 기독교사상이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일찍 개화사상이 싹트기도 했지만 이후 이어진 일제의 침탈과 뒤따른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충남도 또한 중국과의 교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전기지가 조성돼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했다.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약 47%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높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행정교류도 활발하다. 충남도는 1995년에 이미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지난해 20주년을 맞았고, 같은 해 1월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을 체결

했다. 또한 산둥성을 비롯 8개 성급 지역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구이저우성에도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15개 시·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현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 교류에 비해 공공 및 민간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2. 충남도의 대중국 지방정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1)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충남도는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2년이 지난 후인 1994년 10월 중국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 외 모두 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 참고).

교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1995), 쓰촨성과 상하이시(1998), 연변조선족자치구(2002), 지린성성과 장쑤성(2005), 랴오닝성(2010)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금년 10월에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헤이룽장성과는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및 교류활동 현황

구 분	단 체(체결일)	전체 교류 내용
자매결연	1. 허베이성 ('94. 10. 19)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 10. 9. 5명)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 ▶「청소년교류」 (9회, 92명)
	2. 헤이룽장성 ('15. 1. 28)	▶청소년 교류 ▶농업기술 및 정책연구 교류
우호협력	1. 산둥성 ('95. 10. 31)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 13. 8.15, 100명)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어학연수(' 09. 10, 산동대 15명) ▶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둥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 참가(' 01)
	2. 연변조선족자치주 ('02. 4. 16)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연변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 09. 9월) ▶농림·수산·환경·문화·관광·체육 교류 : 20회 223명 ▶청소년 교류 등(4회/44명)

우호협력	3. 지린성 ('05. 9. 26)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11. 9, 14명)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 ('05. 9. 27)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경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13.11) ▶환경분야 시책교류회 개최(매년)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09.-' 11, 동남대, 57명) ▶장쑤성 노인복지포럼 참가('11.10, 복지보건국장)
	5.쓰촨성 ('08. 9. 5)	▶쓰촨대지진('08. 5.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원)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10.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상하이시 ('08. 11. 3)	▶실국장 신도시 건설관련 벤치마킹('09. 2월) ▶기획실장 일행 상하이엑스포 초청 참가('10. 5)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상품전 개최
	7.라오닝성 ('10. 11. 3)	▶라오닝성 잉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방문('13. 4)
	8. 윈난성 ('13. 6. 5)	▶2000년 윈난성 쿤밍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 ▶우호교류협정체결 및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13. 6)
	9. 구이저우성 ('16. 4. 22)	▶(예정) 충칭남도의 날 행사 개최, 보건환경·관광·체육문화 교류, 사진전, 소도시 건설 등 7대 사업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2) 충남도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충남도 1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지역의 위치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이 중국과 교류·협력을 가장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서해안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지역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안은 산업과 문화(흥타령축제 관련)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아산은 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당진과 서산은 새로운 항로개설 관련해 중국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서산의 대산항과 산둥성 룡청시(榮城市) 룡옌항(龍眼港) 간 여객선 취항이 예정이다. 보령시는 상하이시 청푸구(靑浦區)와 오랜 동안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륙지역인 후베이성 마청시(麻城市)와도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안군은 관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매도시인 태안시(泰安市) 이외 지난해에는 산둥성 연해안 도시인 봉래시(蓬萊市)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해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륙지역지만 논산시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산둥성 지닝시(齊寧市)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공주시, 계룡시, 서천시, 예산군은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류활동이 저조하며 서천군

의 경우에서 서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5개 지자체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상품 시장 확대와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실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상담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약추진 건도 상당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중개 혹은 지원으로 중국의 각 지역 혹은 단체와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의료, 문화행사(축제 참가, 고대 뱃길 탐방 등), 농업, 교육 및 홈스테이, 통상, 종교(유교) 탐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의 대중국 통상교류 현황

1) 각 지자체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전체 교역량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점차 높아져 갔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가운데 충남의 대중국 교역량의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별 2013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3위이다.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5,590억 달러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충남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47%로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다. 충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2%로 나타났다.

[표 2] 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순위	지역	전체 수출	중국수출	비중	순위	지역	전체 수입	중국수입	비중
1	경기	102,005	32,547	32%	1	서울	128,640	28,635	22.3%
2	울산	91,513	14,395	16%	2	경기	102,150	26,027	25.5%
3	충남	65,185	30,856	47%	3	울산	83,915	1,971	2.3%
4	서울	60,316	17,935	30%	4	인천	38,660	5,402	14.0%
5	경북	53,765	14,502	27%	5	전남	44,655	920	2.1%
6	경남	51,859	6,921	13%	6	충남	33,980	3,131	9.2%
7	전남	41,402	11,851	29%	7	경남	28,496	4,508	15.8%
8	인천	27,288	4,395	16%	8	경북	17,181	2,897	16.9%
9	광주	15,868	1,400	9%	9	부산	13,471	3,870	28.7%
10	부산	13,263	2,441	18%	10	충북	6,509	1,70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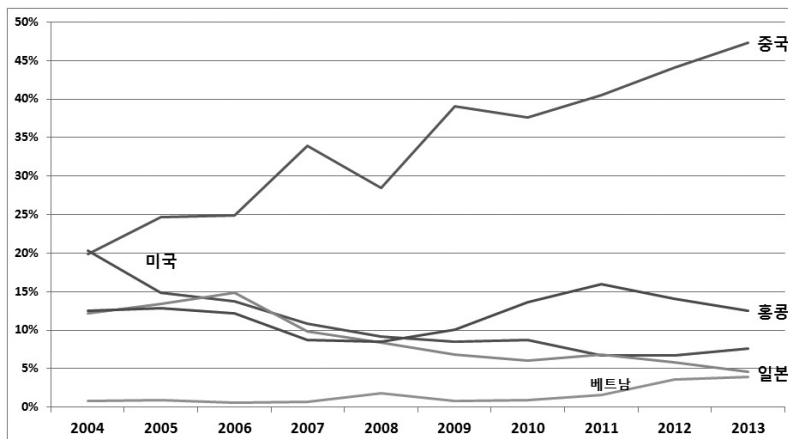
11	충북	13,735	4,516	33%	11	전북	4,470	972	21.7%
12	전북	10,116	1,351	13%	12	광주	4,915	479	9.7%
13	대구	7,012	1,626	23%	13	대구	3,532	1,470	41.6%
14	대전	4,030	894	22%	14	대전	3,341	744	22.3%
15	강원	2,173	232	11%	15	강원	1,411	297	21.0%
16	세종	904	255	28.2%	16	세종	1,058	379	35.9%
17	제주	103	4,876	5%	17	제주	260	29	11.3%
합 계		560,536	145,869	26%	합 계		516,643	83,432	16.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 12 기준)

2) 충남도의 수출 의존도 변화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위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충남도의 수출액 비중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 비중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33.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역(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림 1] 충남의 주요 수출국 변화 동향



4. 향후 과제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 및 경제교류 이외에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관광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방향과 초점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은 좋으나 교류·협력지역이 넓다보면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상품수출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는 최근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발돋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환황해권의 핵심국가인 중국, 특히 발해만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안 지역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가 황황해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의 북부 내륙지역인 헤이룽장성과 2015년 1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에는 남부 내륙지역인 구이저우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선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11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한 활동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만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충남도와 각 15개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충남도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간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하급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통상 교류사업 지원에서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전시와 판매 지원사업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 다수가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충남도에서 ‘서해안비전’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더 많은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 더욱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과 함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충청중국포럼,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본 내용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4)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했음.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

김 종 화 ■ 충남연구원

I . 서론

최근에도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EEZ 내에 침입하여 불법어업을 자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양국 EEZ 내의 어업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해역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자행하고, 단속 해경과 대치하는 등 날로 흉폭화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단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중국선장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고, 2012년 전남 홍도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 없는 실정이다. 또 중국이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우리 측의 단속행위를 문제 삼는 등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마찰 속에서는 우리나라는 해양주권 수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집행인 “단속”에 대한 타당성 또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EEZ 내 중국어선단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만석 외(2005)는 서해안 중국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4가지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어업인의 준법의식 변화, 법률 및 제도의 현실화, 불법어업에 대한 과감한 법 집행, 어업인·학계·행정의 협력이라고 하였다. 이종근(2010)은 서해안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실태 및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영역 확대, 어업감독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대영 외(2012)는 중국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응방안으로 불법어업 단속 강화, 정부 간 어업협력 강화, 민간 어업협력 확대, 대중국 어업정보의 수집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강지은 외(2015)는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 실태 및 증가이유를 살펴보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상 검문검색 절차의 명확화, 추적권에 대한 체계 구축, 위반자에 대한 억류 문제 개선, 불법어선 몰수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는 불법어업 실태, 단속제도 고찰, 불법어업 대응방안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단속”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EEZ 내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에 대한 최적의 행동전략을 도출하고, 그 행동전략으로서 “단속”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불법 중국어선단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단의 불법조업 규모는 연간 약 13,000~18,000여척으로 추정되고 있다(강지은 외, 2015).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는 약 67.5만톤, 연간 평균 1조3천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이광남 외, 2014). 불법 중국어선단은 주로 200~300척의 대단위 선단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단속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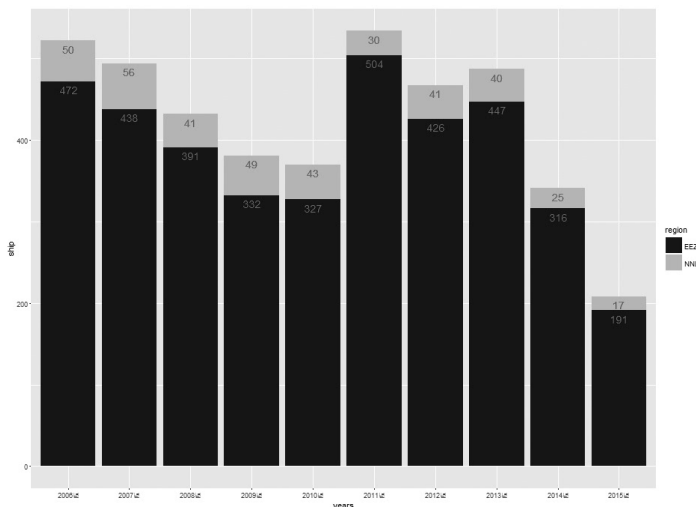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534건으로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2015년에는 208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¹⁾. 그러나 최근 10년 간 평균 424건의 단속실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어선의 국내 EEZ 내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꽃게 조업철을 맞아 서해안에서의 불법어업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중국어선단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수산업 발전에 따른 수산물의 수요 확대이다. 중국 수산물은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연 평균 생산은 4.7%, 수입은 3.8%, 수출은 15.7%, 소비는 3.0% 증가하였다(임경희, 2016). 수출과 소비의 합이 18.7% 증가한 것에 비해 생산과 수입의 합이 8.5%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중국 연안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일부 수역의 어장에서는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김대영 외, 2012), 동남연해 및 하이난(海南)섬 부근 해역에서는 산호초의 80%가 사라졌다(김유현, 2013). 셋째,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이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EEZ와 서해안 중앙부의 잠정조치수

1) 이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정부의 자체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단속실적만 감소하였다는 의견도 있음.

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EEZ 내의 상호입어와 잠정조치수역 내의 어업 및 수산자원의 공동 관리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 내의 어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EEZ 내의 조업으로 불법어업이 증가하였다. 넷째²⁾, 우리나라 EEZ 어장이 중국 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품종별 금어기 설정, 그물코 제한, 자율관리어업 및 어선감척사업 시행 등 수산자원 관리·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연안오염 및 남획으로 어장이 파괴된 중국어선에게 매력적인 어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 문제이다. 중국어선이 불법어업으로 단속되더라도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하고 담보금만 납부하고 어획물을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어, 중국어선이 단속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없다(강지은 외, 2015)³⁾.

[그림 1] 최근 10년 간 중국 불법어선의 단속실적



Ⅲ. 불법어업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형 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전략형 게임은 경기자, 전략, 보수라는 세가지 구성요소만을 갖추 게임형태이다(김영세, 2008). 먼저, 경기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어선단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서해안에서 불법어업과 단속의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주체이다. 정보에 있어서는 완전정보, 완비정보라고 가정할

2) 어업협정 이전에는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 외곽까지 접근하여 어업이 가능했으나, 이후에는 우리나라 EEZ 내에서는 할 당된 조업허가증을 소지한 어선만이 조업이 가능함. 한중 양국은 2015년 EEZ 내 상호입어 규모를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하였음.

3) 3대 엄중위반행위는 무허가어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임.

수 있다⁴⁾.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어선단은 그동안 불법어업과 단속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상호 간의 대응전략과 특성을 알고 있는 완전·완비정보이다.

[표 1] 서해안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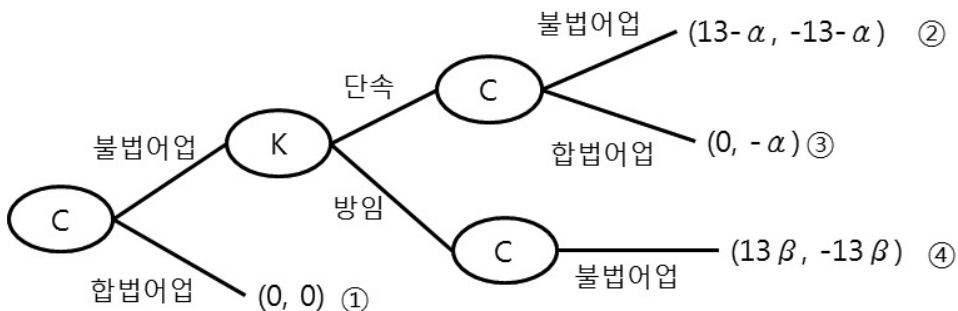
- ◆ 경기자
 - N1: 중국어선단, N2: 대한민국 정부,
- ◆ 가정
 -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EEZ 내에 침범하는 것을 불법어업,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합법어업으로 가정
- ◆ 보수
 - 불법어업에 따라 수산자원 손실액이 1조3천억원이므로 최대 보수 13
 -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EEZ 내에 침범하지 않을 경우 보수 0
 -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경비 α
 - 중국어선단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13의 β 배 손실액 발생

[표 2]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전략형 게임

		대한민국 정부	
		단속	방임
중국어선단	불법어업	$13-\alpha, -13-\alpha$	$13\beta, -13\beta$
	합법어업	$0, -\alpha$	$0, 0$

<표 2>의 전략형 게임으로 전개형 게임으로 바뀌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전개형 게임이란 경기자, 선택의 순서, 정보의 종류, 행동과 전략, 결과 및 보수를 명시한 게임 나무(game tree)로 정의 된다.

[그림 2]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전략형 게임



주 : C(중국어선단), K(대한민국 정부)

4) 불완전정보는 각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완비정보는 각 경기자가 상대방 경쟁자의 특성 혹은 유형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김영세, 2008).

<표 2>와 같은 전략형 게임에서 순수전략조합은 $S=\{(불법어업, 단속), (불법어업, 방임), (합법어업, 단속), (합법어업, 방임)\}$ 으로 4가지이다. 첫째, (불법어업, 단속)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양국의 보수체계를 보여준다. 중국어선단은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어업으로 13의 보수를 얻게 되나, 단속에 따른 물적·인적 등의 경제적 손실로 $13-\alpha$ 의 보수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어선단의 보수 13만큼의 손실에 단속 소요경비를 합하여 $-13-\alpha$ 의 보수를 갖게 된다. 이는 전개형 게임의 ②에 해당된다. 둘째, (불법어업, 방임)의 경우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중국어선단은 β 배만큼의 추가된 보수 13β 를 얻고,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손실된 -13β 의 보수를 갖게 된다. 전개형 게임의 ④에 해당된다. 셋째, (합법어업, 단속)의 경우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에 우리나라 정부가 단속으로 대응하여 불법어업이 합법어업으로 전환되면, 우리나라만 단속에 따른 소요 경비 $-\alpha$ 의 보수를 갖게 된다. 전개형 게임의 ③에 해당된다. 넷째, (방임, 합법어업)의 경우는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도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 0의 보수를 갖게 된다. 전개형 게임의 ①에 해당된다.

중국어선단의 최대보수를 갖게 하는 전략조합은 (불법어업, 방임)이다. 그러나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에 우리나라 정부가 해양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어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전략은 (불법어업, 단속)이다. 현실적으로도 3대 엄중위반행위가 아니라면 단속되더라도 담보금만 내면 어획한 자원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단속을 감내하더라도 불법어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전략이 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조합은 (합법어업, 방임)이다. 그러나 이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어선단의 합리적 선택과 배치되므로 단속에 따라 불법어업이 합법어업으로 전환이 되는 (합법어업, 단속)이 최적의 전략조합이 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보수 크기를 보면 (합법어업, 단속), (불법어업, 단속), (불법어업, 방임) 순이므로 중국어선단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행동전략은 “단속”으로 귀결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의 행동전략을 게임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최적의 행동전략이 “단속”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단속”은 우리나라 해양주권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위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다. 그리고 중국어선단도 또한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단속을 감내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불법어업, 단속)의 사이클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법 중국어선단에 대한 어획물 몰수, 어선 몰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중국정부,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공조·협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지은·최석윤(2015),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해사법연구, 27(1), 한국해사법학회, pp83-110.
- 김영세(2008), 게임이론, 제4판, 박영사.
- 김유현, 중국 연안 오염으로 산호초 80% 사라져, 대기원시보, (2013.01.18.일자).
- 김대영 외(2012),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서만석·김일평(2005), 우리나라 서해 중남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pp170-179.
- 이광남·정진호(2014),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수산경영론집, 45(2), 한국수산경영학회, pp73-83.
- 이종근(2010), 불법어업 단속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2(3),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pp303-315.
- 임경희(2016),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상품화 방향 토론회 자료집, 수산경제연구원.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 인 성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 중국 남색경제정책의 개요와 추진 배경

중국에서 “남색경제”(蓝色经济: Blue Economy)란 용어는, 해양경제(海洋经济)를 가리키고, 보다 넓게는 순환경제(循环经济)를 가리키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남색경제는 해양 자원 개발과 해양공간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생산활동과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산업활동과 경제집합을 포함한다. 중국의 남색경제는 1990년대 이래 두자리수의 연평균 증가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활동범위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증가속도가 중국 전국 국민경제 평균 성장율은 물론 동부연해지구의 평균 성장률 보다 높고, 해양산업 발전속도가 전체 산업 평균 발전속도 보다 빠르다. 한편, 이 같은 추세와 특성이 중국뿐만 아니라 바다에 연한 국가와 지구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남색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배경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979년 덩샤오핑이 해군건설 관련 근해방어(近海防禦)의 전략 사상 제출.
- 1980년대부터 동부연해지구 개방정책 실시, 연해지구 우세자원을 이용하여 외향형 경제 발전으로 동부연해지구의 지속적 고도성장 실현.
- 1996년 3월, ‘9차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강요’ 내용으로 “해양자원 조사 강화, 해양산업 개발, 해양환경 보호” 제시.
- 1998년 5월, 중국정부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백서인 ‘중국해양사업의 발전’을 발표하고, “인류가 해양을 개발하는 신세기에 발전중인 ‘연해대국(沿海大國)’으로서 지속적인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필히 해양의 개발과 보호를 장기적 전략임무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

- 2000년대 진입 이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이 가속화되고 전략자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절박해지면서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했고, 2002년 중공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개발 실시’ 전략 채택.

- 2003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해양경제발전강요’에서 중국 최초로 “해양강국 건설”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해양강국 전략 추진을 시작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 확보가 중대한 문제로 부상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7년 중공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산업 발전’방침을 제시했고, 2009년에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해양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해양산업을 ‘남색경제’로 집중 육성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육지경제가 당면한 병목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해양경제에서 찾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계획인 12차 5개년계획(十二五規劃: 2011~15)에서 “해양경제업무”를 독립 장(章)으로 포함하고, 해양경제의 발전사상노선(思路)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즉, “육지와 바다의 통합 견지, 해양발전 전략 제정 및 실시, 해양개발·규제·종합관리능력 제고”이다.

2. 중국 남색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1) 국가 남색정책 추진동향

중국에서 해양산업이란,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가리키며, 어업, 제염, 조선, 해운·항만·물류 등의 전통 해양산업과 해양석유가스, 해양 양식업, 해수담수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신흥해양산업을 포함한다. 한편, 산업통계기준으로는 1차산업(해양어업), 2차산업(해양 석유·가스·광물 채굴 및 가공, 해양 제염 및 가공, 해양화학업, 해양생물의약품, 해양전력업, 해수담수화, 해양선박공업, 해양공정건축업), 3차산업(해양교통운수업, 해양관광업)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이 이념 인식 단계에서 현실 실천 단계로 전환한 것은, 2012년 11월,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향후 5년 국가발전 아젠다와 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2013년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 시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해양강국 건설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라 강조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즉,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해양권익 4개 방면에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그해 9월과 10월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시에는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구상을 발표한 후에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중앙과 중국정부“신(新)해상실크로드(一路)”와 연계한 남색경제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실천해 오고 있다.

이어서 중국 국무원은 지구별로 특화된 해양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동부 연해지구인 산둥성, 저장성(浙江省), 광둥성, 푸젠성(福建省) 4개 성(省)에 ‘남색(藍色)경제구’를 지정했다. ‘남색(藍色)경제구’ 지정 비준을 받은 이후에 이들 4개 성 정부는 각각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그리고 푸젠성은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계획’을 수립·시행중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13차 5개년계획(十三五規劃: 2016~2020)에서는, 총 20편 80장으로 구성된 계획내용중 제41장이 해양경제 전문 장으로 포함되었다. 즉, “남색경제공간의 확장”이란 제목 하에, 육지와 바다의 통합 건지, 해양경제 발전, 해양자원 과학적 개발,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권익 보호, 해양강국 건설을 소재목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장절에도 남색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술한 제 41장은 다시 3개 절로 구분된다.

제 1절은 해양경제 육성 관련 내용으로, 해양산업구조 특화, 원양어업 발전, 해수(海水)담수화의 규모화 응용 추동, 해양생물의약 발전 지원, 해양장비제조 등 산업 발전, 해양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발전, 탐수(深水), 녹색(綠色), 안전에 중점을 둔 해양고기술 영역 돌파 획득, 지능형 스마트 해양공정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역 및 해도(海島)자원의 시장화(市场化) 배치방식을 혁신(創新)한다. 산둥성, 저장성(浙江省), 광둥성, 푸젠성(福建省), 텐진(天津)직할시 등 국가급 해양경제발전시범구(海洋经济发展试验区)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하이난성(海南省)이 남중국해(南海)의 자원우세를 이용해 해양특색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칭다오(青島) 남색실리콘벨리(藍谷) 등 해양경제발전시범구(海洋经济发展示范区)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2절은 해양자원환경보호 강화 관련 내용으로, 해양생태계를 기초로 하는 종합관리 실시, 해양주체기능구(海洋主体功能区) 건설 추진, 연안(近岸)해역 공간배치 특화, 개발 강도의 과학적 규제, 그리고 간척규모 엄격 규제, 해안지대 보호 및 수복 강화, 자연해안선 보유율을 35% 이상으로 유지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획 강도 엄격 규제와 휴어(休漁)제도 실시,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 강화, 극지대양(極地大洋)에 대한 과학적 고찰 추진, 그리고 육지배출 오염물 해양 투기와 오염배출총량 규제제도 실시, 해양자원환경 수용능력 예비경보기제와 해양생태홍선(紅線) 제도 건립, “남홍북류(南紅北柳)¹⁾”습지수복공정과 “생태 산호섬(島礁)”공정 추진, 해양희귀생물품종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양기후변화연구 강화, 해양재해감측, 위험평가, 방재 및 감재 능력 제고, 해상재난 선제구조전략 강화, 해상돌발환경사고 응급능력 강화, 그리고 해양감독 일상화 제도 실시 등이다.

제3절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의 유효한 유지 보호 관련 내용으로, 해상 법집행기구의 능

1) “南紅北柳”란 남부에는 ‘홍수림(紅樹林)’을 북부에는 ‘청류림(桴柳林)’ 수종으로 숲을 조성한다는 의미이고, 중국해양발전연구회가 중공과 중국정부의 해양생태문명 건설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연구과제명이다. 청류(桴柳)는 염분이 많은 알칼리성, 건조지구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으로, 산둥성 연해지구 일대에도 널리 분포해 있다. 염분과 오염물질, 재해 감소와 방사조림, 염화지구의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양생태 보호와 개선에 매우 중요한 수종이다.

력 강화, 해양관련 역사문제와 법리연구 심화, 각종 수단 유지보호와 국가해양권익 확대 및 통합운용, 해상권리 침해 행위에 적절히 대응, 아국 관할 해역의 해상항행자유와 해양통도 안전을 양호하게 유지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및 지구 해양질서 건립과 유지 보호에 적극 참여, 주변국가와 해양관련 대화 합작기제 완비, 해상실무합작 추진, 그리고 해양관련 사무협조기제 진일보 완비, 해양전략 상층(顶层)설계 강화, 해양기본법 제정 등이다.

또한, 이 장(41장)에는 “남색경제공간의 확장(拓展蓝色经济空间)”이란 제목 하에, 해양 중대공정(海洋重大工程)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전문난(专栏)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해만(海湾)의 남색(蓝色) 정비로, 자오저우만(胶州湾), 랴오동만(辽东湾), 항저우만(杭州湾), 샤먼만(厦门湾), 베이부만(北部湾) 등에서 수질오염 정비와 환경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인조 사질(沙质) 해안선과 자연해안선을 증가시키고, 해안원생경관(海岸原生风貌景观)을 회복하고, 또한, 랴오동만, 보하이만(渤海湾) 등 간척지구에 보상성 환경정비와 인공습지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심해 탐사 잠수함인 ‘자오룽(蛟龙)’ 관련 기술 및 장비 성능 제고 추진계획 등이다.

2) 주요 시범지구별 관련정책 추진동향

①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2011년,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개혁발전 시점(试点) 업무추진방안” 수립 및 추진 이래, 산둥성위원회와 성(省)정부가 “산둥반도 남색(蓝色)경제구 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해양경제과학 발전, 국제선진수준을 구비한 해양경제개혁발전시범구 건설, 해양경제의 지속적 고속발전을 추진해 온 이래, 해양경제가 산둥성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고, 중국 전국 해양경제중의 지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건설에 따라, 해양경제의 총체실력이 현저히 상승했고, 해양산업구조가 부단히 특화되었다. 연해항구운수, 관광업 등 해양 3차산업이 빠르게 발전했고(전년대비 8.8% 증가), 해양과학기술 지지능력이 현저히 증강되었다. 산둥성내의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3개 시를, 중국 최초의 해양고급기술산업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해양생태문명 건설 방면의 성과로는, 해양생태문명건설시범구 건립 부분에서 중국내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시와 창다오(长岛)현이 제1기 국가급 해양생태문명시범구로 선정되었고, 웨이팡(潍坊) 창읍(昌邑) 등 10개 성급 해양생태문명시범구가 건립되었다. 2014년 현재, 산둥성내에 국가급 해양공원 9개, 국가급 해양보호구 30개, 각 유형별 성급 이상 해양보호구 67개이다.

또한, 훼손 해안선의 74% 정비, 해양종합관리수준 안정적 향상, 동태적 해역 감독관리, 해양감시감측과 해양어업안전환경보장서비스 시스템 건립, 그리고 해상실크로드 건설 방

면에도 진전이 있었다.

산둥반도 남색(藍色)경제구의 다음 단계 중점 업무는,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路一帶)”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전략기획 장악, 남색(藍色)발전 신공간 개척 가속화, 원구(園區)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해양산업 집적 건강발전 추동, 산업의 전형승급(转型升级)과 해양경제구조 특화 혁신 추진, 생태문명건설 강화, “아름다운 산둥(美丽山东)” 신전범(新典范) 수립, 산둥성 해안선 보호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저장성(浙江省) 해양경제발전시범구

2011년 2월, 국무원이 저장(浙江)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계획을 비준하고, 이어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저장(浙江) 해양경제발전 시범지구 업무추진방안 비준했다. 이후, 저장성(浙江省)위원회와 성(省)정부는 “해양 강성(强省)”전략 관철을 위해 해양경제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그 결과, 해양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특화되었고, 현대해양산업 비교적 빠르게 발전중이다. 또한, 기초시설이 빠른 속도로 완비되었고, 항구운항 서비스능력이 강화되었고, 해양과학교육사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저장(浙江) 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다음 단계 중점 업무는, 해양경제발전 체제 및 기제(機制) 혁신과 저우산(舟山) 내륙해운 연계운항 서비스중심 건설,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신구(新区) 건설, 현대해양산업발전 추진, 그리고 국가 “一帶 一路” 건설전략과 “장강경제지대” 발전전략과 연계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텐진(天津)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

2013년 9월, 텐진(天津)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 계획과 텐진 해양경제과학발전 시범지구 업무추진방안을 중국 국무원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동시에 비준했다. 이후, 조직적 지도와 협조가 강화되었고, “1핵, 2지대, 6구” 해양경제공간배치가 부단히 완비되었다. 또한, 해양산업구조의 전형승급이 진행되었고, 해양과학기술 혁신 발동과 해양생태환경보호 역할이 강화되었고, 금융에 의한 해양경제발전 촉진 효과가 증대되었다.

텐진(天津)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의 다음 단계 중점 업무는, 정책 및 전문분야 부문별 계획 수립 실시, 구역시범 추진

금융창신 추동, 과기흥해(科技兴海) 전략 추진, 텐진시 “과기흥해 행동계획(2010-2015)”의 실시현황 평가, “과기흥해 행동계획(2016-2020)” 수립, 해양경제조사와 통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둥해양경제종합개발시험구(2011. 8)과 푸지엔(福建) 해협남색경제시험구(2012. 11) 관련 내용 개요는 <표 1>의 내용으로 같음한다.

[표 1] 중국 4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 발전계획 비교

구분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
계획명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	광둥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계획
발표시기		2011.1	2011.3	2011.8	2012.11
개발기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면적	해역	15.9만km ²	26만km ²	41.9만km ²	13.6만km ²
	육지	6.4만km ²	3.5만km ²	8.4만km ²	5.47km ²
대상지역		靑島,烟台,东营,潍坊,威海,日照,滨州(7개시)	杭州,宁波,温州,嘉兴,绍兴,舟山,台州(7개시)	广州,深圳을 포함한 14개시	福州,厦门 등 연해 6개시
해양산업 총액(2011)		7,892억원	4,500억원	9,800억원	4,420억원
전략위상		자원개발, 생태환경, 국제협력	산업업그레이드, 육해 종합발전	해양경제 종합발전, 지역경제파급효과	양안 해양협력, 해양산업 클러스터 유

※ 자료 : 국무원 4대 지역 해양경제발전계획, 중국해양통계연감, 2011

3. 주요 관련정책 추진 동향

2012년 9월 16일, 중국 국무원이, “전국해양경제발전 12·5계획”을 발표하고, 12차5개년 계획 기간 해양경제발전의 주요목표와 중점임무를 확립했다. 이것이 이후 중국 해양경제발전정책의 행동강령이 되었다. 주요 정책동향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1월에는 국무원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주도하여 “전국해양경제발전촉진 부서간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연석회의”의 주요 직책, 40여개 부문과 단위의 상관업무와 기제(机制)를 명확히 했다.

- 성(省)급 해양경제발전 영도소도(领导小组) 및 협조기제와 해양경제발전영도소조를 건립하고 연해지구 대부분 성(省)위원회, 성(省)정부 주요 지도자(领导)가 주도했다. 특히, 산둥, 저장(浙江), 광둥, 푸지엔(福建), 텐진 5개 해양경제발전시험지구 성(省), 직할시는 유력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다.

- 저장(浙江)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신구, 칭다오 서해안신구 등 해양경제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가급 신구(新区)를 설립했다.

- 동시에, 해양산업 대외합작을 확대하고, 해양경제의 “해외진출(走出去)” 보폭을 가속화했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실시에 따라, 주변 국가와 “5통(通)”, 즉, 정책소통(沟通), 시설연통(联通), 무역순통(畅通), 자금유통, 민심상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해외 주요항구 운영권 획득(파키스탄 과다열항과 스리랑카 콜롬보항 등)과 버마 자오파오 심수항 등 투자 및 도급공사를 수주했다.

- 싱가포르, 호주와 관광, 교육훈련 등 합작협의를 체결했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인도네시아 해양 및 기후 연합연구중심”을 건립했다.

- 태국과 “중-태 기후 및 해양생태계통 연합실험실 건립에 관한 안배 협약” 체결

- 최근 10년간, 중국과 해상실크로드 연선 국가들과의 무역액 연평균증가율 18.2%, 중국 대외무역총액 점유비중이 14.6%에서 20%로 증가했다. 중국기업의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 2.4억달러 92.7억달러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 아세안(东盟) 국가들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선 선택하는 출국관광 목적지가 되었다. 중국 공민중, 아세안 국가로 출국한 인원수가 중국인 전체 출국관광관광객수의 약 1/3을 점하고 있다. 2015년 6월 29일에는,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금융지원 기구인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AIIB)협정’ 체결식이 거행되었고, 50개 창립회원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4. 남색경제정책의 성과

중국정부가 남색경제정책을 중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3년 이후 이므로, 그 정책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취득가능한 자료와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중국 전국 해양생산총액은 5조 9,936억위안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4% 증가했고, GDP 점유 비중 9.3% 이상을 유지했다. 해양경제의 1, 2, 3차 산업구조는 2010년 5.1: 47.8: 47.1에서 2014년에는 5.4: 45.1: 49.5로 되었다. 또한, 2014년 중국 전국에서 해양관련 취업자수가 3,554만인으로, 중국 전국 취업인구의 4.6%를 점했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체인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과학기술, 교육, 금융, 환경보호 등 연관산업 발전을 대동하고 있다.

- 전통적 해양산업의 총체적 안정과 전형승급(转型升级)이 가속화되었고, 해양어업, 해양선박공업, 해양가스업 등 해양전략성 신흥산업의 성장속도가 빨랐다. 또한, 해양공정장비제조업, 해수이용업, 해양약물·생물제품업, 해상풍력발전도 진행되었다.

- 해양교통운수업과 해양서비스업 대동(帶同)효과와 해양경제 발전 지원효과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 해양관광업 11.2% 증가(2011-2014), 해양관광업구조 진일보 특화, 관광형에서 여가휴양형으로 전변(转变), 연해도서 관광개발 가속화 크루즈, 유람선 등 신흥 관광업태 부단히 성장발전, 해양휴가지구, 해양주제공원 등 신행 관광사업 점진적 발흥, 중요 선박침몰 유적지의 수중 발굴과 보호지구 건설 등.

- 해양경제 배치가 부단히 특화되었고, 연해지구 특색 발전이 돌출되었다.

- 북부해양경제구: 보하이(渤海), 항하이(黄海)에 면한 3 성(省) 1 직할시, 즉, 랴오닝(辽宁), 허베이(河北), 텐진(天津), 산둥.
- 동부해양경제구: 동중국해(东海)에 면한 2성(省) 1직할시, 즉, 장쑤(江苏), 상하이, 저장(浙江)
- 남부해양경제구: 동중국해(东海)와 남중국해(南海)에 면한 3성(省) 1자치구, 즉, 푸젠(福建), 광둥,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 “과기흥해(科技兴海) 전략” 추진에 따라, 해양산업과학기술 혁신(创新)성과 풍성해 지고, 응용 전화(转化) 속도가 빨라졌다.

- 8개 국가해양고기술산업기지 실험지구 설립: 광저우(广州), 잔장(湛江), 샤먼(厦门), 저우산(舟山),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텐진(天津)

- 6개 전국해양경제창신발전구역시범: 산둥, 저장(浙江), 푸지엔(福建), 광둥, 텐진, 장쑤(江苏)

- 7개 국가“과기흥해(科技兴海)”산업시범기지: 상하이 임항해양고급신기술산업화기지, 랴오닝(辽宁) 따리엔(大连)현대해양생물산업시범기지, 장쑤(江苏) 따핑(大丰)해양생물산업원, 푸지엔(福建) 자오안(诏安) 진두(金都)해양생물산업원, 칭다오(青岛)해양신형산업시범기지, 샤먼(厦门)해양생물산업시범기지, 광저우 난샤(南沙)신구 “과기흥해(科技兴海)”산업시범기지

- 3개 공정기술중심: 해양생물자원종합이용공정기술연구중심, 해양원격계측공정기술연구중심, 국가해수이용공정기술연구중심

• 해양기초시설 건설 방면에서 약진 발전했고, 공공서비스능력이 진일보 제고되었다.

• 전국 해양경제발전시험지구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 해양경제정책 시책 건실하게 실시, 해양경제관리체제 진일보 완비(完善)

5. 중국 경험의 교훈

중국정부의 남색경제발전정책 추진경험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강력한 조직 영도(领导)를 각 부문, 단위간 협조 안배의 기초로 하고 있다.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주도하여 “전국해양경제발전촉진 부서간 연석회의”를 건립했다,

• 연해지구에 “1체제+3개 기제”를 건립했다.

- "1체제"는 성, 시·현에 당위원회와 정부 주요 책임자가 "해양경제업무영도기구" 조장을 맡고, 해양경제발전 관련 중요문제와 협조해결 중대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 토론하고,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유력한 조직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 "3개 기제"는 추진기제, 평가기제, 선전기제로, 각 지구별로 국무원 유관부문과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자원, 자금, 발전방향, 중점 및 경로 등을 적실하게 강화하고, 여론과 선전업무를 강화했다.

- 산둥성은, 성(省), 시(市), 현(县)에 모두 남색경제구 건설공작 영도기구를 설립하고, 각 층 당위원회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조장을 맡았다.

- 저장성(浙江省)은, 저장(浙江)해양경제발전시범구공작영도소조 조장은 성(省)위원회 서기이고, 저장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신규 공작영도소조는 성장(省长)이 조장을 맡았다.

• 국가상위정책 설계와 혁신(创新)체제기제를 핵심으로 했다.

-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해양관련 부문과 해양경제거시관리 등 상층(顶层)설계, '전국 해양경제발전 12·5계획'을 수립 실시했다.

- 각 연해지구는 시·현계획을 기초로 계획체계를 건립, 각 지구 해양경제 발전의 지도사상, 발전원칙, 전략위상, 발전목표, 공간배치, 중점임무, 그리고 조장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 이 과정에서, 지방 실재에 부합하는 해양경제발전 촉진과 연계된 의견을 제출했다.

• 지역 특색 돌출과 산업 집적화(集群化)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 국무원이 주도하여, 저장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신규(新区), 칭다오(青岛) 서해안신구 등 해양경제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가급 신규(新区)를 설립했다.

-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국가해양국 등이 주도하여, 해양경제창신발전구역시범, 해양고기술산업기지시험지구(试点), "과기흥해(科技兴海)"산업시범기지를 건설했다.

- '12차 5개년계획(2011-15)'기간 산둥성정부가 18개 성급 해양특색산업원을 승인했고, 21개 해양산업기술창신연맹 건립을 지원했다. 2015년 현재 전성 시급 이상 해양특색원구가 65개, 집적기업이 4700여 개이다.

- 저장성은 규모 우세가 강하고, 해양산업집적도가 높고, 시범대동(带动)작용이 현저한 해양특색산업기지 25개를 육성한다는 계획 수립후, 해양산업집적발전을 추동 가속화하고 있다.

• 해륙(海陆)연동통합,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 '12차 5개년계획(2011-15)'이래, 중앙정부와 연해지구 지방정부 모두 해양생태환경보호와 해양지속가능 이용 원칙을 고도로 중시하고, 해양자연규율을 준수하고, 보다 큰 공간척도와 발전범주에서 육지와 해양의 자원환경을 유효하게 통합관리하고, 해양과 해안에 대

한 지속 및 안전, 그리고 집약 및 고효율 개발이용을 지지하고, 자원환경과 조화되는 해양경제발전모델과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육해(陸海) 경제연동과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제발전과 해양자원, 해양생태환경과 상호 협조하는 해양공간개발이용보호 틀을 진일보 추동 형성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해양국이 조직하여 ‘전국해양주체기능구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안

송 두 범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2014년 1억명을 돌파하여 세계관광시장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관광객의 방한 규모는 2000년 44만명에서 2014년 612만명으로 급증하여 방한관광객중 43.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관광객은 주로 서울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방한하고 있으며, 관광패턴도 단체관광, 저가관광, 도시중심 소비형, 쇼핑·유흥오락 중심의 단순관광 형태이다. 그러나 MERS사태를 계기로 양적성장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장병권, 2015).

또한,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의 2극방문패턴(서울권, 제주권)을 전국 전역으로 다극화 할 필요가 있다¹⁾.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나 공항 및 항만,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 중국관광객 유인기반이 부족하여 중국관광객 유치에 소극적이었다.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환황해권시대를 선포하고, 항만, 공항,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적극적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중국관광객 친화도시”²⁾ 선언, 충남의 관광수용태세의 개선,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자원 및 컨

1) 2014년 중국인 방문지역으로 서울(77.8%), 제주(34.2%)이나, 충남은 0.4%에 불과하다. 충청권 중에서는 1위가 엑스포과학 공원, 금산인삼타운, 아산외암마을, 유성, 계족산 황토길, 독립기념관, 대청호반 등의 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5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5).

2) 2012년 스페인의 세비아(Sevilla)가 ‘중국인 친화도시(Chinese Friendly City)’ 표창, 2015년 부산시 역시 ‘중국관광객 친화도시’를 선언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역시 쇼핑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을 통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텐츠 발굴육성 등을 통해 차이나벨트를 조성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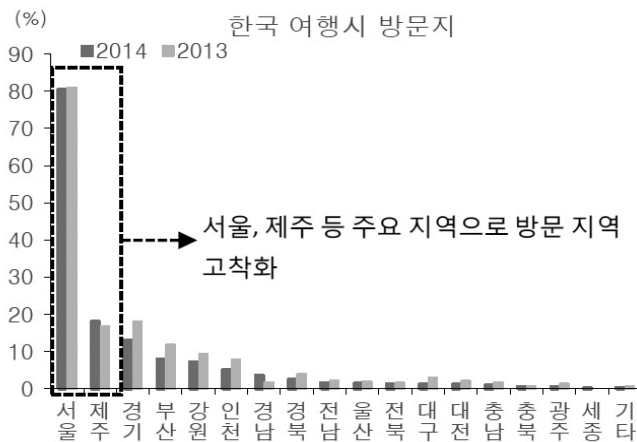
Ⅱ. 중국인의 관광패턴 변화

현재 중국인의 해외여행비율은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여³⁾,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여행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개정된 중국여유법으로 단체관광객이 줄고 개별 자유여행으로 유도하고 있다. 방한 선택시 고려요인으로는 쇼핑, 자연풍경 감상, 음식·미식체험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이 62.5%, 연령은 21-40세가 46.1%, 8월에 12.4%, 관광이 77.9%를 차지하고 있다. 입국은 인천공항(44.9%), 제주공항(26.8%), 인천항(9.3%), 김포공항(3.4%)의 순이다. 중국인의 방한특성을 1회 방문, 관광, 쇼핑, 호텔, 서울/제주권, 개별, 쇼핑 등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표 1] 한국방문 외국여행자들의 여행목적(중국관광객 및 전체관광객)

(복수응답)	중국관광객				전체관광객	
	2013	%	2014	%	2014	%
1위	쇼핑	82.8	쇼핑	87.7	쇼핑	74.0
2위	식도락관광	47.7	식도락관광	60.7	식도락관광	46.4
3위	시티투어	23.2	자연경관감상	42.7	자연경관감상	31.7
4위	자연경관감상	20.4	고궁역사유적	24.8	고궁역사유적	27.2
5위	고궁역사유적	13.0	유흥오락	10.5	업무수행	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KERI한국경제연구원,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관광공사, 유진투자증권

[그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관광지역 쏠림현상

3) 일본 15%, 한국 28%, 대만 45%

한편,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저가 여행상품, 단체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 대형 항공편위주의 운송수단, 혼이 없는 관광안내 서비스, 미온적인 관광불평·불만처리, 중국관광객을 위한 보건위생 서비스 경시, 초행자 중심의 물량적 관광객 유치, 쇼핑·유흥 오락중심의 단순 관광형태, 수도권 및 제주중심의 방문형태의 고착화, 도시중심의 소비형 관광패턴을 도출할 수 있다(장병권, 2015).

따라서 충남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은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차이나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Ⅲ. 중국인의 맞이하기 위한 충남의 노력

국내 타 자치단체들의 대중국 관광정책을 정리해보면 중국인 대상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개선, 공항 및 항만, 크루즈 해양관광활성화,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과 관광프로그램 육성,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홍보와 마케팅, 중국인 관광표지 및 안내 서비스 향상, 관광해설사 및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과 인력양성, MICE관광과 의료, 한류관광 육성 등과 같다(박인성, 2015).

반면, 충남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본청 차원에서 중국지역 설명회, 중국 기업가 초청 팸투어, 관광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충남내 각 시군들은 중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지역과 문화/의료/농업교류/투자 등 일반적 교류협력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신항과 롱옌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둔 서산시의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중국현지여행사 및 한국주재 중국기자단 팸투어, 한중 노인 및 청소년문화교류행사, 중국 현지 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등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외관광설명회, 국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Ⅳ. 충남 차이나벨트 조성방안

충남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국인 관광객 방문에는 변방의 위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의 성향, 충남에 대한 관광인지도 부족, 충남의 관광기반 및 상품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으나, 기존의 쇼핑, 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관광패턴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상황을 정확히 읽으면서 한 두 개 시군이 각개 대응하는 중국인 유치전략 마련이 아니라,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협력·제휴하는 충남 차이나벨트조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2015년 충남 서해안시군을

중심으로 ‘환황해권행정협의회’(서산, 보령, 당진, 홍성, 서천, 태안)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첫째, 중국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서산공항 민항기⁴⁾ 및 대산항 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면세점을 개설하여 중국인 관광객 취향에 부합하는 화장품, 충남의 안전한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 판매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물론 충북의 청주공항과도 여객을 공유하고, 관광지도 충청권이 함께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충남의 차이나벨트 조성은 지금까지와 같은 이삭줍기식 관광객 유치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친화도시(CHinese Friendly City)라는 보다 적극적인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이라는 맥락이 필요한 것이다. 충남 서해안지역은 관광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중국인 친화도시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토대위에서 차이나벨트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환대, 중국어 병기 지도 및 안내표지판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인들이 충남과 역사적으로 긴밀히 교류했고, 그러한 역사적 유적들이 차이나벨트를 조성을 핵심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는 서해안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고, 구체적인 유적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였다는 태안군 안흥정, 임진왜란시 왜군을 토벌한 공덕을 기린 보령시 오천면 계금장군청덕비, 공주의 정방뜰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역사적 고증을 통해 더 많은 유적을 발굴하여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공주 및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와의 연계와 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규명해 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해임시정부 청사나,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넷째, 중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는 그럴듯한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서산시에는 서산수 호텔엔리조트, 금년 완공예정인 ‘베니키아’ 특급관광호텔(객실 197실)이 신축중에 있고, 태안군에는 ‘리츠캐슬리조트’, ‘새섬리조트’, ‘리솜리조트’, 펜션, 보령시에는 ‘웨스트피아’, ‘상하원’, ‘머드린호텔’, ‘한화리조트’, ‘비체펠리스콘도’, ‘원산도 보령리조트(예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충남 서해안지역에 입지한 숙박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중국인관광객의 숙박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또한 중국인의 식성을 고려하여 함께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의 중국관광객의 관광패턴은 서울의 쇼핑으로 귀결되고 있다. 충남으로 입국하는 중국관광객 모두를 지역에 체류시킬 수 없지만, 충남 또는 충청권 완결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서산 및 청주공항, 대산항으로 입국한 중국관광객이 충청권의 역사문화, 인삼 등 농촌체험, 세종시 및 대전의 도시체험, 아산 등 온천관광, 대전 및 천안의 의료관광 등을 통해 충청권에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자기완결형 관광상품을 점차 늘려

4) 제5차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서 민간항공기 취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개별관광객들이 입국하여 느긋하게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충남 차이나벨트 조성은 물리적 시설의 확충을 통해 휴양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충남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점-선-면으로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전략이다. 초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 충남 전체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지역으로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이다. 물론, 제주도나 서울의 일부 관광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이 침해받지 않고, 충남도민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충남도의 모든 정책이 관광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도민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농촌과 어촌, 도시, 관광지, 역사유적 환경을 정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관광객들도 찾아오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충남 차이나벨트 역시, 역사적으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던 지역으로서 외국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중국관광패턴인 도시중심관광상품, 쇼핑과 유흥오락 중심, 혼이 없는 관광안내, 단체관광객 중심, 저가여행상품 등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병권(2015).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 KERI Insight. KERI 정책제언. 15-22.
 박인성(2014).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전략과제. 충남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 원 표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한류의 형성과 변천

‘한류’란 한국의 음악, 춤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는 문화현상을 의미한다. 한류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중계를 통해 전세계인은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의 발전상은 널리 소개되었다. 그 후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가령 1997년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1997년에는 북경방송국의 ‘한성음악청’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1999년 ‘베이징청년바오(北京青年報)’가 문자로 ‘한류’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한류’라는 단어가 자리잡기 시작했다¹⁾.

중국뿐만이 아니다. 1999년 베트남에서 ‘의가형제’가 방영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당시 드라마 주인공은 베트남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또한 2003년 일본NHK ‘겨울연가’ 방영되면서, 일본에서도 한류가 점화되었다.

2013년 기준, 전 세계에는 987개 한류팬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성원은 900만여명에 달한다고 파악된다. 대륙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및 대양주에 234개(680만명), 미주 464개(약 125만명), 유럽 213개(약 117만명), 아프리카 중동에 76개(약 6만명)가 있다고 한다²⁾. 한류팬들은 K-Pop팬이 가장 많고, 한국드라마, 음식, 관광 등 순으로 관심분야가 분포한다.

1) 2000년에는 한국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HOT가 베이징 공연을 함으로써 한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2005년 대장금이 중국 전역에 방영되면서 한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2) ‘한국의 어제와 오늘’(문화체육관광부, 2014)

그렇다면 왜 한류가 뜨고 있는가?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다음 몇 가지는 공통적이다. 첫째, 아시아 주민이 가진 본질적 문화의 유사성(유교문화)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화, 문화 발전(아시아 문화 +서양 대중문화의 결합)이 근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대중문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문화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 중국 등 신흥국의 문화적 공백(무너진 인민 정체성, 높아진 생활수준)을 침투한 것이라는 지적이나, 보다 넓은 의미로 한류는 샤머니즘 문화의 현대적 부흥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이 문화소비국에서 문화생산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 문화수출 산업의 성장, 국가 소프트파워의 성장, 국가 브랜드파워 혹은 ‘한국의 것’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 등 문화에서 문화역량, 산업적 의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류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중동,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중이다. 또한 한류의 중심축이 K-Pop에서 한국의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고 있다. 즉 한국의 의식주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걸치는 것을 세계인이 즐긴다는 것이며, 한국은 세계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2. 충남의 성장모델의 한계

이러한 한류는 한국의 방송, 콘텐츠 등 문화산업, 한류의 붐을 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미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한류가 한국 내지 충남의 성장모델에 주는 의미는 이보다 더 깊고 폭넓다. 한류는 이제 한국 내지 충남의 성장모델 차원에서 그 의미가 음미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한국의 성장 모델은 한국은 중간재, 일본은 주로 소재를 중국기업에 수출하고 중국기업은 이를 최종 조립해서 완제품을 유럽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즉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한중일은 삼각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소재 및 부품을 조립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간재 수출로 큰 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성장모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의 내수시장 진작 정책에 힘입어 다른 나라들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이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 특수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우선, 소비시장 측면에서 미·구, 유럽 시장이 침체하는 대신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Credit Suisse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 소비시장은 전 세계의 24% 차지하고, 중국 소비시장은 전세계의 20% 차지한다. 이는 2004년 중국의 소비시장 비

중이 7%임을 감안하면 8년 사이 3배가 증가한 것이다³⁾. 중국의 글로벌 GDP 성장 기여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 유럽을 능가했는데, 향후에도 글로벌 GDP 성장 기여도에서 중국은 미국, 유럽을 제치고 단일 국가로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둘째, 또한 중국이 고부가 제조업에 집중투자하면서 소재 및 부품 공급자로서의 한국, 일본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국제조2025’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주요 제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의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향후 한중간 치열한 산업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일부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고 있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중국 최저임금은 베트남 2배 수준이다⁵⁾. 의류 등 노동집약형 업종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의 TPP 체결 움직임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제조업은 현재 대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특히 대외기술의존도는 평균 약 50%인 데 반해 첨단기술의 경우 95%를 상회한다. 2011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6%로 미국(34.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품질경쟁력 또한 선진국과 격차 큰 상황이다⁶⁾.

3. 한류가 우리나라산업 발전방향에 주는 의미

한류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적 사례인 화장품 산업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화장품 산업은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수출급증세, 1분기는 작년의 2배...유명 외국사들도 한국산 배끼기

화장품 산업이 반도체·스마트폰에 이어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떠올랐다. 전형적인 내수 소비재 제품인 화장품이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15년만에 18배 가까이 늘어나고 최근 3년 평균 수출 증가율이 31%를 넘는 게 이를 증명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5억달러 이상 수출한 138개 품목의 수출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2013년 대비 52%로 압도적인 1위였다. 바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13대 주력 수출 증가율이 2.9%에 그친것과 견줘보

3) 물론 시장의 개방성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시장규모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다. 즉 중국의 시장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대외 개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4) IMF, World Economy Outlook, <https://blog-imfdirect.imf.org/2014/03/26/china-size-matters/>

5) <http://www.clb.org.hk/content/wages-and-employment>

6)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조사국, 2015.8.6.

면 화장품은 괄목할만한 수출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총액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대 화장품 수출국이 됐다. 강학희 한국콜마 대표는 “한국 화장품의 도약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처럼 원천기술 없이도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순발력과 창의성이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한다.(출처: <http://www.cmnews.kr>, 2015.05.16.)

이러한 한류의 수출산업화가 화장품 산업뿐 아니라, 소형 생활가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우유, 분유 등 식음료도 우리나라 수출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식음료산업을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의 하나로 편입시켰다. 이는 주로 농어업 제품을 가공하여 제조하는 식음료를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그만큼 식음료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는 우리나라 내지 충남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중간재 수출 이외에 소비재 경공업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재 경공업은 사실상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침체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재 경공업 제품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하고 있다. 무엇이 변했는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들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화장품 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발전속도가 놀랍다.

이렇게 신규 수요가 해외에서 형성됨으로 인해 소비재 경공업은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다. 크게 보면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로 나뉜다. 즉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인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소비자서비스로 나뉜다.

그런데 이는 국내 시장에만 국한시켜 보았을 때 상황이다. 만약 국외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서비스 시장은 MICE산업, 관광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업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 와서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양적 질적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의식주 관련한 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지창업이다. 최근 국내에 오는 외국인유학생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에서 창업할 수 있는 정보,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결국 한류는 한국 내지 충남의 성장모델의 전환을 위한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다. 즉 중간재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이 소비재 경공업, 서비스업의 전면적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한류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4. 한류는 시한부로 열린 창이다

한류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사실상 한류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생활양식 또는 라이프스타일의 수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 의식주문화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한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대발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는 저절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도 있고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는 열려 있는 창(Window)이며,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문인 셈이다.

한류의 산업적 의미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의 것’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결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제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소비자 기호의 변화, 대체품의 등장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따라서 한류의 산업적 의미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 희 경 ■ 한밭대학교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대중국관계

— 해로를 통한 충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오 석 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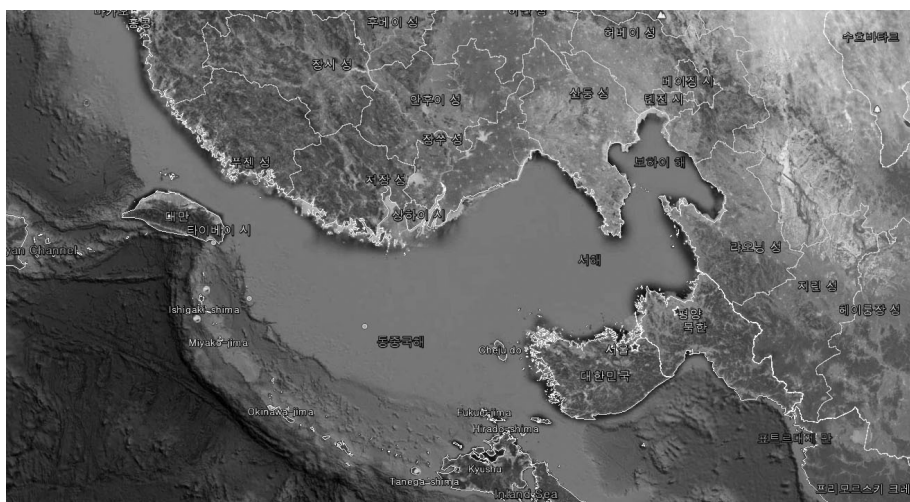
1. 들어가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회집단도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경우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문화요소 중 상당 부분은 전파된 외래의 문화요소들이고, 이미 그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점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일종의 도그마에 가까운 일종의 ‘단일 민족론’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학계 일부에서도 “순수하게 민족 고유의 문화요소”를 우선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유조차 드물지 않다. 이런 점에서 문화전파론이 특정 사회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은 적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파론적 관점에서 보면, 황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내해(內海)로 볼 수 있다. 그 뱃길을 통하여 주변의 집단 사이의 교류가 가능하고, 나아가 인구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실제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 정치세력이 연합하거나 때로는 대립했고, 때로는 정치·군사적 격랑 속에서 주민이 이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화 전파와 접변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개된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집단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에 따른 자발적인 문화요소의 수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제적인 상황, 예컨대 정복 또는 식민화 등으로 인하여, 정치 또는 군사적으로 우월한 집단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가면서 종속적인 집단이 광범위한 문화변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이주나 상호 방문, 종교적 선교활동, 외교 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체험에 의해서도 문화접변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

는 독자적인 문화체계가 기존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의 융합(fusion) 또는 동화(assimilation)가 그것이다. 반동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율성을 박탈당하거나 위협받았을 때, 그 반동으로 전통문화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독립성을 되찾기 위해서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림 1] 황해 주변 지도(구글 어스)

그런데 한반도의 정치세력은 거대한 제국과 이웃하고 있었음에도, 군사적으로 정복당하여 정치적 실체를 잃지도 않았고, 우월한 힘에 압도당하여 문화적으로 동화되거나, 또는 고유성을 잃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유한 문화적 전통의 맥락에서 수정한 결과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 듯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내부의 힘이 강력했던 셈이다. 사실 작금의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 자체도 외부의 문화요소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외부의 문화요소를 수용하는 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정치세력 사이의 역학관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존의 문화적 전통과의 상충관계도 변수가 된다. 실제로 한반도의 정치세력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합하거나 또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는 사신 왕래 등 정례적인 문화교류가 있던 시기 또는 대규모의 인구간의 접촉이 야기되었던 시기일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웅진과 사비 백제시대의 문화교류, 남송(南宋)과 문화교류 및 송·원(元) 교체기의 인구 이동,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의 입국과 귀화인의 동향, 개항 전후의 시기 서학을 비롯한 서양 문물의 전래 사례 등일 듯하다.

사실 한반도 전체 또는 문화의 전 부문에 걸친 문화 전파 또는 접변의 사례를 일별하는 것은 발표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중국 대륙과의 문화 전파 또는

접변의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새로운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사를 집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 또는 유학과 같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던 문화복합체(culture complex)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연구 주제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황해라는 통로를 통한 문화 전파 또는 접변의 사례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몇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2. 소위 ‘환황해권’ 과 뱃길, 그리고 충청남도

현재 ‘환황해권’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체로 중국 북부지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가 산동반도 일대와 교류했던 뱃길에 주목했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소위 중국 ‘강남(江南)’이은 춘추시대에 월나라 건국 이후 중화권에 편입되기 시작하여, 당나라 멸망 이후 경제적으로 황하 유역을 압도하고, 남송 시대를 거쳐 명·청 시대에는 중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지금의 상해 유역까지를 환황해권으로 보려는 관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반도와의 교류가 남중국과도 활발해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남중국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왕조가 개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주로 육로를 이용했던 북중국과의 공식적인 교통로에서 충남지역은 일단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중국을 왕래하려면 충남 연안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는 웅진·사비 백제 때의 남조와의 교류, 고려시대 남송과의 교류, 임진왜란 시기 중국 수군의 파견 등이 이러한 접촉 사례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로에 남아 있는 유적은 우선적인 관심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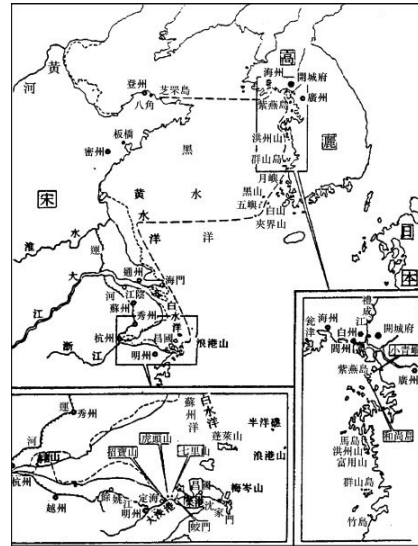
-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을 왕래하는 뱃길은 시대에 따라 확대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하다가, 후대로 갈수록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남부 사단항로를 개척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부 사단항로를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중국과의 직통로가 막히면서 새롭게 개척한 항로로 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주요 교섭국이 양쯔강(長江) 이남에 자리잡은 남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 고려시대 황해를 통한 교류는 남송과의 관계가 주된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1123년 송나라 휘종은 고려 예종의 조의를 위해, 급사중(給事中) 노윤적(路允迪)을 국신사(國信使)로 하고, 중서사인(中書舍人) 부목경(傅墨卿)을 부사로 삼아서 사신단

을 파견하였는데, 그 사신단의 일행이었던 봉의랑(奉議郎) 서경(徐兢)이 남긴 『고려도경』을 저술하여 관련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노윤적이 이끄는 사신단은 신주(神舟) 2척, 객주(客舟) 6척으로 구성되어 5월 16일 명주를 출발하여 6월 3일 흑산도 인근을 경유하고, 6월 6일 군산도의 군산정에서 고려시대 조운항로를 따라 8일에는 충남 태안의 안흥정에서 정박한 다음 북상하여 13일 개경에 도착하였다. (그림 3 참조: 辛元歐, 2004, 『上海沙船』, 上海書店出版社) 구체적인 항로가 언급되고 있는데, 충청남도 연안에서는 고만도정과 안흥정이라는 유적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당시 방문했던 구체적인 인명이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연관 분야에 관한 추가 연구, 나아가 후손들과의 교류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충분할 듯하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대규모 선단의 왕래 사례는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 수군의 지원이다. 이 가운데 남중국계 장수들이 수군을 이끌고 참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항해를 가로지르는 경로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항해술의 발달로 명나라 수군의 이동 때 항해를 건너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의 요구에 따라 관왕묘(關王廟)가 건립되고, 『무예제보(武藝諸譜)』 등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는 데에도 자문을 많이 받았음은 익히 알려진 사건이다. 또한 명나라가 패망하면서 일부 군사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였고, 그 후손들이 세거하는 동족마을을 이루기도 했다. 단순히 귀화한 명나라 주민이 많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접촉의 양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책사로 입국한 섭정국(葉靖國)은 새로운 풍수설, 즉 송나라 때 장자미(張子微)가 지은 『옥수경(玉髓經)』을 소개하였고, 광해군 때에 이르러 이의신(李懿信)이 교하(交河)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절되었고, 그 후 다시 한양에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풍수설을 소개한 인물도 섭정국만이 아니었다. 또한 우리나라 백성에게 온정을 베풀었다고 하여 청덕비(淸德碑)를 건립한 명나라 장수가 있는데,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일제강점기에도 그 청덕비를 보존하는 규약을 제정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항로(정진술, 2009, 『한국해양사 (고대편)』, 경인문화사)



[그림 3] 『고려도경』의 뱃길(辛元歐)

3. 문화 브로커와 이주민

문화의 전파는 이웃하는 두 사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신, 상인 또는 선교사 등과 같은 문화 브로커(culture broker)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고려 말 서산 간월도로 귀양을 왔던 남송의 정신보에 의하여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이 소개되고 후대에 영향을 끼쳤던 사례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¹⁾.

고려시대에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인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학계에서는 『고려도경』의 사료적 가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막상 당시 사신으로 왔던 인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당시 정사로 왔던 노윤적(路允迪)은 귀국하는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났으나 마조여신의 음덕으로 살았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마조(媽祖) 신당

1) 본 학술대회의 발표 주제이기도 하다. 최영성 교수는 고려 고종 24년(1237)에 원나라 쿠빌라이에 의하여 고려 땅이었던 지금의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로 귀양을 왔던 것으로 판단되는 정신보에 의하여 정주성리학이 소개되었고, 그의 학문은 차차 정인경과 함께 서산 지역의 대표적 문벌 귀족인 서산류씨와 청주한씨 가문에게 이어졌으며, 훈맥을 통하여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최영성 교수는 이 외에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원제(元帝)가 황태자 애아역(愛牙亦)을 대청도(大靑島)로 귀양 보냈고, 충렬왕 18년 3월에는 반란 사건의 일당인 합단하(哈丹下)·아리독(阿里禿) 대왕을 일본도(仍盆島)로, 4월에는 탑야속(塔也速)을 백령도에, 도길출(圖吉出)을 대청도에, 첩역속(帖亦速)을 오야도(烏也島)에 각각 귀양 보냈고, 며칠 뒤에는 합단하 대왕을 다시 영흥도(靈興島)와 조월도(祖月島)에 귀양 보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에 모셔지고 있다²⁾.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부사로 왔던 부묵경(傅墨卿, ?~1130)이다. 명나라 말엽에 편찬된 중국 자료에 ‘고려에 사신으로 3번 왔으며, 고려에 그를 모신 사당[廟祠]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

사실 학계에서는 소정방이나 이여송 등의 인물을 봉안한 사당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역사 연구에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인이 제향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의 인식보다 훨씬 많았던 듯하다. 외연도에 모셔진 전횡 장군의 사례는 많이 알려졌거니와, 위에서 살펴본 부묵경의 사례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4] 노윤적의 전신상(莆田 湄州)



[그림 5] 노윤적의 전신상 앞 안내판

- 2) 노윤적은 『維基百科』(<https://zh.wikipedia.org>) 등의 자료에 河南 應天府 宋州人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귀국하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7척의 배가 패몰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노윤적이 탄 배는 무사하여 마조 여신(湄州女神)의 도움이라 하였다고 한다. 宣和五年, 奉詔出使高麗, 船至東海, 遇到狂風, 八舟溺七, 只有允迪所乘之船安然以濟, 船員李振說這是湄州女神顯靈(『歷代神仙通鑑』).
- 3) 2012년 중국 北京兆方科技有限公司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书库』(上海辞书出版社) 제145~146책 「全宋文」에는 傅墨卿(?~1130)이 절강성 소흥인이라 하였다. 字國華, 越州山陰(今浙江紹興)人. 早爲蔡脩門客, 補太廟齋郎. 政和中, 授主客員外郎. 宣和中爲中書舍人, 除給事中, 右文殿修撰, 以册立高麗王楷有功, 還賜同進士出身. 2003년 중국 聯合百科電子出版有限公司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中華文明百科全書』 중 『古今圖書集成』 明倫彙編氏族典 / 傅姓部 / 列傳(제 374책 39항의 2). 按『萬姓統譜』墨卿, 字國華. 以大父傅正恩補太廟齋郎. 宣和中, 以禮部尚書持節册立高麗王, 楷有功還, 賜同進士出身. 建炎中, 守正奉大夫致仕. 墨卿凡三使高麗, 所過郡縣, 輒爲守令道上德意, 以寬宥爲務, 官吏有責罰, 編置亦貸除之, 高麗至今有廟祠. 남송 때 시숙(施宿) 등이 편찬한 『가태회계지(嘉泰會稽志)』에 의하면, 傅墨卿은 처음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다음에는 부사(副使)로 마지막에는 정사(正使)로 방문하였다. 한편 『만성통보』는 명나라 능적지(凌迪知, 1529~1600)가 편찬한 고금의 성씨(姓氏)에 관해 기록한 146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따라서 이 무렵까지는 고려에 부묵경을 모신 사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한편 부묵경의 4촌 동생인 부송경(傅崧卿)의 자는 자준(子駿)이고, 호는 초풍(樵風)이다. 『유기백과』에는 중국 고대의 『하소정(夏小正)』을 주해한 『하소정전(夏小正傳)』을 짓는 등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부묵경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인 듯하다.

임진왜란 당시에 지원군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중에도 제향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적지 않은 듯하다. 충청수영성에 모셔진 유격장군 계금이 그러한 사례이다.

○ 임진왜란 당시 충청 수영으로 입국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유격장군 계금(季金, ?~1598)⁴⁾을 기려서 건립한 청덕비의 내용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바다에 빠진 우리 백성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는 내용에 덧붙여, 그 말미에 ‘바다에서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빌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령시 고문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다음 카페(<http://cafe.daum.net/brsimin>)에는 ‘보령산인(保寧山人)’이라는 필명의 카페지가 2016년 3월 1일 공개한 1917년 주민들이 청덕비를 보존하기 위한 규약을 담은 고문서를 소개하였다. 실제로 일부 뱃사람들이 최근까지 개인적으로 비손을 행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이전에는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보령시 고문서 박물관 캡처 화면(다음 카페)

4) 계금 장군(季金, ?~1598)의 행적은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계금장군의 자는 장경(長庚)이고, 예전 송문위(松門卫, 현 浙江 温岭 松門鎮)에서 대대로 무장을 배출한 가문[武将世家] 출신이다. 조선에서는 충청도 해안에 주둔하였고, 노랑해전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워서,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도독첨사(都督僉事)로 임명되고, 사후에는 1600년 일급선무공신(一级宣武功臣)으로 녹훈되었으며, 1643년에는 승정황제(崇禎皇帝)로부터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았다. 묘는 고향인 송문진(松門鎮) 송남촌(松南村) 호갱산상(虎坑山上)에 있고, 작품으로는 『우인초유위우동작(友人招游委羽洞作)』을 남겼는데, 『위우산지(委羽山志)』에 수록되어 있다. 충청수영성에 있는 청덕비(淸德碑)는 1598년 4월에 건립되었으며, 2000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되었다.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61-12) 비문은 송문원 교리 안대진이 썼다. 안대진(安大進, 1561~?)은 광주안씨로, 1586년에 증시 문과(文科)에 올랐으며, 이산보(李山甫)의 문인으로 이산보 이정립(李廷立)과 함께 3대 문장(三大文章)으로 일컬어졌다. 임진왜란 때 해운도감(海運都監)으로 공을 세웠으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할 때에도 세웠다.

산성에 성황신으로 모셔진 인물신들이 많음은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거니와, 임경업 장군과 같은 인물은 서해안의 ‘조기의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세한 검토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남해안에 이러한 유형의 인물신이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한 비교연구 또는 문화 전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만한 주제일 듯하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에 귀화한 명나라 군사들도 적지 않았다. 광동성 출신의 진린(陳璘) 도독의 손자 진조는 조선에 망명하였고, 진린 도독을 시조로 삼고 광동을 본관으로 삼아서 최근까지도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황조(皇朝)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진린 제독을 모시는 사당인 황조별묘(皇朝別廟)가 고종 8년(1871)에 건립되어 매년 4월 한식날 문중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린 제독의 묘가 있는 중국 운안구 육도진 남향촌에 후손들이 방문하는 등 후손 및 지자체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7] 진린 도독 전승기념비 제막식

정유재란 당시 3대가 전사한 강소성 출신의 가유약(賈維鑰) 장군의 후손들은 태안 일대에 많이 거주하는 대성이 되었다. 현재 진린 제독이나 가유약 장군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 향후의 연구과제인 셈이다.

한편 책사(策士)의 신분으로 정치적 파란을 일으켰던 섭정국이 새로운 풍수설을 소개하면서 광해군 때 천도론과 신궐(新闕) 창건이라는 정치적 파동을 야기시켰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중국 항주(杭州) 출신으로 입국했던 또 다른 책사 두사충(杜師忠)과 그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중국 건주(建州) 출신의 나학천(羅鶴天)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려울

듯하다⁵⁾.

○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두사충이 비기를 저술하였는데, 명나라 건주인(建州人) 나학천(羅鶴天)이 면천 고을에서 살면서 외숙인 두사충(杜師忠)에게서 풍수술을 배웠는데 누구에게도 누설시키지 않고, 다만 같은 고을 박승선(朴承先)에게 전수하였으며, 박승선은 전에 평하였던 묘자리 5백여 군데를 차례로 기록하여 난삼(蘭三)에게 전했는데, 난삼이 죽은 후 그 비법을 얻은 이가 널리 퍼뜨렸다’고 하였다⁶⁾. 이 비결은 두사충이 말한 것을 받아 적은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먼저 백두산에서 뽐은 산세를 논하면서 각 산악과 지방의 풍수를 논하였고, 이어서 「피장처(避藏處)」에서는 고을별로 난을 피할 만한 승지(勝地)를 살폈으며, 「화악로정기(華岳路程記)」에서는 그 지세를 논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피난지(避亂之地)라고 하였고, 「북두류로정기(北頭流路程記)」에서는 아래 동네에 살만하다는 세속의 평가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과 그 위쪽 또한 더불어 피난할 만한 곳이라 하였다. 또한 오서(烏棲)·성주(聖主)산에서 재상과 장수가 태어날 곳이라 하였고, 호남은 많은 산이 배주(背走)하는 형세라 하였다. 현재 두사충이 저술했다고 전하는 『두사충비결(杜師聰秘訣)』은 『정감록』류의 풍수서에 수록되면서, 지금까지도 소위 ‘십승지(十勝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교범처럼 이용되고 있다.

○ 두사충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나학천의 호는 봉안으로, 현재 그가 지었다고 하는 『봉안비결(鳳眼秘訣)』이 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봉안비결』이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에 이문당(以文堂)에서 석인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석인본의 편자는 홍승륜(洪承綸, 1871년생)이며 서문[序] 또한 1928년 편자가 썼는데, 같은 해 8월 30일 동아일보 4면 신간 소개란에 『봉안결 전(鳳眼訣 全)』에 ‘홍승륜의 집안에서 비밀스럽게 보관하고 있던 명당의 기록[洪承綸家秘藏名穴錄]’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홍승륜의 5대조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남긴 글에는 ‘명나라 말에 우리나라로 온 나해천에게 배운 박경삼(朴景三)이라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충청도 진천 고을의 호암(虎巖)과 구만(龜灣)으로 선대의 묘

5) 두릉(杜陵)은 중국 장안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 산서성에 속한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두릉두씨는 시조를 달리는 두 계통이 있다. 한 계통은 고려 목종 때 우사관(右司官)을 지낸 두경령(杜慶寧)을 시조로 삼으며 만경두씨(萬頃杜氏)라고도 한다. 다른 계통은 두사충의 아버지 두교림(杜橋林)을 시조로 삼는다. 후손들은 두사충(杜師忠)이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을 따라 입국하였다가 귀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사충의 한자 표기는 ‘杜思忠’이라고도 하고, 현재 전하는 비결에는 두사충이라 하였듯이 일정치가 않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杜思冲’ 또는 ‘竇思忠’으로 표기하고 있다. 생존하였을 당시 두사충과 접촉한 인물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택당 이식(李植, 1584~1647)의 「계산지(啓山志)」에는 선친의 묘소를 백아곡(白鵝谷)으로 천장할 때 광해군 당시 천도론 등을 주도했던 이의신과 함께 중국 항주인(杭州人) 두사충(杜思忠)에게 지세를 물었다고 했으며, 갈암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연보에는 두사충이 영해를 지나다가 자기(紫氣)가 1장(丈) 높이로 솟는 것을 보고 이인(異人)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두사충은 조익(趙翊, 1556~1613), 이시발(李時發, 1569~1626)과 차운(次韻)한 시도 남겼다.

6) 나학천이 지은 『봉안비결』에서는 전국 8도의 679개소의 명당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충청도가 절반에 가까운 301개소의 명당을 지목하고 있어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소를 천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전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파급효과에 덧붙여서 문화변동까지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 전파 또는 접변이 선택적인 과정(a selective process)이기 때문이다. 문화요소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문화요소는 기존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화전파론 또는 문화접변론의 최종적인 연구결과는 수용된 외부의 문화요소가 기존의 사회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실질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연구의 출발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다만 문화의 장기 지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민속 특히 해양과 관련된 신앙과 의례 부분에서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남해안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과 문화 전파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진단하는 영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 과거 연고가 깊었던 인물의 후손 사이에 민간 차원에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린 도독의 후손들이 중국의 옛 고향을 찾아가는 행사를 가졌거니와, 계금 장군 후손들도 임진왜란 당시의 전적지에 초청을 받아 입국하는 길에 청덕비가 있는 충남 보령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서산정씨 종친회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세계정씨문화제 행사에 연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8] 충청수영성 방문 기념 사진



[그림 9] 세계 정씨문화제에 참가한 서산정씨 후손

7) 홍양호의 『이계집(耳溪集)』 권 32에 실린 「선부군묘소지(先府君墓小誌)」 참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贈吏曹判書洪公鎮輔 葬于鎮川虎巖之丙坐 貞夫人青松沈氏附左 坡平尹氏附右 考贈吏曹參判諱重聖 墓在同縣方洞面龜灣里良坐 貞夫人平山申氏 全州李氏同附 祖考判決事諱萬恢 墓在漢城東郊牛耳川燕尾谷庚坐 淑夫人南陽洪氏附左 仲子生員挺漢 墓在同縣楊花里甲坐 鎮川卽三韓萬弩郡也 始我王考暨考權葬于東郊曾考墓側 良浩少日 將改葬 博求吉地 遇一老人朴景三 自言其父學風水於華人 遍游八路 占名穴錄在冊 傳至二世 爲我指二穴 一卽龜灣 一卽虎巖 遂移奉兩代宅兆於是 華人姓名稱羅海天 明末辟地東來 自號鳳眼居士云. 참고로 그 가계는 홍양호-홍의준(洪義俊)-홍석모(洪錫謨, 1781~1850)-홍선주(洪善周, 1814년생)-홍우목(洪祐穆, 1849년생)-홍승륜로 이어진다.

4. 나가면서 : 제언으로 대신함

최근 대중국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에도 드물지 않았다. 선사 이래 단속적으로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는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왕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의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요소들을 받아들였고, 나아가 군사 파견이나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문화 접변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은 단지 또 한번의 광범위한 문화 전파와 접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이고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과거의 문화 전파 또는 접변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의 연구는 사실 통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전 시대에 걸친 문화 전파와 접변의 양상을 되짚어 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업의 첫 단추는 당연히 조선 후기부터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민족주의적 시각 또는 최근에 정치적 이념의 틀에 맞추어진 국가주의적 시각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듯하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해상왕국’이라는 명성에 취하여 대중국 관계를 백제시대에 한정하여 보려는 편협한 시각을 경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지역은 중국 대륙에 열린 지역이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공식적인 또는 대규모의 접촉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나아가 과거에 접촉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과거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고, 선조의 행적을 되짚어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류가 적지 않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본격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수준의 글이라는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다만 주된 연구주제를 지목하였을 뿐이며, 문화전파론 또는 접변론의 본격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수용된 문화요소가 기존의 문화적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력이 없었다. 향후의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 경 복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문제제기

충청남도지역에서 백제 마애불은 태안반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태안마애삼존불은 서해 바다가 조망되는 태안반도의 백화산 산정에 조각된 대중국교류에 있어서의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대표적 백제시대 해양관련 유적이다. 그 대상은 태안마애삼존불의 도상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협시보살로 조각되는 관음보살이 주존불로 조각될 정도로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불교신앙은 관음신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관음신앙 연구는 경전에서 보이는 관음신앙을 고찰하여 관음신앙의 현존하는 사례와 사상적 특수성을 고찰하기도 하였으나¹⁾, 대체로 법화신앙이 유행하였을 때 관음신앙도 함께 활발히 대중에게 보급되었다는 다른 신앙의 부차적 요소로서²⁾ 연구되었다. 그 동안 연구는 관음신앙의 교리적 문제해결에 치중된 점이 있어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태안마애삼존불에 대한 연구도 이전 시기 부안의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행하던 항해안전 기원의식이 불교화되었다는 연구와 변산반도의 관음신앙의 특징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³⁾, 대부분 도상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백제의 바다길 중 하나인 남부사단항로 개설에서 대해서 부정적 견해들이 있어 지금까지 관음신앙과 바다길에 대한 언급은 부

1) 김영태, 1979, 「백제의 관음신앙」, 『마한 백제문화』.

2) 김길태, 2006, 『백제 사비시대 불교신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송화섭, 2002, 「변산반도의 관음신앙」, 『지방사와 지방문화』.

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제의 바다길 변동과 관음신앙 분포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특히, 백제라는 나라이름의 유래 가운데 “처음에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이름을 백제라 불렀다.”는 기록으로 볼 때, 백제의 역사는 처음부터 바다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 백제의 성장이 해상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해상안전 성격의 백제 관음신앙 연구도 백제의 바다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 중국교류를 살펴서 관음신앙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태안마애삼존불의 조성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백제 해상왕국 재건 노력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서해는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통로였다. 이를 통해 한·중·일 삼국 사이에 활발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고, 각국은 문화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항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상실된다면 국가의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항로를 장악한다면 국가의 발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대리역을 수행하고 있던 낙랑·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자, 한강 하류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백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백제는 근초고왕대 중국과 일본항로를 장악하면서 해양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4세기 말경부터 고구려가 이에 반격을 가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백제는 주변 국가를 설득하여 반고구려 국제연대망을 구축하여 대항하였으나, 고구려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미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의 유연과 4강의 세력균형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고구려의 교역방해 공작을 쉽게 저지할 수 없었다.

근초고왕대 해양강국을 재건하려는 백제의 노력은 빈번히 수포로 돌아갔으며 수한 시련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내분이 일어나 국왕이 시해되기도 했고, 백제의 추종세력이던 왜가 백제를 통하지 않고 중국 남조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시도하기도 하여 백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개로왕대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국가의 존망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지만 백제의 해양강국 재건의 꿈은 무령왕대에 이루어졌다. 무령왕은 백가의 세력을 타도를 통해 왕권강화를 이루었고, 그동안 소원해졌던 왜와의 관계 복원에 적극성을 보여 509년에는 왜가 사신을 보내왔으며, 이후 양국 간의 사신·학자 등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508년 백제는 탐라와도 처음 통교 관계를 개설했다. 이로써 무령왕은 우선 남쪽의 항로만은 완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⁴⁾.

4) 강봉룡, 2002,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백제의 역할』 『한국상고사학보』 38, 92~93쪽.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고고학적 변화도 이시기에 보인다. 5세기경 영산강유역에는 6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왜계의 전방후원형고분과 토착의 옹관고분이 완전 사라져 갔고, 백제 직접지배의 상징인 백제식 횡혈식석실분만이 유일한 묘제로 남게 되었다. 신안의 백제유적들, 남해 남치리 유적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동아시아 국제교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성왕대까지 이어졌다.

3. 중국 남조교섭과 바다길

이렇게 무령왕대 서해안 유역 장악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중국 남조와의 교역 때문이었다. 남조국가와의 교류는 백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무령왕릉의 발굴로 이러한 당시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남조의 전축분을 본 뜬 묘제는 물론 양나라의 석수(石獸)를 변형하여 만든 석수와 부장품 중에 보이는 육조시대의 백자접시·녹유도기 등은 무령왕과 남조 양과의 교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제는 웅진천도 이후 한강유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방해 없이 어떻게 양나라로 갔을까? 기존 항로가 안전하지 못했던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된 이후 문주왕은 고구려의 방해로 남조국가에 사신을 보내지 못했고, 동성왕도 남제에 파견된 백제 사신은 해상에서 고구려 군사의 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존 바다길이 고구려 영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백제의 사선선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해도 남쪽 연해를 따라 서쪽으로 항해하여 백령도나 대청도에 이르렀다가, 여기서 바람을 기다린 후 큰 바다를 건너 산둥반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고구려가 항해도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백제가 안전한 바다길을 위해서는 한강유역을 되찾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제가 한강유역을 회복한 것은 성왕로 그것도 일시적이었다⁵⁾.

따라서 고구려의 해로 차단으로 백제가 새로운 중국항로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항로의 개척이 사단항로이다. 그러나 그 항로개척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단항로는 흑산도에서 매잠까지를 기준점으로 삼을 때 직선거리 330해리인데, 이는 범선이 순풍에서 5일간 항해해야만 갈수 있는 거리이다. 서해에서 5일간 계속 한방향에서 부는 순풍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나침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위험이 훨씬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인들은 가능하면 안전한 연안항해나 대양횡단의 거리가 가장 짧은 횡단항로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고구려에 의해 연안항해와 횡

5) 551년 성왕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년 후 553년 신라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한강 하류유역을 모두 빼앗겼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에도 횡단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6) 정진술, 『한국해양사-고대편-』, 경인문화사, 93-94쪽

단항로가 방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단항로를 개척해야 했다.



[그림 1] 고대 대중국 항로(정진철)

지금까지 사단항로의 개척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사단항로에 대한 기존 견해는 크게 ① 1074년 이전 이용설, ②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1074년 이후 주 항로 이용설, ③ 1074년 이후 주항로 이용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①설이 가장 우세하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항해 기술적 문제에서 야기된다. ‘한선(韓船)’ 전공하는 연구자 중에는 강배는 돛배 하나로 가능하지만, 바다로는 절대 못 나간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연구자 중 삼국시대에 썼던 배는 돛대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대 배들은 바다배가 아닌 강배이어야 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항해술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항해술의 발전은 시기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 연구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⁷⁾. 이런 관점에서 백제가 고구려에 차단된 대외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4. 새로운 바다길과 관음신앙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개척된 사단항로는 매우 위험한 항로이다. 따라서 이 항로를 운행하던 백제인들은 당연히 해로를 통해 운항하는 선박과 뱃사공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자

7)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의 성장과 중국,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5, 341-343쪽

하였을 것이다. 그 흔적은 서해안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기원신앙의 유적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5세기 말~6세기 전반경의 중국 남조 청자는 사단향로의 중간 기항지가 변산반도의 죽막동이었음을 말해준다⁸⁾. 웅진·사비에서 출발한 배가 변산반도를 경유해 사단향로의 출발점인 흑산도 지역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부안 죽막동 유적 연구에 따르면, 부안 죽막동 수성당에 모셔진 개양할미를 관음보살의 현신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즉, 죽막동 발굴조사에서 관음보살상이 출토되지 않아 제사의 대상을 관음보살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원당과 수성당 주신이 백의관음보살이거나 할머니로 현신한 개양할미라는 점에서 해양제사의 대상은 관음보살이라는 것이다⁹⁾.

이와 함께 서해안에 관음신앙과 관련된 설화가 존재하는데, 그 설화는 서해일대 분포하고 있는 석주설화이다. 석주설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불상을 실고 한반도에 불법을 전파할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온다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 석주에는 전법선과 관음선의 두 유형이 있는데, 이 글에서 주목할 관음선은 관음성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음상을 석주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석주설화는 곡성 성덕산 관음사, 해남 미황사와 고창 선운산 대참사, 부안 내소사에서 전하고 있다. 이중 해남 미황사만 신라의 이야기이고, 곡성 관음사, 고창 선운산 대참사, 부안 내소사는 백제의 이야기이다. 석주설화는 백제와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 구법승과 유학승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¹⁰⁾.

이런 내용과 함께 석주설화의 분포지를 보면, 금강하류 이남인 서해안 일대에 해당한다. 특히 관음선 석주설화는 사단향로 개설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백제승 발정이 양나라에 유학을 가서 30년간 불교공부를 하고 귀국길에 월주지방의 관음도량을 찾아 겪은 관세음응험기 기록과 현광이 강남을 떠나 백제의 배에 올랐다는 기록을 통해보면, 중국 유학승과 관련된 석주설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석주설화와 관음신앙의 유적이 있는 명주(영파)일대에서 백제 발정의 관음신앙 체험 후 사단향로를 통해 백제에 관음신앙이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사단향로를 따라, 중국 보타락가산의 관음신앙이 백제 서해안에 전파되었다는 흔적은 부안 죽막동 개양할미와 곡성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와 보타도의 관음성지가 유사한데도 찾아볼 수 있다¹¹⁾.

8)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죽막동에 있는 삼한시대에서 조선 후기에 걸친 제사 유적지이다. 이곳에서 진행된 해신제사의 내용을 출토유물을 통해 검토해보면 시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삼국시대에는 전 기간에 걸쳐 4단계로 제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단계 중 III단계의 백제와 가야의 제사는 해상교섭의 필요성이 증대하던 시점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신(海神)에게 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류의 길목이나 중요한 기점에서 원거리 항해의 안전이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 제사에는 토기뿐만 아니라 금속유물, 토제모조품, 중국 청자와 같은 특수 공헌물품을 다량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의 제사는 재지세력(在地勢力)이 연안을 통한 이동이나 어로활동과 관련해 별도의 공헌물 없이 소량의 토기만을 사용해 제사한 것으로 보인다.

9) 송화섭, 2007, 『백제의 해양신앙』 『백제의 제의와 종교』,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3, 82-83쪽.

10) 송화섭, 2007, 위의 글, 82-83쪽.

11) 송화섭, 2007, 위의 글, 85쪽.

5. 태안마애삼존불 조성이유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와 같이 사단항로 개척을 통한 양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백제는 관음신앙과 같은 중국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무령왕대 이후 백제의 주요항로가 사단항로로 변경되었지만, 횡단항로가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다. 위험한 사단항로를 주항로로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횡단항로를 이용한 흔적이 보인다. 그 시기는 무왕대로 생각된다. 무왕대는 중국이 혼란된 나라를 수·당이 통일한 후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여 백제에서 장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단항로보다 횡단항로가 유용하였다. 따라서 무왕 27년(626)에 사신을 당나라로 보내 신라와 함께 고구려가 길을 막아 당나라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기록과 함께¹²⁾ 무왕 28년(627) 7월 백제가 단독으로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려고 한 기록에¹³⁾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백제 무왕이 신라에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한 것은 백제의 횡단항로의 안전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무왕대 백제는 신라에 대한 우세한 전쟁의 형세로 인해 완전히 안정성이 담보되진 않았지만, 다시 횡단항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한강유역 회복노력은 의자왕 15년(655)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북계 30여성을 점령하여 드디어 횡단항로의 안전성을 마련하였다¹⁴⁾.

태안 마애삼존불의 조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듯싶다. 충남 서해안에 관음신앙이 조성될 교리적 배경도 갖추고 있었다. 무왕대 활동한 백제승 혜현이 수덕사에 주석하였다. 그는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법화경』을 독송하여 수덕사에 머물다 영암으로 옮겨가 독송하였다고 한다. 혜현이 주석한 수덕사를 통해 충남 서해안 일대에 법화사상이 펼쳐져 있었다¹⁵⁾. 교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법화신앙이 융성하였다. 『법화경』 관세음보문품을 독송하거나 관음을 신봉하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관음보살이 주존불로 된 태안마애삼존불이 조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안 죽막동 유적과 관음보살 관련 석주설화들이 무령왕 대 사단항로와 관련된 신앙의 표현이라면, 태안마애삼존불이 조성은 한강하류 일대를 장악한 신라를 압박하여 약간의 안전성을 회복하게 된 횡단항로 이용의 관련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태안마애삼존불은 이 지역이 중국과 교섭의 관문이며, 불교문화의 유입처로 가능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었으나, 백제 무왕대 해양항로 변화라는 측면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백화산에 마애삼존불을 조성한 목적은 무왕 대 회복한 해로를 통해 운항하는 선박과 뱃사공들의 무사안녕을

12)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명광개를 바치고 고구려가 길을 막고 당나라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조 27년).

13) 왕은 신라가 침입해 빼앗은 땅을 되찾으려고 크게 군대를 일으켜 웅진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다(『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조 28년).

14) 한강유역 회복은 백제와 고구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장왕 원년 고구려 방문한 김춘추에게 연개소문이 반환을 요구한 땅이 죽령 서북지역인 남한강유역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자 한 이유는 신라의 대외교섭 고립에 목적이 있었다(김주성, 1995, 『한국사6-삼국의 정치와사회』 110-111쪽). 다시 말하면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신라가 횡단항로를 통해 중국과 통교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백제에 있어서는 횡단항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이경복, 2015, 「내포에서 발원한 백제의 마애불」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5~46쪽.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무왕대 태안반도가 중국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교통로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南宋 學人 鄭臣保의 고려 移居經緯와 그 意義¹⁾

최영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한국철학

I. 金華에서 서산 看月島까지

고려 고종 24년(1237)에 남송의 한 관료에 의해 북송 이정(二程)의 학문이 고려에 들어왔다. 남송 말기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을 지낸 정신보(鄭臣保)는 1237년 한반도의 서산 간월도(看月島)에 와서 고려 학인들에게 이정(二程)의 성리학을 전수하였다. 정신보의 아들 정인경(鄭仁卿)과 사돈 관계였던 첨의밀직사사(僉議密直司事) 채모(蔡謨: 1229 ~ 1302)는 「원외랑 묘갈명」에서 정신보가 정명도·정이천의 학문을 고려에 처음으로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公以性理之學, 敎誨生徒, 東方之人, 始得觀兩程之書). 정신보는 남송의 명문 포강정씨(浦江鄭氏) 가문의 후예다. 그는 당시 남송 학계를 주도했던 성리학으로 무장하였을 것이다.

남송 이종(理宗: 재위 1224 ~ 1264) 연간에 활동했던 정신보는 도학군자로 이름이 있었다. 나중에 원나라 초대 황제가 된 쿠빌라이로부터 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1237년 고려국 서산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가 정치적 망명이 아닌, 귀양을 왔음은 정신보의 후예인 정제(鄭濟)·정인홍 등의 기록이 뒷받침한다. 또 그가 남송을 떠날 때 중국의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도 방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정신보가 간월도에 오기까지의 역정이라든지, 간월도에 도착한 이후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소주(蘇州)·항주(杭州)를 출발, 절강성(浙江省)의 대표적

1) 이 글은 필자의 「鄭臣保論」(『한국철학논집』, 36, 한국철학사연구회, 2013)을 4분의 1 규모로 節略한 것임을 밝혀둔다.

항구인 영파(寧波: 닝보)를 통해 물길을 거슬러 한반도의 서산까지 왔을 것이라는 윤용혁 교수의 선행 연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영파항을 통한 항해는 당시 고려와 남송 사이의 일반적 노선이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강제 추방인 만큼 정상적인 항로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정신보의 고향은 절강성 금화부(金華府) 포강현(浦江縣)이다²⁾. 포강정씨는 누세동거로 유명하다. 최근세까지도 ‘의문정씨(義門鄭氏)’로 불릴 정도로 동북아시아에서 그 명성이 높았다. 의문정씨 집안에 내려오는 가범(家範)은 북송 시기 남전여씨(藍田呂氏) 집안의 여씨향약(呂氏鄉約)과 함께 조선조 학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³⁾. ‘누세동거(累世同居)’로 유명한 포강정씨의 문풍(門風)은 종족 간의 돈목(敦睦)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유자들에게 기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정씨 가문에 내려오는 가범(家範)은 예학적 차원에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포강정씨 가문에서 실천한 지도층의 정신적 의무(Noblesse Oblige)는 지난날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⁴⁾.

정신보의 출자(出自)를 보면, 그는 포강정씨 동거 제1세인 충응거사(沖應居士) 정온(鄭溫)의 증손이다. 포강정씨 집안의 『종보(宗譜)』에 의하면 정온이 아들이 없어 사후에 아우 기(綺)의 아들로 후사를 세웠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정신보 일계(一系)는 적통(嫡統)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보가 고려에 귀화하여 그 일계가 독립함으로써 별자(別子)가 따로 종파를 열어 시조가 된다는 ‘별자위조(別子爲祖)’, ‘계별위종(繼別爲宗)’의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였던 것이다.

정신보의 본래 이름이 ‘표(彪)’⁵⁾였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친 이름인 ‘신보’는 “신하의 절개를 보전한다”(保其臣節)는 의미일 터이니, 고려로 온 뒤에 개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신보는 새로 고친 이름에도 남송에 대한 충절을 담았다. 의문정씨 후예답다고 할 것이다. 고려에서 새 삶을 펼치려는 마당에 마음가짐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명을 했다고 볼 때, 정신보가 ‘새로운 출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간월도에서의 정신보의 생활은 간난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만리 타향에서 생활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겪었을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 도학(道學)으로 자임했던 정신보는 간월도에서 강학 활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대사동(大寺洞)으로 옮겨 간 뒤에는 더욱 활발하였을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여 성리학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 때 그는 생도를 모아 성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남송 시

2) 朱熹·張栻과 함께 東南三賢으로 꼽혔던 呂祖謙(東萊: 1137~1181)은 절강성 金華府 출신이다. 이후 절강성은 金華學派의 본거지가 되었다. 黃榦(주자의 문인)의 계통을 이은 何基·王柏·金履祥·許謙은 금화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로, 세칭 ‘金華四先生’이라고 한다.

3) 金允植, 『雲養集』 권3, 「省掃海州羅峙洞先墓, 夜與諸宗數百人, 會于丙舍作」 참조.

4) 田愚, 『良齋集』 속집 권6, 「樂圃徐公行狀」 “昔宋靖康時年饑, 浦江鄭淮, 鬻田千餘畝, 以活貧民. 其後孫自宋至明, 凡十五世同居, 家衆三千, 多賢且顯達, 爲天下第一義門. 今公之祖考, 以仁聲義聞, 著於州郡. 而公又以儒術教其子, 有名士林間, 天之報施, 其將權輿於斯歟!”

5)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묘지명」 및 『가승』에 실린 政案 가운데 “臣保古名彪” 운운한 대목이 뒷받침한다. 『서산정씨가승』 권상, 10a-10b 참조.

기 성리학의 온실이요 금화학파의 본거지였던 절강 출신 정신보가 고려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리학의 전파였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채모는 「원외랑 묘갈명」에서 “동방 사람들이 이정(二程)의 저술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목만중은 「원외랑·양렬공 합전」에서 정신보의 성리학 창도(倡導)를 ‘개항지공(開荒之功)’에 비하였다. 이 때는 안향이 연경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왔던 1290년에 비해 약 50년이 앞선다.

정신보는 동래(東來) 이후 남송의 성리학으로 아들 정인경 및 후학들을 가르쳤다. 북방 오랑캐의 잦은 침략 속에서 체계화되었던 남송 성리학은 ‘의리사상’이 강렬하였다. 남송의 의리사상은 『춘추』의 ‘복구사상(復仇思想)’과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정신을 두 축으로 하였다. 정신보의 집안이 본디 춘추학(春秋學)을 가학으로 하였음은 이런 사정과 직결되어 있다. 춘추대이는 정신보 학문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정신보가 ‘의리’ 두 글자로 일생을 마친 것은 그 정신적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당시 전해진 남송(남방) 성리학이 고려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14세기 말 정몽주에 의해 남방 성리학이 다시 수용되어 의리 사상이 고려에서 꽃을 피우는데 일정한 구실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는 일찍이 성리학의 전래와 수용까지의 고려 학풍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⁶⁾. 그 결과, 13세기 말 주자성리학이 원나라에서 들어오기 이전인 12세기부터 이미 북송의 도학이 고려에 전래하였고, 무신정권 시기에도 일부 학인들에 의해 성리학의 전통이 전해졌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중국 학풍의 변화가 큰 시간적 거리 없이 고려 학계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신보가 이정의 학문을 고려 학인들에게 전한 시기는 안향(安珦)에 의해 연경으로부터 주자학이 전래된 1290년보다 50여 년이 앞선다. 이에 앞서 12세기 당시 이미 북송의 도학이 고려에 전래하였고, 무신정권 시기에도 일부 학인들에 의해 성리학의 전통이 전해졌음을 상기할 때, 당시 정신보에 의해 전래된 이정 중심의 성리학은 전혀 생소한 학문은 아니었다.

고려 말 주자성리학의 전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2세기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 수용되기 시작했던 성리학의 여맥(餘脈)이 잔존하지 않았다면, 성리학의 진가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성리학에 대한 예비적 지식 없는 상태에서 그것의 전래와 수용이 가능할까? 당시 고려의 학술적 정황을 고려할 때, 1237년에 남송의 정신보에 의해 이정의 성리학이 동방에 전해졌다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 일방적인 전래가 아닌 주체적인 ‘수용’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가 전한 이정학은 정신보·정인경 부자가 학문의 터전을 일구었던 ‘서산’을 중심으로 학문이 전승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서산이 배출한 여말선초의 명유들이 거의 다 정신보·정인경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서산 지역의 대표적 문벌 귀족

6) 최영성, 「고려 중기 북송 성리학의 受容과 그 양상 -북송 성리학의 전래 시기와 관련하여-, 『대동문화연구』 제31집, 성균관대학교, 1996 참조.

인 서산류씨와 청주한씨 가문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서산류씨 태재(泰齋) 류방선(柳方善)의 가문과 청주한씨 한자희(韓自熹: 韓浚)의 가문은 정신보의 가문과 직, 간접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한국 성리학사는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정신보는 서산이라는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국 정신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 인물이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될수록 한국 성리학사에서 정신보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Ⅱ. 東來와 그 원인

정신보는 1237년(고종 24)에 고려에 들어온 것으로 『가승(家乘)』 등에 기록되어 있다⁷⁾. 또 고려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가승』 등에서는 ‘정치적 망명’으로 기록하였다. 어떤 기록에는 남송이 멸망한 뒤 고려로 망명했다고 한 것도 있다. 그러나 남송이 멸망한 해는 1279년이다. 정신보의 동래를 남송의 멸망 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 착오다.

이제 1237년 무렵의 정황을 보기로 하자. 1115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1125년 거란족이 세운 요(遼) 나라를 병합한 뒤 북쪽의 몽골, 남쪽의 남송과 대치하면서 왕조를 유지하다가 1234년 몽골과 남송의 협공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로는 몽골과 남송 사이의 전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문치(文治)를 기조로 한 남송은 세력이 강한 몽골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몽고의 침략을 자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남송은 때로는 화의(和議)를, 때로는 항전(抗戰)을 통해 사직을 지켜냈다.

정신보가 주로 활동했던 때는 남송의 이종(理宗) 재위 연간인 1224~1264년 사이다. 그 시기 북쪽의 몽골 고원에서는 몽골 제국이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1234년 몽골은 남송과 연합하여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뒤 몽골이 일시 북쪽으로 물러나고 남송군이 복상(洛陽)과 개봉(開封)을 점령하였다. 몽골은 남송이 평화조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여러 번 남송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남송의 명장 맹공(孟珙)에게 고전하는 등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1260년에는 몽케 칸의 친정군(親征軍)이 침공해 왔지만, 전투 중에 몽케가 죽음으로써 몽골군은 회군해야만 했다.

전후 50여 년에 걸친 남송의 항거는 끈질겼다. 역사가들은 대개 남송을 약체(弱體)로 평가하지만, 남송보다 강성했던 금나라도 30년을 버티지 못하였다. 약체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정신보가 동래한 1237년은 남송의 멸망과는 거리가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가 남송이 멸망할 기미를 파악하고 신절(臣節)을 지키기 위해 고려로 망명했다는 ‘정치적 망명설’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동래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다산 정약용은 정신보가 표류(漂流)했다고 하였

7) 『서산정씨세보』 권7, 1a, 『編年圖』 “大宋理宗嘉熙元年, 高麗高宗二十四年, 員外公, 自浙江東來, 居瑞山.”; 目萬中, 「원외랑·양렬공 합전」 “翌年丁酉, 遂浮海東來, 泊于湖西路瑞山郡之看月島.”(『서산정씨가승』 권상, 4a)

다⁸⁾. 또 평소 정신보에 관심이 많았던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1762 ~ 1801)은 정신보가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이 ‘표류설’과 ‘정치적 망명설’은 사실과 다르다.

정신보의 현손 정제(鄭濟)가 찬한 「양렬공실기」에는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기」는 정신보·정인경과 시간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현손이 직접 찬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실기」에 의하면, 정신보가 원나라 세력에 의해 고려국 서산 간월도에 귀양 보내졌고, 이후 정신보가 고려에 눌러 있으면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 「실기」에는 간월도를 ‘적소(謫所)’라고 못박고 있다. 이 ‘귀양설’은 후일 정신보의 후예로 조선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낸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이 뒷받침함으로써 무게를 실어주었다¹¹⁾.

정인홍은 광해군 9년(1617)에 유근(柳根) 등이 왕명을 받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선조 정신보의 충절을 담은 ‘신보도해(臣保渡海)’ 조가 ‘몽주운명(夢周殞命)’, ‘길재항절(吉再抗節)’ 조와 함께 당당히 입전(立傳)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인홍이 ‘귀양설’을 근거 없이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중국에서 자기 나라 사람을 주변국인 고려 등 외국으로 귀양을 보낸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귀양설’은 설득력이 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충렬왕 6년(1280)에 원제(元帝)가 황태자 애아역(愛牙亦)을 대청도(大靑島)로 귀양 보낸 일이 있다¹²⁾. 또 충렬왕 18년(1292) 3월에는 원나라에서 반란 사건의 일당인 합단하(哈丹下)·아리독(阿里禿) 대왕을 잉분도(苐盆島)로 귀양 보냈다. 이어 4월에는 탑야속(塔也速)을 백령도에, 도길출(圖吉出)을 대청도에, 첩역속(帖亦速)을 오야도(烏也島)에 각각 귀양 보냈고, 며칠 뒤에는 합단하 대왕을 다시 영흥도(靈興島)와 조월도(祖月島)에 귀양 보냈다고 한다¹³⁾. 비록 원나라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정신보가 원의 세력에 의해 고려국으로 강제 추방된 사실을 방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신보가 고려 간월도에 정배된 이유는, 그가 원나라의 회유에 응하지 않고 남송에 대하여 고절(苦節)을 지키려 한 데 있었다. 채모(蔡謨)가 찬한 「원외랑 묘갈명」에 의하면, 당시 원나라 태조는 정신보의 고명(高名)을 듣고 낙양 출신 요추(姚樞: 1202 ~ 1279)를 시켜 그를 만단으로 회유하였으나 정신보가 원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하자,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원태조는 그릇이 큰 인물이라 정신보의 기개

8)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권15, 「海防考敍」 “鄭臣保漂至瑞山.”

9) 尹行恁, 『碩齋稿』 권9, 海東外史, 「文可尙」 “臣保挈家渡海.”

10) 鄭濟, 『襄烈公實記』 “元世(太?)祖, 混一天下, 流刑部於海外萬里, 乃高麗國馬韓瑞州南去(看?)月島, 其謫所也.”(『서산정씨 가승』 상, 7b) * 이 「실기」는 오자가 散見된다. 또 후인이 붙인 주석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 예로 ‘高敞縣’을 “지금의 山德(德山?)이다”고 한 것이라든지, 오늘의 서산시 海美인 ‘餘美’를 “지금의 부여이다”고 주석한 것이 그런 예이다.

11) 鄭仁弘, 『來庵集』 권13, 「高祖考務安縣監府君墓銘」 “公諱成儉, 字□□, 其先浙江人也. 浙江之鄭, 實出滎陽, 以國氏也. 八世祖諱臣保, 仕宋爲刑部員外郎. 宋亡, 元人謫刑部于高麗瑞州月島, 始爲國人.”(문집총간 43)

12) 웅진군향리지 편찬위원회, 『甕津郡鄉里誌』, 인천광역시 웅진군, 1996 참조.

13) 『고려사』 권30, 세가 제30, 충렬왕 18년(1292) 3월 무오조 ; 4월 계해조, 4월 경오조 참조.

를 높이 샀지만, 그 휘하 사람들은 정신보를 위험 인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 들었을 것이다. 정신보의 유배는 남송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태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실상의 강제 추방이다. 당시 덕안(德安)에 살던 명유 조복(趙復)이 원나라의 침략 당시 포로가 되어 북원(北元)으로 끌려가 정주의 성리학을 북쪽에 전파한 최초 학자가 된 것과 대비가 된다.

정신보가 강제 추방될 당시 나이는 대개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¹⁴⁾. 이전에 그는 남송 조정에서 형부원외랑을 역임하였다. 원외랑은 육부에 소속된 6품직의 벼슬이었다. 30대라는 나이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도해(渡海) 이전 정신보는 가정을 이루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고려로 올 때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은 없다. 고려에 온 뒤 고려 출신 오영로(吳永老)의 딸 고창오씨(高敞吳氏)를 만나 아들 인경과 준경을 낳아 오늘날 ‘서정(瑞鄭)’의 기원을 이루었다. 그가 설가(挈家)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에 의한 ‘정치적 망명’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유배가 아닌 계획적 망명이었다면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韓汝賢, 李鍾醇 역 『湖山錄』, 서산문화원, 1992.
 毛 策, 『忠義傳家: 浦江鄭氏家族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09.
 文 捷(외), 『鄭氏規範』, 江南第一家文史研究會, 2008.
 鄭餘歡(편), 『江南第一家鄭氏義門源流考略』, 江南第一家文史研究會, 2003.
 윤용혁, 『鄭仁卿家の 고려 정착과 서산: 고려시대 외국인의 귀화 정착 사례』, 『호서사학』 제48집, 호서사학회, 2007.
 황의동, 『정신보, 정인경 父子의 행적과 충남 서부 지역의 유학』, 『동서철학연구』 제42호, 한국동서철학회, 2006.

14) 의문정씨 동거 제1세조 정기의 생년은 1118년이다. 그의 형 정온(충응거사)이 그보다 2~3세 위일 것으로 추정할 때, 정온의 증손 정신보는 대체로 1205년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1대 30년 기준). 원나라를 섬긴 요추와 동년배였을 것이다.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 정 환 ■ 내포교회사연구소

1. 서양 교류의 서막

한국사에서 서양과의 교류는 유럽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기록상 조선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서양인은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세스페데스 신부였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던 중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요청에 의해 1593년 조선에 입국하였다. 세스페데스는 경상남도 웅천 일대에서 1년 여간 머물면서 일본군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고, 전쟁 중 버려진 조선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도하였다. 그의 활동은 대외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된 데다가 임진왜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조선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

세스페데스 이후 천주교와 관련 없이 조선에 입국한 사람들이 있었다. 1627년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난파하여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한국명 박연), 그리고 1653년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그들이다. 조선에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선교사 뒤 알드가 조선과 만주 사이의 국경을 답사한 후 1741년 <<조선전>>을 썼고, 영국인 홀 선장이 조선 서해를 탐사하고 1818년 <<조선서해탐사기>>를 출판하는 등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조선과 서양 사이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바다를 통해 외국과 교류할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고, 해금령을 고수하여 외국 왕래도 엄격히 제한하였으므로 조선이 서양인들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을 통해서였다. 이런 역사로 인해 조선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과정으로 서양인들과 접촉을 갖기 시작하였다.

2. 육로 사행길(1601~1844)

1582년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중국명 利瑪竇)가 중국 마카오에 도착하면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어와 풍습을 익혔고, 동료 선교사들 역시 리치와 같은 적응주의 방법으로 중국 선교에 임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 지식층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양의 종교, 철학, 지리학, 기하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이를 한문서학서(漢文西學書)서라 일컫는데 1584년 류지에리 신부가 지은 <<천주성교실록>>(天主聖教實錄)이 첫 저술로 알려져 있다. 이후 1593~1596년 사이에 마테오 리치가 천주교 교리서 <<천주실의>>, 1595년에 윤리서인 <<교우론>>(交友論)을 저술하였고, 과학 서적으로는 1605년 <<기하원본>>, 1607년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 등이 간행되었다.

중국에서 유포된 한문서학서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간행, 저술되어 400권 이상이 유포되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유학이 존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보유론(補儒論)적 입장에서 한문서학서들을 저술하였다. ‘천주교의 교리가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의 보유론적 입장은 유학자들이 천주교 교리와 서양 지식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이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건국된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양 학문과 종교를 이해하고, 북경에 거주하는 선교사들과 접촉하며 서양 문물을 조선에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테오 리치가 1601년 북경에 정착하였고, 1603년에 <<천주실의>>가 간행되었으므로 해마다 파견되는 조선 사신 일행과 북경에 거주하는 선교사들 간의 교류는 이즈음부터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과 서양의 접촉은 처음에는 한문서학서와 문물의 수입으로, 1784년에는 조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 수용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는 서양과 관련한 서적과 문물이 한 방향으로 조선에 수입되는 단계였다가 천주교 공동체 설립과 더불어 역방향의 진행도 이루어졌다. 조선 신자들이 북경의 서양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소식들이 원문 그대로 혹은 서양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보내졌다.

조선 천주교회는 1801년 신유박해를 겪으면서 거의 붕괴되었으나 몇몇 신자들이 북경을 통해 로마 교황청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선과 서양 간의 교류는 급진전을 이뤘다. 교황청이 조선에 유럽 선교사들을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836년 1월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가 입국하였고, 같은 해 선교사들인 샤스탕 신부와 앵베르 주교가 1837년 1월과 12월에 각각 입국하였다. 이들 세 선교사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조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사행길을 이용하여 조선에 잠입하였다. 조선의 변문과 중국의 책문 사이에 있는 무인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행길이 열리는 기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세기 말 조선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육로를 통해 입국한 처음이자 마지막 서양인들이었다. 이들이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처형되자 국경 검문이 강화되어 육로를 통한 서양인들의 조선 잠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다.

세 프랑스 선교사의 입국은 새로운 교류로 이어졌다. 그들은 조선인 신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김대건, 최양업, 유방제 세 소년을 선발하여 1836년 육로를 통해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다. 세 소년은 10여 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머물며 신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문을 공부하였다. 서양 관련 첫 유학생들인 이들은 유럽 언어와 지식들을 직접 한글로 번역하거나 조선에 알렸고, 그 반대 방향의 교류도 가능하게 했던 1세대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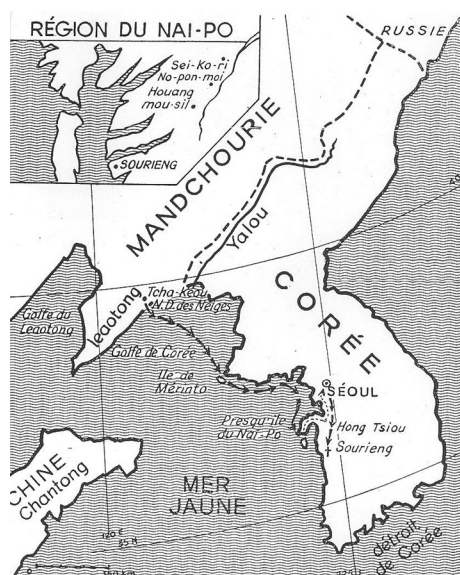
3. 황해 바닷길(1845~1880)

서양 선교사들이 육로가 아닌 황해 바닷길을 통해 조선에 입국하는 방안은 1836년 모방 신부가 입국하기 전에도 검토된 바 있었다. 하지만 조선과 중국 모두 해금정책을 쓰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바닷길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1839년 기해박해 이후 선교사들의 육로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격적으로 바닷길 개척이 시작되었다.

황해 바닷길을 통해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해는 1845년이였다. 마카오에서 유학 중이던 김대건이 육로로 조선에 입국한 후 서울에서 배를 마련하여 중국 상해로 가서 프랑스 선교사 2명을 태우고 재입국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이때부터 서양인들이 해로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는 길이 열렸는데 이는 육로 입국 방법이 해로로 바뀐 형태상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전의 조선과 서양 간의 교류는 중국을 통한 중개적 교류였다. 서양의 서적과 지식들은 원문 그대로의 유럽 언어가 아니라 북경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술한 한문서학서의 형태로 조선에 수입되었다. 또한 제일 먼저 조선에 입국한 세 프랑스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몇 년간 활동한 후 조선에 입국하였기에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먼저 익힌 상태에서 조선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해로가 열리면서 서양 선교사들과 문물이 직접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역방향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 1845년 김대건과 함께 해로로 입국한 다블뤼 신부는 1844년 8월 중국 마카오에 도착한 후 1년만인 1845년 8월 상해를 출발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한자를 약간 익힌 정도 외에는 중국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지 않은 채 조선에 입국한 첫 선교사였다. 후일 그에 의해 유럽의 여러 책들이 직접 한글로 번역되거나 편집되어 출판되었으며, 조선의 언어,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지식들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유럽으로 전해졌다.

1845년부터 시작된 황해를 통한 뱃길 입국이 처음부터 쉽게 정착되지는 않았다. 1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854년 프랑스 선교사 장수 신부가 입국할 때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이 자리를 잡았다. 그 방법은 요동에서 중국 배를 타고 백령도 인근에서 조선 신자들의 배로 갈아타는 방법이었다. 조선 배에 옮겨 탄 선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황해도나 충청도 내포지방으로 항해하여 입국하였다. 이 방법은 1880년 뫼텔 신부 일행이 입국할 때까지 줄곧 이용되어 조선 천주교회와 서양 사이의 교류에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방법으로 이전

의 육로를 통해서는 교류할 수 없었던 다량의 서적, 물품, 편지 등을 정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선교사들의 입국도 활발해져 조선 내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유럽 언어와 지식을 가르칠 수 있었고, 인쇄소도 설치하여 천주교 서적들을 국내에서 출판할 수 있었다.



[그림 1] 조선 후기 선교사들의 입국로

정기적인 해로가 확보됨에 따라 조선 신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일도 가능해졌다. 1855년 이만돌, 김요한, 임빈첸시오라는 세 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페낭까지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할 때 이용한 바닷길을 역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개항 후 변화(1881~1910)

조선이 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며 문호를 개방하고, 그 이전에 일본도 다시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조선 천주교회의 서양 교류 양상은 변화를 맞이한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해지자 조선 천주교회는 나가사키를 거쳐 서양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1881년 페낭신학교로 유학을 떠난 7명의 학생들은 부산에서 출항하여 나가사키로 가서 준비하고 1882년 페낭에 도착하였다. 이후 1884년까지 14명이 더 페낭으로 보내졌는데 모두 같은 경로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페낭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더불어 서구식 교육을 받았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조선의 가족들과 서신을 교환하였다. 그

들은 대부분 10대의 나이에 일찍부터 서구식 교육과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조선에 귀국했을 때 그들은 외국인으로 오인받기도 하였으며, 조선 풍습을 다시 익혀야 할 정도였다.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됨에 따라 그때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은 나가사키에서 제물포를 거쳐 밀항이 아닌 정식 절차로 입국하였다. 이로 인해 선교사들이 프랑스에서 조선에 입국하는 기간도 단축되어 빠른 경우 2개월 이내도 가능해졌고, 편지를 주고받는 기간도 더불어 단축되었다. 여기에는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어 유럽과 아시아 항로가 안정된 것도 한몫을 하였다. 1901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겨났고 기간도 단축되었다. 1902년부터는 서울에서 파리 사이에 기차로 우편물 수발신이 가능해져 빠르면 3주 만에 받아볼 수 있었다. 조선에서 활동 중이던 뮌헨 주교의 경우 1908년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10월 24일 파리를 출발하여 11월 15일 서울 도착함으로써 22일 만에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선 천주교회와 서양 사이의 교류는 개항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그만큼 변화의 폭도 넓어졌다.

5. 교류의 상호작용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선과 서양의 교류는 첫 단계에서는 중국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서울과 북경을 오가는 사행로를 통해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문서학서들과 그들이 전해준 문물들이 한 방향으로 수입되다가, 1784년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된 이후 역방향의 교류도 본격화되었다. 1845년부터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으로 항해 바닷길이 개척되자 조선과 서양 사이의 교류는 중국 땅을 일부 조차하는 정도의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까지 서양과의 직접 교류를 주도한 주체는 조선 천주교회였고, 박해를 받던 그들이 진행한 교류는 밀입국과 밀수입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가장 큰 교류의 성과로 나타난 분야는 언어와 역사를 필두로 하는 학문적인 영역이었다.

조선에 입국한 서양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조선과 유럽에서 쌍방향으로 성과를 내었다. 두드러진 예로, 선교사들이 연구하여 유럽으로 보낸 각종 자료들에 힘입어 샤를르 달레가 <<한국천주교회사>>를 저술하여 1876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되었고, 이어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서구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 책에는 조선의 역사,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었기에 조선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서양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조선을 알리는 안내서가 되었다.

한편 선교사들은 서양에서 저술된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편집하여 한국 내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들이 천주교의 교리서들이었기 때문에 평가절하 되기도 하지만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된 각종 천주교 서적들은 모두 한글 전용으로 인쇄되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다. 이 책들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서양 언어들을 번역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와 어휘들이 만들어졌고 문법도 정리되었다. 더하여 선교사들의 어문학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

한불사전>>, <<불한사전>>, <<한어문전>>, <<라한사전>> 등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용산신학교에서 1909년에 편찬한 <<평면기하학>>, 1910년에 편찬한 <<측량법책>> 등은 또 다른 분야의 학문적 성과이기도 했다.

유럽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에서 비롯된 조선과 서양 간의 교류는 종교의 전파 과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 사회, 국제관계 등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선과 서양 간에 쌍방향으로 발전했다. 그 교류는 처음에는 육로로 시작되었다가 후대에는 바닷길로, 오늘날에는 항공로와 전자 통신 분야로 까지 확대되었다. 그 안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영향과 결과들이 현재의 한국과 세계를 이루었으며 미래의 자산으로 펼쳐져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휴머니스트, 2015.
- 강재언, <<서양과 조선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학교재, 1998.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4(1판 4쇄).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 글항아리, 2014(1판 5쇄).
- 김수태, <프랑스 선교사의 조선 입국로 모색 방안>, <<교회사연구>> 41,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 김수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회사연구>> 4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 김정환, <샤를르 달레의 조선 지도>, <<교회사연구>> 38,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 김정환, <세 번째 한국인 사제 강성삼 라우렌시오>, <<복음과 문화>> 17, 대전가톨릭대학교, 2013.
- 김정환 엮음, <<라리보 주교 자료집>> II,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 김정환, <<뮌헨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 신복룡, <<신복룡 교수의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2002.
- 양인성, <선교회의 아시아 선교>,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 조현범, <<조선에서 파리까지 편지 따라 역사 여행>>, 너머학교, 2013.
-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Bibliographie des Missions Etrangères; Civilisations, Religions et Langues de l'Asie*, Paris, Les Indes Savantes, 2008.



14분과 [특별]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김추윤	신한대학교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이은우	충청문화연구소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황의호	보령향토문화연구소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유승광	공주대학교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내포(마한)지방의 문화와 서해	박태신	예산향토문화연구소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김영곤	당진역사문화연구소
황해 근대 해양문화의 한 검토	김영미	공주대학교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정일	목포대학교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김 추 윤 ■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1. 들어가며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썬트 페테르부르크는 예부터 <유럽으로 열린 창>으로 유명하다. 핀란드만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고, 네바 강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서 각국의 상선들이 모여 들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은 서사시 <청동기마상>에서 ‘대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유럽을 향한 창을 열고, 바다를 향해 두발을 당당히 딛도록 했으니, 이제 새 항로를 따라 이곳으로 각국의 선박들이 깃발을 날리며 모여들고, 우리는 주연을 베풀다’라고 찬양했다.

세계지도를 보면 내포지역은 <유럽으로 열린 창>과 자연 환경 조건이 매우 유사하여 <대중국 교류의 창>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곳이다. 대산곶, 소근포, 안흥 지역이 서해상으로 돌출하여 태안반도를 이루고 경기도와의 사이에 아산만이 내륙 쪽으로 만입해 있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시대까지 해로와 수로의 중심 역할을 했던 범근천(泛斤川)이 이 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삽교천 이서(以西) 태안반도에 속한 내포지역은 지정학적, 해양항로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내포의 중심지인 태안반도는 예부터 중국대륙과 한반도를 해양을 통하여 연결하는 도해(渡海) 및 출해(出海)지역으로 대중국 교류의 창(窓) 역할을 하여왔다.

김신 교수는 ‘한국 무역로 연구’에서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웅진, 사비로 천도하는 상황속에서 태안반도인 내포지방이 대중원교역의 중심 기지였다. 백제와 남조는 흑산-정해노선, 북조와는 백마강-황하 노선으로 백강구, 안면도, 강화도, 백령도, 압강구, 요동반도 남단의 노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말했다.

서해 지역은 백제 시 중국남조, 당나라와 문화교류 및 백제 멸망 기 당 수군의 침략루트, 통일신라 시 중국과의 무역항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통일 신라 말 엔닌이나 고려 초의 서긍의 저서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서해 연안에 위치한 충청도 내포지역은 서해의 이런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를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서해해로는 유지되어 조운선이나 이양선 등이 이용했다.

삼국시대 말이나 통일신라시대 당나라로 가는 대표적인 포구는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당은포(唐恩浦)이었다. 실제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경주-대구-청주-천안-둔포-아산만과 남양만으로 해서 당나라에 들어갔다. 아산만에 위치한 당진은 신라 경덕왕 때 벌수지현(伐首只縣)을 당진(唐津)으로 지명을 바꾸었는데, 이것도 당진지역이 신라 하대에 이르러 당나라로 가는 큰 나루(大津)로 해상을 통한 교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은 해로를 따라 문화전파로가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 상에 내포지역이 중국과 활발한 교류의 창(窓)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2. 황해 해로에 대한 개관

당진(唐津)이란 지명이 기록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년 12월)이다. 경덕왕 시 제반제도와 관직이 당제로 바뀌고 구래의 고유지명을 한자지명으로 바꾸고, 당나라 문화를 대폭 받아들여 신라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때 당나라를 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수지(伐首只)를 당진으로 개명한 것 같다. 이런 사례는 전라도 강진에 있던 탐진(耽津)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탐진은 탐나라(제주도)로 가는 출구이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그 당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해외활동이 활발하여 당나라와 내왕이 빈번하여 당나라의 해안지방인 산둥성에는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보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있고, 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라 땅은 충남의 서북부 지역인 태안반도 즉 태안, 서산, 당진 지역이다. 이것은 그 당시 해상교통이 무동력선으로 해류와 풍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므로 당나라와 실제거리가 짧고, 연안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내포지역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동력이 미발달된 전근대시대에는 지문항법(地文航法)에 따라 연안 항해를 하면서, 최단거리시 원양을 가로질러서 중국에 가기 위해서 대개 내포지역의 보령, 태안, 서산, 당진 등지의 서해연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강화도 부근에서 서해를 가로질러 등주나 적산포로 입항하였을 것이다. 쿠로시오는 북상하는 황해난류의 근원이 되며 중국본토와 한반도 사이에 중요한 해양실크로드 역할을 해왔다. 물론 한반도는 온대 몬순 기후에 속하기에 계절풍인 남서풍과 남동풍도 항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모감주나무의 분포지인 충남 북서부 해안인 당진

시 석문면 교로리, 난지도 및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젓개마을을 보면 알 수 있다.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국제항로를 살펴보면, 환황해연근해 항로는 황해의 서쪽인 중국의 남쪽 절강성 해안으로부터 산둥반도를 거쳐 요동반도로 북상한 다음에 압록강 유역인 서한만에 진입한 후에 대동강하구, 경기만을 지나 계속 남하하여 서남해안, 남해안의 일부, 대마도, 큐슈 북부로 이어지는 항로이다. 이 항로는 거리가 멀어서 약탈 등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항해 자체로는 연안 가까이를 이용하여 가장 안전한 항로이다. 선사시대부터 이용한 항해라고 생각이 든다.

둘째, 황해중부 횡단항로는 한반도의 중부지방 즉 경기만 일대와 그 아래지역과 산둥반도의 여러 지역을 횡단성 항해로 연결하는 것이다. 주로 황해도를 출발하여 웅진반도와 백령도를 지나 먼 바다로 나가 직항단 후 산둥반도의 동단이나 북단에 도착하거나, 경기만의 하단지역 즉 당진, 서산지역 등지에서 출발하여 남풍계열 혹은 동풍계열의 바람을 이용하여 직접 횡단성 항해를 한 다음 등주지역이나 그 아래인 청도만의 여러 항구로 도착하는 항로이다.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셋째, 황해남부 사단(斜斷) 항로는 충청도 해안, 전라도 일부 해안을 출항하여 사단하다가 근해에 들어서거나 멀리서 육지가 바라보이는 해역에서 남진하여 양자강 하구지역으로 진입하는 항로이다. 백제가 웅진 후기나 사비시대에 남조와 교섭 시 많이 이용했을 것이다. 당진은 일시적으로 이 항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즉 웅진 백제시대 초기에는 경기만과 가까운 당진을 출발하여 아산만을 빠져 나간 후에 북동쪽으로 항해하여 덕적도 등을 목표로 삼아 항해하다가 황해중부를 횡단하다 남쪽으로 항해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남부사단항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넷째, 연안항로는 당진지역에서 아산만을 빠져나가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충남의 남서부 및 전북해안과 연결된다. 또 북행하여 덕적도를 지나면 남양, 화성, 인천, 강화 등과 연결된다. 한편 아산만 깊숙이 내포평야지대 한 가운데를 흐르는 삽교천 하로(河路)와도 쉽게 연결된다. 즉 육로+하로+해로의 3웨이 시스템적으로 연결된다.

3. 역사 기록에 나타난 대 중국 황해해로

한반도 중서부해안과 서남해안 지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남해안과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예부터 ‘중국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강남지역과 한반도 중서 및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그 경로는 서해안을 북상하여 발해만을 거쳐서 다시 중국의 동남해안을 남하하는 루트와 곧 바로 황해를 횡단하여 양자강 유역이나 산둥반도쪽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루트가 있다.

충남지역에서 유절병식(有節柄式) 마제석검과 청동검인 도씨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건국 이전부터 중국 강남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세기의 서진 단계에는

마한이 사신을 파견하여 진(晉)과 교섭을 했다는 내용이 진서(晉書) 권 97 동이 마한전(東夷馬韓傳)과 권 3 세조무제(世祖武帝)조에 기록되어있다.

백제와 서진과의 물적 교류의 최초 증거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서진대의 전문자기편과 익산 태봉사에서 출토된 진경(晉鏡)을 들 수 있다. 사실 백제는 시기를 달리하여 한성기-후한척(23cm), 웅진기 및 사비기 전반-남조척 (24cm), 사비기 후반-당척(29cm)을 사용한 것처럼 역동적인 국가로 대중국, 대왜 교역을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하였으며, 475년 개로왕의 전사로 수도를 공주로 이전하여 경기만 일대의 해양활동이 위축되었으나, 무령왕대에 이르러 남조국가들과 활발하게 교섭하면서 충청도 서해안 지역이 백제의 해양세력 근거지로 부상하여 중국과 교통로로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라말에서 고려시대 한중간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문헌으로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서공의 고려도경 정도이다. 그리고 시기를 달리하여 조선시대 간접적인 문헌자료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달레신부의 조선교회사 등이 있다.

3-1.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오는 해상교통로

일본 천태종 좌주까지 오른바 있는 엔닌(794-864)은 당에 유학하기 위해서 배에 오른 838년 6월13일부터 큐슈 하카다에 도착하여 귀국보고 행사를 가진 847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활동상을 날자 별로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겼다. 그가 취한 해상교통로는 847년 9월 2일 중국의 적산포를 출발하여 대마도에 도착하는 9월 10일 까지의 일기에 기록되어있다.

847년 9월2일 정오에 산동반도 적산 막야구(赤山 莫耶口)출발-(동쪽 방향)-9월4일 새벽 西雄州 서해-(동남행 방향)-9월4일 오후 9시경 高移島-9월6일 오전6시경 黃茅島-9월8일 오전 10시경 雁島-(동남방향)-9월10일 오전 對馬島-9월10일 초저녁 九州 松浦郡 鹿島 도착

여기서 내포지역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9월4일 새벽 서웅주 서해’에 도착했다는 기록이다. 즉 적산포에서 출발하여 충청도 내포반도 서쪽 먼바다에 도착하여 그대로 항해를 하면 충청남도 최남단 쪽에 위치한 전라도 군산도에 도착하고, 연안류를 따라 북상하면 내포지역의 안흥정에 도착하고, 서웅주 먼바다에서 동남향으로 해로를 바꾸면 전라도 지방-일본 대마도, 구주 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적산포를 출발한 배는 순항을 하면 불과 이틀이면 충청남도 격렬비열도 먼 바다까지 온다.

이 당시 웅주(熊州)는 신라의 광역 행정구역인 9주 5소경의 한 주(州)이다. 주치(州治)는 지금의 공주시이고 1개 소경 13개 군 29개 현이 소속되어 있어서 지금의 충청남도 대부분 및 충청북도 일부가 영역으로 있었다. 이 당시 내포지역에는 혜성, 결성, 부성군과 남포, 비인, 당진, 여읍, 신평, 소태, 지옥현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3-2. 서공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나오는 해상교통로

1123년 서공(徐兢)은 정사 노윤적(路允迪)과 부사 전묵경(傅墨卿) 등을 수행하여 황해를 항해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에 도착하여 약 1개월간 머무르면서 보고 들은 견문을 귀국하여 그림과 글로 써서 송 휘종에게 봉헌했는데, 원본은 없어졌고 그림을 뺀 필사한 글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송과 고려의 사행행로는 1074년(문종 28) 거란과의 관계 때문에 등주(登州)를 이용하는 기존의 북로(황해 횡단항로) 대신에 명주(明州)를 경유하는 남로(남중국항로)를 이용하였다. 이 해상로는 바람이 4월과 9월이면 한반도에서 대만을 향해서 불고, 7월이면 대만해협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분다. 또 대만해협을 거쳐서 황해와 대마도 해협을 향해서 흑조가 시속 0.3노트로 북상하고 있다.

서공이 1123년(인종 1년) 5월28일 송나라 사신인 노윤적과 함께 명주를 출발하여 지남부침(指南浮針; 나침반)을 이용하여 6월6일에 군산도, 8일에 안흥정, 13일에 개경에 도착해서 20일 정도가 걸렸다. 이중 해양횡단 기간은 5월24일 중국 정해현(定海縣)을 떠나 에서 6월 6일 고군산도에 도착까지 약 13일 정도이고, 이중에서도 매잠(梅岑)으로 부터 군산도에 이르는 약 9일이 해양횡단 기간이다. 그 외는 공물사신이나 영송의례로 소비한 날자이다. 그러나 회정은 역풍으로 인해서 약 42일 정도가 걸렸다. 이런 사실은 서공이 귀국해서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권39 해도 6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오는 사신은 일단 황해를 건너와서 한반도 연안 수로를 따라서 북상하여 수도인 개경으로 향했다. 이들 사신들이 개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영접하고 휴식을 취하던 고려시대 객관이 있었다. 1123년 고려를 다녀간 서공의 <고려도경>에 보이는 서해상의 객관은 군산정(群山亭; 群山島, 전북 군산시 군산항 50km), 안흥정(安興亭;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안흥쟁이 마을), 경원정(慶源亭; 紫燕島,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현 영종도), 벽란정(碧瀾亭; 개성에서 30리 밖 관문 예성항) 등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주 인근 울산 등지에서 중국과 서남해안 각지역의 교역과 세곡 수송을 위해서 술한 신라배가 출항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2012년에 자월도와 영흥도 사이에 위치한 섬업벌 일대에서 인양한 고대선박이 통일신라배로 밝혀졌고, 발굴유물들 가운데는 토기속 황칠이 주목을 받았다. 황칠은 일찍이 고대 중국 등에서 최고의 도료로 사용되던 것으로, 고급갑옷과 장식품에 사용했다. 구당서 등에도 ‘당태종이 백제에 갑옷에 입힐 금칠을 청했다’, ‘백제에서는 황칠 수액이 생산된다’ 등의 대목이 보인다. 이와같이 자월도와 영흥도 사이의 해로는 영종도를 거쳐 개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포지역에서 중국으로 가는 고대 황해해로에서 아주 중요한 길목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내포지역과 관련있는 것이 안흥정, 부용산, 홍주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흥은 현재 널리 알려져있는 안흥항과는 별개이다. 안흥정의 옛 위치는 해미면 산수리 10번지 안흥쟁이 마을일대로, 지금은 안흥정지(安興亭址) 표지석만이 세워져있다. 이곳은 가야산을 등지고 남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간 천수만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천수만을 거쳐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으로 마도(馬島)가 위치하고 있었다. 즉 천수만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안전하고 경관 좋은 가야산 중턱에 정자를 세워 사신을 맞이했던 것이다. 사신의 임시 휴식처인 안흥정지는 해미읍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3km 떨어진 가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해미현 고적조에, ‘안흥정은 본현 동쪽 11리 지점에 있다. 고려 문종 31년에 나주도 제고사 대부소경(羅州道 祭告使 大府少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고만도(高巒島)의 정자는 수로가 약간 막혀 있어 배의 정박이 불편하오니, 홍주 관할 정해현 땅에 한 정자를 창건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장소로 삼도록 하소서 청하니 제서를 내려 그 말에 따랐다. 지금 정자는 헐어져 터만 남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산천조에는 또 ‘양릉포(陽陵浦)는 현 서쪽 10리 있고, 바다의 포구이고, 마도(馬島)는 양릉포 기슭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마도가 바로 양릉포 인접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양릉포가 고려 사신들의 배의 정박지로 추측되며, 여기서 인접한 안흥정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것 같다. 여지도서 방리 해미 남면조에는 구양릉리(舊陽陵里)와 신양릉리(新陽陵里) 지명이 나오며, 현재의 해미면 양림리 지역이다. 양릉포 지명은 양릉리에서 유래한 포구임에 틀림없다. 양림리 주변 화전벌과 개삼포 사이에 1920년대 간척이 이루어져서 양림리에서 양릉포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범선이 정박하기에는 좋은 암초가 없는 갯벌 포구였다.

고려도경은 부용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부용창산(富用倉山)을 지나갔다. 뱃사람들이 부용산(芙蓉山)이라 말하는데, 그 산은 홍주(洪州) 경내에 있다. 그곳에 창고가 있고, 쌓아둔 곡식이 많다고 한다. 비상 상태에 대비해서 부용(富用)이라 명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홍성 관내 산중에 고려시대에 창이 있었던 것 같다.

계속해서 홍주산(洪州山)에 대해서는 ‘자운섬에서 동남쪽으로 수백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작은 산 수십개가 성 같이 둘러싸 있고, 그 산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울같이 맑고 헤아릴수 없다’라고 기록했는데, 산정에 호수가 있는 산은 내포지역에 없으며 그 생성 원인도 빙식호나 화산호가 아니면 안되기에 내포의 최고산인 오서산(790.7m) 이나 가야산(677.6m)을 누군가가 잘못 전달해서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3-3.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해상교통로

이중환(1690-1752)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八道總論) 전라도편에서 대중국 해상통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였다. 원본의 인용이 약간 진부하지만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羅州의 서남쪽에 영암군이 있는데 月出山 밑에 위치하였다. 산 남쪽은 월남촌이고 서쪽은 鳩林村이다. 둘 다 신라때 이름난 마을로서 지역이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였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朝貢할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로 하루가

면 黑山島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를 지나면 紅衣島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더 가면 可佳島에 이르고 艮方 바람을 만나 3일이면 台州 寧波府 定海縣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순풍을 만나게 되면 하루만에도 도착할 수 있다. 南宋이 高麗와 통행할 때 정해현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켜 7일만에 고려 경계에 이르고 물에 올랐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당나라때 신라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간 것이 지금 通津 건널목에 배가 잇달아 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는 장삿배에 편승하여 당나라에 들어가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중환은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촌이 중국 당나라로 가는 배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강화도와 통진 사이에 배가 잇달아 있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다. 신라말 구림촌이 중국으로 가는 해상교통의 요지로서 최치원 같은 대학자도 이곳에서 출발했으며, 그 코스는 구림촌-흑산도-홍의도-가거도(가거도)-영파 루트였다. 그리고 구림촌-흑산도까지 1일, 흑산도-홍의도까지 1일, 홍의도-가거도까지 1일 도합 3일이면 구림촌에서 가거도까지 갈 수 있고, 가거도에서 북동바람을 만나면 3일이면 영파에 도착하고, 순풍이면 하루에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즉 빠르면 4일만에 늦으면 6일이면 중국의 영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자들이 장삿배에 편승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아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장삿배들의 왕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4. 해로를 통한 내포 이주 및 군사적 사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충청도 서해안지역은 백제의 해상교통상 요충지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백제가 무령왕대에 이르러 남북조의 여러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장 짧고 연안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의 포구와 뱃길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충청도 서해안 지역이 경기만을 대신하여 백제의 해양 세력의 근거지로 부상하여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전통은 통일신라시대에도 발전적으로 이어져 황해횡단항로를 통하여 중국산 동반도나 절강지역에서 한반도 서,남해 지역으로 항해하는 항로가 일반화되면서 내포지역은 대중국 교류의 창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당 고종(高宗)은 660년 6월18일 좌위대장군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행군대총관(神丘道行軍大總管)에, 신라 무열왕 김춘추의 차자 김인문(金仁問)을 부총관에 임명하고 수륙 13만 대군을 준비해 산동반동의 등주, 내주를 출발, 아산만 밖의 덕물도(현 덕적도)에 기착하였다. 이에 무열왕은 6월21일 태자 법민(후의 문무왕)과 1백척의 병선을 덕물도에 보내어 영접하였는데, 김정호의 여도비지(輿圖備志)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 의자왕 20년에 덕물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당진에 상륙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코스는 당군(唐軍)이 산동반도로부터 황해를 횡단하는 최단 코스로 아산만 밖의 덕적도에 도착, 덕적도로 부터 아산만 남방의 당진에 상륙하여 백제를 침입하였다. 덕물도는 아

산만 앞 바다로 대산반도 삼길포에서 3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다소 원본의 인용이 진부하지만,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면천 전고(典故)조에 보면, ‘백제시대에 석두동(즉 가리저)에 창고를 설치하여 세곡을 보관하여 수군의 군량으로 사용했다. 그 후 당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와 난을 일으켜 그 창고가 폐지되었더니 신라가 백제를 평정하여 다시 그 옛터에 창고를 설치하였고, 또한 해산의 동쪽 독에 관을 두어 세곡을 많이 저장했더니 백성들이 숙관이라 불렀다. 무릇 당나라배로 온 사신과 상인이 모두 관에 나아갔다.(생략)’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당진으로 지명이 바뀌기 전에 이미 백제의 별수지 때부터 활발하게 중국의 교류의 창 역할을 한 것 같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황해해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주와 귀화가 종종 이루어졌다.

내포지방에 정착한 태안 이씨, 서산 정씨, 소주 가씨, 절강 편씨, 면천 복씨, 신창 맹씨, 신창표씨, 온양 방씨, 신평 송씨, 여양 진씨 등은 조상들이 중국에서 난을 피하거나, 임진, 정유재란시 출병하거나, 유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나라가 망해서 충신불사이군 등으로 황해해로를 통해서 내포지방에 이주와 귀화, 정착하여 창시된 성씨들이다.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면면이 그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신라말 면천의 복지겸이나 남송으로부터의 고려에 귀화한 서산의 정신보, 정인경 부자의 사례는 좋은 예이다. 이들은 고려 정계에 진출하였고, 정인경은 중국 송나라의 문하시랑 평장사로 있다가 송이 망하고 원나라의 건국과 함께 고려로 귀화한 정신보(鄭臣保)의 아들이다. 특히 정인경은 14세기 원과의 외교관계에 종사하면서 첨의중찬의 최고위직에 이르고, 서산군(瑞山君)에 봉군되어 서산을 본관으로 삼았다. 그 덕분에 폐현된 부성현이 군의 등급으로 상승하고 이름도 서산(瑞山)으로 고치게 되었다.

면천복씨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면천군 인물 복지겸 편에, ‘신라 말엽에 복학사라 일컬으는 자가 당나라로부터 본군으로 와서 살면서 능히 바다 도적을 물리쳐 죽이고 머물며 남은 백성을 모아 보전한 바 있는데, 지겸은 그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52 제계고(帝系考) 13 부(附) 씨족(氏族) 면천복씨 시조 지겸 편에도, ‘신라말에 복학사 원나장(元羅章)이란 자가 중국에서 오계(五季)의 난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와서 당촌(唐村)에 머무르면서 해적을 소탕하고 거주민을 모아서 보호하며, 이로 인하여 정착하였다. 복지겸은 바로 그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복지겸은 당나라로부터 이주 해온 자의 후손이며, 그 당시 당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만이 모여사는 당나라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으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황해해로를 통하여 민간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중국에서 기원한 내포지역에 정착한 성씨들 사례

姓氏	始祖	先代の 出身地域 및 관계	移住 事由
泰安 李氏	李奇	당나라 서주 출신 李昇南 후손	고려 광종때 난을 피해 당나라에서 이주
瑞山 鄭氏	鄭仁卿	송나라 절강성 출신 鄭臣保 후손	고려 고종때 송나라가 망해서 이주
蘇州 賈氏	賈晟	명나라 강소성 출신 賈維鎰 후손	임진왜란때 명나라 장수로 참전
浙江 片氏	片碣頌	명나라 절강성 출신 片碣頌	정유재란때 經略都督으로 참전
河川 卜氏	卜智謙	당나라에서 온 卜學士 元羅章 후손	신라말 중국에서 오계의 난을 피해서 바다 건너 당촌에 정착
瑞山 宋氏	宋文翊	당나라 경조 출신 宋柱殷 후손	송주은의 후손 송자영의 유익, 천익, 문익 세 아들이부터 3개의 본관으로 갈라져 여산송씨, 은진송씨, 서산송씨 로 나누어 졌음
驪陽 陳氏	陳寵厚	송나라 복주 출신 陳壽 후손	진수가 북송 말엽 복주에서 난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고려시대 여양에 도착. 여양은 홍성군 장곡면 옛 이름
新昌孟氏	孟儀	당나라 출신 孟承訓의 후손	맹가의 39세손 맹승훈이 신라 진성여왕시 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나라 오경박사의 자격으로 신라에 입국

5. 맺으며

삼국 중 만주와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을 차지하던 고구려는 중원 국가들과 육로를 통하여 교류하였지만, 한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던 백제는 주로 해로를 이용하였다. 즉 백제는 운명적으로 북방에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어서 중원대륙과 해로를 통해서만 교류할 수 있었다.

고대에 있어서 해상을 통한 대중국 교류는 공식적인 사절단의 파견이나 정치적 변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동경, 신천지 개척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백제지역에 속했던 내포지역은 안흥정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신파견, 중국계통의 다양한 성씨집단의 세거에서 보는 정치적 변란이나 신개척지로의 이주, 한진(漢津)나루에 대한 기록에서 보듯이 장사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당시 당나라와는 생각보다도 폭넓게 사신 장삿배들이 많이 왕래한 것 같다.

백제와 남조와는 해류를 이용하여 흑산-정해노선이, 북조와는 백강구-안면도-강화도-백령도-압강구-요동반도 남단의 노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의 대중국 교류창구는 남양만의 당은포에서 황해를 건너서 산둥반도로 가는 길과 전라도 영암에서 흑산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주로 이용되었다. 당시 산동의 등주(登州)에는 도성인 장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각국의 관이 있었다 한다. 신라는 진, 수, 당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 특히 당과는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공략하기도 했다.

송사(宋史)에 고려의 상선이 자주 명주, 등주에 표착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밀

무역을 위한 위장인지도 모른다. 그 당시 명주, 등주는 고려의 관문항인 예성항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당대로 부터 고려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다. 고려문종 28년 이전에는 등주가, 그 이후에는 명주가 중심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주 해로를 살펴보면, 북선해로는 산동지방 등주에서 동북으로 거의 직선으로 횡단하여 대동강 어귀로 옹진구, 예성항에 이르는 코스이다. 문종 28년 이후부터는 북선보다는 남선해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란세력이 강성하여 북선항로가 위협받게 되고, 남선항로에 국제무역이 성행하자, 명주로 부터 동북으로 흑산도에 이르러 다시 동북행하여 고군산도-마도(해미 서쪽)-자연도 등의 연안 도서를 따라서 예성항에 이르는 코스를 택했다. 이런 사실은 서공의 <고려도경>에 잘 나타나있다.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이 은 우 ■ 충청문화연구소

1. 서론(緒論)

백제 20대 개로왕(蓋鹵王)이 475년(蓋鹵王 20)에 고구려군 10만이 백제수도(漢城)에 침입하자 이를 막아내다가 왕(王)이 사망하자 뒤를 이은 개로왕(蓋鹵王)의 아들(文周)가 뒤를 이어 같은 해 (475년) 21대 왕으로 등극 한 뒤 문주왕(文周王)은 같은 해 수도를 서울을 웅진(熊津, 公州)로 옮겼다.

이후 문주왕(文周王)이 476년(文周王 2)에 22대 삼근왕(三斤王)이 등극하고 또 삼근왕(三斤王)이 2년 만에 사망하자 문주왕(文周王)의 아우 곤지(昆支)의 아들 모대(牟大)가 등극하였는데 이가 곧 23대 동성왕(東城王)이다. 동성왕(東城王)은 479년~500년까지 22년간 집권 사망한 뒤 동성왕(東城王)의 제2자 사마(斯摩)가 24대 무령왕(武寧王)으로 등극하였다. 무령(武寧)이 522년(무령 22)에 사망하자 무령왕(武寧王)의 장자 명농(明穰)이 25대 성왕(聖王)으로 등극하였는데, 538년(聖王 16)에 서울을 사비(泗沘 일명 所夫里)로 옮겼다. 따라서 웅진 도읍기간은 63년간이고 이 기간의 백제(百濟)는 주로 양(梁)나라에 조공하고 교역하였던 것으로 사서(史書)에는 나타난다.

성왕(聖王)이 538년(성왕 16) 서울을 사비(泗沘 또는 所夫里)로 옮긴 뒤 제 25대 위덕왕(威德王)때인 567년(위덕왕 14)부터 양나라가 망하자 백제(百濟)는 진(陳)나라에 조공(朝貢)하고 교역하기 시작하고 그 후 북제(北齊) 그리고 581년(威德王 29)부터는 수(隋)나라에 조공하기 시작하였다.

617년(수 의령 隋 義寧 1)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되자 이때부터는 당

나라에 조공하기 시작 641년(무왕42)까지 끊임없이 당(唐)나라에 조공 교역하였다. 제30대 의자왕(義慈王)이 641년(義慈1)에 왕위(王位)에 오른 뒤에도 백제(百濟)는 당(唐)나라에 조공하였으나 백제는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가 당나라에 입조(入朝)하려는 당항성(黨項城=南陽)을 공취(攻取)신라의 당나라 입조를 막으려 한데서부터 당나라와 틈이 나기 시작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치게 되는데 당 고종(唐高宗)은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13만 대군을 지원 신라 합세 백제를 치게 하였는데 이때 소정방은 군사를 이끌고 성산(城山:山東半島)로부터 바다를 건너 덕물도(德物島=德積島)에 이르니 신라에서는 왕세자(王世子)인 법민(法敏=뒤에 문무왕文武王)을 파견 영접하게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백제(百濟)가 중원의 북부에 있었던 북제(北齊), 진(陳), 수(隋), 당(唐)과 수교 기간은 약 88년간이다.

백제가 북중(北中)에 위치 해 있었던 나라들과 수교 접근하는 데는 지리상 산동성(山東城)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덕물도(德物島=德積島)가 필수 통과 지점이었던 것으로 사기(史記)에 나타난다. 그런데 덕물도(德物島)는 한반도에서 가장 근접 한곳이 서산시 대산반도로 30km이고 덕물도에서 산동반도(山東半島)까지는 75km로 총 105km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모든 고대 문화(古代文化)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면 이러한 태안반도인 서산의 백제신라(百濟新羅)시대에 서산(瑞山)이 어떠한 기능을 했고 해양문화가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백제(百濟) 한성(漢城) 웅진(熊津) 사비(泗沘)시대의 대중문호(對中門戶)

백제의 불교는 384년(14대 枕流王1) 9월에 호승(胡僧)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한성(漢城)에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에도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물길이 가까운 서산 땅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포(內浦)지방의 중심이 가야산(伽倻山)인데 가야(伽倻)란 석가가 성불한 곳 부다가야에서 온 이름으로 한반도에서는 최초의 가야산(伽倻山)이란 이름을 가진 곳으로도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신라(新羅)에서는 143년 후인 527년(法興王14)에서야 불법(佛法)을 허용하였으니 합천가야산(陝川伽倻山)은 필연적으로 서산 가야산에 비하여 뒤에 이름 지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상(瑞山磨崖三尊像)이 6세기 초에 만들어 진 것으로 학계에서 이야기 되고 있고 국보 307호 태안마애삼존입상(泰安磨崖三尊立像)도 같은 연대에 만들어 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보원사지(普願寺址)에서 발굴된 백제 때 금동불상(金銅佛像)은 그 모양이 북위(北魏) 정광년대(520~524(正光 1~5)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어 서산지역은 백제 한성시대(漢城時代)부터 대 중원(中原)과 할 발 한 교역이나 문화적 접촉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백제(百濟)란 이름부터 해상(海上)활동을 의미하는 나라 이름이지만 한성 백제 때부터 한

강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 일찍부터 그 세력이 확장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자연히 서해안에 위치하여 대중 교통로에 가까웠던 서산지방은 한성백제(漢城百濟)의 긴밀한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 것 같다.

서산지방에서 최초로 고대유적인 무덤을 발굴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에 고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김 기 풍 대산중학교장의 제보에 의하여 국립박물관에 있었던 김영배, 한병삼에 의하여 대산면 대로2리(明智)에 있는 백제토광묘군(百濟土壙墓群)을 발굴 조사 했는데 부장유물로는 철제환두대도(鐵製環頭大刀)를 비롯하여 토기(土器) 철부(鐵鉢) 철제쇠스랑1점 그리고 철정(鐵釘) 철검(鐵劍)등이 출토됨으로서 당시로서는 대산반도(大山半島)의 고대문화라는 이름으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에 따른 고속도로의 개설 그리고 대단위 공공시설을 위한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필연적으로 크게 전개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① 1999년4월 도로개설 관계로 발굴조사 된 운산면 여미리 방 죽 골 유적 발굴조사에는 백제시대의 대단위 와관묘(瓦棺墓)가 발굴되었고 2008년에는 음암면 부장리에 APT 건립 부지조성을 위한 발굴조사가 있었고 2009년 해미면 기지리에서는 대단위공공사업을 위한 발굴조사가 있었으며 그리고 2012년에는 예천동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발굴조사에서 생각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 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② 이 중 음암면 부장리 유적으로는 4~5세기 대를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1) 분구묘(墳丘墓) 13기가 조사되었는데 분구묘에서 금동관(金銅冠)1점과 금동신발(金銅飾履) 2점 그리고 중국제 자기(中國製 瓷器) 그리고 초두(斗) 등이 발굴되었다.

여미리(餘美里)방죽골에서는 분구묘(墳丘墓)가 16기 토광묘(土壙墓)가 7기 그리고 백제시대 수혈식석곽묘1기 횡구식석곽묘3기 등인데 여기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은 기마문양(騎馬紋樣)있는 토기(土器), 그리고 삼족토기(三足土器)외에 환두도12개(環頭刀=3분구묘 출토) 토기(土器)3점(가장 큰 토기에는 기마도가 있음)등이 출토 되었다¹⁾.

③ 해미기지리 유적 유구(遺蹟, 遺構)는 저평하게 이어지는 구릉상에 신석기시대 주거지 5기, 청동기시대주거지 60기 수혈유구 20기, 백제시대주거지 2기, 분구묘(墳丘墓) 60기, 고려~조선시대토광묘(土壙墓) 91기, 조선시대주거지 41기 등이 조사되었다. 기지리 유구(遺構)는 크게 청동기시대 주거지군과 백제시대 분구묘군(墳丘墓群)으로 나뉘어 분포한다. 분구묘(墳丘墓)의 조영순서는 선상부에서부터 주변의 사면부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선상부의 유구(遺構)가 단독의 주 매장시설을 조영한 반면 능선사면부의 것은 2~3차에 걸쳐 매장 주체 부 수평 확장이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모두 관내부에 부장하였으며 ,매장주체부의 발치에는 1~2점의 토기를 부장 하였다. 특히 21호분 구묘의 매장 주체부 중앙에서 한 식 경으로 전하는 사유훼릉문경 1점,

1) 이현숙, 한성기 백제지방 사회의 상호 작용 연구, 서산문화발전연구원 제33회 정기학술회의 발표 논문, 14쪽.

그리고 청동경(靑銅鏡)과 방울이 출토 되었다.이외에도 토기의 겨우 평저직구호류가 많고 광구호와 단경호, 뚜껑,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등이 확인되며 철기(鐵器).철정(鐵釘)이 가장 많고 철부(鐵斧)와 철서(鐵鋤), 환두대도(環頭大刀)와 도자(陶器)등이 출토 되었다, 철정(鐵釘)은 매장부의 머리 쪽에 세워져 있는 형태로 확인 되는데, 장례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 2012년 예천동유적에서는 대체로 1~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구묘(墳丘墓)103기가 확인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구릉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입지는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부만 조사 된 것이다. 여건상 분구묘(墳丘墓)의 분포 범위는 훨씬 넓을 것으로 추정 되는 곳이다.

분구묘(墳丘墓)중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것은 18호 분구묘(墳丘墓)로 2기가 나란히 횡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18-1호 묘(墓)에서 청동장식(靑銅裝飾)이 있는 칼집(劍鞘)이 있는 철검(鐵劍)이 출토 되어 서산이 초기철기시대까지 편년이 가능 하게 되었다.

⑤ 고대사(古代史)에 있어서 선사시대(先史時代)에서 역사시대(歷史時代)로 발전 하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철(鐵)을 언제부터 사용 하였으며 그 내용상에 얼마나 발전 된 것을 언제 부터 그 지역에서 사용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산에서는 1969년부터 고분 발굴에서 고대 철기(鐵器)가 출토됨으로써 서산지방이 백제(百濟)서울 한성(漢城)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邊方)이므로 그 동안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뒤떨어진 곳으로 추정해 왔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서산지방은 백제한성(百濟漢城)시대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영향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으나 백제서울이 웅진(熊津) 사비(泗沘)로 옮기면서부터 직접 지배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음암면 부장리 분구묘(墳丘墓)에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금동관(金銅冠)이나 금동신발(金銅飾履),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등 중앙문화의 위세품(威勢品)이 발굴됨으로써 한성백제시대(漢城百濟時代)부터 서산지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지방으로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된 것이다.

더구나 중국제자기(中國製瓷器)가 출토 된 것은 2) 서산지방(瑞山地方)이 700여km의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을 가지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으로 중국으로 부터의 선진문물(先進文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받아들여졌던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²⁾.

그 중에서도 왕실(王室)에서만 쓰는 금동관(金銅冠)과 금동신발(金銅飾履)이 이곳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은 중앙왕실(中央王室)에서 하사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음암면(音岩面)지방이 1914년 이전 까지 동음암면(冬音岩面)으로 음운상(音韻上) 백제시대 왕의 자제들이

2) 이훈, 2015, 서산부장리고분군의 정치·사회적 성격, 서산문화발전연구원 제33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공주대학교 발표논문 37쪽.

지방 분권왕(分權王)으로 집권했던 담로(擔魯)를 뜻하는 지명이었고 분구묘(墳丘墓)가 발굴된 주변 마을 이름 중에는 “왕(王)시랭이” “왕자미(王子山)” “왕자지(王子池)” 등이 있어 이곳에는 백제시대 담로(擔魯)가 배치되어 있었던 곳임을 알 수가 있다. 담로(擔魯)를 의미하는 “동음암(冬音岩)”이라는 지명을 최근세까지 가졌던 곳은 전국에서도 유일 한 것이다.

3. 660~663까지 주류성(周留城)을 중심으로 한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의 중심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660년 백제(百濟)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망 한 뒤에 무왕(武王)의 조카 복신(福信)은 자칭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칭하고 승 도침(僧道琛)은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칭하며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을 주류성(周留城)에서 일으키고 일본에 가 있던 풍왕자(豐王子) 모셔다가 왕(王)으로 모시고 660년~663까지 나당연합군에 맞서 옛 백제의 서북부(西北部)에서 치열하게 싸운 곳이 주류성(周留城)이다. 그런데 이 주류성(周留城)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위치를 미상(未詳)이라 기록 하고 있다³⁾.

이것을 최근세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여러 학설이 있다. 서천 한산 건지산성설(舒川韓山乾芝山城說) 이병도(李丙燾), 연기당산성설(燕岐唐山城說) 신채호(申采浩) 김재봉(金在鵬), 홍성 여양산성설(洪城驪陽城說) 박성흥(朴性興), 전북 부안위금암산성설(全北扶安位金巖山城說) (금서룡(金西龍), 전영래(全榮來) 등이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三國史記)기록대로 라면 왕도사비성(王都泗沘城)의 서북부(西北部)에서 일어났다면 서천이나 연기나 전북부안은 방위(方位)상 서북부(西北部)가 아니니 방위(方位)가 맞지 않는다.

① 호산록(湖山錄)기록 백제유민(百濟遺民)들의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항전(抗戰)기록

서산(瑞山)에는 1919년(光海11)에 만들어진 경기충청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10번째로 만들어진 호산록(湖山錄)이라는 고읍지(古邑誌)가 있다. 이 고읍지내 용중 산천조(山川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상왕산(象王山)은 군청(郡廳)동쪽 삼십리(三十里)에 있으니 해미(海美)의 경계이다. 이 산(山)은 두 이름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상왕산(象王山)이라 하고 하나의 이름은 가야산(伽倻山)이라 하는데 상왕산(象王山)이란 이름은 당시의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오직 가야산(伽倻山)이라고 일컬어 왔다. 부처의 서적을 참고해 보면 가야산(伽倻山)이란 이름은 본래 불서(佛書)가운데서 유래된 것이다. 하나의 산(山)에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증거하였으나 그 사적의 본말(本末)은 또한 증거 하여 이름하지 못 하겠다.

3)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660년 의자왕(義慈王) 20년조.

동국통감(東國通鑑)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모두 상고(上考)해 볼 수 없는데 홀로 이산(山)을 상왕산(象王山)이라 하여 궁전(宮殿), 누대(樓臺), 연못(蓮淵), 연하는 길(道), 벽돌(壁磚), 절단된 기와(片瓦), 깨어진 주초(柱礎) 등이 숲속에 싸여있어 완연하게도 옛그제 일과 같은즉 어느 시대에 임군(王)이 나와서 이 산속(山中)에다가 국도(國都)를 건설 하였었는가 알지 못 하겠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일백(一百)가지 짐승 중에서 오직 코끼리의 힘이 제일 세어 짐승 가운데서는 웅장 하였은즉 코끼리로서 왕(王)이라 칭하여 불러온 것 같으나 당시에 유력한 자의 칭호에 불과하다.

“신라(新羅)와 백제(百濟)가 전쟁(戰爭)”으로 일삼던 날에 참람(僭濫)하게도 국호(國號)를 도명(盜名)하여 서로 힘을 믿고 험지(險地)를 점거 왕(王)이라 칭하고 나라라 칭한 것 같으나 그때 역사(歷史)인즉 병화(兵禍)에 유실 후세(後世)에 전함이 없으니 사적(史蹟)으로 고증할 수가 없다.

또 내가 중년에 어느 사람으로 부터 노승(老僧)이 가지고 있던 옛 문서를 얻어 보았더니 책장 가운데에 상왕지대원년(象王地大元年), 지대2년(地大二年)이라고 쓴 것이 있었은즉 그것이 왜인(倭人)들의 자칭(自稱)으로 천정2년(天靖二年)이라 한 것과 무엇이 다른이 있겠는가?

이상과 같은 호산록(湖山錄)기록을 유의 660년~663까지에 있었던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에 대한 일본서기(日本書紀)기록을 보면 662년(일본천지왕1년(日本天智王1年))의 기록에는 풍왕(豐王)이 있는 “주유(州柔=주류성(周留城)이름으로 봄)는 전답(田畠)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토지가 척박(瘠薄) 농사(農事)와 양잠(養蠶)에 부적(不適)하나 항전(抗戰)에는 좋은 조건이라는 ” 기록이 있고 천지왕(天智王)은 왕자로 왕위(王位)에 오르기 1년전 풍왕자(豐王子)에게 5천군사(五千軍士)를 지원해 주었다 기록되어 있고 천지1년(天智1年)에는 수군(水軍)175척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호산록(湖山錄)기록인 왜 천정2년(倭天靖2年)은 663년(백제풍왕(百濟豐王3))으로 백제부흥군(百濟復興運動軍)의 풍왕백제(豐王百濟)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맞서 싸우다가 패한 해를 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호산록(湖山錄)의 이 기록은 660년~663년까지 주류성(周留城)에서 있었던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 주류성(周留城)이 보원사지(普願寺址)가 있는 강당계곡(講堂溪谷)이고 풍왕산(豐王山) 와전(訛傳) 상왕산(象王山)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주류성(周留城)의 주(周)자 훈(訓)이 두루 주자인데 보원사(普願寺)의 보(普)자도 두루 보자로 우연치고는 희한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1759년(영조35)에 실학자 안정복(安鼎福)이 쓴 동사강목(東史綱目) 웅진도독부고(熊津都督府考)에서 평이현본지류(平夷縣本知留)라 하여 663년(豐王 3)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이 최종으로 패한 곳이 서산시 지곡(瑞山市地谷)이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그 후 천관우(千寬宇)사학자도 고조선사(古朝鮮史) 삼한연구(三韓研究 1989,401쪽)에서 이를 지지 하였고 최근 백제사를 전공하는 계명대학교의 노중국(盧重國)

교수도 이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 한바 있다⁴⁾.

지곡면(地谷面) 산성(山城)1리 마을 부성산하(富城山下)에는 이를 뒷받침 하는 자연마을 명이 있다.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과 치열한 최종전투지였던 전구령목쟁이(戰軍項), 이에 연접된 풍왕(豐王)이 최종적으로 패(敗)한 망군말(亡君村) 그리고 피난뢰(避亂山) 대궐재(大闕峴)등 과 같이 이와 관련 된 지명이 밀집 되어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이때 일본에서 온 지원군(支援軍)과 백제유민부흥운동군(百濟流民復興軍)으로 살아남은 패전군(敗戰軍)모두 테례(弓禮)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후퇴했는데 이 테례(弓禮)는 대당간(對唐間)에도 문호항(門戶港)이었던 터산성(吐美城)아래 닛개(碇浦)로 보아야 한다.

주류성(周留城)으로 확인되는 보원사지(普願寺址)와 지곡면 부성산성(富城山城)까지는 직선거리로 20.5km로 도보거리로 본다면 50리어서 보통 하루거리다. 이와 같이 평이현지류(平夷縣知留)가 서산지곡면(瑞山市地谷面)이라면 보원사지(普願寺址)와 군왕골(君王谷)이 주류성(周留城)이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백제사(百濟史)를 전공하는 한국전통 문화학교 이도학(李道學)교수도 2005년8월에 만들어진 “서산보원사지(瑞山普願寺址)종합정비기본계획” 58쪽에서 지심주평이현지류(支潯州平夷縣知留)가 현서산시 지곡면(地谷面)일대라는 안정복(安鼎福)천관우(千寬宇)설을 지지하면서 주류성(周留城)이 가야산(伽倻山)속의 보원사지(普願寺址)가 있는 강당계곡(講堂溪谷)과 군왕골(君王谷)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부근에 위치한 가야산맥(伽倻山脈)중에 있는 도독성(都督城)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가야산(伽倻山) 속에는 거대한 고대성곽(古代城郭)이 있는데 호산록(湖山錄)에서는 이를 상왕(象王)이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상왕성(象王城)에서 동남방면으로 약1km의 거리에 위치한 큰 석굴(石窟)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해 오기는 이 굴(窟)을 옛 부터 복신굴(福信窟)이라 전해 온다는 것이다.

보원사지(普願寺址)가 있는 강당계곡(講堂溪谷)에는 옛날 100개의 절(寺)이 있었다고 전해오며 100개 째의 절터 백암사지(百岩寺址)가 최근까지 큰 석탑(石塔)까지 있는 채로 군왕골(君王谷) 깊은 계곡에 위치해 있고 978년(고려 경종 3)에 세워진 보물 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 비문중(碑文中)에는 법인국사가 고지(故地)인 강당계곡(講堂溪谷)에 975년(고려광종25)당도 했을 때 선교종승려(禪敎宗僧侶) 1천명이 출영 나왔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시대는 다르지만 도침(道琛)의 휘하 백제부흥군들은 일반 백제유민(百濟遺民)들 보다는 승려(僧侶)들 중심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4. 서산지방(瑞山地方)은 신라시대(新羅時代) 대당 문화유입의 중심지

4) 2004,12,10 서산문화원 주최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 “서산지역의백제문화. 「노중국발표논문 ”백제의대중국교류-尺의 변화와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17pp 24 행」

① 신라시대 대당(對唐)의 문호(門戶)

신라(新羅)에서는 가야산(伽倻山)을 서북(西北)의 진산(鎭山)으로 정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춘추로 제향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학사 고운 최치원(新羅學士孤雲崔致遠)은 887년(진성여왕1)~893년까지 현재서산시지곡면 부성산성(富城山城)에서 부성태수(富城太守)로 재임했다. 이는 고운(孤雲)이 신라에서 벼슬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그를 신라에서 이곳에 배치했던 중요 이유는 그 성(城) 아래에는 닻개(碇浦)가 있어 당(唐)나라와의 문호(門戶)로 대당(對唐)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긴 기간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비문(碑文)은 총 4,500여자에 이르는데 비문(碑文) 중에는 “고로(古老)부터 전해오기를 향성산(鄉城山) 안에 불사터(佛寺址)가 있는데 옛 적에 원효보살(元曉菩薩)과 의상대덕(義湘大德)이 함께 다니다가 쉬던 곳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날에 향성산(鄉城山)이 어느 곳을 이르는지 확인키는 어렵지만 현재도 가야산(伽倻山)에는 원효봉(元曉峯)이란 산봉우리가 있고 보원사(普願寺)도 의상이 창건한 화엄십찰중(華嚴十刹中)하나라 하고 서산 부석사(浮石寺)도 의상대덕(義湘大德)이 창건 하였다 전해온다. 따라서 의상대덕(義湘大德)과 선묘낭자 전설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 신라(新羅)때 고승(高僧)들 당나라 유학 통로가 서산 지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 해주는 것이다.

1926년 간행된 서산군지(瑞山郡誌)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산에는 25개소의 기항포구(寄港浦口)가 있었는데 당시 대중국교역실적(對中國交易實績)이 있는 곳은 오직 지곡면 부성산하(富城山下)에 있는 “닻개(碇浦)”뿐이었음이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닻개포(碇浦港)의 고대기능(古代機能)이 얼마나 중요 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

② 1970년대 말경까지 서산시가 중심에는 “차이나타운” 이 있었다.

서산에는 1970년대 말 경까지 시내 중심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 50여 가구가 밀집 거주하고 있어 화교소학교(華僑小學校)도 있었다. 쌍십절이나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200명 가까운 전화교민이 정장에 대만국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나와 서산 시내 중 심 로 양편에 서서 기를 흔들며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환영하던 모습이 어제일 같이 선하다. 이 화교(華僑)들 1세대들은 1918년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49년경까지 유입되어 왔었다.⁵⁾ 이런 것을 보면 고대(古代)부터 근대까지 서산지방은 대 중국과의 유대가 긴밀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⁵⁾.

5. 내포문화(內浦文化)의 중심지

내포(內浦)란 간조시(干潮時) 갯벌이 물에서 벗어 들어나 인간이 맨몸으로 갯벌에 들어

5) 김세중, 서산향토연구회원 「화교(華僑)이야기」서산의문화(瑞山의文化) 제8호 1996.12., 145-170쪽.

가 어로활동을 하며 살던 곳을 말 하는 것이다. 서산태안지방은 이제까지 갯벌(淺海干瀉地)을 매립(埋立)한 면적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400km²가 넘을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을 가진 곳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 있는 곳에서 넓게 들어난 갯벌에서 일상생활을 해오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말이 느린 지방이고 “이랬슈, 저랬슈” 경칭에 ‘슈’자(字)가 붙는 방언(方言)속에 산다.

또 간조(干潮)때면 들어난 갯벌에서 사는 주민들은 어패류(魚貝類)말고도 바다식물류를 부지런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채취해다 먹거나 판매하는 것이 많았다. 이에는 함초(蔞草)식물인 ‘나문쟁이’, ‘갯 줄(바다부추)’, ‘이른 봄이면 갯벌에 이끼처럼 돌아나는 감태(甘苔)’ ‘파래’

‘삼꼐파래’ ‘세모(細毛 풀가사리)’ ‘말(가래 과의 해수 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수초(水草))’ 등 해조류(海藻類)가 있어 부지런하기만 하면 무진장으로 채취해다 먹을 수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갯벌에서 능쟁이(까만 작은 게)를 잡아다 간장에 담갔다 먹은 뒤에 그 게 국물로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을 ‘게국지’라 하는데 서산 태안 당진 토박이 들은 이것을 잘 먹는다. 따라서 내포사람의 동질성을 말한다면 이 ‘게국지’를 먹으며 살아 왔었는가도 중요하다.

따라서 내포문화(內浦文化) 즉 안개문화의 중심은 당연히 서산(瑞山)이고 서산지역 중에서도 내포문화(內浦文化)중심기능(中心機能)은 지곡면(地谷面)지방이 담당해왔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옛 덕물도(德物島)인 덕적도(德積島)가 풍선(風船)으로만 왕래 되던 옛날에 지곡면이 중요한 생활 거점이었다. 따라서 덕적도(德赤道)그리고 풍도(風島)주민들이 지곡면 소재지에 여러 집 이주해 와 살기도 했고 연중 그곳에서 잡아 올린 어물(새우 젓 등)을 들여다 팔고 지곡면지방에서는 쌀 보리쌀 등 곡물과 장작 등 땃감 등을 수입해 갔던 것이다.

6. 결론(結言)

그동안은 서산태안(瑞山泰安)지방은 지리적 변방(邊方)으로 취급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등한히 해 왔다. 조선 조 때도 서산지방은 염철(鹽鐵)에 이골(理屈)이 난 곳으로 야철지(冶鐵址)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았고 임란 후(壬亂後)부터는 국가재정이 고갈 나서 나라에서는 서산(瑞山). 무장(全北茂長). 옹진(黃海瓮津)등에서 생산되는 자염(煮鹽)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했던 일이 있다.⁸⁾ 이러 함에도 사가(史家)들은 이러한 사실을 중요사료로 남기는데 등한히 했다 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지방사를 깊이 연구 국사(國史)의 고대사(古代史)를 정확히 하여 후세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⁶⁾.

6) 이은우, 서산향토연구회원 논문 「조선조제염에 있어서 서산지방의 위치와 위치자염방법 서산의문화 제7호 55~61쪽.

이은우, 서산향토연구회원 논문 「朝鮮朝製鹽에 있어서 瑞山地方의 位置와 煮鹽方法 향토사와 향토문화 향토사연구논총 1 사단법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12,26 42-50쪽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정 우 영 ■ 전태안문화원장

1. 태안군의 특징

태안군은 서해안쪽으로 깊숙이 돌출된 반도지역이면서도 특이하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동서의 폭은 넓은 곳이라야 50여 리(20km)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만 남북의 길이는 안면도의 최남단인 영목항에서 이원면의 끝자락인 만대항까지 200여 리(80여 km)에 달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스러운 지형이다.

그러면서도 태안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음은 물론 터널이 하나도 없고 전문대학(專門大學)이나 병원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군(郡)이다. 뿐만 아니라 비행장이나 공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항구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개발면에서 살펴본다면 궁벽한 벽지(僻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태안군은 인구가 63,031명 에 달하는 등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1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도 시(市)를 제외한 군(郡)지역만을 살펴본다면 인구가 제법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속하고 있으니 결코 적은 군(郡)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충청남도는 전체의 면적이 8,204.5㎢로서 전 국토면적(100,148.2㎢)의 8.2%에 불과할 뿐이고 해안선의 길이도 1,242km로서 전국 해안선의 길이(14,963km)의 8.3%에 불과할 뿐이지만 태안군의 면적은 504.94㎢로서 충청남도 면적의 6.1%에 불과할 뿐이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559km로서 충청남도 해안선의 길이 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고 있음은 물론 광활한 갯벌면적역시 138.4㎢로서 충청남도 갯벌면적(358.8㎢)의 38.6%에 달하는 등 태안

군은 가장 많은 해안선과 갯벌면적을 가지고 있는 보고의 군(郡)이라는 사실이다¹⁾.

뿐만 아니라 도서(島嶼)의 수도 유인도서가 8개 도서 무인도서가 110개 도서 등 모두 118개의 도서들이 있으므로 충청남도의 도서수(268개)의 44%에 달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와 같은 도서들이 국가정책상의 이유로 주민들을 철수시켜 유인도서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무인도서들 뿐이니 관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태안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격렬비열도>라는 열도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과 그중에는 꿩이갈매기들의 서식지인 <란도(卵島)>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자랑할 만한 경관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구(砂丘)가 태안군에 있음과 아울러 소나무의 집단서식지인 안면송림이 태안군의 안면도에 있다는 사실과 갯벌을 제외한 모든 해변이 고운 모래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웅기종기 몰려있다는 사실도 자랑할 만한 경관이다.

이와 같은 태안이지만 한때는 텃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반항적 이었다는 이유로 군(郡)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서산군에 포함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2. 푸대접을 받아왔던 안면도

안면도는 향(鄉), 소(所), 부곡(部曲)시대에 안면소(安眠所)와 광지향(廣地鄉)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안면(安眠)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지만 조선조 태종 때에 단행된 행정구역 조정시에 안면도는 이상스럽게도 북부의 일부지역만을 태안군에 편입되었을 뿐 대부분의 남부지역은 서산군에 편입되었음과 아울러 황도지역은 홍주군에 죽도지역은 결성군에 편입되는 등 4개 군으로 분할되게 된다. 그런데 당시의 안면도는 오늘날과 같은 섬이 아니라 갑(岬) 즉 곳(串)의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군으로 분할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가 인조 16년(1638)에 충청감사인 김육(金堉)의 지도아래 판목의 굴착이 성공하므로 말미암아 곳(串)에서 섬(島嶼)으로 변하게 되었다²⁾.

그러나 도서로 변하게 된 이후에도 안면도에 대한 행정구역의 변천은 없었으니 계속하여 태안군과 서산군 또는 홍주군이나 결성군 등으로 분할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인 1897년 1월 14일에서야 송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로 안면도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면서 홍주군에 전속되게 된다³⁾.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을 뿐 불과 14년이 지난 1901년의 6월 1일에는 폐지된 충청수영

1) 충청남도 수산현황 (충청남도 수산과 발행) 수산개요, 2015, 7쪽.

2) 안면도지 안면곳의 착륙, 68쪽. 김육(金堉)의 <잠곡유고> 참조

3) 각사등록 근대편 참조

내에 오천군(鰲川郡)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오천군에 포함되게 된다⁴⁾.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확인되자 1906년 9월 24일 안면도는 다시 오천군을 떠나 태안군에 편입되게 된다⁵⁾.

그리고는 불과 8년이 지난 1914년의 4월 1일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태안군 전체를 서산군에 편입하므로서 안면도는 자연적으로 서산군 소속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안면도 전체를 서산군이 아닌 보령군에 포함시켜 달라는 진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진정도 서산 지역 사람들의 반대로 무산되기에 이른다⁶⁾. 이와 같은 안면도는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조선시대부터 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1914년에 1개면(面)으로 조정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태안군의 분군 추진과 더불어 안면도의 분면(分面)추진도 계속하여 추진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는 탄전을 부리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민들의 분면(分面) 요구에 어쩔 수가 없었던지 정부에서는 1972년 9월 1일 고남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돕는다는 구실로 고남리에 안면면의 고남 출장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⁷⁾.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였던 사항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분면을 외면한 채 인구가 2만이 넘는다는 구실로 안면도와 같은 거대한 도서지역을 읍(邑)으로 승격시키기에 이른다⁸⁾. 그런데 이와 같은 불공정한 푸대접 행위는 안면도 뿐만이 아니었다.

안면도의 방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외도(外島)를 비롯하여 내파수도(內波水島)와 외파수도(外波水島) 등은 안면도에 소속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보령시 오천면의 삼시도리에 소속되어있던 도서들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사항을 요구하면서 행정구역의 조정을 계속하여 진정하여 보았지만 별스런 진척이 없다가 1983년 2월 15일에서야 외도를 비롯한 내파수도 와 외파수도를 보령군 오천면의 삼시도리에서 안면읍의 승언리에 편입시키기에 이른다⁹⁾.

아울러 면적이 100km²가 넘는 거대한 면적의 안면도를 1개 읍으로 한정시킨다는 것도 한계에 달했던지 1986년 4월 10일 고남출장소를 고남면으로 승격시키기에 이르러 안면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남면의 분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 뿐만 아니라 1989년 1월 1일

4) 의정부참정 徐正淳이 발표한 勅令 11호

5) 의정부 참정대신 朴齊純 과 내부대신 李址 가 발표한 勅令 제 49호

6) 1938년 2월 28일자 大韓新報의 보도내용

7) 서산군조례 235호 (1972, 8, 26, 공포)

8) 대통령령 제 10050호 (80, 10, 20, 공포)

9) 대통령령 제 11027호 (83, 1, 10, 공포)

10) 대통령령 제 11874호 (86, 3, 27 공포)

에는 태안군이 서산군으로부터 복군되므로 말미암아¹¹⁾ 안면도는 서산군을 벗어나 태안군에 편입되게 되었다¹²⁾.

이와 같이 안면도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안면소(安眠所)가 있었던 천민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상스럽게 푸대접 속에서 살아왔다.

아울러 일제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도 푸대접은 계속 되면서 안면도의 주민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숨을 죽이며 살아왔었다.

3. 안면도의 미래

이와 같이 안면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너무나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시달림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면서도 안면도라는 거대한 도서는 개발구분에 따라 주변지역 읍(鎭)들의 발전을 좌우하기도 하였는데 장항선의 철도가 개설되면서 안면도의 주민들은 독개항이나 영목항을 통하여 광천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광천은 안면도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발전하게 되었지만 1970년에 안면도에 연육교가 개설되자 이번에는 태안읍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광천읍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울러 a, b지구가 매립되면서 도로가 개설되게 되자 이번에는 서산이 발전하면서 태안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이나 대전 등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서산에도 별스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활용은 2002년에 안면도에 국제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음과 아울러 2009년에도 똑같은 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자 이제는 전국적인 지역에서 세계적인 안면도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안면도는 도서(島嶼)이면서도 높은 산이 없다는 것도 특이하다. 안면도에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국사봉의 높이가 해발 108.9m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산이 없고 나즈막한 야산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사향은 인근도서인 신진도의 최고봉 역시 131.5m 에 불과할 뿐이며 가의도의 최고봉도 182.8m 에 불과할 정도로 태안군내의 모든 도서들의 주봉들은 모두가 200m 를 넘지 않는 소산(小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비하여 이웃지역인 웅진군의 덕적도는 주봉이 314m에 달하고 있으며 선갑도는 352m에 달하는 등 태안군의 도서들과는 다르게 주봉의 높이가 300m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이러한 사향은 수심(水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안면도가 푸대접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각광을 받게 된 동기는 충청남도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11) 태안군에서는 서산군으로부터 분군된 것을 분군(分郡)이라 말하지 않고 일제의 만행에 의하여 빼앗겼던 태안군을 다시 찾았다는 뜻에서 복군(復郡)이라 말하고 있다.

12) 법률 제 4050호 (89, 12, 31, 공포)

충청남도는 1991년에 안면도를 국제관광단지로 지정한 후 꽃박람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 열성을 보였으며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 실시를 하고 있는 등 모든 면에서 의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찾아오질 않는다고 울상들인데 안면도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비도 한창 분주한 상태니 희망적이다. 뿐만 아니라 안면도는 관광지역에 앞서 수산자원도 풍부한 어촌지역이기도하다. 충청남도의 수산업협동조합원수는 18,745명에 불과할 뿐인데 그중에 16.3%에 이르는 3,060명이 안면도의 주민이라는 사실이다¹³⁾.

이와 같이 안면도는 지금도 계속하여 탐방객들이 몰려드는 등 미래가 밝은 희망적인 지역이다.

13) 2015년 충청남도 수산현황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당산의 공간 확대를 중심으로—

황 의 호 ■ 보령문화연구회

1. 들어가기

외연도는 충남 보령시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으로 아직도 동제를 엄격하게 지내고 당산을 보호하고 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은 당산은 원시상태의 생태를 나타내고 있어 1962년 12월 3일 ‘외연도상록수림’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었다. 동제 또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논문으로도 발표되고¹⁾ 도서문화를 소개하는 책에도 다뤄졌는데²⁾ 논문이나 책에 소개된 내용은 제의 절차를 기술하고 동제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한 것이었다. 필자도 2008년 외연도 동제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³⁾ 동제의 절차와 1997년 이후 변화된 모습을 기술한 것이었다.

외연도의 동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외연도의 동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010년 9월 2일 태풍 콘파스에 의해 넘어진 당산(상록수림)의 동백나무 나이테를 분석하여 외연도 당산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당산에 쌓여있는 쇠뿔의 연대(年代)를 측정하여 소를 잡아 제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외연도 당산의 공간 확대를 중심으로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이필영,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82집』, 1998, 263~301P.

2) 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충청남도, 『도서지(중)』, 1997, 137~151P.

3) 황의호, 「외연도 동제(洞祭)」, 『보령문화 제17집』, 2008.



[그림 1] 외연도 마을과 당산 (오른쪽 중앙, 2008)

2.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검토

1) 외연도 동제의 원형

외연도 동제의 원형은 갈당에서 이루어지는 산신제로 보인다. 외연도 동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절대 고기를 올리지 않고 밥·떡·김·더덕 등 곡물과 채소 종류만 올린다는 점이다. 제물을 장만하는 것도 엄격하여 밥(노구메)은 산제당에 작은 솔을 걸고 싸래기를 골라 낸 쌀을 사용하여 산신제를 지내는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점이다. 당제날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물은 ‘제당’에서 만드는데 노구메 만든 산제당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노구메가 가장 중요한 제물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체 외연도 동제 과정 중에서도 하나의 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를 지내는 장소도 외연도 당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백지로 길지를 만들어 다는 것도 산제당 주변뿐이다. 따라서 외연도 동제가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가장 최초로 지낸 것은 마을 뒤 당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내던 산신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산신제는 외연도에 주민이 거주하면서부터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 전횡장군 추가

산신제만 지내던 외연도 동제에 언제부터인가 전횡장군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횡장군은 누구이며, 언제쯤 추가되었을까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횡장군 기록을 찾아보고자 한다.

(1) 史記의 전횡관련 기록(기원전 206년 경)

전횡장군은 중국의 장수로 기원전 206년경의 기록인《史記 卷94 田儼列傳》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때부터 외연도에서 전횡장군을 신으로 모셨다고는 할 수 없다. 전횡장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史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유학적인 사고가 지배하여, 전횡장군을 칭송하게 된 이후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에서 ‘전횡(田橫)’을 검색하면 고려말의 문인인 이제현, 정몽주, 이숭인, 권근, 정도전 등의 전횡장군 관련 글이 검색된다. 모두 같은 시기의 인물들로 고려말~조선초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전횡을 칭송하는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연도에서 전횡장군을 모시고 제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유학의 기반이 세워지고 이들의 글이 널리 읽힌 조선시대 이후라고 생각된다.

(2) 유격장군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淸德碑)의 전횡(田橫)관련 기록

유격장군계공청덕비는 충청수영(忠淸水營)이 있던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비석으로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파견된 명나라 장수 계금(季金)의 청덕비이다. 1598년에 세운 이 비에 뜻밖에도 전횡장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비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將軍既仁而化令以廉簡威與德並濟得三千同德之士其與田家之五百孰爲之多少…

萬曆戊戌孟夏 日立 奉正大夫戶曹郎兼承文院校理陪臣 安大進撰

장군은 이미 인자함, 조화(調和)로움, 명령의 엄숙이며 청렴과 간결(簡潔), 위엄(威嚴)과 덕성(德性) 아울러 3천 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지냈으니 <외연도에서 제향(祭享)을 받는> 전횡장군(田橫將軍)과 그 휘하의 오백동덕지사(五百同德之士)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냐.

만력무술(1598) 맹하 봉정대부호조랑검승문원교리 안대진 찬(황영주 역)

위 비문 내용은 전횡장군이 500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이끌고 왔는데도 외연도에서 신으로 모셔져 제향을 받고 있는데 계금장군은 3,000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이끌고 왔으므로 더 대단한 인물이니 앞으로 신으로 모시고 제향을 지내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충청수영이 있던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마을에서는 최근까지 계금장군을 신으로 보시고 이 비석에 제향을 올렸다.

이 비문 내용으로 보아 1598년 당시에 외연도에서는 전횡장군을 모시고 제향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오천면 소성리 유격장군 계공청덕비

(3) 호산록(湖山錄)의 전횡과 외연도 관련기록

호산록은 1619년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서산읍지로 산천조에서 도비산을 설명하면서 외연도의 전횡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비산(島飛山)은 군청 남쪽 15리에 있다. 산 위에는 봉화대가 있고 또한 기우석이 있다. 그 산은 서녘의 끝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쾌하게 개인 날이면 봉화대에 올라가 본즉, 바다에 다니는 길이 분명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는 위안도(魏眼島)·오호도(嗚呼島)가 있는데, 이 섬은 전횡(田橫)의 제(齊)나라 지경이 한 번 바라보매 다 알 수가 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오호도는 전횡이 의사 5백 명을 인솔하고 한고조(漢高祖)를 피하여 살던 섬이라고’ 했다.

하략.

호산록에서 말하는 위안도는 외연도이며, 오호도는 어청도인데 이곳에서는 중국 제나라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어청도는 전횡이 살던 섬이라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외연도와 어청도는 1619년 당시 전횡장군과 관련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즉 전횡장군을 모시고 제를 올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1598년에 세워진 충청수영의 계금장군청덕비와 1619년에 쓰인 서산읍지인 호산록의 내용으로 보아 외연도 동제에 전횡장군이 추가된 것은 1조선초~임진왜란 사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처음 전횡장군을 모신 것은 산신당 남쪽에 있는 네모난 큰 바위인 ‘전횡장군놀던바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바위에 전횡장군을 위한 제상을 올리고, 제가 끝난 뒤에는 바위 밑에 많은 제물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횡장군놀던바위에는 밥, 떡 등 산신제에 사용하는 제물 외에 소를 잡아 중요한 부위를 모두 올리므로 애초부터 육고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외연도 동제에서는 전횡장군을 추가하면서 육고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횡장군놀던바위 옆에 있는 김서방바위를 위한 것도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외연도 주민들이 김서방은 전횡장군을 따라다니는 잡신들이라고 하므로 전횡장군을 당

제에 추가하면서 김서방(잡신)도 추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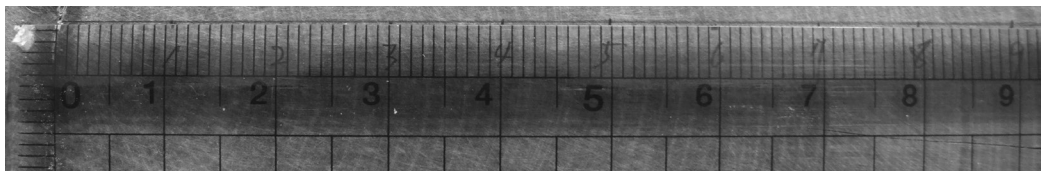
3) 당산의 확대

외연도는 2010년 9월 2일 태풍 콘파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의 상록수림이 절반쯤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때 외연도상록수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백나무 중 가장 큰 토막을 구하여 나이테를 측정하였다. 목심(木心)에서 껍질까지의 길이는 14.3cm였는데 1cm 간격으로 구간을 정하여 나이테 수를 조사하였다. 각 구간별 나이테 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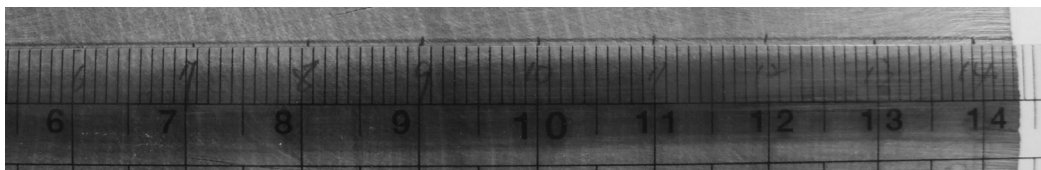
외연도 당산(상록수림) 동백나무의 구간별 나이테 수

구간(cm)	~1	~2	~3	~4	~5	~6	~7	~8
나이테 수	7	6	7	8	8	7	7	9
평균간격(mm)	1.4	1.7	1.4	1.3	1.3	1.4	1.4	1.1
구간(cm)	~9	~10	~11	~12	~13	~14	~14.3	계
나이테 수	10	7	10	11	12	16	6	131
평균간격(mm)	1.0	1.4	1.0	0.9	0.8	0.6	0.5	1.1

위 표와 같이 나이테의 총 수는 131개로 외연도 당산(상록수림)을 이루는 동백나무는 131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연도의 동제는 오천의 계금장군청덕비를 보더라도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당산의 상록수림이 동제보다 훨씬 늦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임진란 때까지의 동제는 갈당의 산신당 주변과 전횡장군놀던바위 주변에 있는 바위와 나무를 신성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내다가 19C 후반, 현재의 당산(상록수림) 권역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3] 외연도 당산(상록수림) 동백나무의 나이테(1)



[그림 4] 외연도 당산(상록수림) 동백나무의 나이테(2)

4) 1936년 당집 건축과 공간 확대

외연도 전횡장군 사당 앞에 걸려있는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를 보면 전횡장군 사당이 1936년에 건립되었음과 사당을 건립하기 이전에는 바위에 제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횡장군놀던바위에서 제를 올리다가 1936년에 제당을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횡장군놀던바위와 전횡장군사당에 모두 제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36년 바위에 제를 올리는 것보다 제당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제당을 건립하였지만, 이후 계속해서 두 군데에 제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민속신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전횡장군 사당에는 전횡장군이 배향되어 있으면서도 당산신위(堂山神位)나 도당신위(禱堂神位),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 등의 위패가 있어 여러 신위가 모셔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사당을 짓기 전에 모시던 신을 모두 모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집의 이름은 전횡장군 사당이지만 과거에 모시던 모든 신의 신위를 모시고 제를 올린 것이다. 사당을 지은 후에도 과거에 제를 모시던 곳에서 제를 올리고, 사당에서 또 제를 올리게 되므로 외연도의 동제는 더 복잡해졌다.

5) 소를 잡아 제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

외연도에서 동제를 지낼 때 소를 잡아서 지내는데 이것은 언제부터일까? 전공사당기(田公祠堂記)에 시건사우 설생이제(始建廟宇 設牲以祭)라는 기록을 보아 1936년 전횡장군 사당을 건립하면서 소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외연도에 어업이 발달하여 경제력이 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전횡장군놀던바위 옆에 쌓인 쇠뼈의 양이 매년 바쳐지는 제물의 70~80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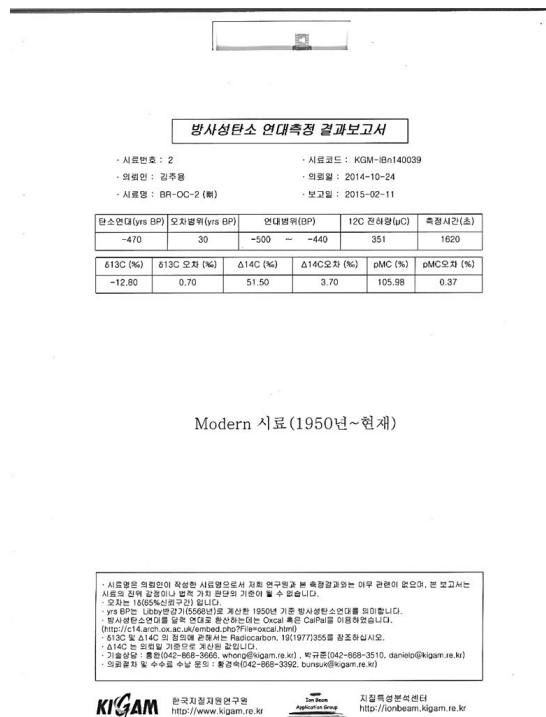
[그림 5] 전횡장군놀던바위에
매년 넣어 두는 쇠고기



[그림 6] 전횡장군놀던바위 앞에 쌓인 쇠뼈

그리고 2015년 전횡장군놀던바위 옆에 있는 쇠뼈 무더기의 가장 밑에 있는 쇠뼈를 꺼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⁴⁾한 결과 Modern(1950~현재)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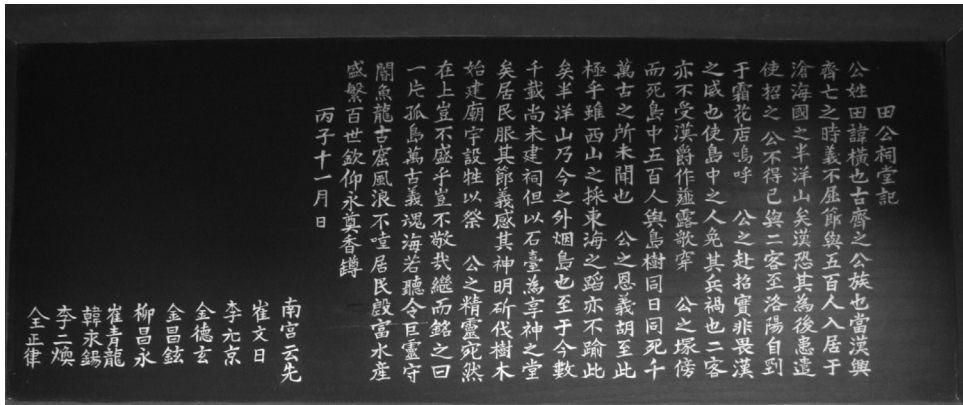
6) 1936년 동제의 확대를 주도한 세력

그러면 1936년 외연도에서 전횡장군 사당을 만들고 소를 잡아 제를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전공사당기의 끝에 사당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10명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외연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경주 최 씨의 족보에서 최문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1866년 생으로 70세 때인 1936년에 사당을 세운 것이다. 외연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재된 10명중 8명은 외연도 주민이고, 2명은 당시 어업협동조합의 간부였다고 하므로, 전횡장군 사당은 외연도 토착세력과 어업협동조합의 간부들이 합작해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전공사당기에 기재된 인물의 출신지는 다음과 같다.

南宮云先(외연도), 崔文日(외연도, 1866-1942), 李元京(외연도) 金德玄(외연도), 金昌鉉(외연도), 柳昌永(외지, 어업협동조합간부), 崔靑龍(외연도), 韓永錫(외지, 어업협동조합간부),

4) 지질자원연구원 김주용 박사님의 도움으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하였다.

李二煥(외연도, 중선배 선주), 金正律(외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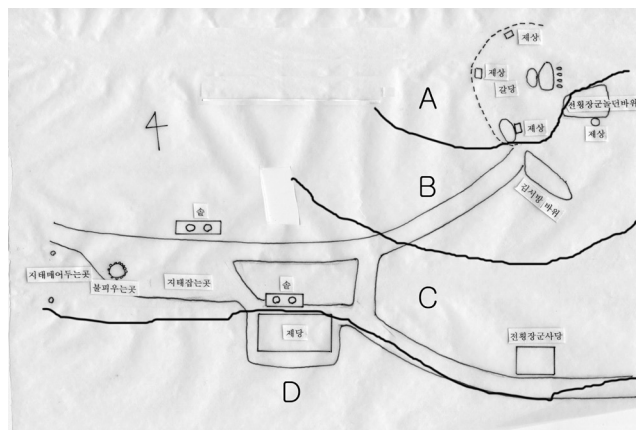


[그림 8] 전황장군 사당의 전공사당기

3. 맺음말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외연도의 동제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부터 당산의 정상부분에서 산신제를 지내다가 조선초~임진왜란 사이에 전황장군과 함께 김서방(잡신)이 추가되고, 19C 후반에는 당산이 현재의 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36년 주민들과 어업조합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전황장군 사당을 지으면서 제를 지내는 공간이 더욱 확대되고 제도 복잡하게 되었다. 즉 제를 지내는 공간이 아래 그림의 A→B→C→D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제는 복잡하게 되었다.

쇠뿔의 탄소연대측정 결과로 보아 소(지태)를 잡아 제를 올린 것도 1936년 전황장군 사당을 지으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외연도 당산 제사 구역의 확대(A→B→C→D)

수백 년 동안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진 외연도의 동제는 현재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생명력 있고 현재 진행형인 외연도 동제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연도 당산의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상록수림은 당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간의 훼손 없이 보존된 것이다. 상록수림보다 상록수림이 있게 한 동제의 보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동제가 없어지면 당산의 상록수림도 의미가 퇴색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慶州崔氏 參判公 諱 光門派宗親會, 『慶州崔氏 參判公 諱 光門派譜』, 1991.
 국립민속박물관, 『전국 부락제당 설문지』, 1967.
 서산문화원, 『湖山錄』, 1992.
 신재완, 「외연도답사기」, 『보령문화 12집』, 2003, P232.
 충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청남남도, 『島嶼誌(中)』, 1997, P137.
 충청남도, 『충남지방 장승·숫대신앙』, 1991.
 한상복·전경수, 『한국의 낙도민속지』, 한국인류학총서 1, 1992.
 황영주, 「유격장군계공칭덕비」, 『대보문화 2집』, 보령문화연구회, 1992, P5.

<도움말 주신 분(2008년)>

- 복경종(60)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008년 당주.
 송경일(53)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 이장.
 안상철(58)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최흥무(69) 외연도 출신, 보령시 죽정동 유성1차 아파트.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유 승 광 ■ 공주대학교 객원교수

1. 문제제기

1816년 9월 5일 영국 함선 맥스웰 함장과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 의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갈곶에서 개신교 성경이 최초로 한국에 전래되었다¹⁾. 이 사실을 바탕으로 2016년 마량리 갈곶에는 성경 전래 기념관이 건립 중이고 리라호를 실제 크기로 설치하고 전시관 내부를 알세스트호의 선실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전래지인 마량진 갈곶과 비인현에 대한 역사적인 연계가 없이 단순히 성경전래지에 대한 홍보 및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마량진과 비인현의 역할이 미약하여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시 성경을 전해주었던 영국 함선 리라(Lyra)(함장 Basil Hall 대령)호와 알세스트(Alceste)(함장 Murry Maxwell 대령)호의 조선 서해안 항로를 살펴보고 성경을 전해 받았던 공공기관인 마량진과 비인현에 대한 역사적인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성경전래기념관, 마량진, 동백정, 마량리 풍어제, 비인현의 중심지 비인읍성을 연계한 활용방안을 탐색하고자한다.

1) 이만열, 「한국 성경전래와 그 의의」, 『서천군 마량진 성경전래지 고증 세미나 및 선언식』, 2003.

박용규, 「서천 마량진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고증」, 『서천군 마량진 성경전래지 고증 세미나 및 선언식』, 2003.

유승광, 「기독교 전래의 김새(徵候) 성경」, 『서천의 근·현대사』, 2015.

2. 성경을 전해준 리라호와 알세스트호의 서해안 항해 배경²⁾

영국은 동양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 영국이 1793년 매카티경을 수석으로 한 사절단을 파송하고 이어 1816년 암허스트 경을 수반으로 한 건중사절단(遣中使節團)을 중국에 파송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동양에 대한 역사와 지리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그 주변에 대한 풍토와 역사와 지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순조 16년 1816년 맥스웰을 선장으로 한 순양함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두 함선을 파송해 이들이 조선의 서해안에 와서 해도를 측량하고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전세를 연구하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 배가 영국을 떠난 것은 1816년 2월 9일이었다. 이어 7월 초 중국 광둥 앞바다 레마섬에 정박해 있던 이들 배는 7월 13일 레마섬을 떠나 북상해 올라갔다. 이리하여 장장 6개월에 걸친 긴 항해를 거쳐 7월 28일 일행은 천진에 상륙하였고, 곧 바로 청의 가정황제가 있는 북경으로 직행했다. 암허스트 경의 사절 일행은 황제의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대단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거대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가정황제의 대외 방침이 개방정책을 썼던 이전 왕조와는 달리 수구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영 사절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암허스트 경은 함선을 곧 광둥으로 회항시킬 방침을 정하고 대사(大使)가 상륙 후 겨우 3일 만인 8월 11일에 전 함선이 중국 측의 주장리(周章裡)에 발묘(拔錨)하여 각각 다른 임무에 들어갔다. 본래 4개월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항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과 진행을 맡은 사령관 맥스웰 대령은 지금까지 영국의 탐험대가 미처 이르지 못한 요동만, 직예만(直隸灣)의 대부분과 조선 서해안 및 종래 조사가 매우 불충분한 유구제도의 답사 실측을결행하기로 했다. 조선의 서해안 일대의 탐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3.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마량진 갈곶

마량진 갈곶은 오늘날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칠구지 마을이다. 갈곶은 비인현으로부터 서쪽 바다로 뻗어 나가 반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라보면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배가 정박할 수 있다. 작은 반도로 뻗어 나온 갈곶은 서면 월호리 띠섬과 함께 비인만을 형성하고 있다.

1816년 9월 4일과 5일(음 7월 18일과 19일), 영국의 함선 Alceste호와 Lyra호 선장 바실

2) 박용규, 「서천 마량진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고증」, 『서천군 마량진 성경전래지 고증 세미나 및 선언식』, 2003, 33쪽.

홀³⁾이 비인현 마량진 앞 갈곶에 도착했다. 두 척의 배가 마량진에 도착했을 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趙大福)과 비인현감 이승렬(李升烈)이 문정(問情)차 두 배에 승선, 검사하고 모두 세 권의 책과 몇 건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책 중에 성경이 있었다. 그래서 마량리 갈곶은 한국 최초 개신교 성경전래지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순조(純祖)실록』 권 19 순조 16(丙子, 1816년)년 7월 19일 병인(丙寅)조에는 충청수사(忠淸水使) 이재홍(李載弘)이 충청도 마량진 갈곶 밑에 이양선 두 척이 표류해 온 일을 장계로서 보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⁴⁾.

그럼 마량진 갈곶은 어디인가? 성경이 전래된 곳을 갈곶(葛串)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갈곶은 오늘날 어디일까? 지금까지 갈곶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리라호 선장인 바실홀이 언급한 갈곶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우리들이 목적인 바는 본토에서 어떤 안전한 정박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곳을 찾기까지는 꽤 오래 해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3시경 한 지점에 이르니 첫 눈에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 같이 보이는 만이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가 보니 리라호가 들어가기에도 수심이 얕았음으로 훨씬 떨어져서 닻을 내렸다. 그 지점에 몰려든 주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성냈음인지 우리들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이 만은 직경이 4마일이나 되고 수목 사이에 큰 촌락이 있고 그 주위로 경작지가 뻗어간 보기에 꽤 아름다운 경치였다. 알세스트호가 닻을 내리자 곧 맥스웰 함장과 그리피스 그리고 나는 그 만에 제일 가까운 마을로 갔다. 해변가에 사람들은 급히 배에 뛰어 오르고 한편 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닻을 거두고 재빠르게 일단이 되어 우리가 육지에 닿기 전에 만나러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성경전래가 이루어진 갈곶은 첫째, 직경이 4마일 정도의 만이 있어야 한

3) 1816년 항해 마치고 영국에 돌아간 알세스트에 승선했던 군의관 John McLeod는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to China, Corea and the Island of Lewchew*(John Murray, London, 1820, 3rd ed)를 남겼고, 리라호의 함장인 Basil Hall은 *An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o the Great Loo-Choo Island*(John Murray, London, 1818, 1820년에 간행한 제 2판은 'Voyage to Corea and the Island of Loo-Choo')를 남겼다.

4) 『순조(純祖)실록』 권 19 순조 16(丙子, 1816년)년 7월 19일 병인(丙寅)조
이재홍이 충청도 마량진 갈곶 밑에 이양선 두 척이 표류해 온 일을 보고하다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재홍(李載弘)의 장계에,

“마량진(馬梁鎭) 갈곶(葛串) 밑에 이양선(異樣船) 두 척이 표류해 이르렀습니다. 그 진(鎭)의 첨사 조대복(趙大福)과 지방관 비인현감(庇仁縣監) 이승렬(李升烈)이 연명으로 보고하기를, ‘표류하여 도착한 이양선을 인력과 선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끌어들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아침에 첨사와 현감이 이상한 모양의 작은 배가 떠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먼저 한문으로 써서 물었더니 모른다고 머리를 젓기에, 다시 연문으로 써서 물었으나 또 모른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참 동안 힐난하였으나 마침내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였고, 필경에는 그들이 스스로 붓을 들고 썼지만 전자(篆字)와 같으면서 전자가 아니고 연문과 같으면서 연문이 아니었으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좌우와 상하 층각(層閣) 사이의 무수한 서책 가운데에서 또 책 두 권을 끄집어 내어, 한 권은 첨사에게 주고 한 권은 현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 보았지만 역시 전자도 아니고 연문도 아니어서 알 수 없었으므로 되돌려 주자 곧 이 사양하고 받지 않기에 받아서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책을 주고받을 때에 하나의 작은 진서(眞書)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거래하는 문자인 것 같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5)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7월 19일 병인

馬梁鎭葛串下, 異樣船二隻漂到。該鎭僉使趙大福, 地方官庇仁縣監李升烈聯報以爲

다. 둘째, 이 만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다. 셋째, 수목사이에 큰 촌락이 있고 그 주위로 경작지가 뻗어간 곳이어야 한다. 넷째, 마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소리가 들릴만한 곳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마을을 마량리에서 찾으면 '침구지'가 있다. 침구지는 흔히들 침구지라고 부르고 있다. 침구지는 침으로 우거진 돌출부이다. 그 침구지를 한자로 표기하면 '침갈葛' 과 '곶 串'이다. 따라서 침구지를 한자로 표기한 지명이 갈곶(葛串)이다. 그래서 갈곶은 서면 마량리 침구지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지금도 침구지에는 마량리 침구지 횃집이 있다.

침구지에서 마량진까지 몇 백미터에 불과하다.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 문정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마량진과 침구지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성경전래가 이루어진 갈곶의 네 가지를 풍경과 일치하는 곳이 침구지라고 생각한다. 침구지에서 바라본 소위 도둔곶은 4마일 정도의 만이며 배를 정박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침구지에서 소리를 지르면 배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수목사이에 큰 촌락은 침구지에서 바라본 도둔 남촌 동네라고 여겨진다.

이상으로 남아 있는 침구지라는 지명을 침이 우거진 돌출부라고 생각할 때 갈곶은 마량리 침구지 마을이다.

4. 마량진 갈곶의 역사적인 환경 마량진성과 비인읍성

1816년 9월 5일 성경을 전래 받은 사람은 마량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렬리이다. 그들은 성경을 받게 된 것은 마량첨사이며 비인현감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마량진과 비인현은 성경전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다.

마량진(馬梁鎭)은 수군첨절제사가 관할하던 진으로 본래는 1510년(중종 5년)에 남포현(지금의 보령군 웅천면) 광암에 둘레 1371尺, 높이 9尺으로 쌓은 석성이다.

1655년(효종 6년) 이상진(李尙眞)이 순무차 이곳에 왔다가 지세를 살펴보고 선박의 내왕이 불편하다하여 비인현으로 옮기게 되었다. 대동지지 비인진보조에 보면 효종 6년 自藍浦廣岩移設干止以舊鎭不便於藏?故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湖西邑志 馬梁鎭條에 의하면 鎭城內에는 客舍, 衙舍, 內衙, 鎭撫廳, 倉庫, 使令廳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僉使 밑에 군관 15인, 아전 25인, 통인 15인, 군뇌(軍牢)2인이 있고 전선이 1척, 방어선 1척, 복물선 1척, 사후선 3척이 있어 규모가 꽤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마량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 정확한 면적이나 건물지 또한 알 수 없다. 다만 僉使가 살았다고 하여 첨사터라고 부르는 곳에 수령이 오래된 정자나무 2그루가 있고 주변에서 조선시대의 와편과 자기편을 수습할 수 있을 뿐이다.

비인현(庇仁縣)은 본래 百濟의 比衆縣이었다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지금의 이름인 庇仁縣으로 고쳐져 西林郡(현 舒川邑)의 領屬縣이 되었고, 高麗 顯宗 9년(1018)에는 다시 嘉林縣(현 부여의 林川面)에 속하였다. 이때까지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고 토착세력인 장리집단에 의하여 庇仁地域이 통할되다가 고려후기에 이르러 중앙으로부터 監務가 배

치되었다. 그후 조선 건국과 함께 지방 통제정책이 마련되면서 太宗 13년(1413)에 이르러 縣監을 파견, 독립된 郡縣으로 승격하여 韓末까지 庇仁縣의 행정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후, 1914년 府郡 통폐합령에 의하여 庇仁縣이 舒川郡에 편입되기까지 庇仁縣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였다.

庇仁邑城 내부의 건물지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으나, 庇仁邑誌를 참조해 보면 대체로 衙舍(24間), 東軒(4間), 外東軒(3間), 草堂(3間), 內厠(1間), 外厠(6間), 受米庫(8間), 官廳座起廳(3間), 雜米庫(2間), 그리고 內大門(3間), 中大門(1間), 外大門(1間)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마량진 갈곳의 활용 방안

성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책이다. 인쇄술이 도입된 이래 그 어떤 텍스트보다 많이 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매년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0년에 달하는 세월동안 성서는 글로 쓰인 저작들 중 가장 널리 유통되고 가장 많이 읽혔으며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은 문화와 언어,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성서의 전래는 선교사의 유입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먼저 서양 의술을 보급시켰고, 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나라 근대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선교과정에서 한글의 보급, 미신의 타파, 평등사상의 전파, 근대 문명의 소개 등 사회 문화 면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에는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민족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그 지도자들의 일부가 체포, 투옥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 기독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던 개신교는 교단의 통일과 사회참여를 모색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에 있을 것이다. 이에 성경과 서천 마량리 갈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이 전래된 갈곳을 중심으로 한 성경전래기념관, 리라호 복원, 마량진성, 비인읍성을 연계한 개발과 홍보를 해야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성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와 연계한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질 때 성경전래의 의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인 당시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지금의 성경전래기념관 중심의 개발과 더불어 마량진성에 진무청(鎭撫廳) 건물 1동이라도 복원하여 기념관과 진무청을 함께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시 비인현의 치소인 비인읍성에도 동헌(東軒)을 복원하여 비인현의 중심이며 성경을 전래 받았던 이승렬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경전래기념관과 연계한 마량리 풍어제, 동백정을 연계한 올레길을 개발하여 마량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한다.

넷째, 마량리 갈곶 성경전래기념관을 중심으로 리라호와 알세스트호의 해도 작성이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해양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전래기념관과 아펜젤러 기념관을 포함하여 서천군 종교 답사 코스를 개발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성경전래기념관- 아펜젤러기념관- 비인향교, 서천향교, 동학접주 조영구생가- 머느리교회- 백정교회- 종중교회 답사코스를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이 인 화 ■ 한국도량형박물관

1. 서론

민속(民俗)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전승되어온 생활과 풍습이다.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일상생활문화에서 밑바탕이 되고 강한 활력이 되며 항상 새로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다.

세시풍속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으로 매년 그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복한다. 당진지역에서도 많은 풍속이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당진은 일찍이 백제시대 별수지현(伐首只縣)으로 북서쪽은 서해안과 대호만이, 동북쪽은 아산만과 삽교천이 자리잡아 3면이 해안으로 둘러 싸여 있고 2020년까지 63선석을 개발해 대중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역으로 가던 백제의 꿈의 항로요, 통일신라의 문화의 통로였던 당진항, 이 당진에서 해양문화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바다와 강은 문화의 뗏줄과도 같은 존재로 문화의 수용과 교류, 전파의 길목역할을 하였다. 바닷길이 열린 포구를 통해 백제는 중국 남조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꽃피울 수 있었다. 바로 바다를 따라 문화 전파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해상에서 해양문화적인 사례는 서해도상의 전횡장군, 요임금, 조자룡, 황충 등의 중국 인신의 분포라든가, 면천복씨, 서산정씨 등 10여 개 중국도래성씨, 중국 석굴문화 유적 등이 있다. 또한 조선 초기까지 이용되던 남방해로에 대한 고려도경의 행로 기록과 내포 가야산에 설치되었던 안흥정,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당진포, 항목리 영랑사, 진관리에 있었을

사신이 쉬어가던 관(館) 등의 지명 등도 해양문화 초입지임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근거들이다. 이런 행로 따라 서구문물의 유입 관련 민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관련 민속을 실재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잔존하는 당진지역에 전승되는 해양관련 어촌 민속들을 생각해 당진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도 찾아보고자 한다.

2.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1) 당진 해안의 세시풍속

당진지역에서 파악되는 해양관련 세시풍속은 참봉제, 용왕제, 거리제 등을 들 수 있다.

참봉제는 어정잡이, 살고사, 각시당이라도 불린다.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도깨비를 위한 개인적인 세시행사이다. 살은 바닷가 갯고랑이나 갯가에 나무들을 박고 발을 늘어 갯벌 위에 올타리를 치듯, 한 갯고랑을 막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큰 나무를 세우고 싸리나무나 대나무를 쪼개서 발을 만들어 밀물 썰물이 뚜렷한 갯고랑에 몰려오는 고기를 잡는다. 동쪽살을 동활, 서쪽살을 서활이라 하여 한 쪽이 2~3백m 될 정도로 그물을 뗏으며, 한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고기가 모이는 통발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발을 매고 고기가 많이 몰려와 잡히라고 참봉을 안쳐 위한다. 여기서 참봉이란 도깨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진지역에서 참봉을 위한 곳은 고대면 성산리 참봉제, 옥현리 각시당, 대호지면 사성리 참봉제, 적서리 살막, 석문면 대난지도리 살매기, 삼화리 살고사(어정잡이), 통정리 살막, 신평면 매산리 참봉제, 부수리 참봉 등 9곳이 1995년 조사에서 파악되었다.

용왕제는 해신이나 용왕신에 대한 신앙이 두터워 옛날부터 여러 가지 제례를 행하여 왔다. 수신은 흔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령적인 신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선신(善神)으로 구분된다.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원령(怨靈) 등은 배나 사람에게 해를 주는 악신(물귀신)으로 여겨지는 반면, 용왕신은 가장 격이 높은 수신으로 숭앙했다. 이런 용왕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풍어제를 지내고 하당제의로 풀어먹이는 제의와 개인제의로 성격이 짙은 용왕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두 경우 모두 여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의이고 악령들을 달래고 용왕께 비는 제의라고 볼 수 있다. 즉, 용왕제는 해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의 무사와 안전을 위하여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여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어촌신앙이다. 용왕제는 보통 2월 하순경 해상의 잔잔한 길일을 택해서 만조시 거행된다. 이 때 어부의 부인은 목욕재계 후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바쳐 들고 해변으로 나간다. 이때 제물은 과일, 과자, 나물새, 명태, 떡, 초(燭), 향, 창호지 등이 보통이다. 해변에 깨끗한 짚이나 신문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차려놓은 다음 동서남북을 향하여 몇 번이고 선원의 무사와 평화롭고 조용한 해상을 기원 드리면서 무수히 청배(請拜)한다. 이러한

기원이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바다에 던지면서 계속 절을 한다. 그리고는 소지를 올린다. 이러한 용왕제는 바다의 신, 물의 신으로 인식되어온 용의 가호를 받아 항해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의이다. 해중에는 용궁이 있고 그 용궁에는 용왕이 살며 그 용왕은 바다의 모든 조화능력을 지닌 것으로 믿어져 온 것은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민간신앙으로 항해의 안전을 기하려면 용왕의 음우(陰佑)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용왕의 음우를 얻기 위한 제의이다.

거리제는 풍어제에서 용왕제와 더불어 갖는 하당제의로 개별적으로 거리제만 갖는 경우는 없다. 거리제에서는 흔히 홍수맥이 등을 하는데, 요지는 거리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2) 당진 해안의 서낭제와 뱃서낭

(1) 해안 서낭당

서낭은 당(堂)의 위치가 마을의 입구나 노변, 고갯마루에 누석단으로 이루어져 나그네들의 행로안전(行路安全)을 보장하는 노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노신은 중국에서는 따로 행신(行神)이라 하여 크게 섬겼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서낭이라는 이름으로 포괄되어 있어서 노신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지 못했다.

서낭당은 해안 포구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당이기에 마을 포구로 가는 어구에는 서낭당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해안포구의 서낭당은 해로의 안전을 기원하던 곳으로 해안 포구에 서낭나무가 많이 남아 있다. 당진 우강면 창리 남창 서낭나무, 우강면 송산리 하포의 서낭나무 등 해안가 포구 및 인근지역에 서낭당이 있었다. 서낭당은 서낭신의 상징동물을 말로 표상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노신적인 성격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낭의 화상에는 말이 등장하고 서낭당에는 돌·쇠·흙 등으로 마신주(馬神主)를 만들어 모신다.

(2) 뱃서낭

뱃서낭은 해상신앙(海上信仰)으로 어부들이 그들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신앙으로 한마디로 배에 모시는 신이라고 하였고, 《한국민속대사전》에서는 뱃서낭을 배(船舶)의 주신(主神)으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충남·전라·경상·제주 등지에서는 서낭·뱃서낭으로, 강원도에서는 성주·배성주로 일컬어지고 기타 지왕님·당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뱃서낭은 배의 주신으로 배를 관장하여 바다에서 배의 사고를 막아 주고 선원의 생명을 보호해 주며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항해(航海)를 돕는다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내포지역의 뱃서낭은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노신(路神)으로 육지의 서낭당과 같은 개

념으로 일터가 바다이고 육지에서 주로 행상(行商)들이 많이 모였고,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노상(路上)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던 것과 같이 더 거칠고 험난한 바닷길에서 육지에서 믿던 노신(路神)을 배에 모셔 항로에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믿었던 신앙이다. 이는 육지와 해상에서 공유된 개념으로 흔히 섬이나 해안 포구 입구에 분포해 배를 타기 전에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던 제당과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해 육지에서 모시던 서낭의 그 신을 해상의 배에 모셔온 것이다.

뱃서낭의 신체(神體)는 주로 기관실에 모셔 놓는데 한지나 북어를 묶은 것이거나 북어 없이 직사각형으로 접은 한지에 삼색실로 엮듯이 묶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서해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체를 모시지 않는데, 이 때에는 기폭(旗幅)가운데에 상(上)자를 쓴 서낭기를 단다. 어떤 배에는 그 뱃서낭의 신체를 모셔 놓고, 그 신을 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배에서는 서낭의 신체를 모시지 않고 그 뱃서낭을 위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의 유형은 ①선실 정면에 금줄을 느리고 그 위에 문종이를 접어 올려놓는 길지형(吉地型) 신체(神體), ②한지를 길이 30cm, 폭 10cm 정도로 오려 허릿대 밑 침목에 붙이고 그 위를 길지로 덮어 놓은 지방형(紙榜型) 신체, ③함(函)속에 붉은 색, 파란색, 노란색의 삼색 뱃기를 접어 넣어 선실에 안치한 뱃기형 신체, ④작은 단지에 쌀을 넣고 한지로 그 입구를 봉한 다음 선실의 선반위에 안치한 서낭단지형 신체, ⑤나무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고운 색깔로 된 치마저고리 옷감 한 벌씩과 색실·비녀·가위·거울·연지·곤지 등 여자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넣어 선실 선반에 안치한 서낭함형 신체로 구분한다.

송악면 고대리 안섬 풍어제 뱃서낭은 선실의 방장에 모시는데, 소당·본당·장군당을 구분해서 모시며, 소당인 각시당에는 바느질도구를 넣은 함인 「바느질동구리」를 놓아 주고 본당과 장군당은 길지에 북어 한 마리를 매달아 천장가까이에 못을 막아 달아 놓았다.

뱃서낭의 성(性)은 대체로 여신(女神)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무녀에 의하여 뱃서낭의 성(性)이 결정되던 습속과 내륙의 산신(山神)이 대부분 남신(男神)으로 인식됨에 반하여 남해안 및 도서지역의 당신(堂神)들이 대체로 여신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과, 여성이 생식(生殖)과 번식(繁殖)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박호원은 대개 여서낭이 중심을 이룬다면 서낭의 결정은 무당이 정해주기도 하지만, 선주의 꿈으로 정해지며 이들을 위해 선장실 내에 여자의 치마저고리와 화장품 등이 놓여지기도 하며, 함판에는 3분을 위한 제물이 차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마을의 당신(堂神)·서낭·용왕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의숙은 어촌에서 풍요의 음성원리를 결부시켜 여성신으로 주신을 삼는데, 곧 신의 성별은 풍요와 관련이 있을 때는 음성신, 재앙의 퇴치와 같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신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뱃서낭의 성(性)은 배의 역할, 즉 배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화물을 운반하는 배는 많은 힘이 소요되므로 남신을, 어로용(漁撈用) 배는 여신을 모셨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무당에 의해 뱃서낭의 성이 결정되지만 그 개념에는 힘을 요하는 배에는 남서낭, 풍어와 번식과 관련된 배에는 여서낭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뱃서낭을 위하는 제의가 뱃고사인데 당제가 끝나고 나면 지내고 그 외 명절이나 대보름에 지내는데, 과거에는 매달 치렀다. 명절과 만선(滿船)때나 흉어(凶漁)가 계속될 때에 뱃고사를 지내며, 배를 새로 건조했을 때 무당을 불러 1일 또는 3일간 큰 배굿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 물 내릴 때, 당제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어획시, 대어(大漁) 어획시, 풍어시, 휴어시에 지낸다.

(3) 풍어제당과 서낭

도서 및 해안지역은 용신이 주신이다.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어촌지역에서는 바다 및 삶의 공간이 문화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수상(水上)이 생계유지의 무대이기에 천상(天上)과 수상(水上)에 거주한 용신을 더욱 숭배하게 되는데, 수상의 용신은 수상에 온갖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다스리며 천상의 용신은 해일이나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민의 사고에서 출현한 신이다. 동해안 어촌 서낭제의 특징은 남·여신을 같이 모시거나, 수소를 제물로 받친다거나, 해낭신(海娘神)에게 목각남근을 봉헌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내포지역의 해안에서는 서낭이 많이 파악된다. 서산 부석면 창리 해변마을 풍어제는 음력 정월 초 3일부터 초 4일까지 당굿으로 배 벌이가 잘 되도록 서낭님께 비는 제를 올리고, 해변입구와 마룡리 넘는 고셋마루에 장승과 서낭이 있었으며, 신당 안에는 임경업장군 내외의 당신도가 있고, 그 외 지토당(지신), 슈당(용왕신), 손님신위(호구별상), 수배당(잡신) 등의 제신을 모시는데 슈당이 서낭님이라 일컬어진다. 홍성군 서부면 수룡동의 당산제의 경우 제물차림에서 상을 5개 차려주는데, 서낭의 식구대로 차려놓는다. 서낭할아버지와 할머니, 당각시께 도와주시고 살펴달라고 차린다. 또 뱃기가 내려가는 것을 「서낭각시가 타고 내려간다.」고 한다.

서산 팔봉면 고파도리 각시서낭은 1985년 2월 5일 조사 기록을 통해 옛날 조창과 관련하여 해난사고를 막고 굴포운하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인다. 당안에 신으로 산신, 각시서낭, 당할머니, 당할아버지를 모시는데, 해신당과 관련된 당으로 서낭을 중심으로 위하는 당이다. 이 당은 1975년도 경 당사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보령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 당제를 진대 서낭제라 부른다. 진대란 뱀을 지칭(指稱)하는 경칭어로 뱀을 주신으로 하는 당으로 주민들은 이 뱀을 죽이거나 쫓으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12칸지에 뱀과 기목(거먹이 돼지)가 상극이라 하여 섬 안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며, 돈육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하여 외지에 나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3) 당진해안의 풍어제와 임경업장군 신앙

(1) 풍어제당의 분포

풍어제는 원래 향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세시행사로 배를 가진 선주들을 중심으로 마을 전주민이 참여하여 제의와 더불어 당굿으로 뱃고사, 거리굿, 샘굿, 장승굿을 행하는데, 진(辰)일에 마을 뒷산에 있는 당집에 올라 장군신(將軍神), 용왕(龍王), 서낭 3신을 모시고 당주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무사태평과 안녕을 비는 제의를 갖는다.

당제는 진일(辰日) 오후부터 선주들이 큰 배 순서대로 당주댁에 꽃아 두었던 배기를 들고 제당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무당, 화랑이들도 풍악을 울리며 따라 간다. 당에 오른 기는 당집 앞 추녀에 꽃고 선주들이 차례로 들어가 재배하고 무당들은 부정풀이굿으로부터 1년 열두 달 마을 전체의 무사태평과 무병장수, 그리고 운수대통을 축원한다. 돌꺾날은 뱃고사와 거리굿, 샘굿, 장승굿 등으로 이어진다. 뱃고사는 당제를 지냈던 제물(제수용품)을 선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선주들은 각각 무사고를 비는 뱃고사를 지낸다. 이어 샘굿과 거리굿, 장승제로 이어진다.

당진지역에서는 고대면 당진포리 해창, 석문면 교로리·소난지도리·대난지도리·장고항리·통정리·송산면 당산리 오도·가곡리 성구미, 송악읍 안섬·도원리 가락동·한진, 신평면 삽교천·운정리·신당리, 우강면 신촌리 등 바닷가 포구에 15곳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명백을 유지해 오는 곳은 안섬 풍어제와 한진 풍어제이고 삽교천 운정리에서 다시 지내기도 하였다.

〈당진시 읍면별 풍어제당 분포현황〉

읍면별 분포수	고대	당진	순성	대호지	면천	석문	송산	송악	신평	우강	정미	합덕	합계
풍어제당수	1	0	0	0	0	5	2	3	3	1	0	0	15

(2) 조기잡이 문화와 임경업장군 신앙

당진지역의 어업은 일제 초까지 동력선이 없어 원양어업을 못하고 주로 연평도에 나가 조기를 잡았다. 1930대 기계배가 도입되어 남으로 전라남도 칠산·흑산도까지, 북으로 연평도·옹진반도 연안까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조기·잡어·갈치를 잡았는데, 안간망 어선들은 흑산도에서 남지나해, 동지나해까지 다녔다. 연평도지역에서는 양력 4월 20일경부터 5월 20일경까지 조기를 잡고 용매도 주변·수업·함백이 등 황해 일원에서는 육젓을, 경기도 웅지군 덕적도·울섬 일대에서는 추젓을 잡았다. 그 당시 내포지역에서 잡는 어종(魚種)은 준치·갈치·조기·밴댕이·황새기·새우·송어·게·굴 등 20여 종이었다.

일제말기까지 음력으로 4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당진 안섬의 포구 주변에 한시적인 파시(波市)가 섰다. 전국에서 수백 척의 어선들이 모여 들었고, 안섬 해안에는 80여 척의 어선이 입출항(入出港)하여 행상(行商)들과 더불어 성시(盛市)를 이루었다. 연평도 조기잡이는 대략 1960년대 말경에 사라졌다.

임경업장군은 마을제당에서 조기를 몰아다 주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은 광해군-인조 연간의 명장으로 이괄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웠고, 병자호란 때 의주 부윤으로 있으면서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성을 축조하여 백성들을 잘 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친명배금파로 명을 치라는 청의 요청을 받고 명과 내통하였다. 이 사실이 청에 알려 붙잡혔으나 도중에 탈주하여 명에 망명하였다. 명나라 평로장군으로 청나라 공격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자 조선의 모반 사건에 연루시켜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죽었다.

임경업장군에 대한 설화는 ① 임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연평도에 진을 쳤다. 군사들이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다. 물에다 가시를 촘촘히 꺾어서 꽃아 놓았더니 조기가 많이 잡혔다. ② 임장군이 치는 그물은 쇠그물이다. 그래서 그가 그물만 치면 모든 고기가 꼼짝 못하고 잘 잡힌다. ③ 임경업이 반청분자로 몰래 청나라로 압송되다가 탈출하여 연평도를 거쳐 명나라로 건너간 쾌거를 기념하기 위해 조기잡이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는 설화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 서산시 부석면 창리 해변마을 영신당(靈神堂)에 임경업장군 화상 봉안사레가 있고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하당에 임장군 화상봉안을 얹혔으며 태안 안면을 황도리에서는 임경업장군을 조기잡이 신으로 모시고 있다.

「옛날 안강망 어선들은 조기잡이의 현장인 연평도의 임장군 당에 가서 임장군 당맛이를 하였다. 당시 연평도 조기잡이는 마을의 선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터로 일단 배가 연평도로 나가면 연평도 마을 앞에 정착하여, 「임장군 당맛는다」고 하며 제물을 장만하여 임장군 당에 가서 당제를 지냈다. 당 맛이는 개별 어선별로 하게 되는데, 당말에 배를 대놓고서 연평도의 단골을 찾아가서 당제를 주문했다. 선장은 물론이고 12명 정도의 뱃동서 선원들이 전부 목욕재계를 하고 금기를 지키며 배에서 밥을 지어서 당의 본단골에 부탁하여 당맛이 굿을 했다. 육당을 올리는데, 임경업장군신상을 화상으로 그려 붙였다. 선반에는 과일, 포, 메, 고기 등을 골고루 떼어 놓았다. 당시 당은 소당, 본당, 각시당, 장군당이 있었다. 그 날은 아무도 조기잡이를 하지 않고 임장군의 꿈을 꾸려고 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준다는 소박한 믿음으로 길몽을 꾸기 위한 염원이었다.

일제시대 임장군당 위치에 신사를 짓고자 당이 헐릴 상황이 되었으나 어업조합이사와 지소장이 3일 동안「만일 이 자리에 신사를 지으면, 이 근방 조기는 한 마리도 없으리라. 그리고 일본 너희놈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임장군의 영험성을 알고 그 일을 멈추고 소를 잡고 당집을 지어 크게 굿을 하고 위하였다고 한다. 또 임장군당 안에 임장군 화상이 있었는데 그 화상 앞에 술을 따라 놓으면 석 잔까지는 그 술이 말라 없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임장군이 영험하기 때문에 바로 안섬 당집에 모시게 된 것이다. 조기잡이를 하던 해변마을에서는 임경업장군을 모두 모셨으리라 사료된다.

전설에 임경업장군은 연평도에서 조석의 변화를 이용해 조기를 잡아 병사들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그는 조기의 신이 되었다. 현재 안섬의 경우 당에 임경업장군을 모시고 배에서도 모신다. 일제시대 민속학자 송석하는 「연평도를 말할 때 제외하지 못할 민속은 임장군 신앙이다. 병자호란 당시에 황해 연안을 방어하던 임경업 장군을 어부들이

신앙하는 것으로 ‘무장(武將)과 어부(漁夫)’하면 기묘한 콘트라스트이지만, 연평바다에 조기 잡으러 갈 예정으로 어선을 신축할 때에도 임장군을 위하는 고사가 있고, 또한 현장인 연평에 당도 하여서도 지성껏 정성을 드린다. 그러므로 양력 3월경에 한강의 노들(노량진) 등지에서 가끔씩 조깃배 진수고사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평도 백석수어업과 임장군과의 관계가 대단히 깊은데, 그것은 임장군이 연평도에서 가시덤불로 조기를 낚기 시작한 연고라고 한다.»고 하여 임경업장군이 신이 된 이유를 어살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또 조기가 연평도와 해주만 등 황해에 집중적으로 출몰할 당시 청나라로 압송되던 임경업이 탈출하여 중국으로 배로를 타고 항해를 해 기착한 곳이 연평도였다.

당진에서 확인되는 임경업장군을 모신 당은 당진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당(현재 없음),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풍어제당(6당으로 임경업 장군 부부 모심),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나루 풍어제당(현재 없음) 등이다. 임경업 장군에 대한 설화·일노래 등이 해역에 구전으로 넓게 전승되는데 비하여 「당」은 마을공동체의 집단적 신앙대상으로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누적된 결실이다. 또한 임장군당은 연평도당이 각각의 마을제당에 모시는 것보다 더 영험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안섬풍어제의 경우 마을제로서 정월 진사일에 제를 지내지만, 연평도에 가서 연평도 임경업 장군당에서 「임장군당 맞는다」고 해서 연평도 당제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임장군을 독자적으로 모실 필요성보다도 조기잡이에 참여한 전국 모든 선단은 연평도 임경업장군 당에 다들 인사를 갖추기 때문에 각각의 마을에서 임장군을 모실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충청·경기·황해 등은 임경업의 활동지와 결부되어 본당신(本堂神), 또는 본당신에 겸해 제의를 가지거나 하당신으로 그를 모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평도에 모셔진 임장군당이 더 영험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임경업 장군신은 그의 어살어법과 관련된 설화, 배치기 노래 등에 연평도를 구심점으로 조기잡이 어업권과 일치해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등 충남 서북부권부터 압록강 하구 해역까지 분포한다. 하지만 현재 조기가 잡히지 않으면서 충남 무형문화재 36호인 홍성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풍어제당도 임경업 장군 신앙이 잊혀져 가고 있고 태안 안면읍 황도 봉기풍어제도 실제 임경업 신앙은 없으며, 조기잡이의 소멸과 함께 그 신앙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3. 결론

당진해안의 어촌민속으로 참봉제, 용왕제, 거리제, 서낭당, 뱃서낭 풍어제 등을 살펴보았다.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온 어촌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의 발로가 이와같은 신앙으로 자리잡았으리라 생각된다. 육로교통이 발달하고 대형 선박과 안전한 고기잡이가 보장되면서 신앙으로서 서낭당의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바다에서 서낭당, 그리고 용왕님, 풍어와 관련한 임경업장군 신앙 등은 의미있는 어촌의 민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현재 당진지역 어촌마을이 대부분 사라지고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과거 존재했던 해양문화적인 요소들마저도 다 사라져가고 있다. 급변하는 해안 간척사업과 더불어 공장지대로의 변모, 그리고 관광지로의 개발 등 당진의 어촌문화는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이다. 그렇지만 세시풍속에 참봉제, 용왕제, 거리제, 서낭제, 그리고 뱃고사 등이 존재하고 연평도에서 조기잡이가 성행하면서 풍어제와 더불어 임경업장군 관련 신앙이 겨우 전승되고 있다.

內浦(馬韓)地方의 文化와 西海

박 태 신 ■ 내포지방 고대문화 연구실

1. 序言

車嶺山脈의 西北部地域으로 古代 眞番·目支國의 馬韓文化圈으로서 牙山灣과 插橋川流域과 伽倻山을 中心으로 한 개浦가 發達하고 西海에 臨한 곳을 內浦地方이라 한다.

內浦(馬韓)地方의 文化는 古代로부터 中國의 山東半島로부터 西海를 통해 牙山灣과 泰安半島를 通하여 流入된 文化이다.

海洋을 通하여 流入된 文化를 代表하는 것이 佛教文化이며, 이는 泰安의 磨崖佛, 雲山龍賢里의 磨崖如來三尊像(百濟의 微笑), 禮山 花田里의 4面石佛 등이 있다.

漢城百濟로부터 熊津·泗泚로 遷都한 百濟는 西海를 통한 앞선 馬韓의 文化를 受用하여 百濟後期에 公州·扶餘의 百濟文化가 絶頂에 이르렀으며, 新羅와 앞선 海洋術을 利用 日本으로 건너가 文化를 傳播하였고, 古代日本의 天皇家와 支配層이 되었다.

2. 伽倻의 地名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나라에는 伽倻山의 地名을 가진 곳이 3 곳이 있다.

忠南 內浦地方에 있는 伽倻山(검은산).

한 곳은 慶尙南·北道(陝川·高靈)에 걸쳐있는 伽倻山.

또 한 곳은 全羅南道 光陽에 있는 伽倻山이다.

釋迦牟尼는 B.C. 563년에 誕生하였다.

中國에는 A.D. 67年 後漢의 蔡愔(채음)이 佛敎를 傳來하였고,

高句麗는 A.D. 372年 17代 小獸林王 때에 佛敎를 受用하였다.

百濟는 A.D. 384年 15代 枕流王 때에 佛敎를 受用하였다.

新羅는 A.D. 527年 23代 法興王 때에 異次頓의 殉敎를 契機로 佛敎가 公認되었다.

日本은 A.D. 552年 百濟 26代 聖王 때에 奴唎斯致契가 日本에 佛敎를 傳했다.

A.D. 553年 眞興王 14년에 黃龍寺를 建立할 때 百濟 建築家인 阿非知가 9層 木塔을 세웠다. 이로 보아도 百濟의 佛敎文化가 新羅에 傳授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內浦地方의 伽倻山은 忠淸南道의 西北部地方(車嶺山脈의 西北쪽)에 位置하며, 南에서 北으로 우뚝 솟은 홀 山으로 자리하고 있다.

伽倻山の 東쪽으로는 德山川이 흘러, 插橋邑 二里에서 金馬川과 合流, 드넓은 插橋들(平野)을 끼르고 插橋川을 흘러 牙山灣(插橋湖)으로 流入된다.

이곳이 內浦地方이자 馬韓이 자리한 곳이다.

內浦地方은 山東半島와 가까운 地理的 關係로 앞선 中國의 先進文化와 海洋術을 受用할 수 있었다.

先進文化를 受用한 馬韓은 三韓中 第一 發展할 수 있었다.

이것이 馬韓의 文化이고, 後에 公州·扶餘의 百濟文化의 産室이며, 新羅와 日本에도 傳播되었다.

伽倻라는 地名은 어디에서 由來되었을까?

內浦地方의 伽倻山은 이 地方에 佛敎文化가 傳來되기 前에는 검은산 이었고, 검은산(伽倻山) 周邊의 들(農耕地)은 검은들 이었다.

內浦地方의 佛敎遺跡으로는 泰安의 磨崖佛, 瑞山の 磨崖三尊佛, 禮山 花田里의 四面石佛 等 百濟 佛敎遺跡이 남아있다.

內浦地方(馬韓)의 佛敎文化는 北方佛敎만이 아닌 山東半島에서 바다를 건너 西海岸의 泰安半島와 牙山灣으로 上陸한 佛敎文化가 傳來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 時期는 高句麗나 百濟의 佛敎受用보다 앞선 馬韓時代라고 생각된다.

“伽倻라는 語源은 梵語(sanskrit)로 코끼리(象)를 말한다.”한다.

그러니 內浦地方에 佛敎文化가 들어오면서 검은산이 伽倻山으로 바뀌었고, 象王山이란 地名도 생겨났다.

內浦地方에 있는 修德寺는 百濟 15代 枕流王 2年(A.D. 358年)에 修德이라는 觀音化身이 衆生濟度를 爲해 創建했다는 傳說로 남아있으나, 이(修德寺)는 北方佛敎(高句麗와 百濟 佛敎)보다 앞선 馬韓時代 中國으로부터 海洋을 通하여 泰安半島와 牙山灣으로 上陸 內浦地方에 佛敎文化가 傳來 되었으며, 修德각시 이야기가 傳說이 아닌 實際의 歷史로 보아야 한다.

3. 牛頭里(소머리, 소시머리, 曾尸茂梨, ゾウシモリ)

現 唐津郡 唐津邑 牛頭里가 소머리(소시머리, 曾尸茂梨, ゾウシモリ)이다.

『日本書紀』의 神代紀 上篇에 依하면 日本을 開國한 것은 天照大神(あまてらすおほみかみ)이라 한다.

이 女神의 男同生인 素戔鳴尊(스사노오노미고도, すさのをのみこと)이 韓鄕(韓鄉)에서 살던 곳이 소시머리(소머리, 牛頭里)이었다.

伊奘若尊(이सान기노미고도, いさなきのみこと)과 伊奘冉尊(이सान미노미고도, いさなみのみこと), 두 神은 長女가 英特하므로 하늘나라, 卽 高天原(다가아마나하라, たかあまなはら)을 다스리라 하고 日本으로 보냈다.

次女는 바다를 다스리라 하고,

長男은 天地를 다스리라 하였다.

그러나 長男인 素戔鳴尊(스사노오노미고도, すさのをのみこと)은 울보였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있는 뿌리나라(根國, ネノクニ, 네노구니)로 가고 싶다” 하였다.

그래서 韓鄕으로 보내어 소시머리(소머리, 牛頭里, 曾尸茂梨, ゾウシモリ)에 살았다고 한다.

日本學者들은 이 소시머리(曾尸茂梨, ゾウシモリ)를 韓國語의 소머리, 卽 牛頭里로 생각하고 明治時代 以來 韓國 全域에서 牛頭里를 찾는 努力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筆者가 主張하는 唐津邑 牛頭里의 거북산에 있는 소시머리(曾尸茂梨)土城은 아직 日本 學者들이 모르고 있는 牛頭里(소머리, 소시머리, 曾尸茂梨, ゾウシモリ)인 것이다.

이는 소머리, 卽 소(牛)의 머리(頭)地方 이라고 보고 있다.

日本の 뿌리를 찾으려고 努力한 日本學者들은 明治時代に 이미 江原道 春川에 있는 牛頭山을 注目하였다.

『朝鮮地名考』를 쓴 아유가이(鮎貝房之進)氏에 依하면 明治時代에는 春川 牛頭山을 소시머리(曾尸茂梨, ゾウシモリ)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信憑성이 없자 2次的 候補地로 釜山地方을 소시머리(소머리, 牛頭里)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도 合當치 않다고 알게 되자 3次的으로 漢江 下流說이 나왔다. 이도 定說이라 할 수 없자 近年 馬淵和夫(まぶち)教授는 慶南 高靈地方을 旅行하고서 高靈地方이 소시머리(牛頭里)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이 說을 받아들인 高靈의 伽倻大學校에서는 校內에 公園을 造成하고 巨大한 紀念碑를 세웠다. 馬淵和夫(まぶち)教授의 主張에 對하여 眞價는 알 수 없지만, 筆者는 唐津의 牛頭里에 있는 土城을 注目하고 싶다.

日本の 天孫降臨神話의 誕降場所인 久土布流(쿠지후루)는 龜旨峰이다.

伽倻國의 始祖 金首露王도 龜旨峰의 알(卵)에서 誕生하였다.

日本の始祖와 金首露王은 다 같은 龜旨峰에서 태어난 雙生兒인 것이다.

그 중 하나는 日本에 定着 日本의 國祖가 되었고, 또 하나는 金海에 定着 伽倻國의 國祖가 되었다.

1986年 日本 明治大學의 오스카(大塚)教授는 金海市 主催로 伽倻問題에 關한 學術會議에서 “前期任那와 前期伽倻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서는 日本의 國家起源과 韓國의 古代史(金海伽倻)는 解決될 수 없다.”는 趣旨의 發言과, 『三國史記』卷 41 列傳 1의 金庾信 上篇에, “…… 金庾信의 12代祖인 首露는 어디에서 온,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後漢 建武 18年 壬寅에 龜峰에 올라가 駕洛의 9 村을 바라보고, 그 곳에 나라를 세우고 國號를 伽倻라 하고, 後에 金官國 …… (…… 12代祖 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18年壬寅登龜峰, 望 駕洛9村, 遂至基地開國, 號曰伽倻, 後改爲金官國, ……)”이라 하였다는 記錄과, 「眞景大師 塔 碑文」의 記錄에 “金庾信의 祖上이던 任那王族이 新羅로 歸化하였다는 記錄” 등으로 볼 때, 金首露王은 金海地方에서 自生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移住하여 定着한 移住民인 것이다.

그렇다면 金首露王은 어디에서 移住하여 왔을까?

忠南 內浦地方의 龜旨峰 (唐津郡 唐津邑 牛頭里의 거북산)에 살던 馬韓 韓族(前期任那·伽倻人)이, 北方民族(高句麗人, 夫餘族)에 밀려 金海에 定着(後期任那·伽倻)한 것이 金首露王이라 하고, 다른 一派는 日本으로 건너가 日本의 支配層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오스카(大塚)教授가 論及한 日本의 國家起源과 韓國의 古代史(金海伽倻)는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唐津의 牛頭里(우두리, 曾尸茂梨, ゾウシモリ)는 日本의 天孫降臨神話와 金首露王의 誕辰神話 두 곳 모두를 充足 시켜주는 場所라 생각 한다”.

唐津의 牛頭里에는 土城이 二 곳이 있다.

거북산에 있는 土城을 台城 或은 牛頭山城, 봉우리를 구지봉(龜旨峰)이라 하고, 加城山에 있는 土城을 加城山城이라 한다.

唐津郡에서는 牛頭里의 都市開發地域에 對한 發掘調査를 (財)忠淸南道 歷史文化 研究院에 依賴하여 2008年 發掘調査를 하였다.

唐津 牛頭里의 都市開發地域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2次 概略報告書에 依하면 紀元前後의 遺蹟인 土器에서부터 石器, 靑銅器, 鐵器遺物 등이 出土되었으며, 百濟時代 土器와 土器片 등이 出土되었다.(參照: 「唐津 都市開發地域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2次 概略報告書」, 忠淸南道 歷史文化研究院)

隣接 遺蹟으로는 元唐里遺跡과 彩雲里遺跡으로 百濟時代 初期의 豎穴遺構(수혈유구)와 住居址 등 生活遺蹟이 確認된 바 있다.

唐津邑 牛頭里의 發掘遺跡, 遺物로 미루어 牛頭里 거북산의 龜旨峰(구지봉)은 金海伽倻(金海地方)의 龜旨峰과 金首露王의 出緣과 日本 天孫降臨神話의 誕降場所(탄강장소)인 쿠지후루(久土布流)와도 聯關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韓國에서는 住民이 集團的으로 모여 사는 곳을 머리(村 = 마을)라고 하지만 日本에서는 무라(ムラ = 村), 或은 모리(森 = モリ)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古代 內浦地方의 住民들이 日本으로 移住하므로서, 韓國의 古代 內浦地方의 古代語인 머리(村 = 마을)가 日本으로 전파(傳播)되어 日本語의 「무라(ムラ = 村), 或은 모리(モリ = 森)」로 變換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內浦地方에서는 마을(村)을 「구니(クニ)」라고 하는 곳이 있다.

「소구니[蘇クニ(國)]」와 「바구니」가 이것이다.

「소구니[蘇クニ(國)]」는 洪城郡 長谷面 杏亭里에 있다.

傳說에 依하면 옛날 소(蘇)氏의 나라(ナラ, 國)와 능(陵)이 있었는데, 홍(洪)氏가 이 마을에 定着하면서 능(陵)을 파헤쳤다고 한다.

筆者는 『眞番・目支國과 百濟復興戰, 1篇, 1章, 「6. 古代 內浦地方은 日本 天皇家의 뿌리나라(根國). - 前期任那와 前期伽倻는 內浦地方에 있었다. -」』에서 『日本書紀』의 崇神紀에서 소나가시지(蘇那曷叱智, そなかしち)의 韓鄉인 蘇氏의 나라(ナラ, 國)인 소나라(蘇國, 蘇구니, 蘇クニ)로 보는 것이다.

「바구니」는 禮山郡 新陽面 時旺里 (俗地名; 不雲里)에 있다.

不雲里에 있는 自然部落의 地名이다.

馬韓時代의 不雲國(李丙燾博士 說)이 있던 곳으로서 土城과 支石墓가 남아있다.

또한, 洪城郡 西部面 南塘里와 於沙里 中間地點에 「바구니」마을(村)이 있다.

「구니」는 나라(國)를 말하는 것으로서 日本의 구니(クニ・國)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日本語의 나라(ナラ)와 구니(クニ)도 內浦地方의 言語가 日本地方으로 傳播(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牛頭里(소시머리, 曾尸茂梨, 소머리)가 忠南 唐津의 牛頭里[『眞番・目支國과 百濟復興戰』의 第 1篇 1章 4. 「古代 內浦地方과 古代 日本語의 9) 소머리(소시머리, 牛頭里)」; 參照]이며, 人皇으로서 日本을 統一한 崇神天皇과 應神天皇의 出自가 忠南의 內浦地方(禮山地方)이라고 主張하는 바 이다.

또한 百濟 復興戰爭 當時 日本의 天智天皇이 百濟 復興軍을 支援次 渡來한 日本壯丁 1萬餘名이 白江(白村江, 牙山灣, 唐津 앞바다)戰鬪에서 羅·唐軍에 依하여 大敗하였다.

『日本書紀』에서는 「이때 나라 사람들(日本人)은 서로 말하기를 “州柔城(周留城)은 降伏되고 말았구나. 무어라 할 말이 없도다. 百濟라는 이름도 오늘로 告하였구나. 祖上의 墓所를 어이 또 다시 와 볼 수 있겠는가. 오직 禮城(데례성)으로 가서 日本의 將軍들을 만나 重要한 일들을 相議하여 볼 수 있을 뿐이로다.”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天智天皇의 白村江 出兵은 百濟를 支援하기 보다는 “古代 日本의 祖上 緣故地(內浦地方)를 守護하기 爲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日本書紀』神代紀 上篇에 天照大神(아마데라스오호미가미, あまてらすおほみかみ)의 韓鄉인 牛頭里(소머리, 소시머리, 曾尸茂梨, ソウシモリ)가 忠南 唐津郡 唐津邑에 있으며,

人皇으로서 日本을 統一한 10代 崇神天皇과 15代 應神天皇이 忠南 內浦地方(禮山地方)에서 건너갔다. 이런 緣故로 百濟復興戰爭때 自己들의 祖上 땅을 지키기 爲해 1萬餘名을 派遣 白江(白村江, 牙山灣, 唐津 앞바다)戰鬪에서 羅·唐軍에게 敗하였다.

그러니 古代日本 支配層(天皇家)의 뿌리가 農耕文化를 가진 忠南 內浦地方의 馬韓 韓族이므로 同一한 韓族”인 것이다.

그렇다면 日本人이 主張하는 任那日本府說을 根據로 하는 日本의 優越主義思想을 잠재울 수 있으며, 同一한 馬韓 韓族으로서 平和共存을 爲해 21C를 함께 開拓해 나아 갈 수 있으리라 確信하는 바 이다.

4. 맺는 말

內浦地方은 예로부터 救國忠節의 고장이다.

中國 漢나라가 半島를 占領하고 漢四郡을 設置할 때 內浦地方에는 發達된 文化를 가진 眞番國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占領하고 眞番郡(B.C. 108 ~ 82)을 設置, 治所를 淸津(雪縣, 現: 淸橋地方)에 두었다.

平壤地方의 樂浪郡은 A.D 313年 高句麗의 美川王이 北쪽地方에서 내려와 漢四郡의 勢力을 몰아낼 때까지 創置 後 420(B.C. 108 ~ A.D 313)餘 年間 統治가 이루어졌다.

앞선 文化를 가지고 있던 內浦地方의 眞番郡에서는 漢의 占領 26年 만인 B.C. 82年에 漢의 勢力을 몰아내고 만다.

그 後 百濟復興戰爭(A.D. 660 ~ 663) 때에도, 內浦地方의 豐達郡(現: 禮山郡 鳳山面 孝橋里, 自然部落名이 風景里)將 이었던 黑齒常之將軍을 비롯하여 沙吒相如, 佐平 餘自進, 僧侶 道琛 등이 任存城에서 流民과 함께 羅·唐軍을 相對로 復興戰爭을 하였다.

內浦地方에서의 王建과 甄萱의 戰鬪, 蒙古의 內浦地方의 侵入 任存城에서의 戰鬪, 淸나라가 韓半島를 先占하기 爲해서 上陸한 곳도 牙山灣이고, 日帝가 大韓帝國을 合併하기 爲해서 淸나라와 海戰을 벌인 곳도 牙山灣이었다.

地政學的인 關係로 古代로부터 西海를 通하여 先進文化를 受用하였고, 二千餘年前 內浦地方에서 漢四郡을 몰아낸 救國의 精神이 百濟復興戰爭으로 이어지고 近·現代에 와서는 東學革命과 많은 獨立運動家와 思想家가 輩出되었다.

이는 先進文化를 갖고 있던 內浦人들의 自存感에서 나온 抵抗精神 이었다고 생각된다.

唐津市에서는 羅·唐軍이 百濟 復興戰爭 當時 白村江海戰(唐津 앞바다)에서 勝利는 하였지만 바다에 떠다니는 復興軍과 日本 壯丁들의 屍身을 收斂하여 묻어주고, 弔祭(祭祀)를 지내준 劉仁軌將軍의 人間美를 浮刻시키고, 日本 壯丁들의 慰靈塔과 劉將軍의 記念碑를 建立하고, 劉將軍의 故鄉인 中國의 河南省(汴州)과 日本과 文化交流를 맺고, 이를 積極 弘報를 한다면 文化事業으로서 成功하리라 期待한다.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김 영 곤 ■ 당진역사문화연구회

1. 들어가며

당진의 농민이 봉건통치와 외세 침략에 대응한 저항으로, 1894.1.20.(음력, 이하 같음) 합덕농민항쟁과 1894.10.11. 예산 모시전투, 10월 20일 합덕전투가 일어났다. 송학산 전투를 거쳐 1894.10.24. 승전목 전투에 이어 면천성, 관작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홍주성 전투 패배했다. 당진 동학농민혁명은 이 과정을 말한다. 전국적 흐름과 비교할 때 합덕농민항쟁은 1893.1.11. 고부항쟁보다 11개월 뒤에, 승전목 전투는 1894.4.7. 황토현 전투보다 6개월 뒤에, 1894.11.9. 공주 우금치 전투 보름 전에 일어났다.

동학농민혁명은 호남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호남은 농민항쟁에서 전쟁으로 발전했다. 호서지역은 동학 농민전쟁의 진행에 따라 집강을 구성했지만 그 강도는 호남만 못했다. 마찬가지로 호남지방 동학농민혁명에 비해 호서지방의 동학농민혁명전쟁 연구가 뒤늦게 진행되었고, 당진은 더욱 더디었다. 이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다른 지역의 연구와 결합될 때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당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합덕농민항쟁에 관해 홍석표¹⁾, 박결순²⁾, 김

1) 홍석표, 「합덕농민운동」 『내포문화』 제17호, 2005

2) 박결순, 「1894년 합덕농민항쟁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2007

남석³⁾, 김성태⁴⁾의 합덕농민항쟁 연구 등이 있다. 동학농민항쟁과 승전목 전투와 관련된 연구에 이인화⁵⁾, 채길순⁶⁾, 강효숙⁷⁾, 양진석⁸⁾, 배향섭⁹⁾, 김추윤¹⁰⁾, 김남석¹¹⁾, 김학로¹²⁾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관한 김영곤¹³⁾, 천주교 전래에 관한 송기영¹⁴⁾의 연구가 있다. 일제 시기의 자료로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¹⁵⁾는 합덕농민항쟁 당시 합덕방죽 수리계의 면적과 쌀생산량을 밝혔다. 그리고 2016년 최근 연구를 모은 『당진에서 본 동학농민혁명』이 나왔다.

합덕농민항쟁에서는 농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합덕전투, 송학산전투, 승전목전투에 이르는 부분은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 공격에 맞서는 전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당진 지역의 동학농민 전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2. 당진 동학농민혁명의 조건

당진은 1894년 당시 크게 면천군과 당진현으로 나뉘었다. 당진은 농산물, 수산물 생산이 풍부했다. 당진평야는 만경평야 김해평야 평양평야와 더불어 큰 평야의 하나이다. 지주와 소작인 자작농 사이의 모순이 커 합덕농민항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진은 부재지주가 많아 고부만큼 지주와 농민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지는 않았다.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상품경제는 토지겸병을 불러왔다. 삼정문란과 관리의 횡포로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봉건제도 타파와 토지개혁의 요구로 나타났다.

당진 난지도 해역은 호서지방과 삼남지방의 곡물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조운의 중심 지점이다. 이 해역은 관군에게나 농민군에게나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청일전쟁 풍도 전투에서 승리해 인천 앞바다를 장악한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고 한양을 거쳐 남하했다. 청군은 직

3) 김남석, 「1894년 충남 면천지역의 동학농민전쟁연구」 『충청문화연구』 Vol.5, 2010

4) 김성태, 「신리 교우촌과 밀양손씨」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35집, 2012.12

5) 이인화, 「당진 동학혁명·의병운동사」 『내포문화』 제16호, 2004

6) 채길순, 「충청남도 서북지역의 동학혁명사 연구」 『동학학보』 Vol.17권, 2009, 동학학회

7) 강효숙,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 -미나미 코시로(南小西郎), 이두환,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22호, 동학학회, 2011

8)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한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역사비평사, 1995

9) 배향섭,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지도부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1997

10) 김추윤, 「내포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버그내(삽교천)를 중심으로」 『내포문화』 제21호, 2009

11) 김남석, 「당진역사 재조명」 『당진학 제1기 교재』, 당진시 평생교육새마을과, 2012

12) 김학로, 「당진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양상과 승전목전투」, 당진역사연구문화연구소 편, 『당진에서 본 동학농민혁명』, 2016

13) 김영곤, 「동학농민혁명 시기 당진농민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당진역사연구문화연구소 편, 『당진에서 본 동학농민혁명』, 2016

14) 송기영,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대한 연구」 『내포문화』 제15호, 2003

15) 久間健一, 『朝鮮農業の 近代的 様相』, 西ヶ原刊行會, 1935

접 아산과 당진 대진(안섬)으로 상륙했다.

이 과정에서 당진 농민은 청과 일본군 관군에게 직접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당진의 농민은 동학과 결합하고 합덕농민항쟁을 일으키고 동학농민혁명전쟁에 참여했다.

당진지역에 동학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내포지역에는 아산의 안교선, 예산의 박인호, 박희인, 당진의 이창구 등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들은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내포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전쟁 당시 홍주성(현재 홍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장악했다. 동학교단과 충청감영의 합의와 묵인 아래 각처에 도소를 설치하고, 집강을 두어 폐정을 혁파하는 등 혁명적 과제를 수행했다¹⁶⁾.

3. 당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1) 합덕농민항쟁

합덕제는 합덕평야에 농수를 공급하는 관개농업의 젖줄이었다. 전라병사를 지낸 이정규는 연제 수리계 계장이라는 직책을 기화로 저수지의 얇은 곳을 개간해 논으로 만들고, 깊은 부분만 저수지로 남기고 관개지역 농민에게 수세를 부과했다. 합덕방죽 몽리구역 6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나성뢰(羅聖雷)와 이영탁(李永鐸)이 「혈원록」(血怨錄)을 작성하고, 주민 800여명이 홍성으로 가 홍주목사 김기수에게 전달했다. 김기수는 농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뿐 아무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1893년 12월 그믐 주민 1천여명이 횃불을 들고 이정규의 집을 포위하고 나성뢰, 이영탁 대표가 이정규를 만나 농민탄압의 부당, 연호 경지 개간획책, 수세 부과의 부당성을 항의했다. 이정규가 과오를 반성하며 농민에게 사죄하고 장차 주민에게 협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주민은 믿을 수 없다며 이정규 병사의 본채와 부속 건물에 방화했다. 나성뢰는 나중에 동학도라는 이유로 홍주에서 총살당했다¹⁷⁾.

합덕농민항쟁은 11개월 전 고부에서 조병갑에 저항한 농민항쟁과 그 지형이 비슷하다.

2) 당진 동학농민전쟁과 승전목 전투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청에게 원병을 요청했고 5월 5,6일 청군이 아산 만에 도착했다. 군대는 아산현 백석포로 상륙하고, 군량과 무기는 송악면 내도(안섬)로 실어 내렸다.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고 한양을 거쳐 관군과 함께 남하했다. 6월 27일 성환, 직산 등지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교전해 청이 패배했다. 청군은 공주, 청주 등 충청지역을 관통하

16) 김학로, 앞의 논문, 77쪽

17) 홍석표, 위의 논문, 참조

며 전재를 탈취하기도 했다. 일본군이 아산현 객사를 차지하고 민가로부터 전곡과 재물을 빼앗았다. 이런 영향으로 충청지역에서는 6월말부터 반왜 활동이 활발했다.

일본해군은 7월 25일 풍도해전에서 승리하고, 9월 15일 평양전투에서 승리했고, 9월 17일 압록강 앞바다의 황해해전에서 승리했다. 청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후퇴했고 일본은 조선내부에 적극 개입했다¹⁸⁾.

일본은 7월 22일 조일공수동맹을 맺어 청군을 국경밖으로 내보냈다. 일본군의 전략은 농민군을 북에서 남으로 밀어 남해바다로 빠뜨리는 청야작전이었다. 임진왜란 때 북으로 밀려난 조선군이 명군과 만나 합쳐 왜군에 대항하고, 왜군 해군이 조선 해군에게 제해권을 상실하는 전략과 차이가 있었다.

남접이 한양으로 북상하면서 9월 논산에서 북접의 손병희를 만나 서울로 가는 길목인 공주탈환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 합의에 2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에 일본군은 전력을 강화했다.

내포지역의 농민군은 10월 1일 일제히 기포했다. 농민군은 천안 세성산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피난록』에 따르면 이창구는 목포 수접주로 면천지방을 대표하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다. 그는 송악읍 월곡리 일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양반사족을 징치하거나 조운을 장악하여 조선정부 공납의 운송을 막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10월 13일 윤치상이 송학산을 점령하고 있던 유생을 제압하였다¹⁹⁾. 외무대신 김윤식은 10월 25일자 일본공사에게 보낸 글에서 “내포의 적 이창구는 송학산 민보를 탈취하였으므로 내포의 열읍이 모두 해독을 입게 되었다 합니다. 내포는 곡물을 생산하는 곳이며 겨울과 봄 사이에 경성으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적도들이 이곳에 주재하자 조운이 불통되고 있습니다.”라며 일본군을 동원하여 이창구포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다²⁰⁾. 그러나 이창구 접주가 관군에게 체포돼 전력에 큰 손실을 입었다.

승전목 전투는 조석현의 『북접일기』²¹⁾와 일본군의 자료를 종합하면, 10월 23일 해미군 구밀리에서 유진 숙소하고, 1894.10.24. 박인호가 이끄는 충남북지역에서 모인 2만 농민군이 면천 사기소리 산골짜기에서 80여명 정도의 일본군과 대치했다. 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해 일본군을 골짜기 안으로 유인했다. 농민군은 화공으로 일본군을 공격했고 일본군은 무장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어 농민군은 10월 28일 면천읍성 전투와 10월 26일 예산 신례원 관

18) 배향섭, 위의 논문, 54쪽

19) 김학로, 위의 논문, 참조

20) 김학로, 위의 논문, 115쪽

21) 조석현, 『북접일기』, 태안군·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6

작리 전투에서도 승리했다²²⁾. 그러나 농민군은 홍주성 전투에서 대패했다. 홍주성에서는 농민군이 관군-일본군에 정면전을 했는데 강한 화력을 당할 수 없었다. 이 지역농민군은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이후 유격전술을 펴는 농민군을 피했다.

4. 당진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1)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 체제에 반대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한 데 의의가 있다. 왕정 반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집강소를 통해 민주를 집중한 근대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였다. 아울러 노비, 백정이 해방되고 여성 해방의 수준이 높아졌다. 가장 큰 쟁점인 토지검병에 대한 농지개혁 요구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으로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싸웠다면 관군을 이기거나 전주화약처럼 농민혁명군과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군과 농민군이 대립한 지점에 일본군이 강한 화력을 갖고 가담하면서 전세는 농민군의 패배로 기울었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 관군은 농민군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조선 정부 안의 개혁파가 외국군을 끌어들였다. 농민군은 관군과 겨루는 상황에서 외세인 일본이 개입하면서 승리할 수 없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반도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자생적인 봉건질서 타파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청에 이어 일본이라는 외세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동학농민혁명전쟁 진압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후 만주를 점령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뒤에 남북은 분단되면서 지금까지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이런 자기결정력의 부재는 이후 해방정국, 4.19민주혁명, 1987년 민주항쟁, 지금의 남북한 정세 등 매 시기마다 반복되었다.

현시점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친일세력에 눌러 빈부격

22) 채길순, 위의 논문, 110쪽

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민생문제가 심각하다. 남북은 평화적 교류조차 막히고 통일을 전망하지 못한다.

세계는 각 나라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진전한다. EU와 ASEAN이 그렇다. 동북아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가고, 남북한 일본 중국 등이 평화 공동체로 가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방위조약을 맺게 하려 한다. 여기에 국민의 반일 정서에서 걸림돌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봉합하려 한다. 제주 강정에 미해군이 기항하는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는 동학농민혁명 전쟁 당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원폭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해안에 흩어진 원전들을 파괴할 경우 인류 절멸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정세에서 민중은 절망한다. 민중이 한국사회 모순에 저항을 조직하는 것과 아울러 국내 정세 해결에서 외세와 이에 의존하는 세력을 넘어 스스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극복하게 된다.

둘째, 일본은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농민군 30~40만명을 학살한 데²³⁾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16.5.2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피폭지를 방문해 피폭자를 위로했다. 71년 전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크나큰 재앙을 일으킨 것에 사과 의 뜻을 표했다.

2) 당진지역에서의 의미

첫째, 승전목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화공을 펴 일본군이 무장을 해제하고 달아나게 했다. 이어 면천읍성 전투, 관작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승전목의 유격전이 동학농민혁명전쟁 전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화력이 강력했던 일본군에 승리한 점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승전목은 당진(면천면 사기소리)에 위치하지만 당진은 물론 적어도 내포지역 공동의 역사²⁴⁾ 유산이다. 이곳은 내포문화숲길 중 내포역사인물동학길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곳의 토석을 한보철강(현재 현대제철) 건설 공사장 등에 내다 팔아 지금은 아래 사진처럼 원형을 잃었다.

당진의 당진지역 역사연구자들이 2014년, 2015년 학술대회를 열어 의의를 밝히고 2016

23)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Ⅱ』, 풀빛, 1986, 86쪽

24) 박성목, 「갑오년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 연구」, 당진지역 동학농민전쟁 세미나, 당진역사문화연구모임, 2014.3.15

년 『당진에서 본 동학농민혁명』(당진역사문화연구소 편, 2016)의 출판을 계기로 승전목역사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을 복원해 보는 이가 구부러진 골짜기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이겼구나 하고 한눈에 역사의 교훈을 느끼고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자는 취지이다.

천도교회사에 따르면 손병희 장군이 당진시 수청2지구 개발구역(남부로 307-57, 당시 당진 모동)에 1898년 8월부터 1899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돼 있다. 이 집은 현재 방치돼 있다²⁵⁾.

둘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피해 상황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사료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피해자 후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태안의 경우 피해자 20명의 행장과 일화를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했다. 수접주 박성천(朴性天)은 손자 박갑진(朴甲鎭)의 구술에 따라 박성천이 태안성, 승전곡, 관작리, 홍주성 전투에 참전했고 1894.11.16. 전사했다고 기록했다²⁶⁾. 충남에서 공주, 금산, 태안, 예산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다. 당진에는 아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조직되지 않았다. 당진이 이런 원인은 피해의식이 그만큼 커서 그렇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용기를 내 조사하고 연구해 역사를 복원해야 할 일이다.



사진 : 승전목은 이배산(사진 뒷쪽)과 웅산 사이를 두 번의 S자 형태로 굽어 흐르고 폭이 좁다. 이곳의 돌을 한보철강(현재 현대제철) 공사에 내가 역사적 장소가 사진의 평지처럼 드러났다. 지금도 삼호개발이 오른 쪽에 보이는 석산에서 돌을 파내고 있다²⁷⁾.

25)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흔적」, 『당진시대』, 2015.7.10

26) 김영규, 『토성산의 참상』, 『태안문화』 제27호, 2015

27) 「동학군 승전곡 전투」 『대전일보』, 2011.10.06

황해 근대 해양문학의 한 검토

- 충남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김 영 미 ■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 황해문학의 형성과 근대적 주체성

한국 근대문학이 육당의 「海에게서 少年에게」(1908)에서 비롯된다는 학계의 공인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하지만 ‘바다의 발견’이 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은 정지용, 김기림, 임화 등의 ‘바다’가 깊이 노출된 시에서 더욱 발견된다. 바다의 열림과 도전성,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등은 고전 시가의 전통에 대한 거부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했던 근대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한국 근대문학은 일본과의 상관성 속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요 공간은 남해의 이른바 ‘현해탄’이란 바다공간이다. 남해를 전제로 한 근대문학 논의는 일본을 매개항으로 한 서구문학의 침투와 수용이란 식민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황해를 배경으로 한 문학 현상은 남해의 식민성과 다른 주체성을 근대문학 공간에서 보여준다. 그것은 소월, 만해, 심훈, 이해문 등에서 대표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본고는 황해를 배경으로 하는 근대문학 현상을 충남의 내포문학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충남의 내포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열린 공간이다. 그 개방성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한국의 서해안에서 꽃핀 문화가 황해에서 배태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깊이로부터 한국의 근대문학에서 충남의 내포는 주체적 근대성을 담지한 문학 현상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에서 내포지역(당진과 그 둘레의 서산, 홍성, 예산이 포함된다.)을 중심으로

활동한 심훈(당진), 만해(홍성), 민태원, 윤곤강(서산), 이해문(예산)의 작품을 검토하고자 한다. 황해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 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주체와 원심력 등 그 스펙트럼을 확립하고 있음을 살펴 문학사적 의의를 추출할 것이다.

2. 내포문학의 양상과 그 문제

남해는 일본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또한 서구 문예사조가 일본→남해(현해탄)→한국의 일방적인 수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구 문학의 식민성에 한국문학을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

남해와 황해는 공간적 층위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남해가 서구 중심, 짧은 교류 역사를 지닌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 반면, 황해는 동양(중국) 중심, 긴 교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황해에서 내포는 육지를 바다화 하는 공간이다. 당진, 서산, 예산 등은 내륙 깊이에 연결된 수로에 의해 바다와 연결된다. 따라서 내포는 끊임없이 바다화 되는 육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바다로 열린 개방성과, 역동성, 진취성에서 내포 지역에서는 일찍이 근대문학이 싹트고 익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 근대의 모습 또한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더한다. 그것은 남해중심의 식민적 근대성과 다르다.

1) 포구와 저항의 공간, 당진과 심훈

당진은 「상록수」로 잘 알려진 심훈의 공간이다. 이 소설은 당진의 실존 인물인 심재영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당진의 ‘한진’을 배경으로 한다. 한진은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소설 이전에 이미 현실에서 저항과 개화의 인물들이 실재했다. 「상록수」는 이에 대한 채록의 의미를 지닌다. 심훈은 바다와 인접한 ‘나루(한진)’를 새로운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오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능한 곳으로 쓰고 있다. 소설 속에서 황해는 식민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우뚝 나서며 “자 애항가를 부릅니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고 부르는 것이다. …

건배의 두 팔이 올라갔다가 허공을 힘있게 가르자 청년들이 정중한 태도로 애항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灣과 ××山이 마르고 닳도록 /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漢谷 만세!

(후렴) 비바람이 험곳고 물결은 사나워도 /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 松柏 같이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상록수」 부분(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당진의 한곡리는 청년과 개화의 공간이다. 그 주체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것은 ‘xx灣, 물결’ 등의 바다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 심훈의 당진에 짓고 창작활동을 한 ‘필경사’는 이곳 당진의 선구적 주체성의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에게 ‘筆耕’은 당대의 일제강점하에서 싸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한 자루의 붓, 그것은 우리의 쟁기요, 유일한 연장이다.

최후의 한방울까지 종이 위에 그 파를 뿌릴 뿐이다.

동지여, 우리는 퇴각을 모르는 전위의 투사다.

「筆耕」부분

이러한 시대와의 대결, 전투성은 당진의 ‘바다’에서 가능해진다. 그가 젊은 날 한때 항주에서 망명적 방랑과 학업을 보여준 치열성도 황해의 원심력에 바탕을 둔다. 그 치열성은 만해에서 강화된다.

2) 넓고 깊은 바다의 저항, 만해

한용운은 흥성의 시인이다. 그의 호 ‘근海’가 바다를 품고 있듯이, 그의 시에서 바다의 이미지들은 쉽게 발견된다.

(가) 나는 나룻배 / 당신은 行人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行人」부분

(나)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중략)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알 수 없어요」부분

위의 시들에서와 같이 바다는 만해시를 만드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가)에서 바다는 당신을 기다리는 무한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나)에서 바다는 ‘오동잎→푸른하늘→향기

→시내→저녁놀'로 이어지는 연속적 하강의 이미지들이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공간이며 무한의 확산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바다가 지닌 무한과 확산은 마지막 연에서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는' 영원성과 불변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만해시가 보여주는 강건성은 바다 이미지에 힘입는다.

3) 바다의 청춘과 뜨거움, 민태원과 윤곤강

민태원과 윤곤강은 서산에서 태어난 문인들이다. 민태원은 이후 서울에서 변안소설 발표, 기자 등으로 당대 언론계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청춘, 개벽, 동명, 별건곤, 폐허, 파스큐라 등의 동인으로 활동한다. 잘 알려진 그의 「青春禮讚」은 바다의 역동성과 상동 관계에 있다.

青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青春!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鼓動을 들어보라. 青春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巨船의 汽管과 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動力은 바로 이것이다.

「青春禮讚」부분

‘청춘의 심장’은 ‘巨船의 汽管’으로 비유된다. 이 비유에 의해 청춘과 바다는 등가관계에 놓인다. 민태원에게 바다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글의 탄생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 글이 보여주는 화려하고도 강한 어조 역시 바다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민태원이 보여주는 청춘의 힘참과 열정, 아름다움, 미래지향 등은 바다에서 유래되고 있다. 또한 감정의 거침없는 표현과 화려한 수사와 비유, 유려한 문장 등은 민태원이 30년대 선구적 문장가임을 보여준다.

윤곤강 역시 서산에서 태어나 주로 서울에서 문학활동을 한 시인이다. 그의 시에는 바다는 좀더 내밀하게 혹은 간접화되어 나타난다. 그의 시가 보여주는 광대한 공간과 열정은 바다와 상관관계에 있다.

바람 거센 밤이면/ 지는 잎 창에 와 울고
다시 가만히 귀 기울이면/ 가까이 들리는 머언 발자취
낮은 게처럼 숨어 살고/ 밤은 단잠 설치는 버릇
「立秋」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게’로 비유된다. 이는 황해 바다의 개펄을 배경으로 한 시인의 삶과 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바다의 펄과 밀착된 동물이미지에 의한 자기비하는 삶에 대한 뜨거움과 대결로 나타난다.

벗아 어서 나와/ 해바라기 앞에 서라(중략)

끓는 해는 못 되어도,/ 가슴엔 해의 낮을 지녀
해바라기의 꿈은 붉게 탄다.

「해바라기」부분

해바라기는 뜨거운 해를 배경으로 피는 꽃이다. 여기서 바다의 광막함과 힘참은 ‘하늘’과 ‘해’로 환치되고 있다. ‘끓는 해’라는 해의 액체화는 그러한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비유는 ‘바다(물)→해→해바라기’로 연결되어 나가면서 시의 강렬함을 강화시킨다. 이 시가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강화되고 있다.

4) 바다를 향한 떠남과 낭만, 이해문

이해문은 예산의 시인이다. 주로 향토에서 생활하며 시를 썼으며, 시집『바다의 渺茫』(1938)을 내었다. 『바다의 渺茫』은 그의 폐쇄된 공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원심력으로서의 외향적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와 그 아득함(渺茫)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말해준다

(가) 나는 放浪者이네

오늘 나의 旅路는 大洲와 大洋

오늘은 시베리아 來日은 아라스카

南洋 椰子樹 밑 義의 눈물을 흘리며

北極 自然의 등에 피묻은 旗발 꽃으리니

「逆旅의 放浪者」부분

(나) 물결 밀리는 바다에는 渺茫한 꿈이 있다.

찾아가도 찾아가도 끝없는 航路의

기막힌 歎辭 읊조리는 船長의 긴 휘파람 (중략)

곳곳마다 이뤄지는 敗北의 刻印 쓰린 映像이 눈을 쏘는데

이렇게 해매는 바닷길로 밟서 스물하고도 다섯 해

北녘 기맥킨 苦戰도 어느덧 半十年이 지났구나

「序詩」부분

이 시들은 주로 ‘바다’를 매체적인 공간으로 하여 젊음의 방향이 폭넓게 드러나 있다. (가)에서 시인은 광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떠도는 방랑자로 자신을 언표함으로써 낭만성을 확보한다. 그 낭만성의 중심에 바다가 자리하고 있다.

(나)의 경우 원제가 「바다」인데 서시로 쓰여 있으며,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스스로

지나온 족적을 “敗北의 刻印 쓰린 映像”이라고 자학하고 있지만. “물결 밀리는 바다에는 渺茫한 꿈이 있다.”고 힘차게 선언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3. 황해문학의 열린 과제

황해문학의 한 가능성을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 주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바다’는 근대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중요 매개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대적 주체성의 확립에서 황해문학은 일제강점기의 저항문학을 미래지향의 열린 가능성과 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포지역 문학이 보여준 주체적 근대성은 김일엽, 나혜석, 조영출 등이 보여준 선구적 의식의 토대를 이룬다. 또한 현대시에서 조재훈, 이근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내놓을 거/ 다 내놓던 바다

이제 주인이 생겨/ 낯선 자본이 바다의

움켜쥐었다/ 손발이 잘린 바다

검은 배통 위로 검은 돈이 돌고/ 통통배 녹슬어

모기떼 떼지어 온다.

한번 간 썰물은 영 돌아오지를 않고

한번 간 밀물은 영 돌아오지를 않고

한 거인의 부동산이 된/ 쓰러진 아, 고향 앞바다.

조재훈, 「빠앗긴 바다 3」부분

(나) 별살이 잦아지는 들녘에/ 유채물감으로 번지는

해묵은 슬픔/ 어둠보다 깊은 고요를 깔고

노인은 복천을 향해 눈을 감는다/ 가시울타리의 세월이

저만치서 쓰러진다/ 바다가 불을 켜다

이근배, 「세한도」부분

(가)는 80년대 이후 자본과 산업화로 포위된 내포 바다의 분노와 슬픔을 드러낸다. 이제 바다는 한 개인의 소유이며,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공간이다.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는 바다에 자본의 힘으로 주인이 생기게 된다. 그와 함께 바다의 운동성과 순환성은 상실되고 정지된 채 화석화되고 만다. 고향의 ‘빠앗긴, 쓰러진 바다’는 시인에게 과거의 살아있는 바다와 극한의 대조를 이룬다. 그것은 바다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그것이다. 바다의 잃어버림이 현재와 미래에 주는 죽음의 경고를 이 시는 준엄하게 말하고 있다. 바다의 원심력과 역동성이 상실된 것에 대한 준열한 고발의 시정신은 역설적으로 건강한 바다의 힘을 환기시킨다.

(나)에서 시인은 ‘내포’를 공통항으로 김정희와 연결된다. 내포는 김정희와 동일시를 이

루는 공간이다. 추사를 통하여 현실의 고통과 열망을 바다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응하는 치열한 싸움은 미래를 여는 힘이다. 황해와 황해문학은 그 싸움의 공간이다. 황해 문학이 한국문학이 지닌 왜소함과 협소함을 극복하고 크고 깊은 문학으로 거듭 태어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21세기 새로이 태어나는 환해권 시대는 그 실현에 대한 확신을 가능케 한다.

참 고 문 헌

- 심훈, 만해, 민태원, 윤곤강, 이해문 등의 작품집.
 이근배, 『추사를 흠치다』, 문학수첩, 2013.
 조재훈, 『오두막 황제』, 푸른사상, 2010.
 신정호, 「한중 해양문학연구 서설」,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엄태웅·최호석, 「해양인문학의 가능성과 과제」, 동북아문화여구 1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윤용혁,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_____, 『내포의 역사와 문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5.
 조재훈, 「삶의 주제적 공간과 리얼리티-바다의 渺茫론」, 『호서문학』13집, 1987.
 _____, 『한국시가의 통시적 연구』, 국학자료원, 1996.
 _____, 「충남문학사」, 『충청남도지』, 2015.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충남문학기행 지도』, 대교출판사, 1997.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정 일 ■ 목포대학교 중문과 교수

1924년에 출판된 李用基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뱡어젓(白魚醃), 생선지짐으로 뱡어지짐인 뱡어전유어(白魚煎油魚), 뱡어회(白魚膾), 뱡어포(白魚脯)등의 다양한 방법의 요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뱡어포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뱡어포에서 잡티를 골라내고 장에 설탕, 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바르고 뱡어포를 붙여서 굽는다. 고명을 안팎으로 바르고 잠깐 구워내어 썰어 먹기도 한다. 마른 반찬 가운데 하등 반찬이며 술안주로도 잘 쓰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반고등어나 뱡어포를 들여오는 것을 보면 그 집의 반찬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자반갈치가 오히려 맛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白魚’라는 명칭이 ‘뱡어’로 바뀌면서 ‘氷魚’와 매우 혼동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본고는 한문 문집에서 주로 ‘白魚’는 무엇을 지칭하며, 문헌상 특히 조선시기의 한시에 ‘白魚’가 어떻게 나타나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적 증거들이 향후 당진시의 신관광상품 및 새롭고 창의적인 음식 아이템의 개발, 창조적 음식상품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惺所覆》(藁·說部·屠門大嚼)(제26권)에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 데,이중 ‘白魚’로 기록된 기록을 살펴본다.

“뱡어[白魚]: 얼음이 언 때 한강에서 잡은 것이 가장 좋다. 임한(林韓)·임피(臨陂) 지방에서는

1~2월에 잡는데 국수처럼 희고 가늘어 맛이 매우 좋다.”

《매천집·壬寅稿¹⁾》(제4권)에 실린 <충효리에서 김 장군²⁾을 애도하다>(忠孝里哀金將軍)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용강³⁾은 명주 같고 **뱅어**는 살졌거늘, 왜 진즉 낚싯대 잡고 숨어 살지 않았던고⁴⁾?(龍江如練白魚肥, 盍把漁竿早混跡。)”

여기서 용강이란 전남 광주 광산구의 黃龍江을 지칭하므로, 영산강 상류지역의 강고기를 지칭하는 것이니, 빙어를 지칭하거나 다른 담수 강고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徐居正(1420~1488)의 <尹叔保가 부쳐온 시에 차운하다>제4수[《四家詩集·詩類》제29권]에는 白魚가 부들을 뒤집고 노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니, 이 역시 빙어가 분명하다.

“꽃은 떨어져라 파랑새가 훌쩍 날고, 부들을 뒤집으며 白魚가 희롱하네. 남산의 집은 늦은 게 후회스러워라⁵⁾. 어느 날에나 초가집 하나 여윌까?(花落飛青鳥, 蒲翻戲白魚。南山家悔晚, 何日結茅廬。)”

서거정의 <廣陵의 村墅로 돌아가려고 먼저 州牧 李尊叔에게 부치다>(《四家詩集》, 제45권)에는 “가을바람에 돌아갈 흥취가 마당에 가득하고, 돌아가면 당연히 지주의 은혜를 입게 되리. 아마도 광나루에는 술 사이 달빛 가득하리, 피라미와 노란 게장이 술상에 올라오겠지.(秋風歸興滿田園, 歸去應蒙地主恩。想得廣津滿松月, 白魚黃蟹間青樽。)”라고 묘사하였다.

여기서 시에 등장하는 광진이란 광진구 광장동에서 천호동으로 가는 나루였다. 신라 때에는 북독, 고려 때에는 양진이라 하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광나루, 광진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광진구 광장동의 도선장 위치이다. “아마도 광진엔 술 사이 달빛 가득한 속에, 피라미와 노란 게장이 술상에 올라오겠지”(想得廣津滿松月, 白魚黃蟹間青樽)라고 읊었으니, 이 지역에서 피라미와 노란 게장을 술안주로 즐겨먹었음을 알 수 있다. 광진 지역에 피라미가 일

1) 壬寅稿 : 1902년(광무6), 매천이 48세 되던 해에 지은 시들이다.

2) 金將軍 : 조선 선조조의 의병장인 金德齡(1567~1596)을 가리킨다. 자는 景樹이고, 본관은 光山이며, 광주 충효동 성안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咸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3년(선조26)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후로 郭再祐와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으며, 함께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3) 龍江 : 전남 광주 광산구의 黃龍江을 지칭함, 영산강의 제1지류이므로 영산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漢 高祖 때의 張良이 공신은 결국 토사구팽을 당한다는 이치를 간파하고 신선술을 익힌다는 핑계로 은퇴하여 숨어 살았던 것처럼 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의미이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5) 王維의 終南別業 시에 “중년부터 방외의 도를 펴 좋아했는데, 만년에야 남산 모퉁이에 집을 지었네.(中歲頗好道 晚家南山陲)”라고 하였다. 《王右丞集 卷3》

반적으로 술안주로 올라왔다는 것은 조선시기에 일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에 민물고기중 피라미를 굽거나, 회감으로 노란게장을 같이 곁들여서 술안주로 즐겨먹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徐居正이 피라미 요리를 매우 즐겨 먹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徐居正은 <七休⁶⁾>가 白魚를 부쳐 준 데 대하여 감사하며 차운하다(謝七休寄白魚. 次韻)>(《四佳詩集·詩類》, 제46권)에서 ‘白魚’에 대해 자세히 읊고 있다.

희고 흰 강 물고기중 맛이 저절로 뛰어나다네
비늘 달린 물고기 중에 이것이 왕이라네!
보내주어 두터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공공 언 붓 입김을 불어 녹여서 짧은 시로 화답하네.
구리 쟁반에 기다란 옥사⁷⁾가 보기도 멋지구나!
근쪽의 정성⁸⁾ 우리 왕에게도 바치고 싶구나!
국도 끓이고 겸하여 회도 치게 해놓으니,
쇠한 창자 보하여 문장 지을 힘이 솟아난다네!

白白江魚味自長, 知於鱗族是爲王。寄來偏感恩情重, 凍筆呵來和短章。
銅盤喜見玉槎長, 芹曝忱誠欲獻王。喚作燂羹兼作膾, 衰腸能補助文章。

<온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성묘를 하려는 鄭僉樞 僚兄을 보내면서 붓을 달려 써서 장난삼아 주다>(《四家詩集·詩類》, 제45권) 제5수중 제1수에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전원에 돌아갈 마음은 없는 날이 없지만, 가을 이후엔 돌아갈 마음이 곱절 더하네. 가을 팔월에 환향하는 자네가 부럽구먼, 피라미와 게장에 술은 항아리에 가득하겠지. (歸心無日不田園, 秋後歸心倍十分. 羨子還鄉方八月, 白魚黃蟹綠盈樽。)”

“피라미와 게장에 술은 항아리에 가득하겠지(白魚黃蟹綠盈樽)”라는 구절에 다시 술안주감으로

6) 여기서 七休는 호가 七休居士인 孫舜孝(1427~1497)를 말한다. 본관은 평해, 자는 敬甫, 호는 勿齋·七休居士이다. 1453년 (단종1)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貞이고 저술로 《勿齋集》이 있다.

7) 기다란 옥사(玉槎): 옥사는 하얀 피라미 모양을 형용한 말이므로 사(槎)는 사(梭)자의 착오가 아닌가 싶다.

8) 근쪽(芹曝)의 ~싶네: 옛날 송나라의 한 농부가 항상 누더기만 입고 겨울을 지내고는 다소운 봄날을 당하여 따뜻한 햇볕을 쬔면서(自曝於日), 천하에 너른 집과 다소운 방과 솜옷이나 여우 갓옷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해를 쬔는 따뜻함(負日之暄)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우리 임금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자, 그 마을의 한 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옛사람 중에 미나리(芹)를 아주 좋아하는 이가 있어 그 마을의 부자에게 미나리가 맛이 좋다고 말하자, 그 부자가 미나리를 먹어 본 결과 맛이 독하고 배가 아팠다더라.”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근쪽의 정성이란 곧 미력이거나 임금에 위하고자 하는 야인의 충성심을 의미한다. 《列子 楊朱》杜甫의 赤甲시에 “등을 쬔는 따뜻함은 천자에게 바칠 수 있거니와, 미나리 맛 좋음은 예부터 야인만이 안다네.(灸背可以獻天子 美芹由來知野人)”라고 하였다.

‘피라미와 계장’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피라미와 계장’은 즐겨 먹는 술안주이기 때문이고, 제3수에서 ‘帶方(南原郡의 古號)’이란 지명이 등장하고, 요천(蓼川)은 남원에 있는 냇물 이름이며, 제5수에서 ‘丑川亭’이란 정자의 이름이 등장하니, ‘피라미와 계장’은 자주 먹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남원지역이 고향인 鄭僉樞 요형(僚兄)이 성묘를 위해 귀향 소식을 듣고 ‘피라미와 계장’을 먹게 됨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시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서거정이 남원 지역의 향토음식의 하나인 ‘피라미와 계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徐居正의 <夢村 田畬의 梧亭에서> 2수[《사가시집·詩類》, 제50권]도 “천지간에 두 백발 노인이요, 천지간에 한 달팽이 집(자기 집을 지칭)이로다. 하얀 쌀밥엔 노란 기장이 섞이고, 순채국에 白魚도 곁들였다네. 새로 빚은 술은 향기가 물씬 나고, 좋은 맛은 소반 채소에 들었구려. 산골짜기는 성시와 서로 막혔기에, 소리 높이 읊조림도 자연스럽네. (乾坤雙鶴髮, 天地一蝸廬。玉粒間黃黍, 銀蓴兼白魚。新香浮甕釀, 嘉味入盤蔬。丘壑隔城市, 高吟亦自然。)”라고 하였다.

앞서는 ‘피라미와 계장’요리, 여기서는 ‘순채국와 피라미’요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대 문헌자료에 나오는 요리들을 지역에서 음식경진대회를 통하여 재현하고 발양하도록 하면 창의적인 음식개발을 통한 창의음식, 음식창의산업, 음식창의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도시발전전략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晉州 李判官을 보내고 겸하여 同年 全記室에게 부치다>(제2수)[《牧隱詩稿·詩》 제4권]에는 “흥시엔 서리가 막 흠뻑 내리고, 白魚는 가을에 정히 살찌겠네. 맑은 놀이가 응당 끝없을 테니, 남녘 바라보며 가는 사람 보내노라. (紅霜初重, 白魚秋正肥。清游應未艾, 南望送人歸。)”라고 하였다.

서리가 내릴 즈음에 살찌는 고기라고 서술한 점으로 보아 이 白魚는 뱀어가 아니라 빙어인 것으로 보인다.

<密城 李正言 釋之에게 부치다>(《목은시고·詩》 제4권)에 “다리 밑의 白魚는 희기가 은빛 같으니, 낚시로 낚아 올려 화려한 잔칫상 차리고”(橋下白魚白似銀, 纖綸鉤上登錦茵)라고 하여 다리 밑의 ‘白魚’를 낚시로 잡아올려 회로 먹고 싶어하는 열망을 서술한 것으로 이 물고기는 하얀 색의 피라미 또는 기타 계곡형 ‘白魚’로 보여진다.

李承召(1422~1484)의 <백어를 먹다(食白魚)>(《三灘集》, 제8권)에서 “하야디 하얀 강고기가 아름다워, 통발 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구나. 모여진 옥 젓가락 같은 머리는 가지런하고, 뭉친 꼬리는 은비녀를 묶어놓은 듯. 술안주가 다 떨어진 것만 알거니, 어찌 술잔이

깊다고 걱정하겠는가? 만 전의 비용을 써서 한 끼 식사 차렸거니와⁹⁾, 영고숙¹⁰⁾은 또한 무슨 마음이었나?¹¹⁾” 라고 읊었다.

“모여진 옥젓가락같은 머리(駢頭齊玉箸)”는 마치 충청도 지역의 피라미 구이인 도리뱅뱅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보인다. 李承召의 위의 <食白魚>시는 도리뱅뱅이라는 요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또한 “가지런한 꼬리는 마치 은비녀를 묶은 듯(簇尾束銀簪)”하다는 것 역시 뒷꼬리의 갈라진 모양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은비녀를 묶어 놓은 모습과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가 피라미구이인지, 아니면 피라미를 생으로 먹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죽지 않은 피라미를 머리와 꼬리를 가지런하게 놓을 수 없다는 점에 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구이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충분하다.

權輶(1569~1612)의 <梁天使 有年の 시에 차운하다>(《石洲集·七言律詩》, 제4권)에서는 “백사장 주변으로 가서 행차를 멈추시니, 강촌의 내 낀 경치 녹음이 막 푸르도다. 이미 옥 술잔으로 향긋한 술 전하였고, 다시금 금 쟁반에 흰 물고기¹²⁾를 올렸어라. (試向沙邊駐彩車, 江村烟景綠陰初. 已催玉罍傳香, 更遣金盤薦白魚.)”라고 하였다.

李應禧(1579~1651)의 《玉潭私集·萬物篇·魚物類》에 <白魚>시에 “어부가 빙설을 뚫고 가서, 강의 물고기 그물로 가득 잡았네. 가는 피부는 은빛보다 희고, 차가운 빛엔 옥도 오히려 무색하다네. 잘게 저며 회를 치기는 어렵고, 솥에 끓여서 탕을 만들면 좋지. 비록 사찰에다 차릴지라도, 좋은 맛은 역시 청량하리라¹³⁾.”라고 묘사하였으니, 겨울에 주로 잡은 빙어를 ‘뱅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뱅어가 아니라 분명히 빙어이다. 빙어는 민물고기이며, 뱅어는 바다 물고기이며, <白魚>시에 “어부가 빙설을 뚫고 가서, 강의 물고기 그물로 가득 잡았네(漁父穿氷雪, 江鮮滿一網)”라고 하였으니, 바닷물고기가 아니라 강물고기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주로 가을에 살이 썩은 후에 겨울에 낚시질이나 투망으로 잡는 물고기임을 말한 것이다.

李植(1584~1647)의 <遠接使 北渚(金公 ㄱ의 호임)大人 및 막료 여러분과 함께 蛇浦¹⁴⁾ 뒷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짓다>(《澤堂集》, 제3권)에 “모든 그만 두고 술 한잔하는

9) 쫄나라 때의 정승인 何曾은 굉장한 식도락가로, 한 끼 식사에 만 전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였어도 먹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였다.

10) 穎考叔: 춘추 시대 정(鄭)나라 영곡(穎谷)의 封人이다. 당시에 鄭莊公이 아우 叔段의 반란과 관련하여 친어머니인 姜氏를 유폐시켰는데, 영고숙이 장공이 내려 준 고기를 어머니를 생각해 먹지 않자, 마침내 영고숙의 행실에 감동을 받아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회복하였다.《春秋左氏傳 隱公元年》

11) 白白江魚美, 開筵喜不禁. 駢頭齊玉箸, 簇尾束銀簪. 但覺盤飧盡, 寧愁酒罍深. 萬錢供一食, 穎考亦何心?

12) 杜甫의 협애(峽隘)에 “흰 물고기는 썰어놓은 옥과 같고 붉은 굴은 값은 따지지 않는다.(白魚如切玉 朱橘不論錢)” 하였다. 이미 썰어놓은 흰 물고기로 보인다. 백어 회 모습 묘사한 것이다.

13) 漁父穿氷雪, 江鮮滿一網. 纖肌銀讓色, 寒彩玉無光. 縷切難成膾, 濃煎可作湯. 雖陳方丈上, 佳味亦清涼.

14) 청천강 부근의 철산 지역의 蛇浦로 보임.

것만 같지 못하니, 철철 넘치는 자하배¹⁵⁾에 살찐 백어 안주. (萬事不如輸一醉, 紫霞盃「白魚肥」.”라고 하였으니, 역시 白魚(빙어를 지칭으로 보임)를 술안주로 하는 바람을 읊은 것이다.

<一直縣 晴川의 정자를 지나가며>(《澤堂集·詩》제2권)에서는 “장마 뒤끝에도 늦더위 여전하여, 길손들 걷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네. 길 옆에 서 있는 해나무 그늘지고, 마을 휘돌아 시냇물이 흘러가 준다네. 먼저 온 몇 사람 반갑게 돌아보며, 먹어 보라 내놓는 소반의 뱀어. 타향도 역시 풍미가 있고말고, 고향 집과 비교할 게 뭐가 있으리¹⁶⁾.”라고 묘사하여 찬거리 및 안주거리로 ‘소반위에 빙어를 내놓는’ 풍속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一直縣’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 있었던 옛 고을이름이니, 이는 또한 안동지역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방식으로 피라미구이를 즐기는 전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成俔(1439~1504)의 <白魚 즉 杜甫의 시에서 말한 白小인데, 지금 사람들은 면조어라고 부른다>(白魚卽杜詩所謂白小今人謂之麴條魚)[《虛白堂補集》, 제2권]에는

강추위가 닥친 강에 白魚(白小魚)가 가득해져, 白小乘寒滿水生,
얼음 깨고 망 던지니 금방 그물에 가득해지네. 割氷遮網忽來盈.
가는 꼬리 파닥이니 은실이 어지럽고, 出分細尾銀絲亂,
두툼한 살은 얼어붙어 옥과 같은 속살이 투명하네. 凍合「肌玉筋明.

꽃무늬 접시에 비친 색깔이 흰 눈을 뭉쳐진 같아, 色映花磁凝素雪,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새로 졸인 맛이로다. 軟吞牙齒味新烹.
부작집들 잔치 때면 앞다투어 찾는 데, 華筵¹⁷⁾甲第爭相致,
하찮은 고기지만 값이 싸지 않다네. 此物雖微價不輕.

“얼음 깨고 망 던지니 금방 그물에 가득해지네(割氷遮網忽來盈)”라는 구절에서 겨울에 주로 잡는 물고기임이 명시되어 있어, 소위 우리가 말하는 ‘氷魚’임을 알 수 있다. 이는 4,5월에 잡히는 치어인 실치와는 그 배경이 맞지 않아 실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尹愔(1741~1826)의 <(농가의 가을일)田家秋事 六絶>(《무명자집·시고》, 제2책)중에 제 3수에 ‘白小’란 명칭이 등장한다.

“큰아들은 보리밭을 갈러 가고, 둘째는 벼단을 실어 온다네. 어린 아이는 붓도랑의 물을 막아, 물 퍼내고 고기 잡아 돌아오네. (長男耕麥去, 中男載禾來. 稚兒絕田水, 漉得白小迴.)”

15) 紫霞盃: 옛날 項曼都라는 사람이 仙人에게 한 번 얻어 마시고는 몇 개월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하는 술 이름으로, 맛 좋은 美酒를 뜻하는데, 보통 ‘流霞酒’로 많이 쓴다. 《抱朴子 感》

16) 積雨留餘熱, 行人汗路裾. 槐陰在道左, 流水繞村居. 數客回青眼, 中盤進白魚. 他鄉亦風味, 不必較吾廬.

17) 筵: 대본에는 ‘筵’으로 되어 있는데, 규장각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이 시에서는 발도랑 또는 발도랑 옆 개울 근처에서 ‘白小魚’를 잡는다고 볼 때에, 여기 ‘白小魚’는 피라미를 지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申光漢(1484~1555)의 <조사수가 서당으로부터 소백어를 보내왔다. 칼로 잘라 두둑하게 쟁반에 담았으니, 은꽃무늬 눈에 가득하니 이에 감사하여 편지를 보낸다(趙正 士秀 自書堂。送小白魚。解包盛盤。銀花滿眼。感而簡謝)>(《企齋集》, 卷六)

작년에 서당에 들었는데, 창문으로 낙동강을 대하니 아득하여라
일찍이 白魚가 가득하게 그물에 들었는데, 은빛 꽃무늬 쌓인 곳에 취흥도 길구나.
여름 비 은은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흰 머리로 더울까 걱정하여 병이 오히려 도진다네.
떡풀로 흰 찰조각을 보쌈하니, (맛에) 놀라 서로 쳐다보는 데,
하얀 강고기들 줄줄이 나오는 데, 눈이 번쩍 띄네!¹⁸⁾

여기서 ‘小白魚’는 낙동강 지역에서 나는 강고기이니, 이는 피라미임이 틀림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떡풀로 보쌈한 회(茅包雪片)’이니, 피라미를 떡풀로 싸서 회로 먹은 것이다. 피라미회를 특정한 채소로 싸서 먹도록 특별하게 요리로 개발하여 브랜드가치를 형성하도록 시도할 만 하다고 하겠다.

申光漢(1484~1555)의 <나세찬 충청감사께서 감사하여 황고량을 보내다(簡謝忠淸羅監司世縝寄黃梁)>(《企齋集》, 卷九)에서 黃梁夢의 전고를 인용하였다.

충청관찰사에 감사하노니, 다시 소식을 전하고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를 묻는다네.
마땅히 여침¹⁹⁾을 가련히 여겨야 하리니, 방금전에 술에 취하여 꿈자리에 들었는데,
황고량을 보내노니,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²⁰⁾.

申光漢(1484~1555)의 <이어서 小白魚를 보내준 후의가 있어 또 감사를 전하다(繼而有小白魚之惠。又謝之)>(《企齋集》, 卷九)라는 시가 상술한 <簡謝忠淸羅監司世縝寄黃梁>시 다음에 놓여있다.

18) “昔年叨入讀書堂。窓對東江政淼茫。曾見白魚頻薦網。銀花堆處興還長。暑雨濛濛久未開。白頭愁熱病恢台。茅包雪片驚相映。眼豁江魚白白來。”

19) 呂枕五十年: 중국 한단(邯鄲)에 사는 盧生이 客店에서 呂翁을 만나 자기의 곤궁한 신세를 탄식하였더니, 여옹이 베개 하나를 내어 주며, “이 베개를 베고 누으면 뜻대로 될 것이요.” 하였다. 노생은 그 베개를 베고 곧 잠이 들었는데 꿈에, “50년 동안 將相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영화를 누리다가 80세에 죽었다.” 하여 깨어 보니, 한바탕 꿈으로 처음 누울 때에 그 집 주인이 黃梁을 솥에 넣어 찌는 것을 보았는데, 黃梁이 아직 익지 않았었다.

20) “多謝忠淸觀察使。再傳消息問支離。應憐呂枕方酣夢。爲寄黃梁試一炊。”

좁쌀로 밥을 지으니, 황금색이 되었고, 눈을 휘둥그렇게 하는 은빛은 小白魚로구나.
진기한 생선 멀리서 보내오니, 그 정이 두터움이로다.
먹기를 거듭하니 이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할까?²¹⁾

이 한시는 충청감사였던 羅世纘(1498~1551)이 신광한에게 ‘小白魚’를 선물한 것이니, 나세찬의 행장을 살펴보면 나세찬은 1547년(명종2년) 9월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1548년(명종3년) 10월에 한성부 우윤이 되었으니, 즉 이 시는 1547년 9월~1548년 10월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申光漢의 행장을 살펴보면 1546년(명종1년) 5월에 駱峯에 瀑泉精舍를 지었으며, 동년 8월에 예조판서가 되었다. 1547년(명종2년, 64세)에 신광한의 나이 64세에 병으로 사직하고, 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548년(명종3년, 65세)에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만약에 이 小白魚가 일반적이고 흔한 피라미이었다면 “진기한 생선을 멀리서 보내주었다(珍重遠來)”라고 기록하였을까? “눈을 휘둥그렇게 하는 은빛 小白魚(眼亂銀花小白魚)”라는 표현은 기존의 은빛 색의 ‘백어’와는 다른 은빛을 지닌 충청도 지역의 생선이었던 것이다. 또한 ‘白魚’이지만 ‘小白魚’라는 표현 역시 기존의 ‘白魚(피라미)’ 보다 몸체가 더 작은 물고기임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충청도 관찰사이었던 나세찬이 보내준 선물은 피라미가 아니라 현재의 실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炊成金色黃梁米。眼亂銀花小白魚。珍重遠來情意厚。爲加餐飯報何如。”



15분과 [특별]

당진항 활성화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강상곤 영진공사 기획실

[토론문]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서수완 동서대학교

[토론문]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우종균 동명대학교

[토론문]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이재원 부산테크노파크

[토론문]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전석산 (사)국제물류연구회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노 홍 승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및 (사)한국해운물류학회
특별 세션 : “당진항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 2016. 7. 8(금) 09:00 - 12:00
- 장소 :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노홍승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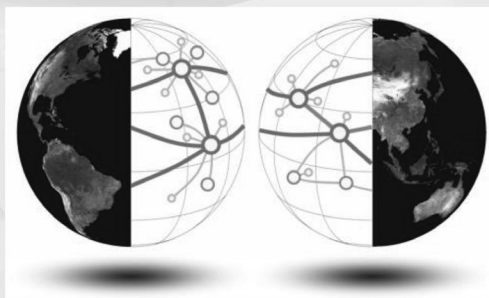


한 국 해 운 물 류 학 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hipping and Logistics

한국교통연구원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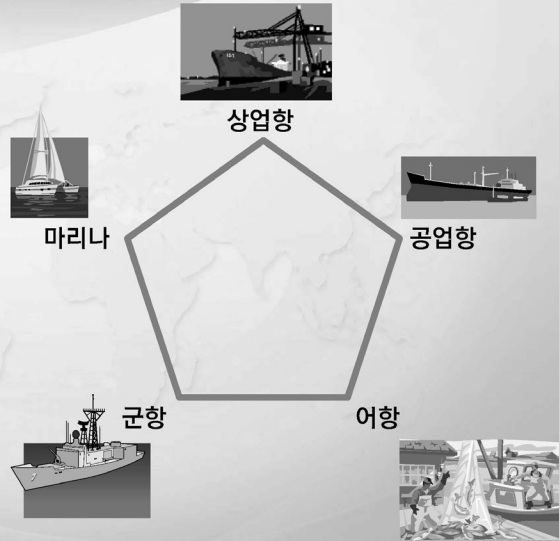
1. 항만, 도시 그리고 항만도시의 진화
2. 항만도시에게 항만존재의 이유
3.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산정
4. 항만과 도시의 상생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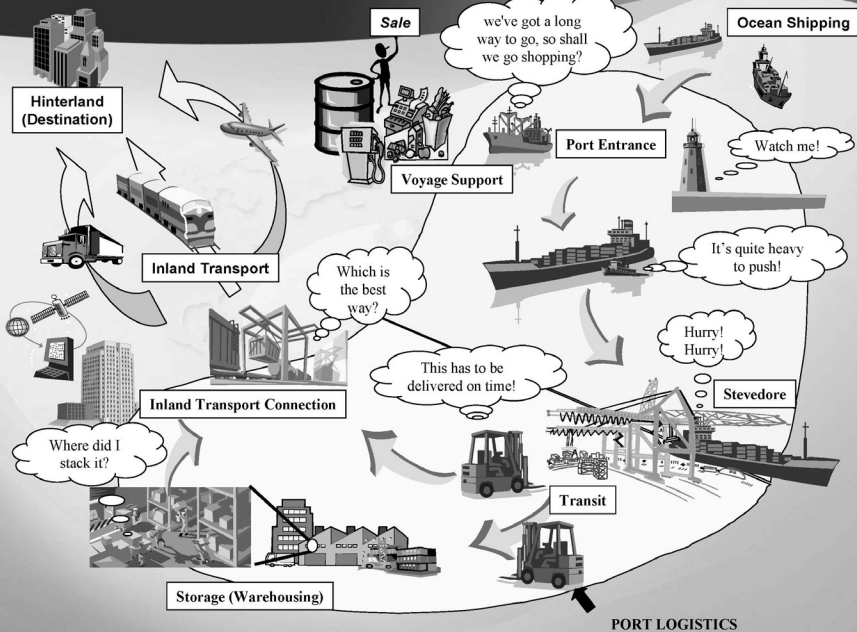
1. 항만, 도시 그리고 항만도시의 진화

▶ 항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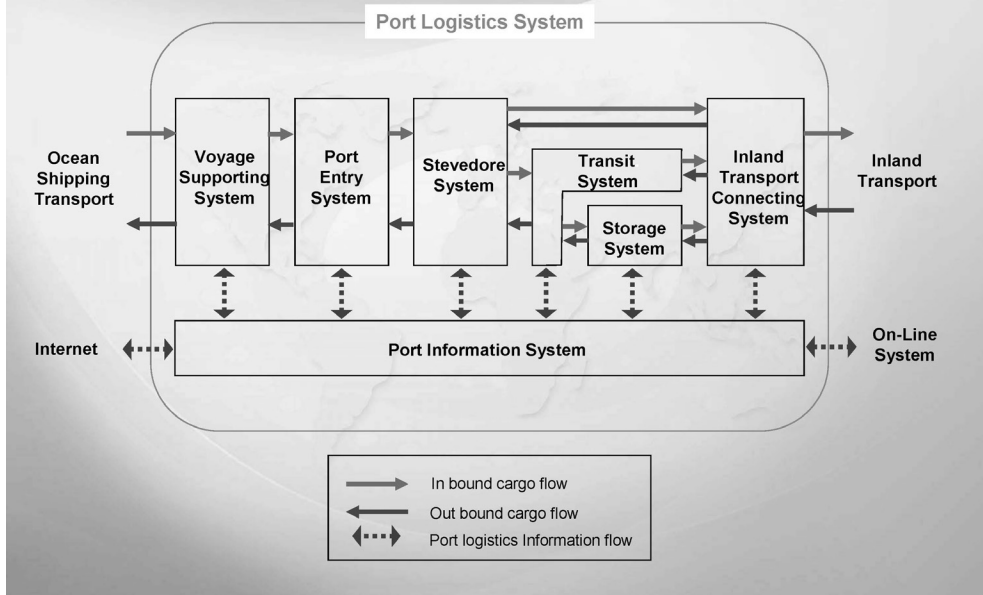
항만 기능별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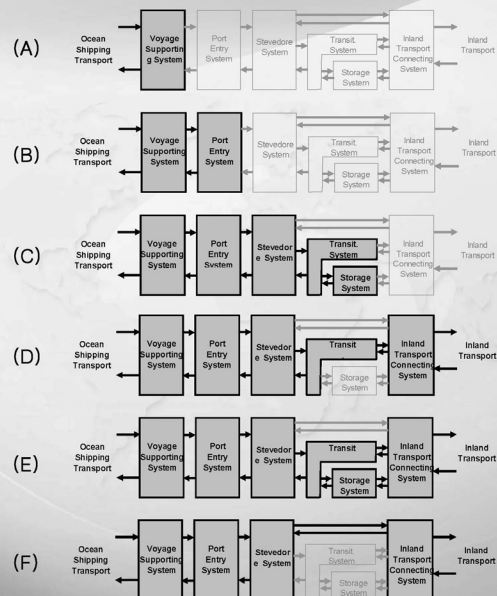
▶ 항만물류란?



▶ 항만물류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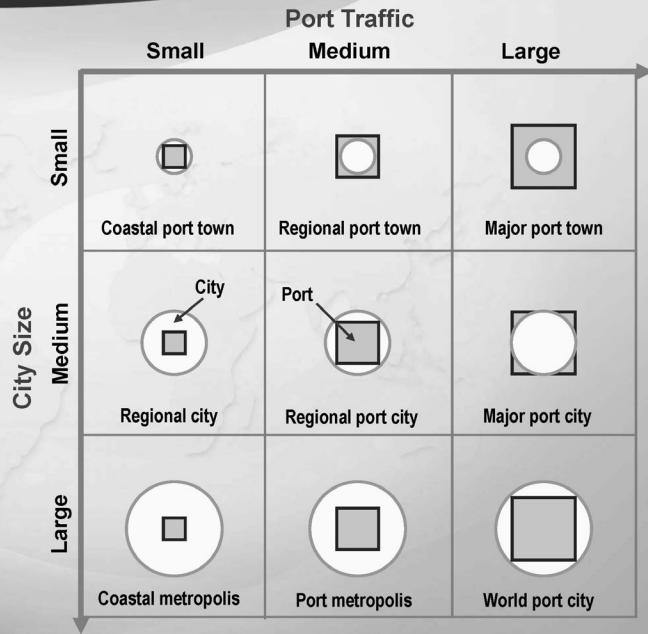
▶ 항만물류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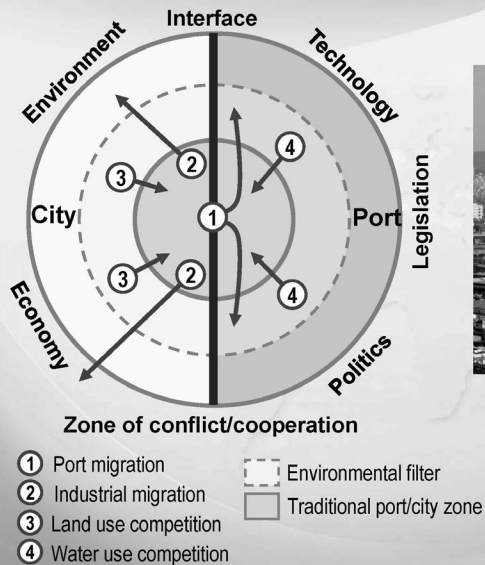
▶ 항만도시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항만물동량 V.S. 도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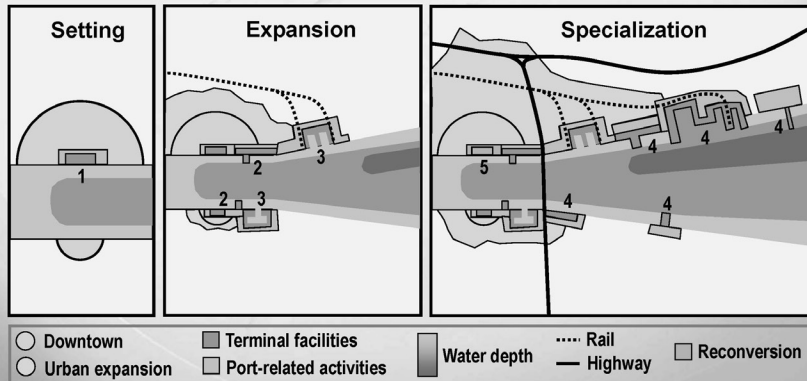
Source: adapted from C. Ducruet (2003)
"The Trans-Scalar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Hubs: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European and East Asian
Container Port Cities in the 1990s".
<http://conference.inha.ac.kr/DUCRUETPAPER.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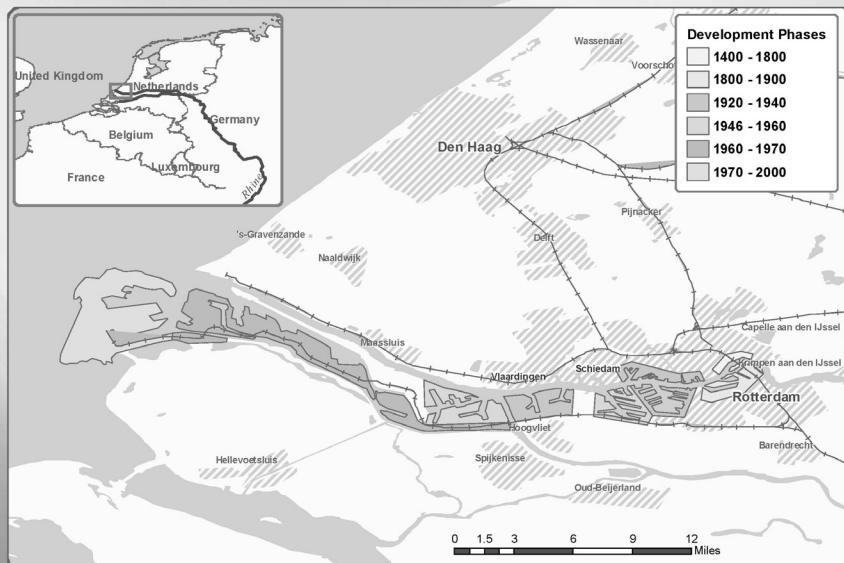
▶ 항만과 도시간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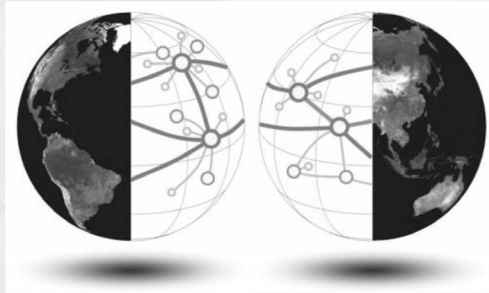


◆ 항만의 진화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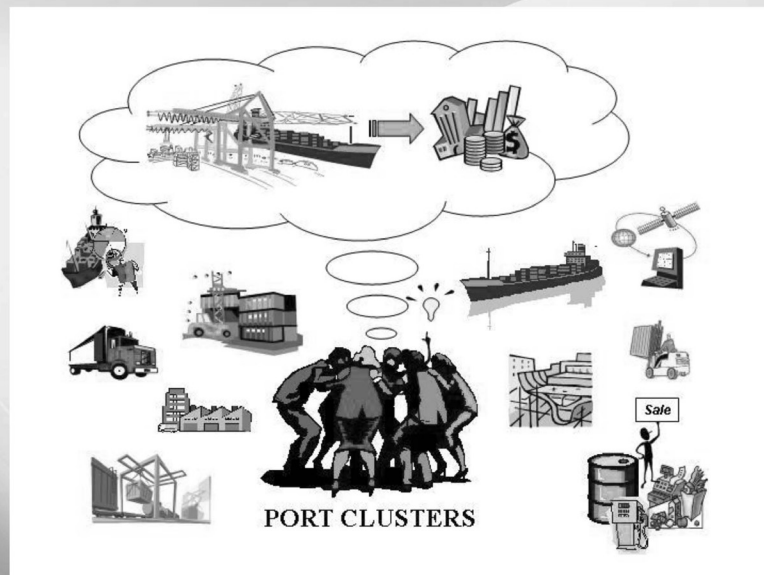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진화 과정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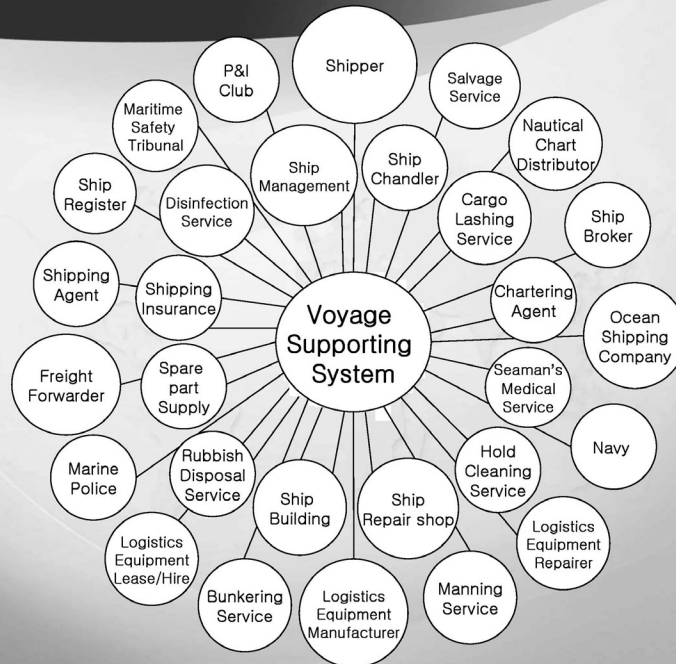


2. 항만도시에게 항만존재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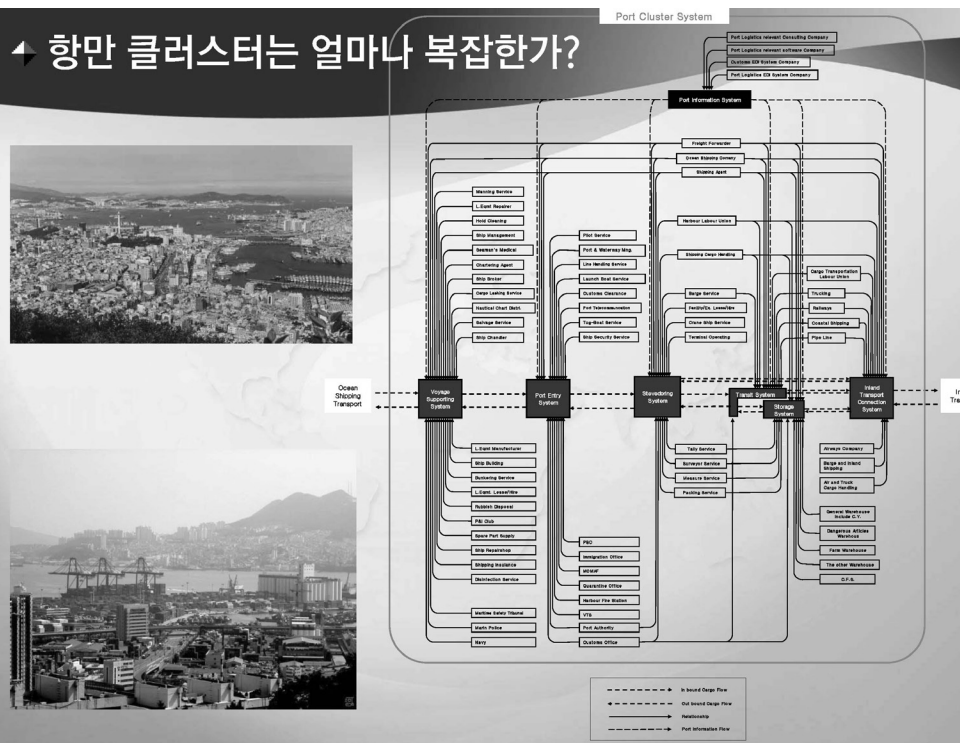
▶ 향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 향만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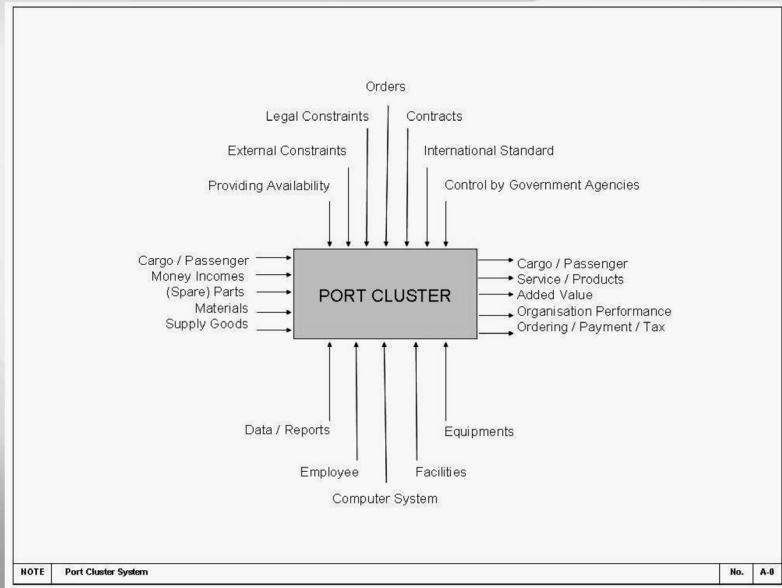
▶ 항만에는 누가 모여 일하는가? – 항만 관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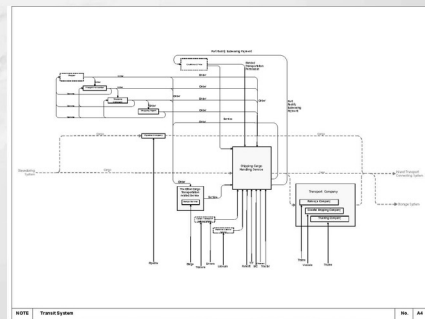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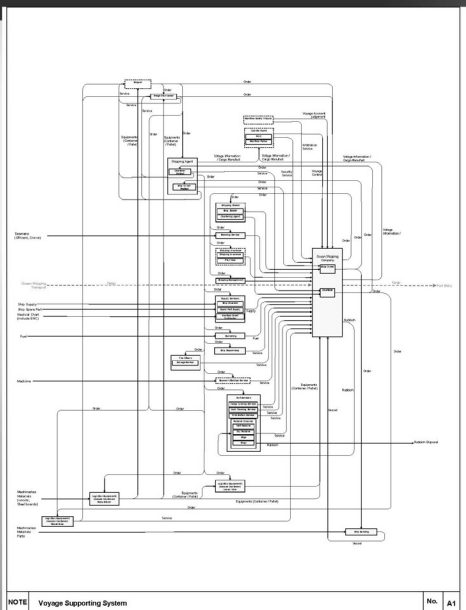
▶ 항만 클러스터는 얼마나 복잡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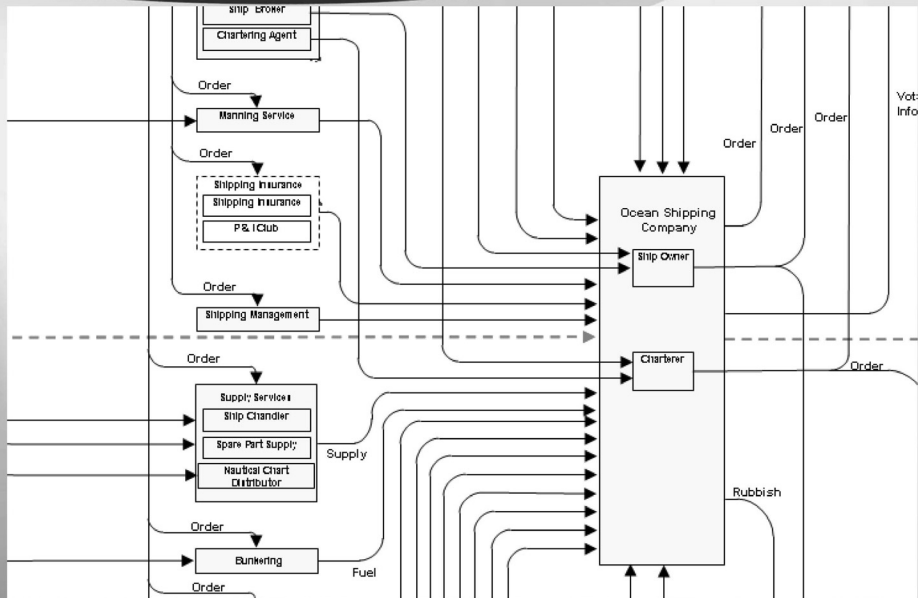
◀ 관계를 간단히 파악하는 방법은 없는가?



◀ 관련산업들은 상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 관련산업들은 상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3.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산정

▶ 항만관련 산업이란? 표준산업분류 제8차 개정 (2000) 중 특수목적 분류

Level	Existing	New	Change		
			Total	Newly established	Unified
One digit level	17	20	3	3	-
Two digits level	60	63	3	5	2
Three digits level	160	194	34	36	2
Four digits level	334	442	108	121	13
Five digits level	1,195	1,121	△74	172	246
Special classification	-	10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Tourism industry		
			Environmental industry		
			Cultural industry		
			Logistics industry		
			Sports industry		
			Vehicle exclusive parts industry		
			Internet industry		
			Life engineering industry		
			Energy industry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KNSO): <http://nso.go.kr>

▶ 항만관련 산업을 모두 조사하면? 부산광역시 항만관련산업 전수조사(2000)

Group	KSIC	Industry	Number of companies	Number of employee	Gross sale (mm KW)
total			1,669	36,894	19,518,585
1 Transport			376	7,119	8,632,683
1-1 Land Transport: Tranport via Pipelines			273	3,627	638,219
1-1-2 1-1-2-1 60311 General Freight Trucking			269	3,608	634,680
1-1-2 1-1-2-2 60312 Freight Trucking By Small Truck and Self-Management			4	19	3,539
1-2 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103	3,492	7,994,464
1-2-1 61112 Oceangoing Foreign Freight Transport			57	2,530	7,946,342
1-2-2 61122 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46	902	148,122
2 Operation of Cargo Transport Facilities			121	2,818	2,281,349
2-1 Warehousing			117	2,438	2,263,305
2-1-1 63201 General Warehousing			69	1,394	161,700
2-1-2 63202 Refrigerated Warehousing			31	657	150,637
2-1-3 63203 Farm products warehousing			3	73	6,924
2-1-4 63204 Dangerous Goods Warehousing			11	275	1,914,044
2-1-5 63209 Other Warehousing			4	39	30,000
2-2 Other Services Allied to Transport Agency			4	380	18,044
2-2-3 63221 Operation of Harbour and Marine Terminal Facilities			4	380	18,044
3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1,042	19,684	6,759,893
3-1 Cargo Handling			159	5,593	755,877
3-1-1 63101 Air Freight and Land Freight Handling			25	129	6,956
3-1-2 63102 Water Freight Handling			134	5,464	748,921
3-3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n.e.c.			872	13,613	5,967,648
3-3-1 63391 Freight Transport Arrangement			465	4,404	1,465,300
3-3-2 63392 Packing and Crating			4	67	160,933
3-3-3 63399 All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n.e.c.			403	9,142	4,341,415
a Ship Broker			9	39	451,098
b Manning Services			43	1,944	54,239
c Shipping Agent			31	404	1,707,469
d Tallying Services			18	1,534	17,332
e Port Services			13	670	24,209
f Ship Approaching Services			6	141	10,792
g Supply Services			117	1,711	1,551,825
h Bunkering Service			21	223	361,016
i Port Telecommunication			8	251	29,891
j Shipping Management			25	629	40,850
k Customs Clearance Service			85	969	48,353
z The Others			27	627	44,341
3-4 72209 Other Software Consultancy and supply			11	476	36,368
4 Renting of Transport Equipment			26	485	45,126
4-1 71121 Renting of Containers			16	347	26,283
4-2 71129 Other Renting of Transport Equipment n.e.c.			8	122	16,103
4-3 71200 Renting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2	16	740
5 Manufacture of Cargo Transport			134	6,788	1,799,534
5-2 35111 Building of Steel Ships			134	6,788	1,799,534

▶ 항만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산정 할 수 있나?

부가가치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된 가치를 말하며 임금 및 급여, 복리후생비(비급여성 제외),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납부 부가가치세, 영업이익을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율은 아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총매출과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액은 추정이 가능하다.

$$\text{부가가치액} = \text{부가가치율} \times \text{총매출} \times 100$$

▶ 항만관련산업의 총매출과 부가가치액을 산정하면? 부산항의 사례

Industry/Sector (Classification used in the Total Survey)	Sort of Company (Classification used in the Fieldwork)	Gross sale (mm KW)	Value Added rate	Rate Source	Value Added (mm KW)
Grand Total		19,518,686.00	-	-	8,101,571.81
1 Transport	Sub Total	8,632,683.00	-	-	1,899,480.61
1-1 Land Transport; Transport via Pipelines	sub total	638,219.00	-	-	372,592.25
General Freight Trucking	Trucking Company	634,680.00	0.5838	A	370,526.18
Freight Trucking By Small Truck and Self-Management	Van and Individual Trucking	3,539.00	0.5838	A	2,066.07
1-2 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sub total	7,994,464.00	-	-	1,526,888.36
Oceangoing Foreign Freight Transport	Ocean Shipping Company	7,846,342.00	0.1862	A	1,460,988.88
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Barge/Inland Shipping	148,122.00	0.4449	A	65,899.48
Coastal Shipping *					
2 Operation of Cargo Transport Facilities	Sub Total	2,281,349.00	-	-	1,610,331.84
2-1 Warehousing	sub total	2,263,305.00	-	-	1,598,119.66
General Warehousing	Container Freight Service	161,700.00	0.7061	A	114,176.37
Refrigerated Warehousing	General Warehouse(including C'Y)	150,637.00	0.7061	A'	106,364.79
Farm products warehousing	Farm Warehouse	6,924.00	0.7061	A'	4,889.04
Dangerous Goods Warehousing	Dangerous Articles Warehouse *	1,914,044.00	0.7061	A'	1,351,506.47
Other Warehousing	Tanker	30,000.00	0.7061	A'	21,183.00
2-2 Other Services Allied to Transport Agency	sub total	18,044.00	-	-	12,212.18
Operation of Harbour and Marine Terminal Facilities	Terminal Operating Company	18,044.00	0.6768	A	12,212.18
3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Sub Total	6,769,893.00	-	-	3,809,099.97
3-1 Cargo Handling	sub total	755,877.00	-	-	497,835.20
Air Freight and Land Freight Handling	Air and Trucking Cargo Handling	6,956.00	0.6284	B	4,371.15
Water Freight Handling	Harbour Labour Union	748,921.00	0.6589	A	493,464.05
Shipping Cargo Handling Service *					
3-3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n.e.c.	sub total	5,967,648.00	-	-	3,298,717.81
Freight Transport Arrangement	Freight Forwarder	1,465,300.00	0.7356	A	1,077,874.68
Packing and Crating	Packing Service	160,933.00	0.6607	A'	106,328.43
All Other Supporting Transport Services n.e.c.	sub total	4,341,415.00	-	-	2,114,514.70
Ship Broker	Chartering Agent	451,098.00	0.7356	A	331,827.69
Manning Services	Ship Broker	54,239.00	0.7356	A	39,898.21
Shipping Agent	Manning Service	1,707,469.00	0.7356	A	1,256,014.20
Tallying Services	Measure Service	17,332.00	0.6607	A	11,451.25
	Surveyor Service				
	Tally Servi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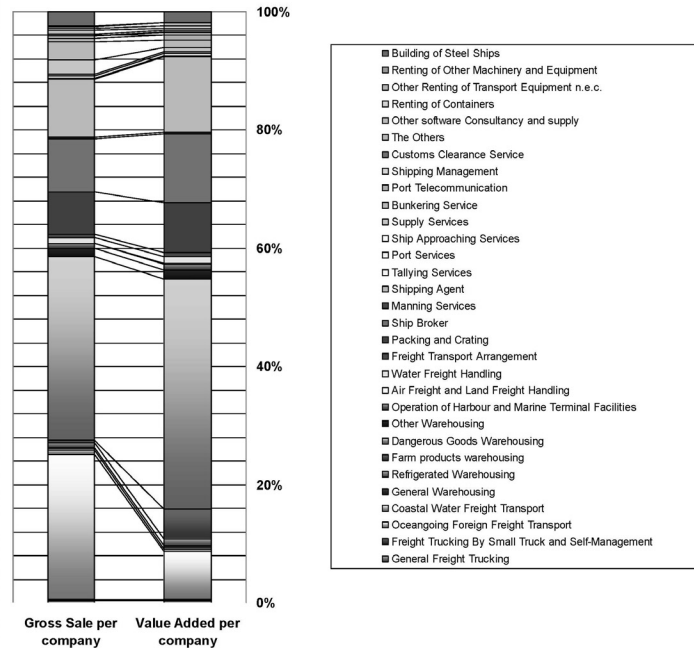
GBPI+KW2000

A MOMAF (2002) Economical Spread Effect of Port Industries, pp.221-222.

A' Application of the data from source A

B Actual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in Korea 74-3-4 (<http://etax.ko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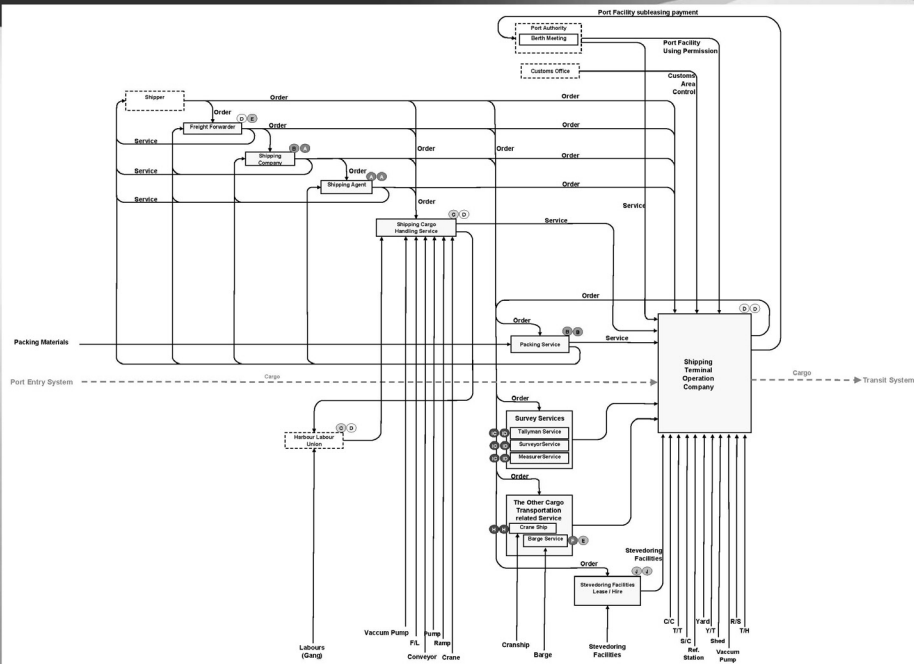
▶ 어떤 항만관련산업이 매출대비 부가가치가 높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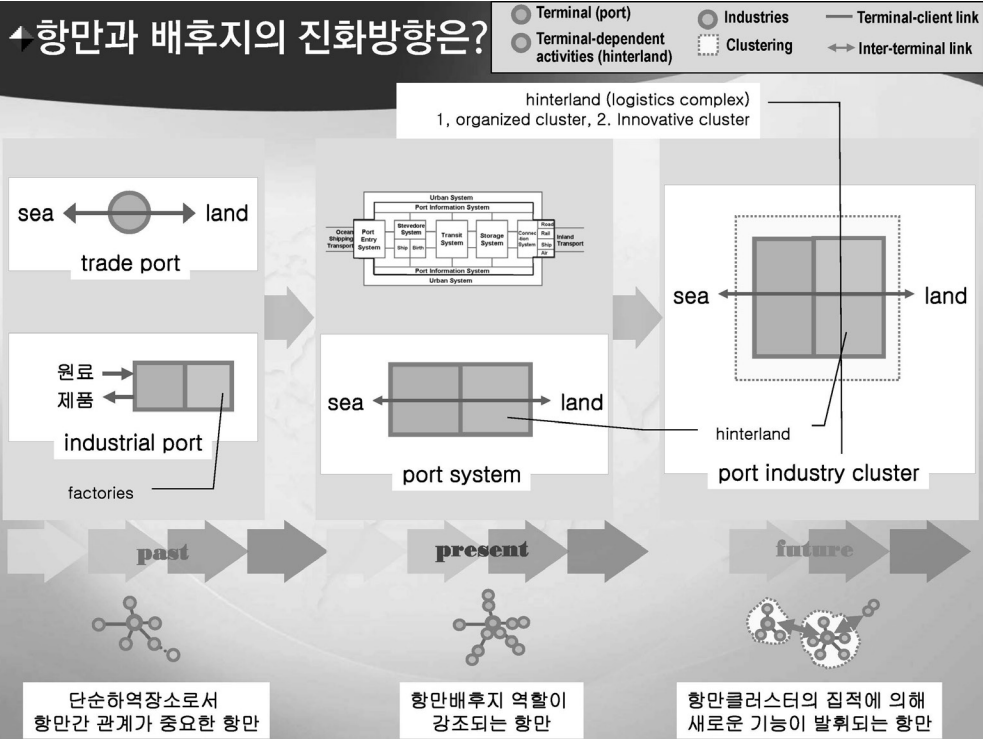
▶ 어떤 항만관련산업이 돈이 되는가?

Sort of Company (Classification used in the Fieldwork)	Value Added per company (mm KW)	Order	INDEX	Gross Sale per company (mm KW)	Order	INDEX
Dangerous Articles Warehouse	122,864	1	A	174,004	1	A
Tanker	122,864	1	A	174,004	1	A
Shipping Agent	40,517	3	A	55,080	4	A
Chartering Agent	36,870	4	A	50,122	5	A
Ship Broker	36,870	4	A	50,122	5	A
Packing Service	26,582	6	B	40,233	7	B
Ocean Shipping Company	25,631	7	B	137,655	3	A
Farm Warehouse	16,298	8	B	2,308	28	F
Logistics Equipment Repairer	5,584	9	B	13,429	9	B
Ship Building	5,584	9	B	13,429	9	B
Ship Repair Shop	5,584	9	B	13,429	9	B
The other Warehouse	5,296	9	B	7,500	15	C
Bunkering Service	3,902	13	C	17,191	8	B
Harbour Labour Union	3,683	14	C	5,589	16	D
Shipping Cargo Handling Service	3,683	14	C	5,589	16	D
Ref./Frozen Warehouse	3,431	16	D	4,859	18	D
Terminal Operating Company	3,053	17	D	4,511	19	D
Port Communication Service	2,628	18	D	3,736	20	D
Freight Forwarder	2,323	19	D	3,158	24	E
Nautical Chart Distributor	2,219	20	D	13,263	12	C

▶ 어떤 항만관련산업 부터 육성해야 할 것인가?



4.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방안



▶항만클러스터의 진화 단계는?

완성형 클러스터

- 소비자가격의 인하,
-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의 출시

Innovative Cluster

체계적 클러스터

- 물류서비스의 향상,
- 재고수준의 저감 및 재고비용의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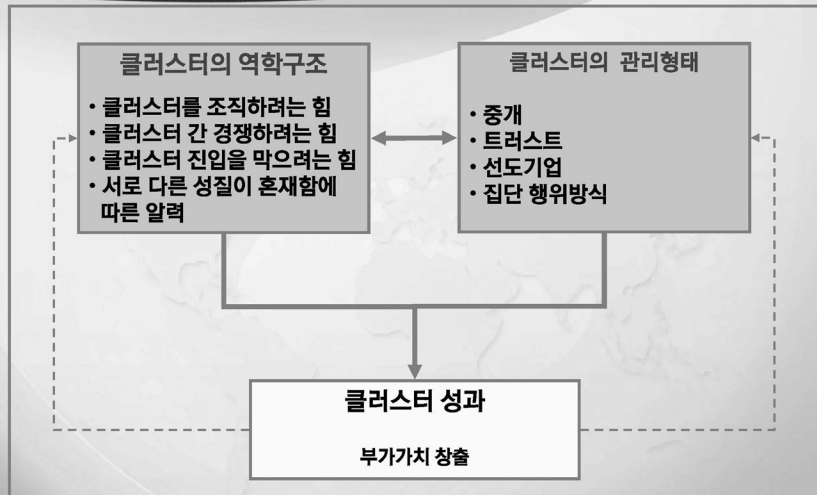
Organized Cluster

자연발생형 클러스터

- 운송업체와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 이송시간의 단축 및 신뢰도의 향상

Informal Cluster

▶항만클러스터의 역학구조를 고려한 관리형태는?



Source: De Langen, P. W. (2002) "Clustering and performance: the case of maritime clustering in Netherlands",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29, No. 3.

▶항만관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은?



Thank you



Hong-Seung ROH, Ph.D.

Research Fellow / Dept. of Logistics Research
Director / Center for Logistics Technology
Intermodal Logistics Technology CRO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KOTI)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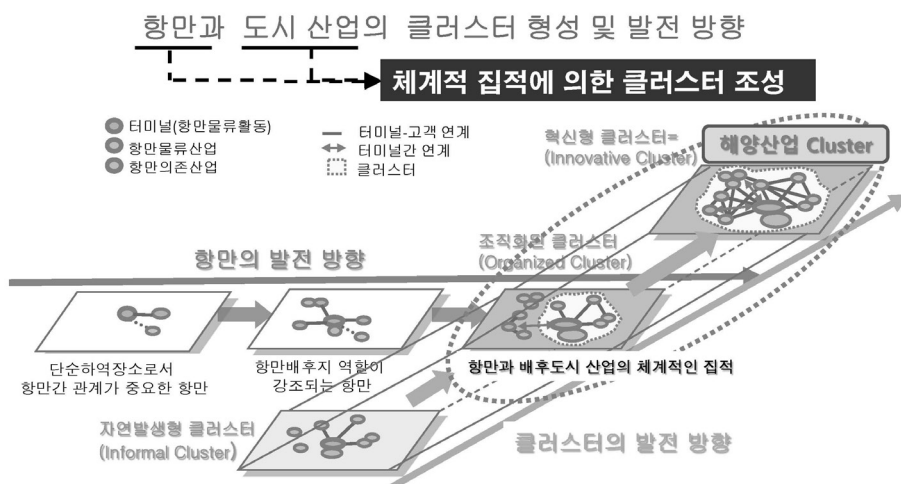
|T: +82-44-211-3126
|F: +82-44-211-3226
|M: +82-10-2726-5313
|E: rohhs@koti.re.kr |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박 창 호 | 인천재능대학교

제 7회 해양문화학자대회 특별세션 「당진항 발전 전략 모색」 (2016. 7. 8(금), 세한대학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박창호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1. 기존의 세계 3대 간선항로(Main Trunk Route) 현황



3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2. 글로벌물류의 패러다임 이동

1) 글로벌물류(Global Logistics)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

- 해운중심 ⇒ 인터모달(해운, 항공, 철도, ICT-Platform) 중심
- 3대 간선 원양항로 중심 ⇒ 중국 중심 항로 재편 및 Economic Bloc 내 SCM 중심
- 내륙항(Dry Port) 발달로 인한 해상-철도 연계 및 Door to Door 일관운송이 대세
- 화주의 공·항만 선택 권한 강화(해운시장 주도권 이동)
- 초고속선 및 WIG 선의 상용화시 항공운송의 해상운송 전환, SSS(Short Sea Shipping) Network 강화
- M & A와 Strategic Alliance 강화로 글로벌 물류시장 재편(중국의 주도권 행사)
-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ICT 기반의 물류산업 발달로 e-Logistics 비즈니스 활성화

2) 동북아시아의 물류 전망

- 한중 FTA 체결로 시장 통합화 가속화 및 전자상거래 파생 물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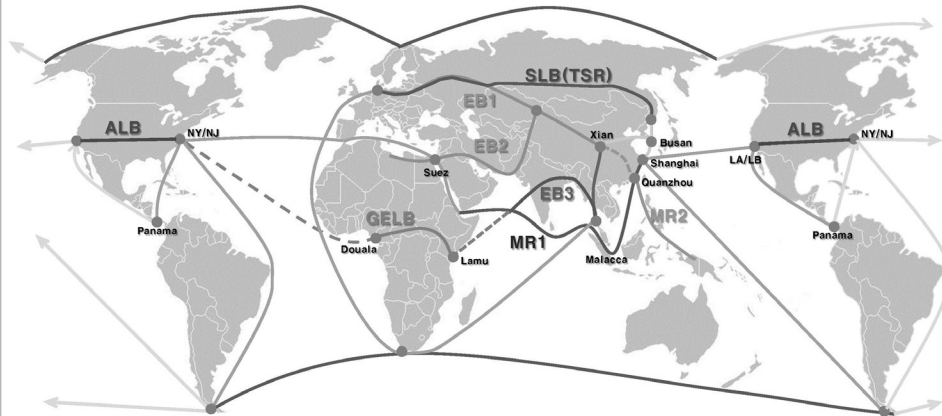
3)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전망

- 일대일로에 의한 신 실크로드 시대, 북극해 항로와 TSR의 Sea & Rail 운송체계

4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3. Global Intermodal Transport (Sea & Rail) Networks



<Intermodality의 Paradigm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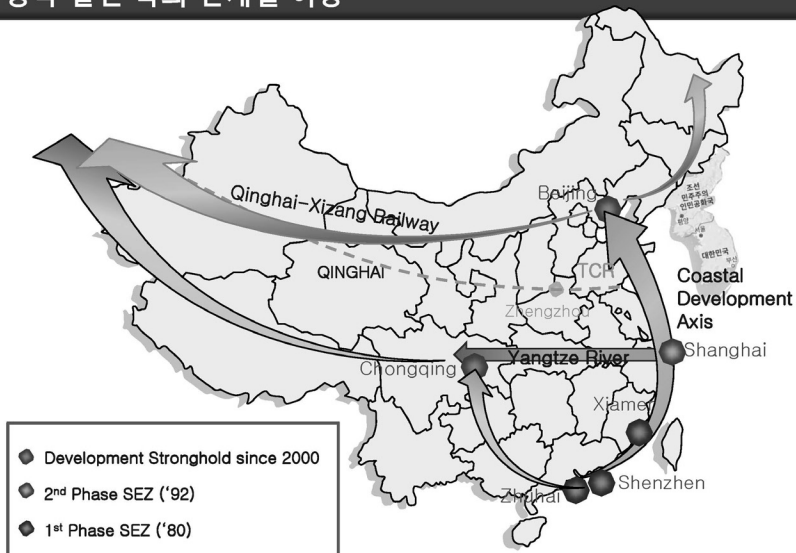
24,000TEU 선박 출현에 대한 각국의 이해 관계

-> 세계 해운의 자유경쟁 시장 체제에 대한 우려와 대응

5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4. 중국 발전 축의 단계별 이동



6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5. 해항(Sea Port)에서 무수항(Dry Port)으로 중국 항만의 패러다임 이동

● 중국의 무수항



- 「中長期鐵道網計畫」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18개 무수항 건설 예정
- 北京、上海、天津、広州、昆明、武漢、青島、鄭州、寧波、重慶、深圳、哈爾濱、大連、蘭州、瀋陽、成都、西安、烏魯木齊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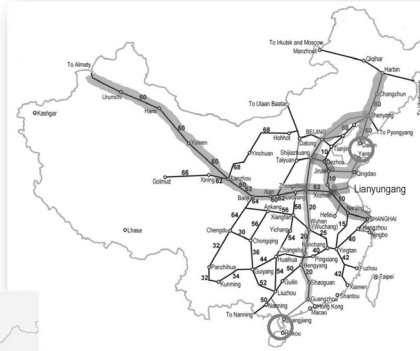
6.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 [一帶一路]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통령과 李克強 중국 총리의 면담에서 33건의 양해각서 체결(2015. 9. 2.)
- FTA 조기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新常態(신창타이) 시대 전환에 대응
- 한국의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의 AIIB,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7. 박근혜 전 대표의 '동북아열차페리' 구상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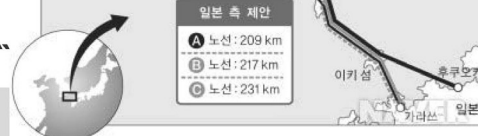
1 서론-해운·항만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8. 한·중·일 해저터널 구상 및 타당성 검토



韓中[Weihai-Incheon] 해저터널 건설
이후 한일[Busan-Hukuoka] 해저터널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검토

韓中[Weihai-Incheon] 해저터널 건설시
공해상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중계지로 활용



2 현황 및 여건 분석

1. 충남 당진시의 세력권

- 인구수 : 55위(전국 162개 시,도,군 기준)
- 면적규모 : 58위(전국 162개 시,도,군 기준)



- 충남 당진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수도권 주요도시와 100km 이내(1시간)로 인접하고 있음.
- 사회문화권은 지역적 범위 및 역사적 배경,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진시가 직접 영향권,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및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등이 간접영향권에 해당됨.
- 환경권은 자연생태, 수질, 대기오염 등이 시,군 상호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아산시, 서산시가 직접영향권, 예산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가 간접영향권이며,
- 관광권으로 서산, 보령시, 홍성, 예산, 태안군과 함께 내포문화권(충남 북서부지역)에 속함.
- 서해안 항만도시로서 산동반도와 400km 거리

11

2 현황 및 여건 분석

2.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2010.12)



12

2 현황 및 여건 분석

3. 충청남도 종합계획 및 당진시 산업 환경 분석의 시사점

정책환경 분석			산업환경 분석		
충청남도 종합계획_2012~2020			<당진시 주요 사업체 현황>		
구분	축별 연계지역	개발방향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북부축	태안-천안	• 내륙 및 임해형 첨단산업 복합지대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 거점	제조업	799	21,653
중부축	세종시-보령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 관광 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건설업	407	6,028
남부축	서천-대천	• 친환경바이오 산업지대 등	숙박 및 음식점업	2,452	6,317
서해안축	서산-서천	• 국제교역 교류 거점, 해양관광산업지대 • 연안개발 관리 및 산업지대 고도화	농업, 임업 및 어업	17	261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 역사, 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도매 및 소매업	2,437	6,001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 중추행정, 중부내륙의 행정, 산업, R&D, 물류, 교통중심축	금융/보험업	100	1,246
			교육서비스업	361	3,039
			예술, 여가관련서비스업	299	651
		
			전체	9,982	62,897

(출처:당진시 통계_2012)

• 충청남도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및 산업경제, 복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
- 당진시는 역사, 문화,관광(솔피성지 등), 농산업 중심지대로 개발화, 첨단산업·임해산업도시 등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당진의 항만·산업적 특성 미 반영

• 철강(동부제철,현대제철)과 석문연 소재 당진화력발전소 등의 산업 구조 특성에 따라 전체 산업체 인력의 약 30%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당진의 항만·물류산업 비중, 항만-산업 시너지효과 낮음

13

2 현황 및 여건 분석

4. 경제산업 주요지표 현황 분석

지속적인 사업체 수의 증가	고차산업구조로의 점진적 변화
<p>● 사업체 수(당진시)</p> <p>(단위: 개)</p> <p>2007년 8,086 2008년 8,245 2009년 8,398 2010년 8,978 2011년 9,394</p> <p>• 사업체 수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9,394개를 기록함</p> <p>• 업태 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317개), 숙박 및 음식점업(2,170개)의 비중이 높음</p> <p>(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_통계청)</p>	<p>● 인구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수(당진시)</p> <p>(단위: 명)</p> <p>2007년 290.27 2008년 298.25 2009년 304.67 2010년 329.01 2011년 368.65</p> <p>• 인구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1년 368.65명으로 1차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고차산업구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p> <p>(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_통계청)</p>

현황 및 Im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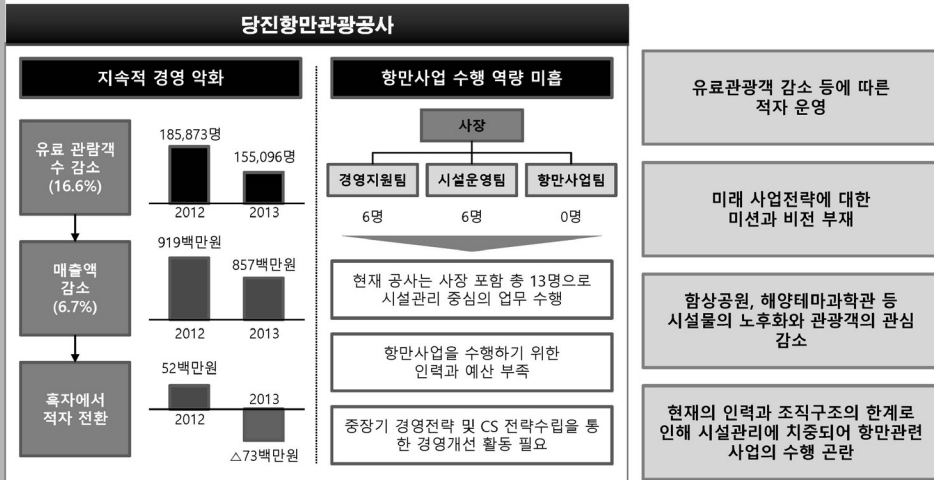
- 지속적으로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업태 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산업 발굴 필요

14

2 현황 및 여건 분석

5. 당진항만공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당진항만공사의 경영 수지 개선과 당진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개발이 필요함.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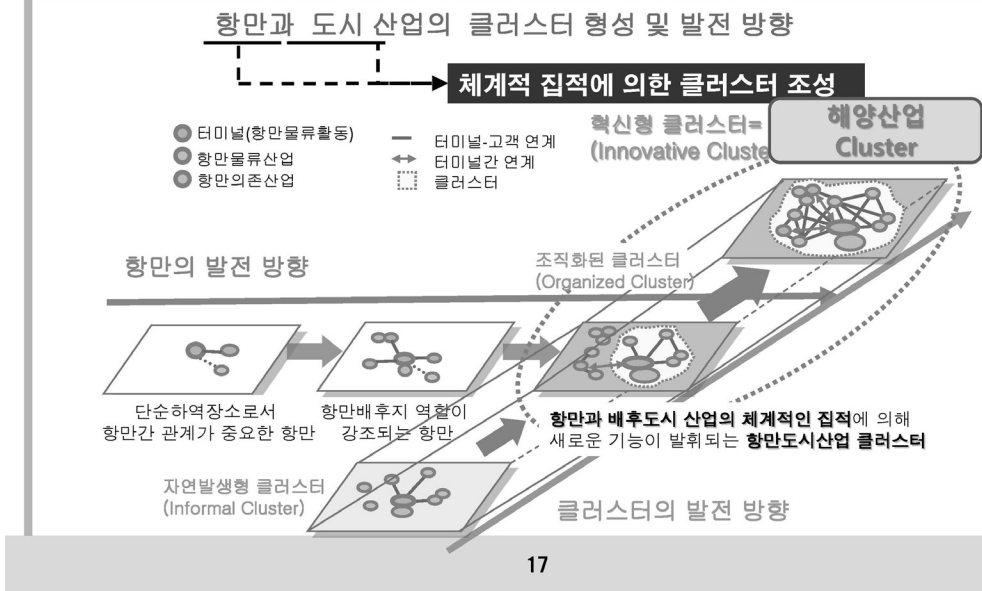
1. 한중 FTA와 인터모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 ❖ **한-중 Intermodal Network의 강화 및 당진항배후지에 Intermodal Depot 건설**
 - 한중물류협력을 위한 韓中 Intermodal Network를 강화하고 당진항만 배후단지에 인터모달 기지(Intermodal Depot) 건설
 - 인터모달기지(Intermodal Depot)에는 해상운송-육상운송(도로, 철도)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물류중계센터를 조성하고 한중 物流企業의 交叉投資를 적극 유치하도록 함
- ❖ **基地(Depot) 내에 韓中 합의에 의한 『生·販·物 統合型 流通物流團地』조성**
 - 基地(Depot) 내에는 韓中 합의에 의한 『生·販·物 統合型 流通物流團地』를 조성하고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交叉投資
 - 양방향 물류 활성화를 위한 수평 분업(한⇒중: 한국기업, 중⇒한: 중국기업)
 - 기지 내에서의 물류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물류자동화 및 용기의 표준화 등 기술교류협력
 - FTA 이후 급격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新鮮物流 및 生活用品 供給, 直購 物流 담당을 위한 공급망관리체계(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

★ Intermodal Depot 및 生·販·物 統合型 流通物流團地를 조성한 항만도시 당진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것임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2. 항만과 배후도시 산업 클러스터의 연관 체계 구축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3-1. 당진 해양 클러스터에 혁신형 사업으로 해양스타트업(Start-up) 육성

❖ 스타트업(Startup)의 정의

- 1990-2000년 정점을 찍었던 닷컴버블(dot-com bubble) 시기 영미권 국가에서 처음 등장
- 불확실한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의미와 유사함
- A Startup company or startup is a company or temporary organization designed to search for a repeatable and scalable business model. These companies, generally newly created, are in a phase of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markets.(Steve. B., 2012)

❖ 스타트업(Startup)의 특성

- 0 to 1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타트업 특성. "無(Zero)⇒有(One)" 창조
- 1 to End :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스타트업 특성. "창조된 것(One)⇒최종소비자(End)" 적용
- 한국은 "0 to 1"형은 거의 없고 "1 to End"형 스타트업이 대부분임
-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혁신형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On-demand Delivery is doomed"(Bill Gurly); Google Express, Instacart, Shyp, Postmates 와 같은 delivery Startup들의 경제성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낮은 사업이고,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비용도 증가한다. Google Express는 방어전략이고 방어로는 성공 못함
- 쿠팡의 예측 배송(아마존이 처음 시작). 현 쿠팡 대표=전 아마존 대표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3-2. 당진 해양 클러스터에 혁신형 사업으로 해양스타트업(Start-up) 육성

❖ 해양 스타트업(Startup)의 정의

- 해양경제 활동에서 해양산업(해양을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경제 활동, 해양 기반형 활동과 해양 연관형 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단계(Startup)에 있는 경제적 조직
- “無(Zero)⇒有(One)”를 창조하는 “0 to 1”형 또는 “창조된 것(One)을 최종소비자(End)”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1 to End” 형의 해양 산업 창업 활동

❖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혁신형 클러스터가 되기 위한 ICT 융복합 해양 Startup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시 로테르담 항의 RotterdamXL을 벤치마킹하여 당진항만관광공사 등의 주도로 해양 Startup 육성 프로그램 개발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혁신형 항만클러스터 단지가 되어야 하므로 항만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ICT 융복합 Startup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항만 배후산업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함
- FTA 이후 급격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新鮮物流 및 生活用品 供給, 直購 物流 담당을 위한 공급망 관리체계(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
-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해양 Startup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조항 추가

❖ 당진항 배후지에 당진시 주력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도시 당진의 성장동력 확보

- 당진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플랫폼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진시의 신성장동력 확보

19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4.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도시 간 협력벨트 형성

☞ 서해안 항만도시 협력 벨트와 당진항의 위상 정립

- 우리나라 서해안의 항만도시는 인천광역시를 제외 하면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이며, 항만의 컨테이너처리 물동량은 단일 항로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항만경쟁력 중대를 위한 항만 간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의 항만도시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도시의 규모로는 대등한 교류 ·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2010)의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항만도시간 시너지효과 창출

◆ 「슈퍼 경기만권」 : 인천항, 당진(평택)항

- 비즈니스 · 물류 · 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경제거점

◆ 「중남 서해안권」 : 대산항

- 국제 관광 · 휴양 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

◆ 「새만금권」 : 군산/새만금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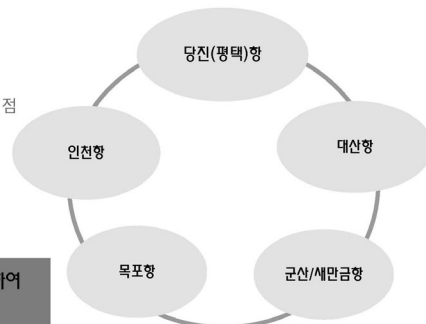
- 신재생 에너지 등 저 탄소 녹색산업 거점

◆ 「전남 서해안권」 : 목포항

- 해양레저·첨단조선·친환경 농수산 산업 거점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2010)의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서해안 항만도시 간 협력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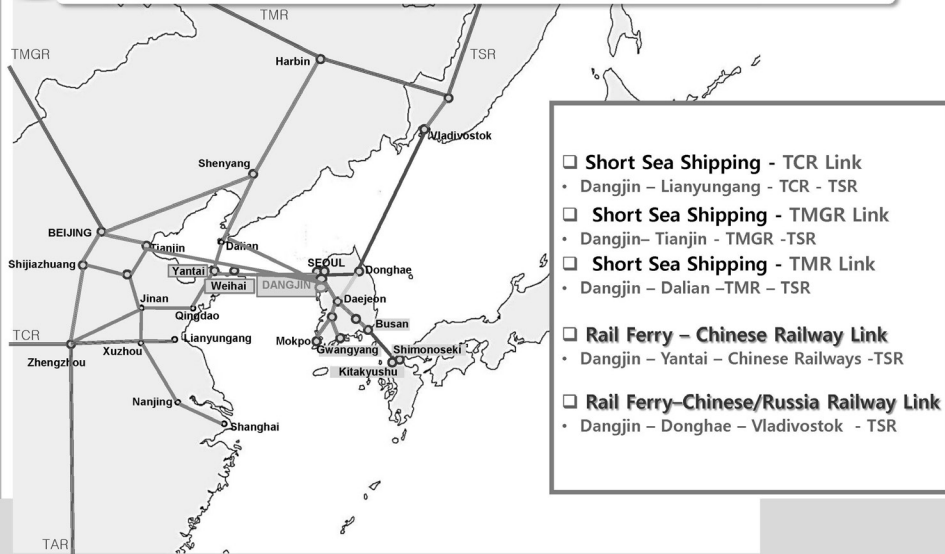
20

3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5. 한중 인터모달 네트워크(TCR) 연계



당진항 철도인입 및 한중열차페리 연계를 통한 한중 해상-철도 인터모달 네트워크 구축



4 결론 및 제언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통한 환황해의 선진
항만도시 위상 확립

1. 당진항 배후지에 한중 FTA 대응 물류산업 Platform 및 당진 해양산업 Cluster 조성
2. 당진시 산업구조 조정 및 해양 Startup 육성을 통한 혁신형 해양산업클러스터 형성
3. 당진항에 철도 인입 후 한중 해상-철도 Intermodal Network에 합류
4. 환황해 항만구역에 Intermodal Depot 및 『生·販·物 統合型 港灣産業物流團地』 조성
5.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조직 보강 및 혁신을 통한 해양 Startup 육성 주도
6.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도시 간 국제관광·해양레저·항만산업물류벨트 형성에 주도적 참여
7. 인천/평택-연태 간 열차페리 사업에 추가 참여 검토

한·중 FTA 대응 한·중 해상-육상(도로, 철도) 인터모달 네트워크 및 Intermodal Depot 구축, 『生·販·物 統合型 港灣産業物流團地』인 당진 해양산업 Cluster 조성



○ 학 력

1983.2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1992.8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항해학과 박사(해사수송공학)

○ 경 력

1983.3-1987.3 (주)대한선주(현 한진해운) 해상근무(3,2,1등 항해사)

1992.8-2000.6 (재)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7.7-2002.12 (재)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3.1-2005.2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특별보좌관(물류특보)

2003.6-2004.6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물류전문위원

2004.9-2005.9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물류전문위원

2005.11-2007.9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2008.1.2-2.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자문위원

2009.3-2012.3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TFT 자문위원

2011.7-201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민족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

2009. -현재 (사)항만경제학회 부회장, (사)국제물류연구회 사무총장

2012. -현재 (사)한국마리나항만협회/(사)한국해양레저연합회 부회장

2015. -현재 여의도연구원 국토교통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05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Thank You!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김 율 성 ■ 한국해양대학교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및 (사)한국해운물류학회
특별세션 : “당진항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 2016. 7. 8(금) 09:00 ~ 12:00
- 장소 :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한국해양대학교 김 율 성

I. 서론

I. 서론

국가적 관점

- 해양은 식량과 에너지, 자원,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접근
- 유엔 해양법 협약(1994년) 이후 해양경제 선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양영토 영유권 확보와 해양산업에 역량 집중
- 특히, 중국·싱가포르 등을 국가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산업적 관점

-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탐사 및 장비개발 등 최첨단 해양산업의 급속한 성장
- 양만과 이종 산업영역간 연계성 강화로 양만의 자족기능 및 융합기능 강화
- 싱가포르와 상하이 등 양만산업을 중심으로 해운중개, 해상보험, 해양플랜트 연구로 산업영역간 융복합기능 확대

도시적 관점

-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도시를 국가 해양산업 클러스터 중심지로 개발
- 기존에 개발된 양만, 조선, 수산의 연안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화

- ✓ 국가적 관점에서 해양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도약 기회로 활용
- ✓ 산업적 관점에서 해양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선순환 구조화 추진
- ✓ 도시적 관점에서 각종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국가 주도의 해양경제」>>> 해양경제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부족 등 인류의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해 국가 주도의 해양 개척
- 국가 차원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증가

「해양자원의 산업화」>>> 해양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 추진

- 해양 에너지, 해양 생물, 해양 광물, 해수자원 산업들의 급격한 성장
- 백색가전과 반도체, 첨단기계산업에서 이제는 해양산업이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원



「해양도시의 급성장」>>> 주요 해양도시가 글로벌 신흥도시로 도약

- 세계 최고 해양도시 싱가포르, 새로운 해양도시 상하이, 해양산업의 세계 중심지 휴스턴
- 해양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산업(해양플랜트, 해양금융, 해양자원 탐사 등)의 거점도시로 성장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해양 영유권 확보 전쟁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 가속화

- 유럽 연합의 해양정책비전(2007), 미국의 해양정책구상(2010),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2007) 등
- 해양 영유권 확보를 통해 해양자원의 탐사, 발굴, 산업화의 당위성 확보

최근 5년간 자원별 가격변화



미개발 해저광물자원



북극해 항로 및 자원개발 가시화

- 북극권, 남극권 등 극지 해양에서의 산업경제 활동이 급속히 증가
- 북극항로 개설시 항차당 55~92만 달러 비용 절감 가능

북극해 매장 자원

구분	내용
석유	• 900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 13% (최대 1,600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 19%)
LNG	• 470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 30%
기타광물	• 하이드로카나이트 : 오후츠크해 1천억톤 매장 추정 • 동, 니켈, 백금, 코발트 : 예니세이강 유역



7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 >>> 신규 해양산업 선도를 위한 선택과 집중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발생빈도 급속한 증가(쓰나미, 토데이도, 대형 태풍 등)
- 지구 온난화와 해양기후변화 예측, 해양오염 방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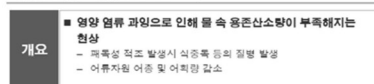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발생 현황



집중수해와 사막화 가속



해양 오염 현황(Dead Zone)



남극 및 북극 극지연구 증가 >>> 극지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 남극 및 북극 극지연구에 대한 투자(극지연구 R&D 투자, 극지해양인프라 건설) 강화
- 해양과학조사기지 건설, 해양기상위성개발, 선박선 건조, 극지해양탐사 기술개발에 선택과 집중

8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해양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해양플랜트 수요 증대

- 2011년 심해 Oil&Gas 생산 비중이 20%에 도달해 심해생산용 해양플랜트 수요 지속적 증가
- 해양플랜트(FPSO/FSRU/DRILL SHIP) 선체 및 건조 세계 1위 기술력 확보, 설계 등 국산화 미흡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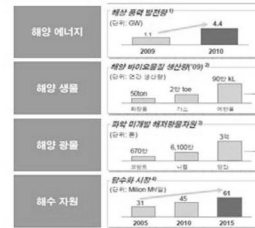
구분	해양플랜트	Subsea	URF	해양공학	기타	전체
2010	372	450	479	26	125	1,452
2015	547	793	737	52	175	2,304
2020	749	1,165	1,034	92	235	3,275
2030	1,056	1,898	1,530	239	315	5,039
비고	Fixed type, Floating type, 개조시장 포함	생산시스템 100억 달러, 프로세싱 10억 달러, 연지치어링 70억 달러 등	Umbilicals, Risers & Flowlines	풍력전체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 등	III학, 조력, 해상발전 등	

자료: Douglas Westwood, WWEA(World Wind Energy Report 2010) 등



해양자원의 산업화 확대 및 시장 성장

- 해양에너지 산업의 다양화 추진(해양풍력, 파력, 조력 등)
- 해양생물 기반 유용 신물질 개발 및 상용화 가속화
- 글로벌 대기업 중심의 해양 광물자원 탐사사업 진출
- 해수자원(해수 담수화, 해저 심층수 등) 산업 확대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9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중국: 해양을 통해 세계 2강 실현

- 2000년 중반부터 GOP(Gross Ocean Product) 집계
- 중국 12-5계획의 해양산업 육성 주요 내용 발표
- 3대 해양경제 시범구 지정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 추진
- 해양산업 체계 완성으로 국가 경제 재도약 추진

산둥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 15만 9,500 km², 육지: 6만 4,000 km² • 1핵 2구 3벨트 3도시 그룹 조성 • 주산업: 어업, 제염업, 해양플랜트 등
저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 26만 km², 육지: 3만 5,000 km² • 1핵 2익 3권 9구의 도시발전 • 주산업: 해운, 조선, 석유화학, 해수담수화
광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 41만 9,000 km², 육지: 8만 4,000 km² • 1핵심 2성장거점 3지역권 4벨트 조성 • 주산업: 교통운수, 관광, 석유 등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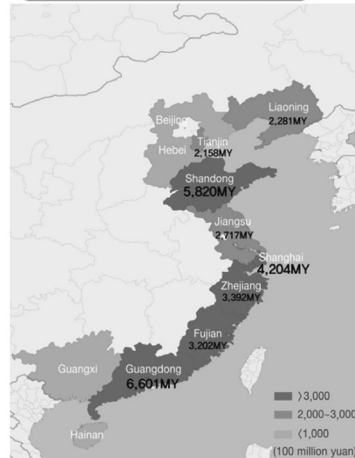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해양 총생산 목표 관리

- 2000년 중반부터 GOP(Gross Ocean Product) 집계
- 중국 12-5계획의 해양산업 육성 주요 내용 발표

해양생물 육종과 양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물의 번식과 양식 • 우수 해양생물 확보와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
해양바이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 선진 수준의 해양바이오 산업 성장
해수이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담수화 플랜트 기술 고도화 추진 • '15년까지 해수담수화 능력 2010년보다 4배 성장
해양 신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풍력·조류를 이용한 전력 생산 • 가스 하이드레이트 신에너지 자원 개발
해양 서비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검측·예보 등 신서비스업 육성 • 해양구조·방제·지질조사·해양보험 육성
해양 감측장비 제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탐측·기해저운행장비 등 고부가산업 육성
심해채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심해자원 상업적 가치조사와 기술 축적

중국 연안지역 GOP 분포(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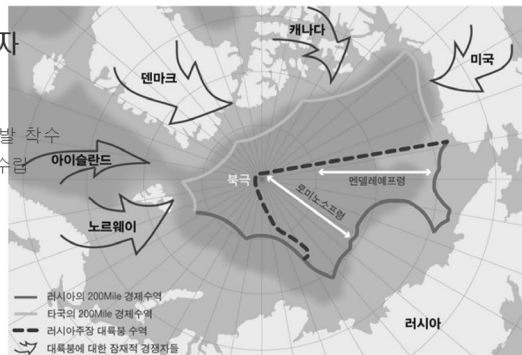
II. 해양산업 관련 국내의 환경 변화

일본 : 해양을 통한 잃어버린 20년 극복(집중화 전략)

- 해양 기본법('07. 4월) 이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해양정책 기능 통합
→ '07. 7월 : 종합 해양정책본부(본부장 - 총리)
- 슈퍼 중추항만 지정('04. 7월) : Keihin(Yokohama, Tokyo), Hanshin(Kobe, Osaka), Isewan(Nagoya, Yokkaichi)

러시아 : 북극해의 새로운 강자

- 북극해 심해저의 영토화 추진
- '08년 북극지역 개발전략 발표로 북극 개발 착수
- 북극해 주요 전략적 자원기지 구축 계획 수립



12

Ⅲ.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요

Ⅲ.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요(추진 필요성)

「해양산업 지향의 마인드 셋 전환 필요

- 수도권 대응 또는 상생과 같은 내륙지향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경제 시대 및 태평양·북극해 비즈니스 중심의 마인드 셋 전환 필요 시점



Ⅲ.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요(추진 필요성)

필요성

- 기능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시장의 융복합화 요구에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화 추진

국가 측면

- 자원/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신 해양경제시대 도래
- 미래학자들의 신 해양시대 도래 예견(미래 해양의 중요성 강조)
- 해양경제특구 육성으로 세계 2강을 실현하려는 중국에 대응
- 북극해 항로 및 자원 개발 가시화에 따른 부산항의 역할 증대
- 선진 해양국가 대비 해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제 기여 미흡
- 연안공간에 대한 산업별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

지역 측면

- 북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 저하 지속
- 부산항 물류기능의 신항 이전 가속화에 따른 북항 물류기능 변화 필요
- 부산-신항간 화물운송 발생으로 교통혼잡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 북항 터미널 운영사 경영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개념

-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해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이 최 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

15

Ⅲ.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개요(목표 및 주요 기능)

목표

- 중국, 일본 주변국의 해양경제 육성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 해양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화 추진
- 유희항만시설을 중심으로 부두 기능 조정 및 용도변경으로 해양산업 육성

해양산업 제조업 기능

- 항만과 이종 산업영역(해양플랜트, 해양신소재 등) 연계를 통한 해양산업의 융복합기능
- 해양플랜트 및 신조선 관련 모듈 제작, 기자재 제조 기능
- 첨단 해양과학기술 제조 기능

해양 R&D 및 인력양성 기능

- 해양과학 연구기관 집적화(국책 연구기관 이전)
- 글로벌 해양 전문인력 양성(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해양과학기술 R&D 테스트 베드 및 해양과학 벤처타운 조성

해양 비즈니스 기능

- 해양과학R&D 및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해양산업 본부기능
- 해양 관련 서비스 확대(선박관리업, 중량물 운송 포워더, OSB 등)
- 해운·해양 관련 금융 비즈니스 등

해양 중추관리 및 관광 기능

- 국가 해양정책 기능 주도(해수부 기능 확대, 해양 국제기구)
- 해양 금융 중추 기능(문헌 금융중심지 연계)
- 동북아 크루즈 중심기지 및 아시아 해양 컨벤션(OTC 아시아)

16

III. 해양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개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구성 : 7장 46개 조문, 부칙(2개조)

① 총칙 ②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③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④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⑤ 해양산업클러스터위원회 등 ⑥ 보칙 ⑦ 벌칙

◆목적 (제1조)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
◆기본계획수립 (제6조)	•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위원회 심의 → 수립 → 고시 → 시도지사에게 통보 【*변경 또한 같음】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제9조)	• 〈영관자정〉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위원회 심의 → 개발계획수립 → 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 → 고시 →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 요청〉 개발계획 작성(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협의, 자치시군구청장 의견청취) → 해수부장관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위원회 심의 → 개발계획확정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 고시 → 시도지사에게 통보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14일 이상 주면 열람】
◆지원 (제16조~제21조)	• 핵심산업의 육성 및 집적·융복합 활성화 지원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한 항만시설 및 이의 시설 설치·사용 •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우선 지원
◆개발사업 시행자 (제25조)	• 항만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 대상자 중 둘 이상 출자 설립 법인)

17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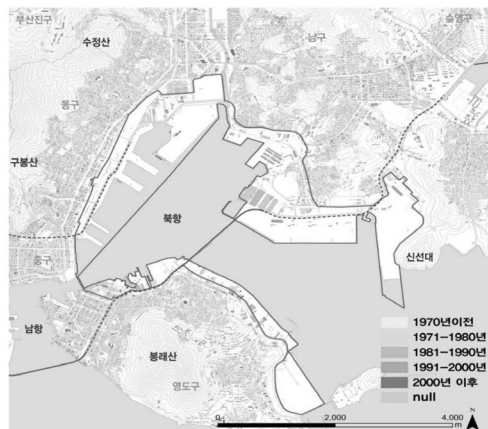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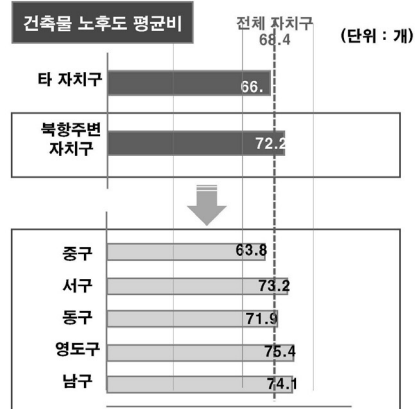


19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여건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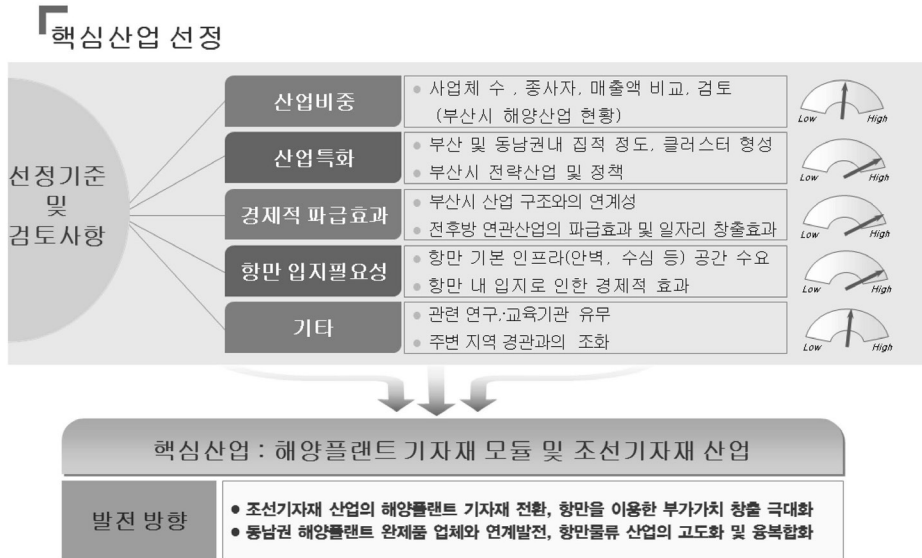
부산항 북항주변지역 건물 노후도

- 북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 권역 내 원도심 건축물 슬럼화 가속
- 전체 건축물의 72.2%가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20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여건검토)



23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부산지역의 공간적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24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부산신항 중심의 항만물류 클러스터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수준의 부산신항 경쟁력을 활용한 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항만물류 산업의 활성화로 부산항 서비스 제고 및 항만 경쟁력 강화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항 유류중계기지 조성 (신항 남컨부두 하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딩 허용 등 석유관련법 개정 - 해상 LNG 및 바이오 디젤 급유 기지 조성 수리조선 및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조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 및 신항지역 선용품유통센터 조기 건립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신항 물류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물류허브 기업 유치 현재 2개(암웨이, 르노부품) → 20개 이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물류산업 고도화로 부산항 해운비즈니스 기반 마련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로 세계 수준의 항만 부가가치 창출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부산북항 해양산업 클러스터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업종 전환 필요성 등장 세계 해양플랜트의 70% 수주, 기자재 국산화율은 20% 미만으로 해양플랜트기자재의 국산화를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모듈조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 해양플랜트 중소기자재업체 지원 해양레저보트(슈퍼요트 중심)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슈퍼요트, 보트 제조 및 MRO 기업 유치 및 지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해양플랜트 기업 유치, 유관 연구기관 집적 국내 유관업체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플랜트산업은 고부가가치, 동반성장, 고용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달성 청년층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증진



IV. 부산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남항 및 감천항의 수산 클러스터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최대의 국제 수산물 교역 중심지로서 수산메카 재도약 1차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주도 글로벌 수산기업 유치로 sea food 가공산업 육성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수산물 생산·유통 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어시장과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 통합 - 한려 수산물 교역 센터 유치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및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굴지의 수산대기업 유치 - 세계 글로벌 수산기업의 아시아 거점 브랜치 유치 감천항 고부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류지원시설 및 수산바이오 R&D 단지 조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수산물의 단순보관, 통관 물류에서 탈피, 교역과 거래·가공·금융을 통합하는 국제수산도시로 탈바꿈 수산식품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부산의 수산 가공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V.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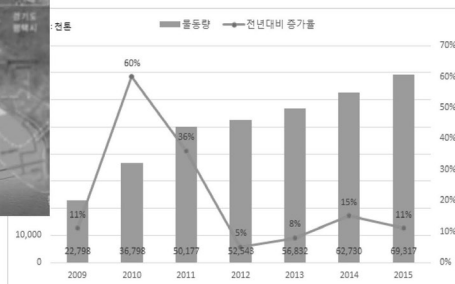
V.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여건검토

당진항 주변 항만 및 배후단지 여건 검토

- 석탄 및 철광석, 철재 등과 관련한 항만시설의 집적화, 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 항만시설의 노후화, 인근 배후단지의 조성 여부 등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검토



출처 : 당진항만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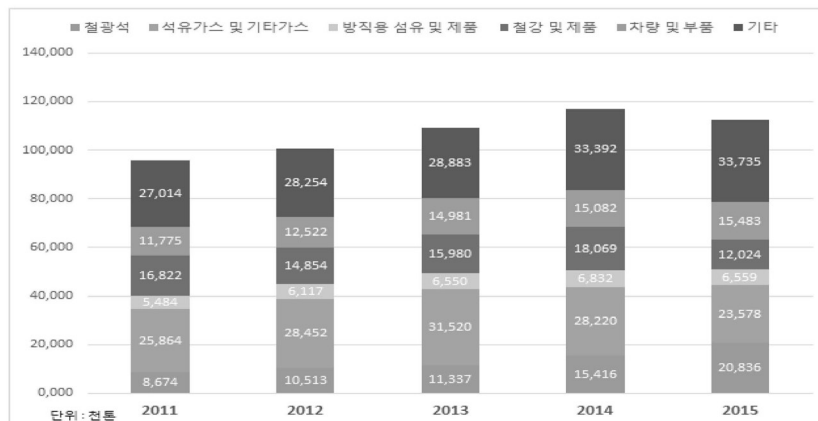


출처 : 당진항만관광공사

V.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여건검토

평택 및 당진항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검토

- 당진을 포함한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량 지속적 증가추세
- 특히, 철광석, 석유가스 및 기타가스, 철강 및 그제품, 차량 및 부품 등의 품목 비중 높음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spidc.go.kr/>)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

V.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활용한 권역별 클러스터화

- 공간적, 기능적으로 집적화가 가능한 해양산업에 대한 우선적 클러스터화 추진
- 항만을 활용 수출입 특화 철강제품, 가스 등과 관련한 기술이전 지원, R&D, 금융지원 등의 활용전략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가치사슬 강화

-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클러스터 내 전문지식 축적 필요
-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클러스터의 강점과 특성에 근거한 틈새시장 개발

「평택지역과의 협조체제 구축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협력체제 구축(잠재적 파트너십 구축)
- 협력체제 구축 ->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촉진 -> 구성원간 지식 확산 -> 혁신활동 조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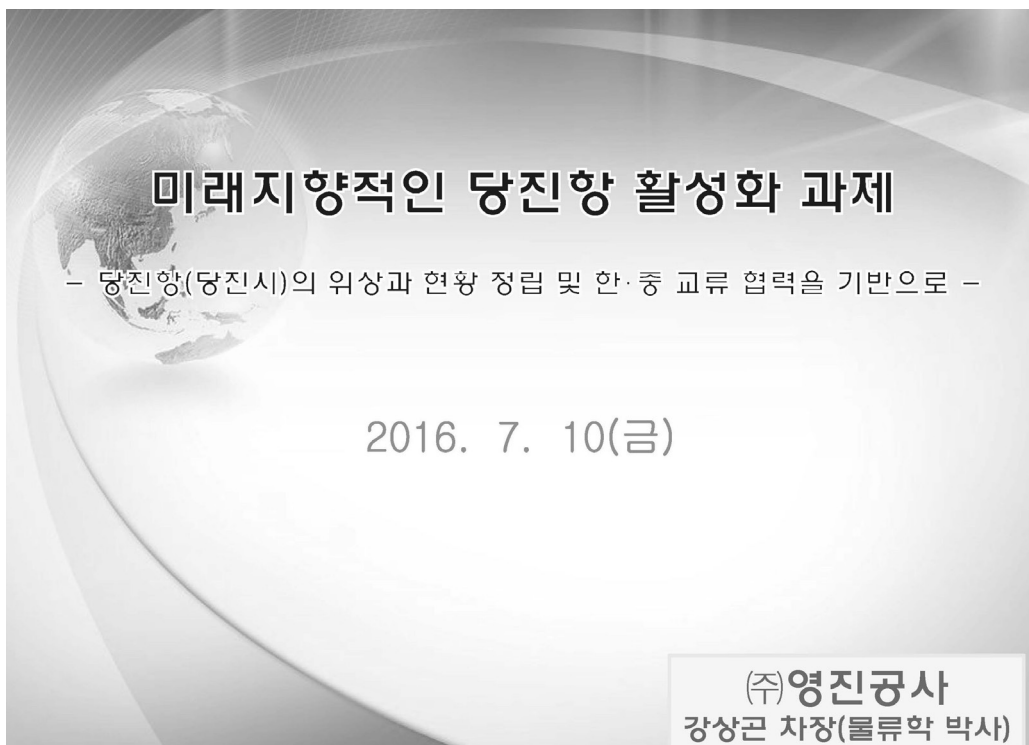
- 해양산업은 지역 및 기업단위의 투자나 육성으로 경쟁에 한계를 가짐
- R&D 및 기술투자 등의 금융지원, 기업유치 및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요구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강 상 곤 ■ 영진공사 기획실



목 차

-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 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 IV.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 V. 결론 및 정책 제언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 당진의 지역적 명칭과 관련법상의 지역적 및 법적 한계와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 필요
- 당진항은 평택항과 함께 수도권항만(평택당진항)에 속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역에는 당진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아니므로 비교적 지역적 관심이 낮았음
- 바다를 가운데에 두고 평택지역과 당진지역의 험거루기 양상이 항상 이루어져 왔음
- 수도권 항만 중 인천항과 평택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항만인 당진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항만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수립코자 함

2) 연구의 내용

- 현재 당진항의 지리적, 경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과제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립
- 해당 지자체의 관련 정책(도시기본계획 2030)과 중앙정부의 추진 정책 내용을 검토
- 당진항의 발전과 이에 따른 관련 계획 추진 상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대책(안) 마련
- 당진항의 미래지향적 활성화 추진과제 설정과 고효율적 결과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Ⅱ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1. 당진항의 위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215호, 2014.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자료 : 법제처

4

Ⅱ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1. 당진항의 위상

항만법시행령 [별표 1]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제2조제1항 관련)

항명	위치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인천항	인천광역시
서울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군

항만법시행령 [별표 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항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자료 : 법제처

5

Ⅲ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2. 당진항의 현황



자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6

Ⅲ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자료 : 당진시청 홈페이지

7

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당진시의 지리적 위치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은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남쪽은 예산군, 남서쪽은 서산시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가 위치함
 또한, 국도 32, 34, 38, 40호선과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615, 619, 622, 633, 647, 649호선 등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요지역과의 거리는 서울 102km, 부산 430km, 목포 326km, 대전 136km, 천안 66km, 서산 25km 거리에 위치함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8

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전국대비 비수도권 및 대전충남지역 사업체 총괄 현황

대분류	전 국		대전충남지역 제외 비수도권 ¹⁾		대전충남지역 ²⁾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농림어업(A00000)	105	0.5	49	0.7	16	1.1
광업(B00000)	64	0.3	28	0.4	6	0.4
제조업(C00000)	10,138	47.8	4,071	57.1	901	64.4
건설업(F00000)	1,459	6.9	575	8.1	79	5.7
도소매업(G0000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2,623	12.4	534	7.5	76	5.4
운수업(H00000):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수업 등	858	4.1	317	4.5	21	1.5
숙박 및 음식점업(I00000)	371	1.8	132	1.9	16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00000)	937	4.4	100	1.4	18	1.3
부동산 및 임대업(L00000)	2,481	11.7	604	8.5	143	10.2
기타 서비스업	2,162	10.2	713	10.0	123	8.8
합계	21,198	100.0	7,123	100.0	1,399	100.0

주 1 : 2014년 자료 기준이며 () 내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되었음(이하 동일)

주 2 :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및 충남 제외, 2) 세종시 포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생산성,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12에서 재인용

9

I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전국대비 비수도권 및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 현황

주요 중분류 업종	전 국		대전충남지역 제외 비수도권 ¹⁾		대전충남지역 ²⁾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000)	1,461	14.4	608	14.9	117	1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제조업(C26000)	1,198	11.8	278	6.8	101	11.2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000)	1,086	10.7	632	15.5	133	1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000)	745	7.4	265	6.5	79	8.8
1차 금속 제조업(C24000)	742	7.3	387	9.5	59	6.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000)	677	6.7	351	8.6	51	5.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000)	586	5.8	242	5.9	66	7.3
전기장비 제조업(C22000)	568	5.6	192	4.7	46	5.1
식료품 제조업(C10000)	495	4.9	204	5.0	68	7.6
기타	2,580	25.5	912	22.4	181	20.1
합계	10,138	100.0	4,071	100.0	901	100.0

주 1 : 2014년 자료 기준, () 내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주 2 : 1)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및 충남 제외, 2) 세종시 포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생산성,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12에서 재인용

10

I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사업체 총괄 비교

대분류	대전충남지역 ¹⁾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농림어업(A00000)	16	1.1	0	0.0	16	1.5
광업(B00000)	6	0.4	0	0.0	6	0.6
제조업(C00000)	901	64.4	162	46.6	739	70.3
건설업(F00000)	79	5.7	22	6.3	57	5.4
도소매업(G0000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76	5.4	28	8.1	48	4.6
운수업(H00000):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수업 등	21	1.5	7	2.0	14	1.3
숙박 및 음식점업(I00000)	16	1.1	5	1.4	11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00000)	18	1.3	12	3.5	6	0.6
부동산 및 임대업(L00000)	143	10.2	63	18.1	80	7.6
기타 서비스업	123	8.8	49	14.1	74	7.1
합계	1,399	100.0	348	100.0	1,051	100.0

주 1 : 2014년 자료 기준이며, () 내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주 2 : 1)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 2)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생산성,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12에서 재인용

11

Ⅲ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제조업체 현황

주요 중분류 업종	대전충남지역 ¹⁾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업체수	비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000)	117	12.3	29	17.9	88	1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제조업(C26000)	101	11.2	33	20.4	68	9.2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000)	133	14.8	12	7.4	121	16.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000)	79	8.8	15	9.3	64	8.7
1차 금속 제조업(C24000)	59	6.6	6	3.7	53	7.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000)	51	5.7	2	1.2	49	6.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000)	66	7.3	5	3.1	61	8.3
전기장비 제조업(C22000)	46	5.1	4	2.5	42	5.7
식품제조업(C10000)	68	7.6	9	5.6	59	8.0
기타	181	20.1	47	29.0	134	18.2
합계	901	100.0	162	100.0	739	100.0

주 1 : 2014년 자료 기준이며 () 내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 내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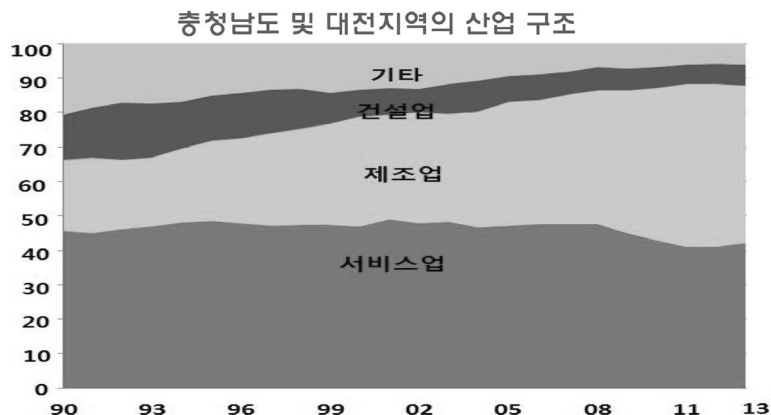
주 2 : 1)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생산성,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12에서 재인용

12

Ⅲ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제조업체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 2015.1

- 2015년 중 충남 및 대전지역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확장세가 과거와 대비 뚜렷하게 나타남
- 서비스업은 정체, 건설업과 기타 산업의 경우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

13

III 당진 지역의 위상과 현황

3. 당진시의 현황 : 당진시 사업체 총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394	9,982	10,774
농업 임업 및 어업	17	17	22
광업	7	8	8
제조업	730	799	9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11	1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	31	35
건설업	382	407	463
도매및소매업	2,317	2,437	2,556
운수업	823	770	944
숙박 및 음식점업	2,170	2,452	2,6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	29	33
금융 및 보험업	96	100	9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8	416	4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2	157	1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	126	1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	54	53
교육서비스업	363	361	3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	335	3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3	299	3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2	1,173	1,208

자료 : 당진시 통계BD(당진시청 홈페이지)

14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1. 한중 간 FTA 발효에 따른 22개 조항(양허 품목) 내용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1) 상품	7) 서비스	12) 지적재산권	18) 최초규정 및 정의
2) 원산지 (PSR 포함)	8) 금융	13) 경쟁	19) 예외
3) 통관·무역 원활화	9) 통신	14) 투명성	20) 분쟁해결
4) 무역구제	10) 자연인 이동	15) 환경	21) 제도
5) SPS (위생·검역)	11) 투자	16) 전자상거래	22) 최종조항
6) TBT (무역기술장벽)		17) 경제협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5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2. 한중 간 FTA 발효에 따른 효과 내용



▲ 한중 FTA 발효와 효과 내용

무역확대, 비용감소, 수송시간 단축, 비관세장벽 해소, 시장확대, 제도개혁, FDI(직접투자) 향만을 통한 수출입증가 시 중국측 화물증가로 지역화물운송 증가, 물류/창고업 호재 예상
특히 FTA로 향만의 물동량 증가 효과로 명실상부한 물류거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판단됨

16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2. 한중 간 FTA 발효에 따른 효과 내용

▲ 한중 FTA 체결(및 발효)에 따른 영향 검토

한중 FTA에서의 주목할 점

-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음
- 한중 FTA 경제협력에서 지방 경제 협력과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 관하여 포함됨

산업분야별로...

- 한국측 수혜는 작고, 오히려 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비금속광물 부문 개방 피해 예상
- 그러나 FTA 협정 전 우려한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은 한국에 유리한 결과라는 평가

한국 평균 관세율은 8.6%

-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의 관세율 평균(4.3%)보다 높아 향후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17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2. 한중 간 FTA 발효에 따른 효과 내용

■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항만업계의 기대와 전망

한중 FTA가 발효 시 관세 인하 등으로 교역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따른 물동량 증대 기대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의 득과 실

기계산업분야 한국 관세율 6.9%, 중국 9%로 양국 FTA로 관세 인하 후 교역 활성화 기대

쌀, 쇠고기·과실·수산물 등 640개 품목 협상 대상 제외하였으나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항만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 심각 ...

- 한중 FTA 활용, 수출 화물의 증대 위해 항만관련 제조업체의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 필요
- 남북교류 및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활용모델, 배후단지에의 FTA BZ 모델 개발 필요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2. 한중 간 FTA 발효에 따른 효과 내용

■ 한·중 FTA 활용 대응책은?

FTA 발효 후 중국 시장의 빠른 선점과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특히, 전자상거래 수요급증에 따른 항공물류인프라를 활용,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점화 필요

■ 원산지 인증 관련 업무 및 지식재산권 확보 시급

- FTA 관세혜택을 위해 외국어 서류 작업과 세계 규격에 맞는 까다로운 제품 공정 수행 필요
- 특히,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의 중요성 부상

■ 항만배후단지에 중국기업 유치 후 ...

- 한국과 FTA 체결하고 중국과 체결 않은 국가에 수출하는 모델 개발 필요
- 신규 부가가치 물류 BZ 수요창출,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 한·중 FTA 협정문 중 물류산업 및 경제협력부문 관련 내용 발췌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 3.2조 원산지 상품

원산지 판정의 세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을 규정

- 세가지 기본 원칙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충족을 전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

■ 한중 FTA 협정문 (직접운송 제3.14조)

- ① 제3국 경유 시 :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직접운송 인정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
 -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X
 - 분리, 재선적 또는 물품보존을 위한 필요 공정 외에 추가공정 X
- ② 제3국 일시 보관 시
 - 상품은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 일시 보관기간은 3개월 초과 못함 (불가항력인 경우 6개월까지 초과 가능)
 - 일시 보관된 국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비조작 증명서 등 입증서류 발급 필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 한·중 FTA 협정문 중 물류산업 및 경제협력부문 관련 내용 발췌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3.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3.7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법과 규정, 규칙 및 기준, 그리고 우수 관행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의 교류, 협력 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1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1. 한중 간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추진 유사 사례 -1

한국~중국 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본격화 중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역직구 산업 활성화 기대됨

(역직구 :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

항만 내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 배송되는 한국물품 준비 모습



해운선사의 카페리선이 중국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역직구 물품을 선적, 한국에서 중국항을 향해 출항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한 물류배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시간은 하루 더 걸리지만 비용은 40% 저렴
반면, 항공은 우체국 국제특송 EMS를 이용할 경우 1만5천~2만원/kg 이나, 카페리 선을 이용할 경우 6천~8천원/kg의 가격으로 이용 가능

22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1. 한중 간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추진 유사 사례 -2

아시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웨이고(WEGO)그룹, 사업 설명회 개최

중국 3대 분유 생산·유통업체 성원영양식품유한공사(聖元營養食品有限公司), 생활용품 제조기업 대상,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설명회 개최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웨이하이관에서 '웨이하이 문화산업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15.8.1)

중국의 물류 및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 중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 한·중 FTA 협정문 중 경제협력부문 관련 내용 발췌

제17장 경제협력

제17.20조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가.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 나.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적 협력 마련, 그리고
- 다.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마련

제17.26조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1.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4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2. 한중 간 지방경제협력 관련 사업 추진 유사 사례 -1

제17장 경제협력 : 제17.25조 지방 경제 협력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인천경제자유구역 - 중국 웨이하이시)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예상

□ 인천경제청은 8월 22일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8층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후이 웨이하이시 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웨이하이시(威海市)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인천경제청과 중국 웨이하이시, 4차례에 걸쳐 관광,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등 14개 분야에서 지방경제협력 협의 진행

□ 합의서 내용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양 도시 박람회, 투자 설명회 상호 참석, 통관·물류·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지방경제협력사항 (14대 분야 40개 프로젝트)

- 무역·전자 상거래 (5개 프로젝트)
 - 상호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상품전시관 운영
 - 상품 운송방식 발전, 물류 편리화 실현
 - 전자상거래 상품 세그먼트 확대, 전자세관구축, 통관시간단축, 임항물류시설 확충, 지불편리화 추진
- 투자, 산업, 과학기술, 금융 (9개 프로젝트)
 - 상호 설명회 참가, 투자 편리화 추진
 - 한·중(중·한) 산업단지 조성, 항만·항공 산업 활성화
 - 금융업무 협력, 산업기술 협력 강화, 기업발전 지원
 - 기술협력 프로젝트, 과학기술 공동연구
- 관광, 문화, 체육 (12개 프로젝트)
 -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상호 개최
 - 문화축제 참가, 문화교류체제 구축, 의료관광상품 개발
 - 문화창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트렌드 창조 등 교류협력
 - 체육대회 지원, 체육분야 교류협력 실시
- 의료·위생, 통관, 시험 검역 (12개 프로젝트)
 -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성형병원 설립, 미용
 - 의료세미나/의료단체 연수, 첨단미용분야 협력, 미용박람회 개최
 - 의료설비 및 의약품 수출입 확대, 의료기기 품질 상호 인증
 - 해상 간이통관시스템 구축, 해상운송 수출입 확대 지원
 - 공산품, 식품, 화장품 등 검사, 인증결과 상호인정 노력
 - 검사·검역기관 단축,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등
- 협력 방식 (5개 프로젝트)
 - 소관부서별 세부협약체결, 추가 협의 통해 시범협력사업 추진
 - 전담부서 설치 및 정기협의회 개최, 상호 대표처 설립 및 공무원 파견
 - 서비스 무역과 투자영역에서 시범사업 발굴(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도시)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PEZ) 보도자료, 2015.7.23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2. 한중 간 지방경제협력 관련 사업 추진 유사 사례 -2

제17장 경제협력 : 제17.26조 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 한·중 산업단지 경쟁적으로 설립

○ 한·중 FTA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옌타이(煙臺), 웨이하이(威海), 원조우(溫州) 등 동부 연해 지역 도시들이 잇달아 한·중 산업단지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항구도시인 산둥성 웨이하이, 칭다오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중산업단지 설립을 가속화

구분	지역	산업단지 유형	협력 분야
동부 연해 지역	웨이하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地方經濟合作開放試驗區)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물류, 헬스케어
	칭다오	한중혁신산업단지(中韓創新產業園)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학, 금융업, 영화산업, 첨단 헬스, 의료
	옌타이	옌타이 한중산업단지(煙臺中韓產業園)	첨단장비제조, 에너지·환경산업, 금융·보험, 문화, 의약품, 헬스산업
	지난	한중 첨단산업 협력시범구(中韓尖端產業合作濟南先行示範區)	신소재, 서비스무역,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옌청	한중 옌청산업단지(中韓鹽城產業園)	자동차, 서비스업, 스마트장비, 광전융합산업, 신에너지
	온조우	한중 산업단지(韓國產業園)	자동차 부품, 섬유 및 디자인, 소재, 전자, 광산업, 의약
동북 지역	다롄(진푸신구)	다롄 진푸신구 한중무역협력구(大連金普新區中韓貿易合作區)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광, 문화, 국제무역, 금융
	옌벤	한중연변산업단지(中韓延邊產業園)	헬스케어, 국제물류, 소프트웨어, 광섬유
서부지역	충칭(양장신구)	양장신구 한중산업단지(兩江新區中韓產業園)	제조업, 문화산업, 자동차, IT산업

자료 : 이슈분석(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중국산업경제브리핑, 2015년 6월호, 2015.06.24

III 당진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3-2. 한중 간 지방경제협력 관련 사업 추진 유사 사례 -3

인천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내에 중국 웨이하이시(威海市) 홍보·상품전시관(웨이하이관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을 설치

본 전시관(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중국 디샹그룹의 낚시·레저장비·의류 등 제품전시 중



사진1. 홍보관·상품전시관에 전시된 다양한 공예품

사진2.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 웨이하이시 홍보관·상품전시관에 전시된 다양한 낚시용품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1.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개최(2016.6.8[수])



❖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 지난 8일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비롯한 지사 성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1-1.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개최(2016.6.8[수])

❖ 공동선언문 합의내용

1. 한·중 지방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무역, 환경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고 민간부문의 교류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2. 한·중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설명회, 박람회, 포럼, 축제 행사 등의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한다.
3. 한·중 지방정부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는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4. 본 선언문은 한국어, 중국어 각 1부를 작성하여 양 협의회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劉正福),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리샤오린(李小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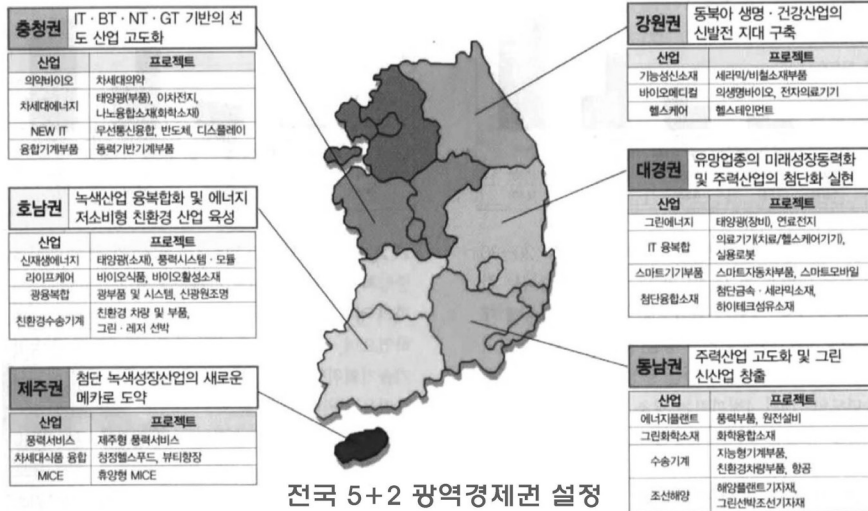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장 권영진(權泳臻), 전라북도지사 송하진(宋河珍), 충청남도지사 안희정(安熙正), 광주광역시장 윤장현(尹壯鉉), 강원도지사 최문순(崔文洵), 전라남도지사 이낙연(李洛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元喜龍)

시짱자치구 주석 뤼쑹장촌(洛桑江村), 산시성 선전부장 량구이(梁桂), 텐진시 부시장 자오하이산(赵海山), 허난성 부성장 왕옌링(王艳玲), 윈난성 부성장 허단치(和段琪)

29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2.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 경제산업개발계획 내용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30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2.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 경제산업개발계획 내용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 IT, BT, NT, GT 기반

구 분	산 업	프로젝트	유망품목
미래 성장 동력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 (부품중심)	셀/모듈 구성부품, 시스템/설치부품 (글라스, 기판, 타겟, 백시트, 리본, 필름, 케이בל 등)
		이차전지	단위셀 및 구성소재, BMS, 시스템구성부품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 기반)	나노코팅, 고기능 멤브레인, 고성능 촉매, 정밀화학제, 고기능 첨가제
	의약 바이오	차세대 의약	합성약품, 생물약품, 의약품소재, 진단용소재, 의료용소재, 동물약품
대표 주력 산업	New IT	무선통신융합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기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차세대D/P, D/P용 부품/모듈, D/P제조장비
	융합 기계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모듈 및 시스템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31

IV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2.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 경제산업개발계획 내용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전략

1. 충청권 대덕연구 개발특구에 집적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선도전략 산업의 기술개발 고도화 추진
2. 미래성장 동력산업
 -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협력 비즈니스 발굴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3. 주력산업
 - 제품고도화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추진
 - 현장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관련 기업의 제품화 및 생산능력 제고 지원
4.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유망 상품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광역선도산업 집중육성 및 추진 예정
5. 선도 전략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내외 연계 및 전후방 연락산업의 연계협력 촉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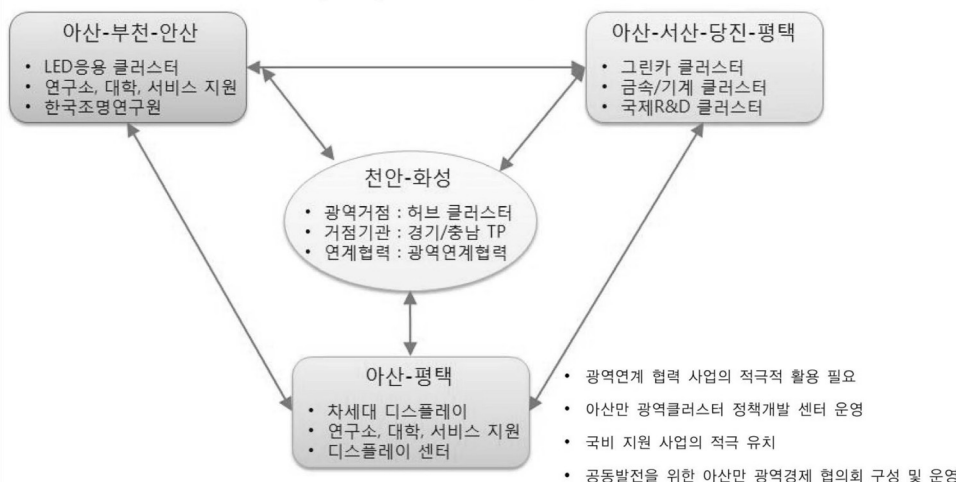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32

IV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2.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 경제산업개발계획 내용

아산만 광역경제권 산업적 연계발전 전략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33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2.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 경제산업개발계획 내용

아산만 광역경제권 산업적 연계발전 전략

■ 당진시 중점육성 산업

- 아산만 도시권의 중점 육성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물류기능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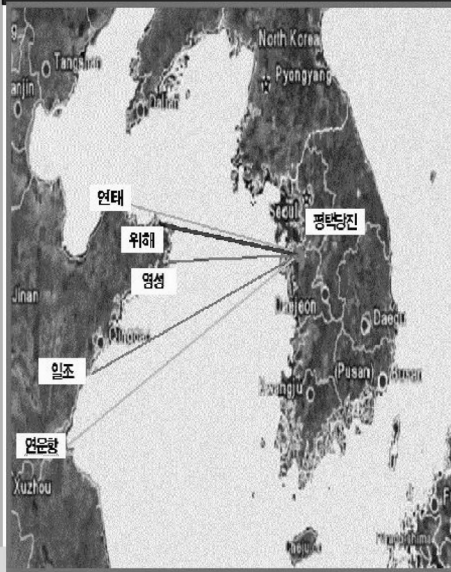
중점 육성 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후방산업 육성으로 수요 확대 • 철강 R&D 센터, 철강 금속소재 기반 구축 • 한중일 산업연계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 부지 조성 등 Infra 확충
물류 (당진, 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물류 클러스터 구축 • 마린센터, 글로벌 복합물류센터 조성

자료 :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2030

34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3. 평택·당진항 카페리 여객터미널 항로별 운항 일정



항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택 ↔ 연태	10:20 (入)		10:00 (入)		10:00 (入)		
	20:00 (出)		20:00 (出)		20:00 (出)		
평택 ↔ 위해		10:00 (入)		10:00 (入)		10:00 (入)	18:00 (出)
		19:30 (出)		22:00 (出)			
평택 ↔ 영성	09:00 (入)	20:00 (出)		08:30 (入)		09:00 (入)	
				20:00 (出)		20:00 (出)	
평택 ↔ 일조	11:30 (入)		13:00 (入)		14:30 (入)		
	17:30 (出)		19:00 (出)		21:00 (出)		
평택 ↔ 연운항	15:30 (入)			16:30 (入)			
	22:00 (出)				19:00 (出)		

< 자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http://pyeongtaek.mof.go.kr>) >

35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4. 당진항(당진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항만 활성화 전략

당진항(당진시) 지역의 산업 성장과 지속적인 육성 전략

-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추세에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인 하락 추정
- ✓ 충청남도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
 -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제조업 생산, 인구 등의 양적 측면에서 특히 높은 성장을 기록
 - 성장세의 사유는 대기업의 제조업 등 산업에의 투자와 인접한 중국의 성장세에 기인
 -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가져올 혁신체계의 구비 필요성 존재

당진지역은 질적 성장(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토록 해야 함

첫째, 생산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아닌 고부가가치 물류의 실현이 중요 기반이 되어야 함
 둘째, 고급 물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장예의 지원 정책 수립 필요
 셋째,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뉴노멀 전략과 한-중간 FTA 내용을 적극 활용
 넷째, 사회/경제적 부문에서 다양한 거너년스(협의체)를 설립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Ⅳ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4. 당진항(당진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항만 활성화 전략

당진항 (당진시) 관련 산업의 특징

- ① 중국과 무역(수입) 의존도 높음
- ②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위주의 생산에 따른 구조적 결함 문제
- ③ 관련 협력 / 원청기업(대기업 등)과 수직적 업무 협업 문제

정책적 대안 구상

중국발 저가격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향후 지속적인 산업 성장의 유지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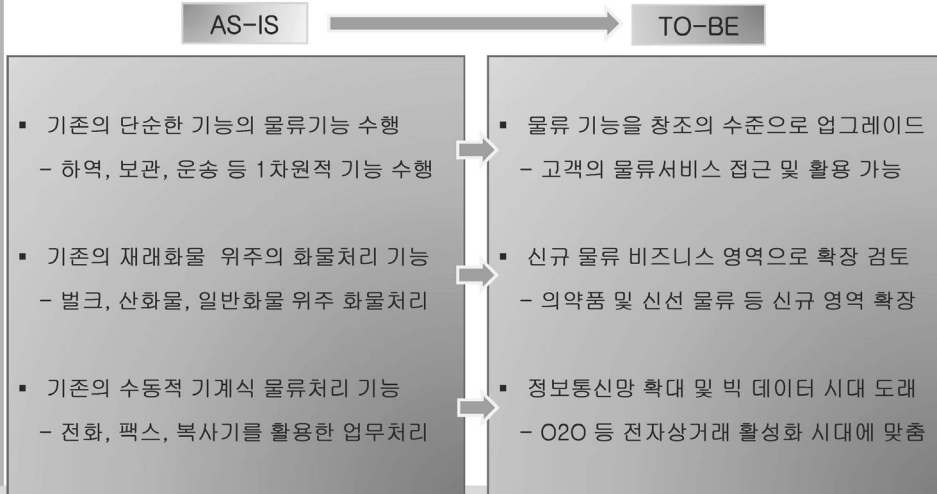
- 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의 발굴 및 생산
- ②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구상
- ③ 제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
- ④ 중국발 저가격 제품에 대응한 국내 제조업체의 사업구조 혁신 필요

- 중국의 제조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변화 등을 검토, 국내 제조산업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대중국 대응방안 마련 필요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기존 단순 기능의 물류에서 창조적 수준의 물류산업 영위 필요

□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AS-IS(현재의 위치), TO-BE(나아갈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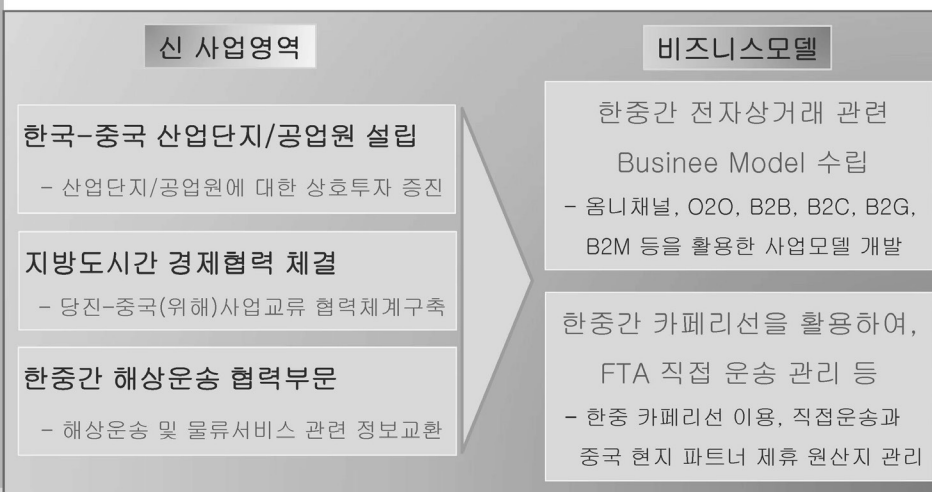


38

V 결론 및 정책 제언

2.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물류관련 조항에 대한 적극 활용 필요

□ 한중 FTA 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Business Model 개발!



39



감사합니다

[토론문]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서 수 완 ■ 동서대학교 교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홍승 박사의 발표는 항만과 도시는 어떻게 진화하며, 항만도시에게 항만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래서 항만은 과연 한 도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항만과 도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이고도 연역적으로 잘 풀어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표가 최근 국내 항만 중에서 물동량 증가속도가 가장 높은 당진에서 발표되어 당진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당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시사 하는 바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토론자로 저는 두 가지의 코멘트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최근 왜목항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당진항이 상업항만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레저항(마리나)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마리나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이야기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발표는 부산항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진지역에서도 당진항 항만관련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당진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정밀하게 산정된다면 향후 당진시가 당진항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자에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항만 관련산업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통계도 없고, 항만 관련산업을 정확히 분리해 내기도 어려워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사가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에서 강조된 항만 관련산업과 관련하여 당진항은 평택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있어 동일한 항만배후 관련산업들이 활동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항만관련산업들을 지역별로 분리해 내는 것이 사실 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토론문]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우 종 균 ■ 동명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교수 우종균입니다.

오늘 박창호 교수님의 발표는 한중 FTA 시대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당진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당진항 배후지에 당진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형 해양 Startup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에 협약 체결된 한중 FTA와 최근에 법률이 통과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서는 당진시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과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진시에 가장 적합한 해양산업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양 Startup을 육성해야 하는지, 혹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 적합한 선진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이러한 해양 Startup 육성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조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어떠한 조직 보강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당진시가 당진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가 당진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진시가 먼저 가칭 『해양도시 당진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서 당진시가 서해안의 선진 해양도시로 거듭 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이 재 원 ■ 부산테크노파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팀장

세계는 지금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경쟁을 하고 있다. 이른바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산업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는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부족 등 현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을 개척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과거의 내륙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도시들은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EU 등의 전통적 해양강국들은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해양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확대 및 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운·항만물류산업 등에서 이미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산업 국가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양산업은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양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 관점세어 해양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도약 기회로 활용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해양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선순환 구조화를 추진하며, 도시적 관점에서는 각종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5월 19일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만,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이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된 부분이 다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울성 교수의 발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추진방향은 국가의 해양력 강화를 통해 해양강국 도약 및 국부창출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시범구와 일본의 해양 집중화 전략 등 주변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항만이나 해양도시들을 클러스터화 하기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도시와 항만도시들이 연계된 해양산업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서, 각 권역별 특화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당진항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당진항과 배후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특화산업 여건, 지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표에서 기술하고 있는 당진항 배후단지에 특화된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클러스터도 하나의 대안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은 지역 및 기업단위의 투자나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해양과학기술 R&D 및 기술투자 등의 금융지원, 기업유치 및 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없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론문]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전 석 산 ■ (사)국제물류연구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제4주제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전석산입니다.

우선,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특히, “당진항 활성화 방안 모색”특별 세션 부문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본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주제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주제에서 언급되는 당진항은 이미 주제발표 상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지리적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에 속하는 항만으로 보통 평택항과 함께 평택·당진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당진항을 관할하고 있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당진항과 평택항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에 사실상 동일한 항만권역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정법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지역에 속하는 평택항과 비수도권지역에 속하는 당진항을 구분하여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더구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이 주제의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진시는 충청남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비교적 부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타 도시가 논과 밭, 임야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당진지역은 수출입과 연관된 산업적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당진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적 요소가 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본 주제와 연관하여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발표주제와 같이 과연 어떻게 하여야 미래지향적으로 당진항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하건데 미래지향이라고 하였지만 먼 미래의 전 세계 우주적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비교하여 한발 앞선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당진항의 위상과 당진시의 현황을 살펴본 것은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을 살피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미래를 대비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2장에서 현황을 살피고 3장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당진항 활성화 대책과 결론에서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비교적 무난한 내용 전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4장 대책(안)과 5장 결론 부문에서 본 제4주제의 발표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남습니다.

본 토론자가 발표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당진지역 즉, 당진항과 당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령, 36페이지 IV.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대책(안) 4. 당진항(당진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항만 활성화 전략 부분에서 맨 아래 거버넌스(협의체) 설립을 주장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와 구성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빠져있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결론부분에서도 방법적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기술이 되어있는데 몇 가지 실천적 사례를 예로 들어 제시하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가 발표자를 대신하여 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 가령 거버넌스의 경우 어차피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해야 하므로 비교적 인적 구성 요소가 뛰어난 당진시의 주도로 당진항 및 당진시의 중요 현안을 우선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구성해보는 것이 우선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구성되면 여기에 강력한 권한을 주어서 중요 사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 우선 거버넌스 즉,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실시만으로도 당진항의 활성화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분과 [특별]

화성 당성과 항해 실크로드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기동	한양대학교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실크로드 길	팀 윌리엄	런던대학교
황성 당성 제3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김기룡	한양대문화재연구소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화종	고려문화재연구원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상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북진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소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일교	수원여자대학교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성일 이병준	한양대문화재연구소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 실크로드	모이다	링보박물관
《管子》 “发 朝鲜之文皮”의 고고학적 탐색	왕 청	산둥대학교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효재	서울대학교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유전	前국립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 결상이식 분포와 교류관계	마쓰우라 유이치로	동경국립박물관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 기 동 ■ 한양대학교

1. 서언

경주가 실크로드의 대륙의 종점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음에도 경주로 연결되는 한반도 내의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역지방이나 대륙의 서편과 연결되는 교통로는 해로와 육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의 경로가 언급되었다. 고대에 해로로 경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나 또한 후대의 사신의 통로로서 연경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을 것이지만 한반도 중부 서해안의 거점이었던 당성과 경주와 연결되는 길은 바로 고대 실크로드의 일부로서 문화사적인 의미가 대단히 클 것임에도 아직도 그러한 접근이 없었다. 그래서 고대, 특히 당과의 교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고 그러한 교류를 토대로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던 고신라의 당성과의 연결 교통로는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일부로서 접근되어야 할 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근래 발굴에서 발견된 당자문기와와 존재는 이제까지의 자료와 함께 당성의 당과의 교역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차제에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2. 당성에 대한 기록에서 보이는 교류

당성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의 남양에서 중국과 교역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 등을 통해 볼 때, 당을 왕래하는 신라와 당 사람들은 대부분 서해안 항구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 예를 들면, 764년(경덕왕 23) 발해를 거쳐 신라에 온 당나라 사신 韓朝彩가 신라의 ‘西津’에서 당으로 들어갔고, 또 신라 말 선승 麗嚴은 영각산에서 내려와 서해 연안에서 당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다.

당시 연안의 항구로는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에 있던 당은포는 당시 가장 빈번히 이용되던 곳이다. <낭해화상비>를 보면, 無梁이 822년(헌덕왕 14) 당은포에서 출발하는 朝正使인 王子 金昕의 뱃머리 타고 입당한 기록이 있다. 반면에 당에서 신라로 오는 경우에도 산동반도의 등주에서 황해도 서단을 경유하여 신라로 입국하는데 있어 당은포는 해로의 최종 기착지였을 것이다. 賈耽의 『道理記』에 의하면, 당에서 신라로 들어가는 길은 등주를 출발하여 요동반도 서남단의 노철산을 경유,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속도, 마전도, 덕물도 등을 거쳐 당은포에 이르렀다가 육로를 따라 동남쪽으로 700리를 가면 신라 왕성에 이른다고 하였다.

3. 당성에서 경주에 이르는 교통로

당은포, 지금의 남양지역,에서 경주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2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당은포에서 한강 수로를 따라 충주에 도착하고, 계립령을 넘어 함창-상주-선산-경주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로로 죽산을 거쳐 충주를 거쳐 계립령을 넘는 길이다. 그리고 의상과 원효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청주에서 직산을 거쳐 당은포로 가는 육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길을 이용하였을 때는 당은포에서 평택-직산-청주-보은을 거쳐 상주-선산-경주에 이르게 된다.

아마도 고대에 지역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동과정의 다른 업무의 여부에 따라서 길의 선택과 방향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교통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교통로 이 외에도 조령을 넘는 길은 조선조에 영남과 기호를 잇는 가장 보편적인 길로 사용된 점에서도 고대의 길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 당성-경주간의 교통로 상의 산성과 주변지역의 설화

당성의 위치한 남양일원에는 중국의 당나라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에서 남양으로 건너온 8학자 이야기를 비롯하여, 최치원이 신라의 악관(樂官)을 만나 이야기, 당제산 이야기에서도 당성이 당시 중국과 통하는 해양루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효가 부석사를 창건하게 되는 설화에서 원효와 의상이 경주부터 당성에 이르는 길은 당시 교통로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송고승전에는 남양만의 당항성으로 가던 중 직산에서 폭우를 피해 무덤을 토굴로 알고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당시 직산지역이 현재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으나, 현재 평택과 천안, 안성지역의 일원

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 청주지역은 ‘서원소경’, 충주지역은 ‘국원소경’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다. 여기에서 두가지 루트가 추정된다. 하나는 청주와 보은의 화령 또는 영동을 지나는 추풍령루트이고, 다른 하나는 진천과 충주를 그리고 문경새재를 지나 상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청주의 낭성산성의 경우 우륵을 불러 연주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역시 청주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어서실의 유래’에서는 백제와의 접전 중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왕이 직접 작곡산성에 방문하여 잠깐 앉았다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는 당시 보은 또는 김천에서 추풍령을 넘어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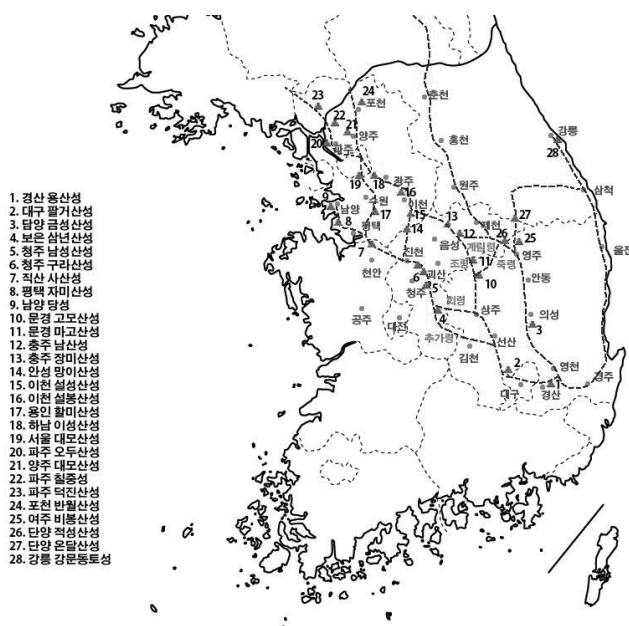
보은의 경우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있듯이 당나라 사신을 영접하기도 한 장소로서 당에서 당은포를 통해 보은까지의 교통로로 경주에서 보은까지의 교통로가 연결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설화가 김알지에 대한 설화이다. 경주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충북 보은 또는 청주의 인물로 백제에 밀려 경주로 넘어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문무왕릉 비문에는 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성한(김알지의 아들로 추정)왕이 15대조라고 되어 있다. 이야기의 진실이 어떠한지 여기에서 지금의 충북지역과 경주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충주와 문경을 잇는 지역은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통로서의 설화가 매우 많다. 이 지역은 진평왕 9년(587) 대승사의 창건에 대한 설화부터 후백제 견훤과 관련된 설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토끼비리’길에 대한 설화까지 다양하다. 고대는 물론 이전부터 충청과 경상도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설화적 관점에서 신라의 경주에서 당항성까지의 고대길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주에서 상주까지 신라의 영토였으며, 상주-문경-충주-진천(안성)-직산-당은포로 이어지거나, 둘째는 상주에서 보은 또는 영동-청주-진천-직산-당은포로 이어지는 길이다.

5. 남양과 경주의 고대 교통로의 고고학적 자료

삼국시대 신라가 당성을 차지하게 되는 군사적 의미의 북진로가 이후 통일한 신라의 지속적인 “당은포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도 북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고대산성의 축조 및 수축기록으로 보는 것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삼국사기』기록을 통해서 볼 때, 신라에서 축조한 산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약 100여 개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성곽은 200여 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북진을 하면서 축조되거나 개축되는 산성들을 중심으로 경주에서 당성까지의 루트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1] 경주-상주

번호	산성명	둘레	시대	주요유물	특징	비고
1	경산 용산성	1,400	삼국시대	신라토기편, 기와편	·경주 외곽의 방어선으로서 역할 추정	경북기념물 134호
2	대구 팔거산성	1,120	5~6세기경	신라토기편, 기와편	·선산방면의 교통로와 직접연관된 산성 ·인접한 구암동고분군에서 대구 모의 신라고분 확인	대구가념물 6호
3	상주 견훤산성	650	삼국	신라토기편, 기와편	·과산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연관 ·보은산성과 축조기법이 유사	경북기념물 53호
4	상주 자산산성	1,680	687년 사벌주 성 추정	'官', '八', '可上' 등의 와편	·화령을 통해 보은으로 통하는 교통로 상 위치	

경주에서 북진을 하는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상주이다. 경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신라의 경우 상주는 북진을 위한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표 1). 왜냐하면 현재도 서쪽으로 추풍령의 통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듯이 당시에 교통적으로 주요한 거점이다.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상주의 중요성은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매번 등장하게 된다. 결국 경주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루트는 영천에서 산악지역인 의성과 안동을 거치거나 상주에서 문경을 거쳐 죽령을 거쳐 단양에서 남한강을 따라 올라가게 된다. 아니면 여기에서 내륙으로 계림령으로 거쳐 이천과 광주로하여 북진한다(표 2).

[표 2] 문경 남한강+내륙 루트 : 상주-문경-조령-충주-음성-이천(여주)-광주-서울

번호	산성명		둘레	시대	주요유물	특징	비고
1	문경 고모산성		1,300	470년경 추정	목기, 신라토기, '沙伐' 명 청동완 등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 ·5세기 지하구조물, 7세기 저수지 등	
2	문경 마고산성		750	470년경 추정	신라토기편, 기와편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 ·고모산성과 함께 축조되었다는 설화	
3	충주 남산성		1,145	6세기 중엽	신라토기편, 기와편	·문경새재를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	충북기념물 31호
4	충주 장미산성		2,940	4세기~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 토기편, 기와편	·남한강변 교통거점 ·557년 국원소경 설치와 관련 추정	사적 400호
5-1-1	내륙	이천 설성산성	1,095	5세기 초	백제토기류, 신라 토기류, 기와 등	·충주-이천-광주를 잇는 내륙교통로	경기기념물 76호
5-1-2		이천 설봉산성	1,079	? 백제	백제토기류, 동경, 청동기류, 신라토기류, 기와 등	·충주-이천-광주를 잇는 내륙교통로 ·6세기 중반 신라에 의해 개축	사적 423호
5-2	남한강	여주 파사성	1,800	6세기 중반	단각고배, 오각형 화살촉 등	·충주-여주-광주를 잇는 남한강 주요 거점성	사적 251호
6	하남 이성산성		1,925	6세기 중반	단각고배	·내륙과 남한강의 교통로 위치	사적 422호

그리고 다른 북진로는 상주에서 추풍령을 넘어서 청주로 가는 서북루트와 조령을 넘어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북방루트의 길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당성은 서북루트 중 추풍령을 지나거나, 혹은 현재의 청주-상주가 고속도로가 놓여있는 화령을 거쳐 청주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다(표 3).

실제 당시 상주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산성으로 보은에 삼년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삼년산성은 둘레가 약 1.6km에 이르는 대형의 산성으로 신라가 북진을 통해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중요한 거점산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실제 삼년산성의 위치는 신라에 있어서 현재의 문경새재가 위치한 조령이나 영주의 죽령을 넘는 것보다 북진을 위한 중요한 입지를 점유하게 된다. 이후 청주의 길목에 우륵과 관련된 낭성산성이 있으며, 구라산성과 두타산성을 거쳐 진천의 대모산성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북으로 망이산성과 설성산성, 설봉산성, 이성산성까지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진천에서 안성-용인-강남으로 북진하는 루트도 상정할 수 있다(표 3-1).

당성까지의 루트로는 청주에서 직산의 사산성을 거쳐 당성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에 열리게 된다. 평택 서해안 지역의 자미산성으로 비롯한 산성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당시 해

안가를 통한 교통로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 의상과 원효의 설화에 직산으로 거쳐 당성에 이르게 되는데, 진천에서 직산과 평택을 거쳐 당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즉 경주-대구-상주-보은-청주-(진천)-직산-평택-당은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주의 “당은포로”이다(표 3-2).

[표 3-2] 보은-진천 서해안 루트 : 청주(진천)-진천-직산-평택-남양

번호	산성명	둘레	시대	주요유물	특징	비고
1	직산 사산성	테외식 750 포곡식 1,030	5~6세기	백제, 고구려 토기 편, 단각고배, 기 와류 등	·청주(진천)과 서해안을 잇는 교통로 ·6세기 후반 신라사용	충남 기념물 104호
2	평택 자미산성	582	6~7세기	단각고배 등	·청주(진천)과 서해안을 잇는 교통로 ·서해안을 따라 주변 4개의 성 위치	경기가념물 203호
3	남양 당성	테외식 760 포곡식 1,200	6세기 중반	唐자명 기와 단각고배 토제마 등	·당은포과 관련된 성 ·경주의 당은포로의 종착점 ·7세기~8세기 중축	사적 217호

고대 신라의 북방진출로는 이전 시기는 물론 통일신라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성에서 출토되는 중국관련 자기들은 물론, 청주 운천동에서 발견된 중국적 요소가 담겨있는 신라의 불교관련 비문은 당시 경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서의 보은-청주-직산-평택-남양을 잇는 교통로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이다. 신라의 통일 이후 중국 문물의 수입은 당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대의 교통로를 따라 경주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6. ‘당은포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고대 신라의 교통로의 이용은 크게 통일 이전과 통일이후로 나누어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이후에는 당시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을 한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해 남부지역의 항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은포로’에 대해서는 통일이전에서는 크기 2개의 루트로 하나는 가장 짧은 코스로 경주-대구-상주-보은-청주-(진천)-직산-당성과 다른 하나는 조령과 계림령을 경우하는 경주-대구-상주-문경-충주-안성(진천)-직산-당성이 다. 이 두 가지 루트는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권이 미치는 곳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용되었을 것이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자이동이 가능해지고, 당성에서 충주까지 한강을 이용하여 여주-단양-충주를 잇는 루트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 두가지의 교통로와 그 이외의 길에 대해서 고대 신라에서 화성의 당성까지 연결되는 교역루트로서 실크로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재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COMOS Thematic Study and the eastern Silk Roads

팀 윌리엄 ■ University College London

Abstract:

A strategy for the serial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was developed during the ICOMOS thematic study of the Silk Road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 and complexity of the land routes from East Asia (central China - Xi'an/Luoyang), through Central and Southern Asia,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It examined the complexity of movements and impacts, identifying numerous 'corridors' of movement, often through different ecological areas and characterised by differing socio-cultural responses. This suggested a strategy of dividing the Silk Roads into a number of more manageable serial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properties, based on the corridors, but linked by an overall concept. The strategy was designed to allow nominations to progress at differing paces,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two or more neighbouring State Parties; but still within the ethos of trans-national cooperation that lies at the core of this endeavour.

The original thematic study recognised that more work was needed to elaborate the eastern land routes, especially those through eastern China, Korea and Japan. It also raised the issue of the interrelationship of land and maritime routes, pointing to the interconnection of the two in coastal areas and the crucial articulation of

these systems through production, supply and redistribution demands. This paper will briefly explore the nature of the Silk Routes in East Asia and raises some issu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maritime routes. It will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extending the Silk Roads nomination strategy into Eastern Asia, raises some heritage management issues, and considers the question of whether to extend the thematic study.

화성 당성 3차 발굴조사 성과와 전망

김 기 룡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조사팀장

I. 서언

화성 당성은 삼국시대 항쟁의 중심지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써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1년 사적 217호로 지정되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당성은 최초 백제의 당항성으로 고구려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이 일대가 당성군으로 불리다가 신라의 의해 점유되면서 대당교류의 물고를 트고, 삼국통일의 위엄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1998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당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되었으나, 2012년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2015년 다시금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성에 대한 연구가 새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3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여 당성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며, 향후 당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과 이 성곽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화성 당성의 현황

화성 당성은 경기 중부 서해안 남양만의 구봉산(2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과 남양지역 일대가 모두 조망되는 곳이다. 이 산성은 역사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당항성으로 이후 고구려가 점유하고 마지막으로 신라의 의해 점유되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 장에서는 화성 당성의 역사적 배경과 고고학적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역사적 배경

화성군 역사기록은 삼국시대에 시작된다. 삼국 중 마한은 약 54개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남양만 일대(현 비봉·남양·마도·송산·서신·팔탄면 일대)에 원양국(爰襄國)에 위치하였으며, 가장 먼저 백제에 편입되어 ‘黨項城’으로 불리워진다. 이 후 고구려가 백제의 당항성을 점령하고 이 지역은 ‘당성군’으로 개칭되어진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경덕왕 16년(757)에 백제·고구려의 영토를 포함해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로 통합하였다. 이때 당성군은 당은군으로 개칭되면서 쌍부(雙阜)·정송(貞松)·안양(安陽) 등 3개의 현을 관할하였다. 그 후 헌덕왕 14년(882)에 이르러 당은군은 현으로 격하되면서 이듬해에는 수성군(水城郡)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신라 흥덕왕 4년(829)에 다시 수성군에서 분리되어 당성진(唐城鎭)이 되었다. 당성진은 해안요지의 수비, 해적의 퇴치를 위해 설치되었던 군진의 하나로 당성진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던 패강진이나 청해진의 경우처럼 뚜렷하게 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세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방세력가에게 군사력을 제공하는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시대에 당성의 정상부에 위치한 망해루지에 대한 중수가 이루어지는데, 고려 말에 남양부사로 재임(在任)했던 해주인(海州人) 정을경(鄭乙卿)이 1391년경 망해루를 신축(新築)후 목은선생(牧隱先生)이 지은 ‘남양부망해루기’가 남아있다.

2. 고고학적 현황

화성의 당성은 정상부의 테뫼식 산성이 축조된 이후 계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 산성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에 문지를 비롯한 내부의 망해루지 추정지를 비롯한 집수시설,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1차 성벽

당성의 1차 성은 2000년 구봉산 정상부 북서편 성벽과 2015년 3차 발굴조사에서 1차 성 남서편 성벽구간이 조사되었다. 이 성은 구봉산 정상부를 포함하여 남서편으로 능선의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축성 방법을 보면 표토를 제거하고 ‘L’자 형태로 굴토하거나 풍화 암반을 층단식으로 정지하고 바닥에서부터 장방형의 석재를 바른 층으로 쌓아 올리면서 장방형 할석으로 뒤채움

을 하며 쌓았다. 석축 성벽 기저부의 두께는 5~6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체성벽 구간은 비교적 정연하게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여 쌓았다. 성돌의 크기는 너비 30~40cm, 두께 20cm 내외이며, 너비와 두께의 비율은 1:2~1:3 정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인된 유물 중 1단 투공이 있는 단각고배류와 외반구연 완 등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의 유물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기와의 경우에서 이와 같은 시기의 태선문기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명문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唐'자명 기와가 출토되어 당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 당시 성벽 외면의 바닥면에서 확인된 목탄의 AMS 결과 6세기 말 ~ 7세기 초의 연대가 확인되었다.

2) 2차 성벽 (토석혼축성)

구봉산 정상부를 남서쪽에서 감싸안으며 정상부를 최고점으로 능선으로 따라 북편과 남편으로 이어지며, 현재 당성의 입구에서 만나고 있다. 전체 규모는 약 1.2km이다.

1·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 기저부의 폭은 660cm이며, 잔존하는 최고 높이는 300cm이다. 성벽은 경사면을 따라 지반을 정지하고 중심 토루가 지나는 양쪽의 기단석렬을 배치하고 성벽 외면에 영정주와 협판을 사용하여 내면과 수평이 되도록 판축한 후 그 위부분에 다시 판축을 하여 체성부를 조성하고 기단석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외편으로 띠를 이루듯이 깔아놓은 후 체성부에 덧붙여 경사진 외피판축으로 토성벽을 마감하였다. 중심 토루 판축 구간의 기저부의 내외면 수평 다짐층은 점질토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북쪽 성벽의 경우 그 위부분에는 점질토 사이사이에 회백색을 띠는 판축층이 확인된다. 성벽 바깥쪽은 석축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간에 따라 석축의 높이와 축조방법이 다르게 확인되고 있어 후대에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지는 2개소 확인되었는데, 북문지는 주변 체성벽은 토성으로 구축하고 문구부 양쪽은 석축으로 마감하였다. 성벽의 형태는 개석식이며, 성문의 너비는 260cm이고 문구부 성벽의 너비는 840cm이다. 문구부의 외벽에서 270cm 안쪽에는 문초석이 확인되었다.

서문지는 길이 3m, 폭 90cm로 부정형의 할석을 편평하게 바닥에 깔고 역시 부정형의 할석을 안으로 면을 맞추어 1단으로 쌓아 올렸다. 성벽 바깥쪽으로 3단의 석렬의 면을 맞추어 쌓아올린 뒤, 뒷부분을 부정형의 자연석들로 채웠다. 바깥쪽으로는 암반 위에 일정높이 만큼의 성토 후 성내의 암반가루와 점토를 이용해 토축부를 형성하였다. 성벽의 중심부는 적석유구 위에 토축부를 형성하였고 다시 1m 가량 앞쪽으로 3단의 기단석렬을 쌓아 올린 개방식의 문지이다.

3) 성 내부 시설물

구봉산 정상부에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의 방향은 N-35°-W로 현재 당성의 성벽과 나란하다. 평면구조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장축(남북)은 640cm, 단축(동서)은 630cm로 방형이로 초석가 거리는 약 210~220cm이다. 초석간 거리는 당척(唐尺)이 아닌 고구려척(高

句麗尺)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남서편 기단 렬 외곽으로는 약 70cm의 단을 이루고 있으며, 서편으로 계단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기단 시설은 담장렬 형태로 두 줄의 석렬이 위치하고 있으며, 초석이 기단렬 내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 바닥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토기와 기와편들이 확인되었다.

망해루지 추정지에서 남서편 구봉산 정상부의 남쪽 평탄지에서 팔각건물지를 비롯한 온돌 구조와 배수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사되었다. 팔각건물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석렬의 형태는 지름 약 3.5m 가량의 1단의 석렬이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고 내부에 현재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면 장방형의 석렬이 180cm×120cm의 크기로 다시 조성되어 있다. 석렬 주위로 파괴된 적심으로 추정되는 3기 가량의 적석과 주초로 사용되었을 만한 대형 석재들이 확인되었는데, 적심의 위치로 볼 때 팔각형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당성의 동편 계곡부 하단부의 평탄지에서는 4개 이상의 구조가 노출되었다. 유구는 편서 43도 방향으로 축조되었고 온돌구조가 2개, 배수로 혹은 비슷한 성격의 유구 1개, 방형유구 1개 등이다. 이외에도 건물의 축대와 계단이 노출되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 2차 성 동편의 곡부의 평탄면에서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전체 규모는 석축의 내측면 기준 동-서 9m, 남-북 14m 이다. 방향은 장축의 방향이 정북방향에서 약 5°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평면형태는 서쪽 석축의 중앙부가 볼록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장방형에 가깝다.

집수시설의 북편은 풍화암반을 'L'자로 깎아서 조성하였으며, 남편의 경사가 낮은 지역은 매립토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석축을 하였다. 집수시설의 석축은 여러 번 개축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집수시설의 남동편으로 출수부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실되어 하부구조만 확인되고, 동쪽의 성벽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집수시설의 북동편 약 6m 이격된 곳이 연못지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길이는 450cm×450cm이다. 방향은 정북방향에서 45°기울어져 있다. 연못지는 5~7단의 석축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닥은 암반을 이용하였다. 석축은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2단 혹은 3단까지는 바로 쌓기를 하였고, 상부는 못지의 안에서 밖으로 내어쌓기가 되어 있다.

집수시설 주변으로 철기생산관련유구가 확인되었으며, 그 규모와 구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주변지역에서 10cm 내외의 철재들이 확인되어 철기생산과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요 발굴유물

당성 조사에서는 2,000여점이 넘는 수의 기와, 토기, 자기, 철기들과 같은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기와들은 평기와를 비롯한 막새류 기와들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다수의 명문기와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1차 성벽에서는 당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최초의 고고학적인 증거인 '唐'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의 명문은 장판을 이용하여 겹면을 돌아가면서 찍었는데, 글자의 좌우가 바뀌어 있다. 건물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大官', '舍官宅' 자명 기와와

연호를 나타내는 ‘丙午’자명 기와를 비롯하여 다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1차 성벽에서는 고식의 태석문계열의 기와들의 출토빈도가 높이며, 망해루지에서는 고식의 태선문을 비롯하여 선문계열과 어골문 계열의 기와들의 빈도가 높으며, 조선시대 기와들은 상부의 퇴적층에서 만 확인되고 있다. 집수시설과 연못지에서는 선문과 어골문 계열의 출토빈도가 높이며, 상부의 건물지에서는 수파문의 출토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토제품으로는 토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기들은 건물지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발류, 완류 그리고 고배류의 토기들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특이한 토기로는 망해루 추정지의 주변 건물지에서는 그릇의 밑 부분에 지름 약 12cm, 높이 6cm의 빈공간을 두고 바닥면의 구멍을 뚫어 시루처럼 사용한 접시가 다수의 통일신라시대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망해루지 추정지에서는 다수의 토제마가 출토되었는데, 몸체부가 확인되는 기형의 크기는 약 15cm~25cm까지 다양하며, 그 형태도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부터 형태만 만든 것까지 다양하다. 이들 토제마는 한결같이 머리 또는 다리 부분이 찢려져 있는 특징이 있다.

자기들 중에서는 집수시설과 연못지 바닥면에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이른시기 자기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고운태도를 사용하여 기벽이 얇게 만든 중국 자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집수지 주변의 철기생산관련 유구 주변에서 10cm내외의 철재들과 석축을 비롯하여 용도미상의 석제품들도 확인되었다.

Ⅲ. 화성 당성의 역사적·고고학적 의미성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 장에서는 3차 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당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성벽의 축조시기

화성 당성의 2차례에 걸쳐 축조된 성곽이 확인되었다. 국내 산성들 중에 이러한 산성들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곽들은 대형의 토축성곽에서 소형의 석축성곽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당성의 경우 정상부의 테뫼식의 소형의 성곽에서 후대의 포곡식의 대형의 토석혼축성곽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거친다.

그리고 그 중심연대는 출토되는 기와와 토기편으로 볼 때, 1차 성벽은 6~7세기로 2차 성벽은 7~8세기로 추정되었는데, 금번 3차 발굴조사 확인된 목탄시료의 연대측정결과 1차 성벽은 AD 560~650으로 2차 성벽은 중심토루의 경우 AD 720~740, 외곽 석축은 AD 885~1015로 측정되었다. 출토유물과 연대측정 결과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이 연대값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현재 산성의 축조는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다는 점, 둘째, 역사기록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하면서 산성을 축조하고 통일 이후 행정구역을 확

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해상활동에 중요 요충지로서 활용되었다는 점 등의 역사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1차 성곽의 내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백제시대 축성하였다는 기록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앞으로 4차 조사에서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신라 이전의 성곽이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대당 무역의 항구도시로서의 당성

당성에서 출토된 토제마는 일반적으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망해루지는 서해 바다가 조망되는 당성의 가장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망해루지 남편으로 2차 발굴조사 당시 8각 건물지가 확인되기도 하여 제와 같은 의례 행위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토제마는 이러한 행위의 자료일 것이다.

토제마의 경우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라와 가야에서는 산성 뿐 아니라 무덤에서 말모양 토제품이 부장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당성에서 확인되는 토제마의 경우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여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례와 관련된 행위의 유적은 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제사를 지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의 죽막동유적이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물로 중국에서 제조된 자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기들은 송나라 지방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자기들 역시 중국과의 교역의 하나의 증거이다. 당성에서 멀지않은 대부도 육곡고분에서는 중국의 봉니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당성이 위치한 남양일원은 고대 항구도시로써 기능을 하였으며,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서안으로 온 서양의 문물은 산둥반도에서 황해를 건너 당성에 이르고, 여기에서 경주까지 그 길이 이어져왔을 것이다.

IV. 결론 : 화성 당성의 미래 비전

화성 당성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년 올 해에도 4차 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역사기록에 남아있는 백제와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당성이 역사에 기록된 당항성으로써 증거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성에 대한 조사만으로 당성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라의 황해해상교류를 통한 실크로드의 한반도 기착점으로 보다 폭넓은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한다.

첫째, 당성에 대한 발굴조사와 더불어 주변지역 항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경우 항구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이는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이유이겠지만, 화성 당성의 3차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볼 때 이에 대한 조사가 당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당성의 정비 및 활용이다. 고고유적에 대한 보존을 위해 정비는 필수적이지만, 현대 유적의 보존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유적 보존과 가치의 인식을 위한 활용적 접근 역시 중요하다. 현재 화성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존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제의 협조없이 이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당성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적의 정비는 물론 박물관 및 관련시설과 인원의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당성은 고대 한반도 실크로드의 서해상을 통한 문화교류의 원천지로서 그 의미성이 있다. 이는 환서해안 지역의 고대의 문화 핵심지역으로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서해안시대의 문화원천의 중심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 화 종 ■ 고려문화재연구원

1. 한국 성곽 유적의 정비복원의 이슈

한국은 ‘산성의 나라’(반영환 2000)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산성유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곽유적은 축성재료, 입지,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축성 재료에 따라서는 목책성, 석성, 토성, 토석혼축성, 입지에 따라서는 평지성과 산성, 기능에 따라서는 도성, 궁성, 읍성, 재성, 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성곽유적은 대규모의 선적형태를 지닌 특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단계적 관리가 필요한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홍곤·최기수 201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곽유적은 관리와 보존에 있어 기존의 다른 고고학유적과는 다른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인 틀에서 다루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역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일반 지침’을 2009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런 성곽유적은 1970년대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의 큰 흐름이었던 ‘호국선현과 국방유적’ 정비에 따라 정비복원이 시작되었고(김봉건 2006, 29-30), 1990년대 이후 고고학 발굴조사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는 유적의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고고학 유적을 사회적 자원으로써 활용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곽유적 역시 다양한 정비·복원 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곽유적은 여전히 관리와 활용에 있어 다양한 이슈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성곽 유적의 관리는 정비복원이라는 명칭아래 성벽과 성 내부시설에 대한 복원, 보수 등의 정비복원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비복원 아직까지 복원, 복구, 보수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없어 정비복원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성벽의 경우 정비·복원된 성벽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아마도 첫째 정비복원에 사용된 재료의 문제이다. 석성의 경우 성벽의 석재는 이미 조사이전 이미 붕괴되어 있거나, 일부는 정비복원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발굴조사과정에서 일부 제거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석재들은 정비복원에 재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는 사용된 기술의 문제이다. 성벽의 축조는 당시 가장 최고의 건축기술이 사용된 무형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복원 역시 성곽유적의 정비복원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시간적 중복을 가진 유구의 선택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산성유적은 장기간의 사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성, 수축, 개축 등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곽 유적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모습으로의 정비복원이라는 대원칙이 있지만, 정비복원 대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곽유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모로 인해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계적인 정비복원의 부분의 선택부분이 있다.

결국 성곽유적의 정비복원은 유적이 가진 현재의 보존 상태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 고고학적 정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 김포 문수산성(남벽)
발굴조사 전 광경



[사진 2] 김포 문수산성(남벽)
발굴조사 후 전경



[사진 3] 김포 문수산성(남벽)
정비복원 후 전경



[사진 4] 김포 문수산성(남벽)
정비복원 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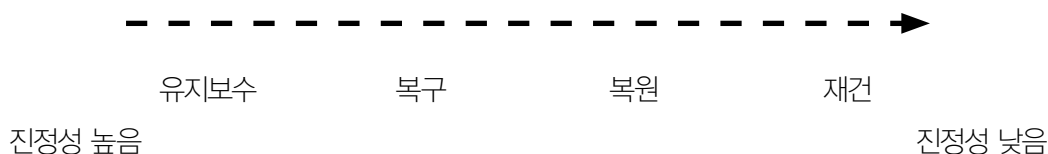
2. 고고유적의 정비복원에 있어서의 진정성(Authenticity)

성곽유적 뿐 아니라 정비·복원된 고고학 유적의 논쟁의 중심에 항상 언급되는 것이 진정성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관련 전문가 사이에 ‘진정성을 가진다’ 혹은 ‘진정하지 않다’의 이분법적인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에서는 진정성은 마치 ‘진실과 거짓’ 혹은 ‘맞는 것과 틀린 것’의 의미로 인식된다(Jokilehto 1995:18 and Lowenthal 1995). 그러나 유적이 가진 진정성을 단순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ICCROMOS 1995 Nara Charter 10-11조). 최근의 유적을 정비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유적을 보호하기 위함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고고학 유적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적의 진정성 논의는 단순히 전문가간의 논쟁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판단기준 역시 논쟁에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ohen (1979)의 유적의 진정성을 방문자의 입장에서 ‘authentic experience’, ‘staged authenticity’, ‘denial of authenticity’ and ‘contrived authenticity’의 4개로 구분하였다. Timothy (2003, 240)는 일반인들은 주변여건이나 유적이 방문객을 위해 만들어 지고, 방문자들이 원래의 형태로부터 이를 구별해 내지 못하는 ‘staged authenticity’에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주장했다. 성곽유적의 정비복원이 고고학 유적의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비복원의 진정성은 정비·복원된 성곽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의 시각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고고학 유적의 정비복원 작업

고고학 유적의 정비복원에서 흔히 ‘보수’, ‘정비’, ‘복원’, ‘복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런 정의의 부재는 결국 정비복원의 결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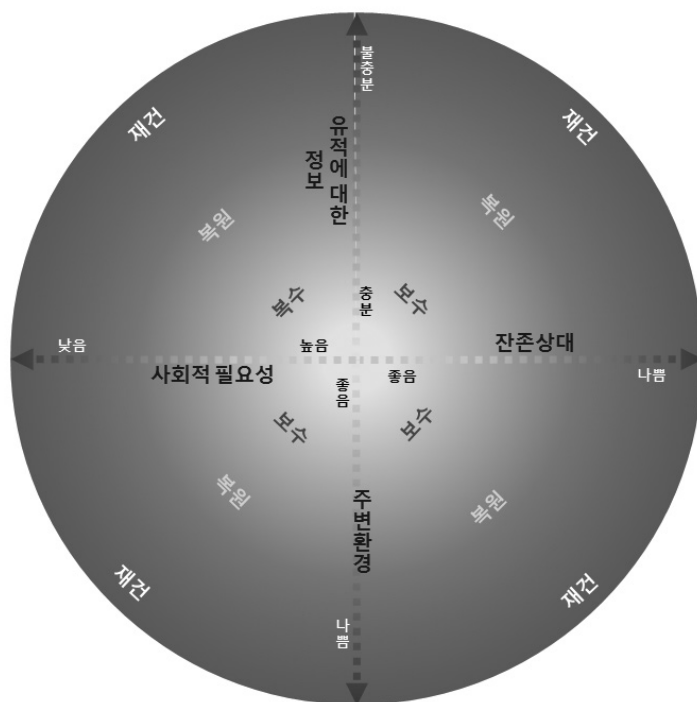
논의에서 이분법적 진정성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이분법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유적의 정비복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쉽게는 유적의 진정성이 잘 유지된 경우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만이 필요할 것이며, 진정성이 많이 훼손된 경우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그림 1).



[그림 1] 고고학 유적의 진정성에 따른 정비복원 작업

이러한 유적의 진정성과 정비복원작업의 성격의 정의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것은 어떻게 진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물리적 보존상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 정비복원 작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고려 대상이 있다. 정비복원 작업을 위해 유적의 조성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유적의 정비복원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유적의 정비복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얼마나 있는가? 등일 것이다. 정비복원의 대상 유적에 대한 정보는 현재의 유적의 진정성이 부족하더라도 보다 진정성 있는 정비복원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유적의 보존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유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정비복원 작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유적의 보존상태와 정보에 더불어 현재 유적이 가진 조건 역시 정비복원 작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적의 주변환경이 도심이거나 혹은 오지의 경우에 따라 정비복원에 가능여부 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대상과 함께 최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적에 정비복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혹은 욕구이다. 최근 일반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문화유산에 동등하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정비복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성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결국 고고 유적의 정비 복원은 현재의 잔존 상태 뿐 아니라 그간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포함한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유적의 현재 상황과 사회적 욕구 및 필요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비복원 작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복원 작업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고고학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고고학 유적의 정비복원 작업 결정 개념

4.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성곽유적의 정비복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모로 인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를 위해 법적인 제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비복원을 위한 연구(김홍곤·최기수 2012 등)는 성곽유적의 정비복원에 개관적인 평가 기준의 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성벽을 중심으로 정비복원에 대상구간을 정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이어지는 정비복원작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곽유적의 성벽은, 특히 산성유적의 성벽은, 지점·구간에 따라 다양한 잔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동일한 성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축성 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금번 연구대상인 ‘당성’은 1차 석성에 이어 2차 ‘토석혼축’으로 증축된 양상을 보인다. 1차 석성벽 역시 지점에 따라 다양한 보존상태를 보인다. 결국 동일한 구간 내에서도 잔존성벽의 차이는 정비복원작업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고학 조사를 통해 정비복원에 앞서 축성법에 대한 필수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결국 성곽유적의 성벽에서 구간별 그리고 지점별로 어떤 정비복원 작업의 - 유지보수, 복구, 복원, 재건- 선택에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 예를 들어 진정성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사진 5] 1차성 남벽 트렌치 2



[사진 6] 1차성 남벽 트렌치 1



[사진 7] 당성 1차성 북편 성벽 노출모습



[사진 8] 발굴조사 후 노출된 1차성벽



[사진 9] 2차 토축성벽 광경



[사진 10] 2차성 동벽 노출 전경



[사진 11] 당성 2차 성벽 복원 모습

5. 결론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성곽유적의 활용성 등으로 인해 성곽 유적에 대한 정비복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와 함께 정비복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논쟁 역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고학 및 고고학자들은 정비복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역할 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고학 유적을 관리하는 이유는 유적이 가진 고고학적·역사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역시 성곽 유적의 보호와 함께 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고고학 혹은 고고학자들의 역할은 이러한 성곽유적에 대한 정확한 고고학적·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잘 창출하는 것까지가 고고학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역시 고고유산의 관리라는 개념 안에서 고고학 전문가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

김홍근, 최기수, 2012,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술지 Vol.30. No.1.

김봉건 2006 복원과 문화유산 보존정책, 황룡사복원국제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반영환 2000, 한국의 성곽, 교양국사편찬위원회 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양대학교박물관 2001, 당성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6, 당성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 해외

- Cohen, E. 1979. Rethinking the Soci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6(1), 18- 35.
- Lowenthal, D. 1995. Managing the Flux of Authenticity, In Larsen, K.E. (ed.) *The ICOM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henticity*,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369-370.
- Jokilehto, J.1995. Authenticity; a general framework for the concept. In Larsen, K.E. (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henticity*.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17-34.
- Timothy, D and Boyd, S. 2003. *Heritage tourism*. Pearson Education Limited, UK.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 상 현 ■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I. 서론

당성은 삼국이 쟁탈했던 요충지이며 특히 신라에게는 폐쇄적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당과 교류하는 중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신라는 당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군사적으로 연합하여 통일의 초석을 닦은 거점도시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30여 편의 1차 문헌이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당시 신라에 있어서 당성을 포함한 남양만 일대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 조사를 통한 출토유물의 검토는 당성이 신라 실크로드 관문으로서 항구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중 명문기와는 당성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며 특히 ‘?宅’ ‘唐’명 기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당성의 진위문제를 해소할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망해루지에서 출토된 토제마와 2차 성벽 출토된 철제마는 이곳에서 원거리 항해가 이루어졌고 순항을 기원하는 의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송대로 추정되는 중국산 자기의 출토는 당성에서 이루어진 교역의 시기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성의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고대 신라에 있어 남양만의 항구도시로서의 성격과 당성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고대 항구도시로서의 당성

고대 항구도시로서의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윤명철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다(윤명철 2001, 2003, 2012). 성립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이 발달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항구와 부두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군사력과 해양방어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당성이 위치한 남양지역은 어떠할까?

첫째, 남양만 일대의 교통로는 삼국사기에 언급되어 있듯이 ‘당은포로’가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루트를 알 수는 없지만,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축조한 산성들을 살펴보면, 당성이 있는 남양지역으로 대구 팔거산성 - 상주 자산산성 - 보은 삼년산성 - 청의 상당산성 - 진천 대모산성 - 안성 망이산성 - 직산 사산성 - 평택 자미산성 - 남양 당성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산정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대량의 물자를 수송할 때에는 남한강 수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당성 인근의 마산포에서 조운선이 한양까지 수송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다.

둘째, 양질의 항구와 부두시설이다. 당성 인근에 신라에서 사용하던 당은포가 위치하고 있었다. 실재 당은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다. 그러나 경기만 일대의 지형은 리아시식 지형이 발달하였고, 항구와 같이 들어오는 길목은 좁고 내부는 넓은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어 천연적인 항구로서 양질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당성 인근의 포구를 살펴보면, 당성 인근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큰 포구로는 마산포이다. 당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당성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경기좌도 좌수영이었던 화랑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당성의 서편 능선 말단부로 은수포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당성의 동편 상안리 마을에도 과거 물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포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군사력과 방어체계이다. 고대에 산성은 방어적인 역할 뿐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행정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광주 2003, 2012). 남양일대에 있어 당성을 비롯한 주변의 성들은 이러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주변의 성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당성은 서해안 방어체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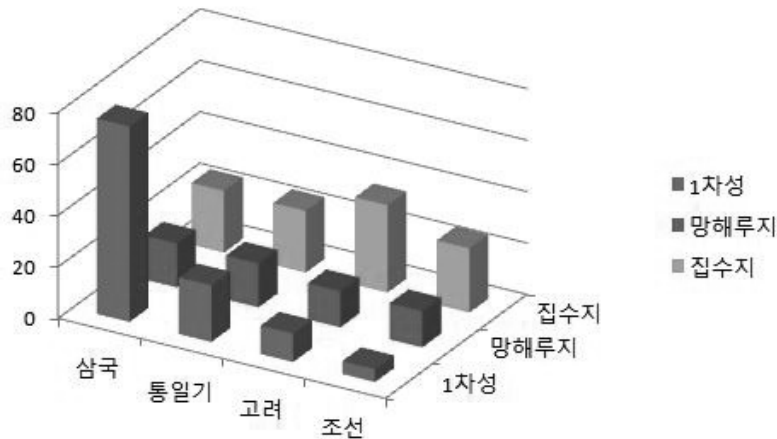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당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하여 항구도시로서의 당성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Ⅲ. 출토유물을 통해본 당성의 기능

1. 행정중심지로서의 당성

당성은 1998년 1차, 2000년 2차, 2015년 3차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와, 토기, 자기, 토제마, 청동합, 석촉, 철제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고 그 비율은 기와와 토기가 압도적으

로 높다. 그 중 기와는 사용시기와 주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와의 명문을 통해서도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필 수 있다. 당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크기, 두께, 고판문양, 마포흔의 형태 등 제작수법을 기준으로 제작 및 사용 시기를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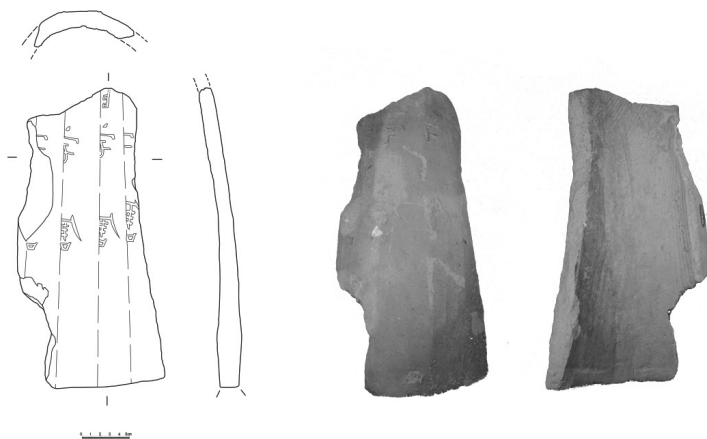


[도면 1] 당성 출토지별 평기와 비율

다음으로 명문기와는 통일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확인되며, 특히 연호명, 간지명, 지명, 관청 등의 명문이 등장하여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충해 줄 역사적 사료의 가치를 지니므로 본 고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단,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파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명문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1차 성벽 북벽에서 “O宅” ‘唐’자 명문이 장판으로 반복적으로 타날하여 전사된 기와가 출토되었다. 1차 성벽의 체성 외곽의 기와집적층에서 확인된 이 기와는 협단부가 파손되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지만 광단부와 좌측면에 원형이 남아있다. 통일기의 제작양식을 보이며, 다른 기와에서 확인되는 명문과 비교하였을 때, ‘O宅’명의 앞자는 ‘官’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명문 기와 이외에도 ‘館宅’, ‘官’자명 기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체적인 명문이 ‘官宅’ ‘唐’으로 이는 지명을 반영한 官廳 명으로 판단된다.

‘唐’자로 보아 이 기와의 출토지가 唐城임을 입증하는 고고학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당향성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되면서 당성군으로 개칭되고 이후 신라가 점유하므로 당성을 당향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당향성이 당성이며, 당성의 위치는 이 기와의 명문을 통해 현재의 당성이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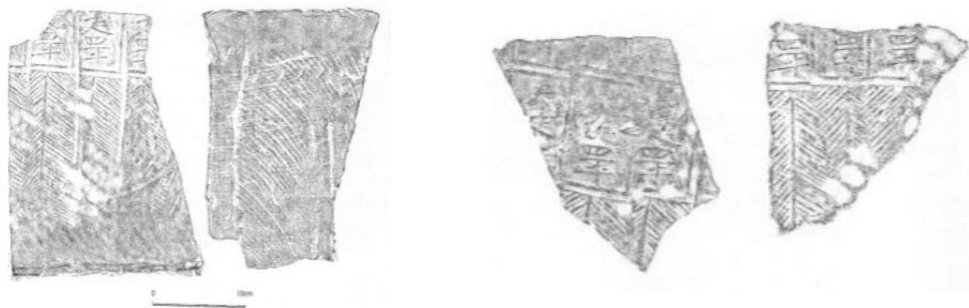


[도면 2] ‘?宅唐’ 명 수키와

[사진 1] ‘?宅唐’ 명 수키와

다음으로는 ‘官’ 또는 ‘館’ 자명 기와이다. 1~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이 명문의 기와들이 확인되었는데, 고대 ‘官’자명 기와들은 사찰이나 행정중심 건물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순철 2002). 그리고 ‘大官’명 기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육조(六曹) 가운데 창조(倉曹)의 관직으로 당성이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사 유적으로 알려진 팔각건물지는 고대 고구려의 집안에서 확인되고, 신라의 나정과 하남 이성산성, 이천 설봉산성, 용인 할미산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유적은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며(최광식 2007), 고대 제정일치의 정치체제에서 이러한 건물은 국가의 중요건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당성은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곽이었을 것이다(배기동 2012).

그리고 2차성 북문지에서 출토된 ‘泰定四年’명 암키와다. 태정 4년은 고려 1327년으로 현재까지 연호명 평기와의 출토된 유적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군사 요충지역, 사찰과 같은 종교건물, 관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차순철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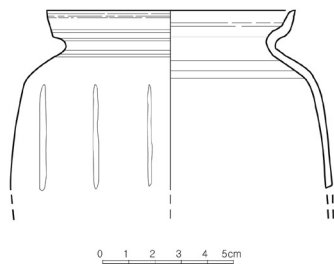


[사진 2] ‘泰定四年’ 명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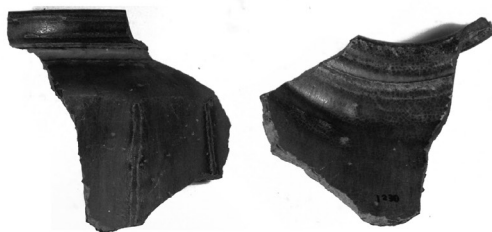
2. 무역중심지로서의 당성과 당은포

고대 당항성과 당은포는 사신 및 승려들이 해상을 통해 중국의 당나라로 가는 거점이었다. 행정적 중심지로서의 당성은 이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팔각 건물지와 함께, 망해루지에 출토된 다수의 토제마가 그것이다. 국내의 산성에서 소량의 토제마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죽막동 유적, 광양 마로산성, 월출산 제사유적 등 해상을 통한 교역지에서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해상 교역에 있어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는 제의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유병하 1998, 최광식 2006, 박중환 2010). 당은포에서 중국의 산둥지역으로 가는 선박에 있어 당성에서 의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3차 발굴조사에서 연못지와 집수시설 내부에서 중국 송대로 추정되는 자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당성 연못지에서 출토된 각병으로 송대(10-13c)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 보다 이른 시기의 부안 죽막동에서 이미 5-6c에 해당하는 중국산 자기가 출토된 바 있다(유병하 2002). 이후 완도 청해진에서는 9c대 중국산 자기가 출토 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당성에서 출토된 중국자기는 고대에 해상교류의 거점 산성으로서의 증거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당성에서 약 6km 떨어진 옥곡고분군에서 11-12c대로 추정되는 봉니가 출토 되어(배기동 외 2002) 경기만 일원의 중국 해상교류의 거점으로서 당성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다.



[도면 3] 집수지 출토 중국자기편



[사진 3] 집수지 출토 중국자기편

Ⅲ. 결론

당성은 중국과 해상교류에 있어 기착점으로서 고대부터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성 일원이 해양도시로서의 기능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1~3차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당성의 해양도시로서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당성은 단순히 산성으로서의 방어적인 기능뿐 아니라 행정치소로서 의례의 장소로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증거들

이 명문기와와 토제마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교역의 증거품으로 중국산 자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사기에 기록은 신라를 중심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신라와 관련된 유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부터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사용 주체는 백제 시대부터 당성이 해항도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신라가 사용한 이전의 자료들이 수집되고, 장기적으로 포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남양일원이 고대부터 당성을 중심으로 한 해항도시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배기동, 2012,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으로서의 당성, 화성 당성 국제학술심포지엄, pp. 3-10
- 심광주, 2003, 南陽灣 一帶의 城郭과 唐城의 歷史的 位相, 화성 당성 국제학술심포지엄, pp. 129-169
- , 2012, 황해의 문화교류와 당성, 화성 당성 국제학술심포지엄, pp3-10
- 유병하, 2002, 「해양교류와 고대 제사유적-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해양교류의 고고학』, 제2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59-78
- 윤명철, 2001, 「한강 고대 강변 방어체제 연구-한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6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 2003, 「국내성의 압록강 방어체제연구」, 『고구려 연구』 15집, 고구려연구회
- , 2004, 「고대 한강 강변방어체제연구 2」 『鄉土서울』 64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최광식, 2007,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서울
- 車順喆, 2002, 「「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第5輯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 청해진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8, 『唐城』 1차발굴보고서, 화성군
- 한양대학교 박물관, 2001, 『唐城』 2차발굴보고서, 화성군
- 한양대학교박물관, 2002,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1, 안산군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북진로

—당항진 확보와 활용을 중심으로—

서영일 ■ 한백문화재연구원

1.

신라는 경주 평야의 소국 사로국에서 출발해서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서북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신라가 서북방향으로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늘리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경주 일대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대외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동해를 통해서 일본 및 연해주 일대와 교통은 편리하지만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교류는 장애가 있었다. 신라와 중국간의 교류는 고구려나 백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정치와 문화적인 발전이 뒤쳐졌던 원인이기도 하다.

4세기 이전 신라(사로국)는 김해가야와 경쟁하며 낙동강 하구 일대 일본과의 교역 거점을 확보하기에 주력하였다. 또한 삼척으로 추정되는 실직(국)국을 복속하는 등 주로 동해안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 일대와 연안해로를 점차 장악하면서 북방교역을 통한 국가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4세기 전반 경 낙랑과 대방이 소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해 연안해로의 해상권은 고구려와 백제가 각축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서해 연안해로의 영향력은 대체로 백제가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4세기 말경부터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서해를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각축하면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중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북방루트를 통한 교류를 택하면서 고구려-신라(동해안), 백제-가야(서남해안) 등으로 일종의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다.

신라와 고구려의 밀착은 신라에게 고구려를 통한 대외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되면서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상실해가는 원인이 되었다¹⁾. 서해안 지역에서도 광개토왕이 집권한 이후 고구려의 우위가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5세기 전반 경에 이르면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부적인 혁신을 단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백제와 연결되면서 나제동맹이 결성되었다.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5세기 후반에 이르면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빈번한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다²⁾.

신라가 중부지방(소백산맥 이서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5세기 후반부터이다. 475년 백제 한성이 고구려에 의하여 함락되고 뒤이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한강 유역 일대는 고구려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다. 한강 유역과 연결된 경기만과 주변 서해안 일대 역시 고구려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에게도 국가적인 위기였다. 나제간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었고 고구려에 남진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고구려의 남진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신라가 본격적으로 지방에 산성을 축조하고 교통로를 정비하는 것이 이 시기부터이다.



[그림 1] 신라의 발전방향과 한반도의 해양요충지

5세기 후반 신라는 두 방향에서 고구려에 대응하면서 중부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영동지역 및 죽령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해당되는 영서

1) 실성왕과 눌지왕의 왕위교체에 고구려군이 간섭하였던 사례나 눌지왕의 형제인 복호를 인질로 데려가는 등 고구려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또한 『일본서기』, 『중원고구려비』 등에는 신라에 고구려군이 주둔하였던 흔적도 보인다.

2)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와 고구려는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충청북도 남부 지역에서 항전을 펼쳤다.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구려로 통하는 지름길로 고구려군의 남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비봉산성(순흥)을 축조하여 이 지역의 거점으로 삼고 점차 소백산맥 북서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다른 하나는 상주와 보은 일대이다. 이 지역은 추풍령이나 화령을 통해서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또한 백제와 연결되는 교통로로 나제동맹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교두보였다. 삼년산성(보은), 일모성(문의) 등 산성을 축조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481년 살수지원(청주부근)에서 나제 연합군이 고구려를 격퇴한 이후 신라는 청주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기 영서지역에서도 고구려와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하슬라(강릉)에서 역부를 동원하여 니하(정선)에 산성(송계리산성)을 축조하였다. 5세기 후반경에 신라는 보은 일대와 죽령 일대를 거점으로 중부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와 교두보(산성)를 확보하고 있었다.

2.

6세기 전반 신라는 우선 영동지역을 기반으로 영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정선 송계리산성, 정양산성 등을 축조하여 남한강 상류 지역에 대한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최근 정양산성과 정선 아우라지 일대 조사 결과를 보면 5세기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신라토기가 산성과 주거지(마을)에서 출토되고 있다. 늦어도 6세기 초에는 신라가 이 지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강릉지역에서도 강릉 경포에서 신라 군사유적(토성)이 출토되었으며(경포 현대호텔부지 조사)³⁾ 이 일대는 이미 5세기 경에 신라화된 지역이었다⁴⁾. 영동 지역은 고구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신라가 북방교역로로 활용해 왔던 지역이다. 영서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영동지역을 거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점차 신라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반면에 보은-청주 일대는 백제와 접경지대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세력이 교차되는 곳이었다. 삼년산성, 일모성 등 5세기 후반에 신라 군사거점이 확보되었으나 6세기 중반까지 신라의 진출이 소강상태에 놓여 있었다⁵⁾. 이 지역에서 신라 북진은 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50년 금현성과 도살성 전투이다. 금현성은 현재 진천 일대로 추정되며 도살성은 증평 이성산성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6세기 전반 내내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상쟁하던 곳을 신라가 점령하였다.

3) 경포 현대호텔 부지 해안 구릉지에 위치하며 '강릉 강문동 신라토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부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4) 강릉지역의 신라주거지 조사 결과 출토된 신라토기로 보면 빠르면 4세기 말에서 늦으면 5세기 전반경에 신라가 이 지역을 영역화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삼년산성은 자비왕대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신라의 영향력이 일찍부터 미쳤던 곳이다. 하지만 소지왕대에 일선군(선산)지역의 역부를 동원하여 삼년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가 실제적으로 금강 상류 지역에 진출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550년 충주 탄금대 토성으로 비정되는 낭성에 진흥왕이 순수하였고⁶⁾ 551년 백제와 더불어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격퇴하였다. 신라는 이 때 10군을 고구려로부터 공취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죽령에서 고현(철령)에 이르는 강원도 영서지역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남한강 상류 및 북한강 상류 지역이다. 사실 이 지역은 이미 5세기 말부터 신라의 영향력이 서서히 확대되었던 지역이었다⁷⁾. 551년의 10군의 대부분은 이미 6세기 전반경 신라의 영향력이 미쳤던 곳이었다. 단양 적성산성(단양 신라적성비)을 거점으로 죽령로(죽령-단양-제천-원주-홍천-춘천-철원)를 통해서 신라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0군 공취는 실제적으로 신라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다만 충주, 진천 등 거점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와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553년 신라는 백제의 영향 하에 있었던 한강 유역 일대 6군을 기습 점령하였다. 나제동맹을 해체되었고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신라의 기습적인 백제 공격의 이유는 신라가 서해안에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554년 충북 옥천으로 추정되는 관산성에서 신라군이 백제의 3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한강 유역은 완전히 신라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관산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 신라는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빠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흥왕의 북한산순수를 기점으로 현재의 서울(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역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더불어 당항진을 개발하여 대중국교역의 모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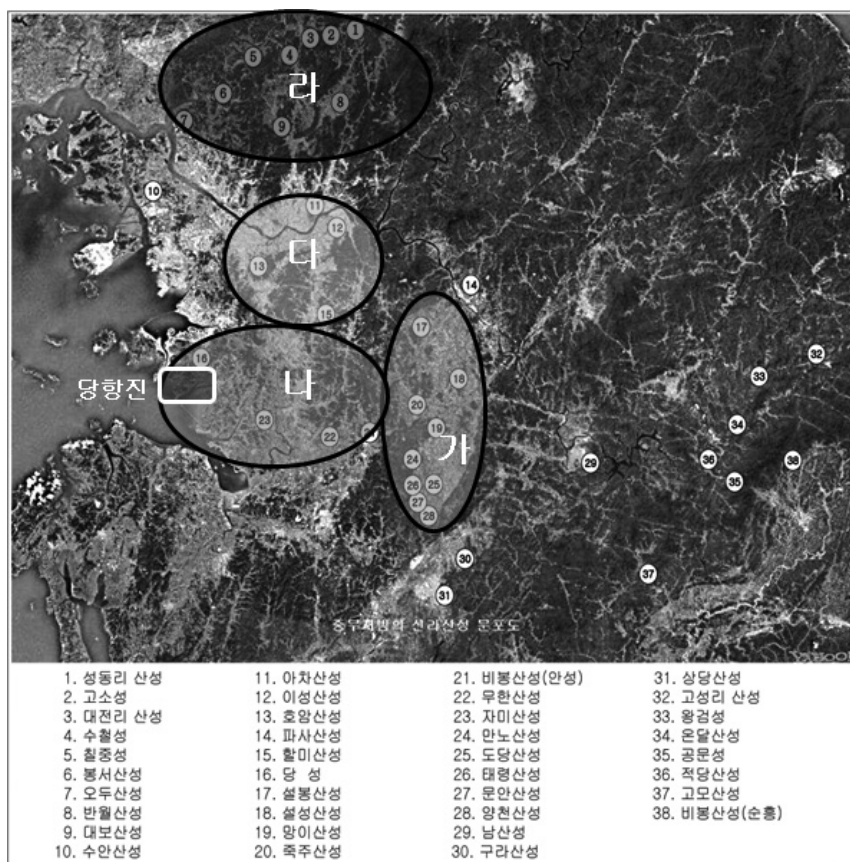
6세기 후반 신라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다수의 산성을 축조하여 군사와 행정의 거점으로 삼았다. 현재 알려진 신라 산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당항진을 중심으로 그 배후에 대체로 3개의 산성군이 형성되어 있다.

가 지역은 청주-진천-이천에 이르는 지역이다. 진천 지역은 청주 지역과 함께 백제와 접경지역이면서 서라벌(경주)에서 현재 서울(한산) 방면과 당항진(남양만) 방면으로 가는 중간 거점이다. 보은 삼년산성에서 상당산성(31번)과 구라산성(30번)을 거쳐서 죽주산성(20번) 설봉산성(17번)에 이르기까지 남북방향으로 산성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청주에서 진천사이에는 산성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서 이 지역이 군사적 방어의 핵심지역임을 보여준다. 이는 백제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

6) 낭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청주부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 정선 아우라지 등 남한강 상류지역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신라토기가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다⁸⁾. 실제로 6세기 후반 백제의 산발적인 신라 공격은 이 지역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죽주산성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죽주산성은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축조된 신라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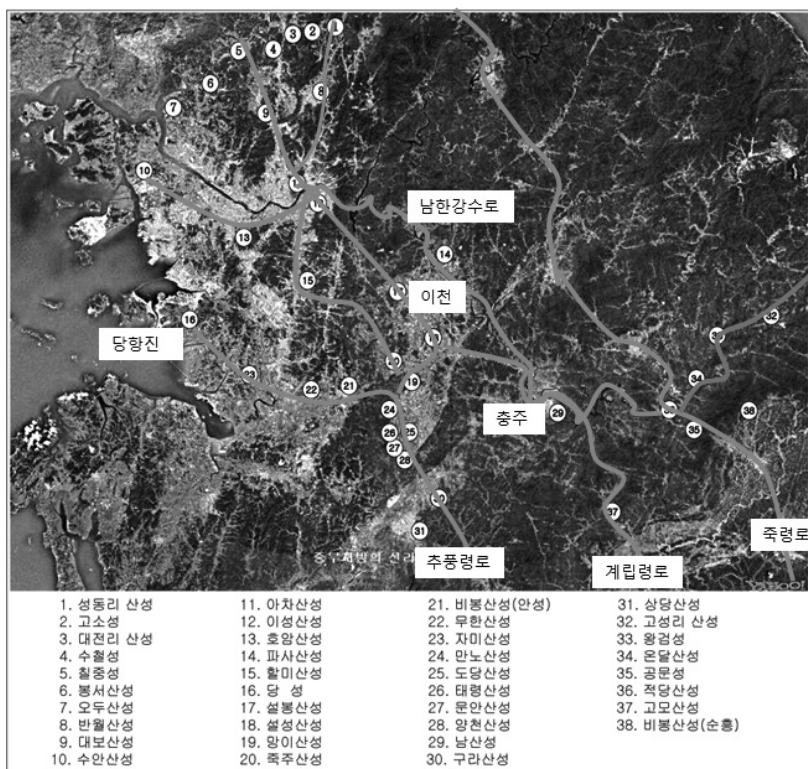
[그림 2] 중부지역 신라산성과 당항진

나 지역은 동서방향으로 산성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번 죽주산성이나 진천 지역에서 당항진으로 가는 교통로와 관련되어 있다. 서라벌에서 당항진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천안방면에 거점을 두고 있는 백제군이 직산-안성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삼국사기』 소나전에는 소나의 아버지 심나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 경 이 지역 거점인 안성(백성군, 비봉산성 또는 무한산성)을 거점으로 사산현(직산)에서 백제군과 교전했던 기록이 있다.

8) 6세기 후반 관산성 패전 이후 백제는 신라를 산발적으로 공격하였다. 그 전투지역에 대한 지명 비정은 구체적으로 어려우나 관산성을 포함하여 보은 청주 일대 등 추풍령로의 요지로 추정한바 있다.(줄지,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1999.)

9) 기단 보축의 축조방식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죽주산성의 기단보축은 단면부채꼴형태의 기단보축으로 함안 성산산성, 문경 고모산성, 보은 삼년산성 등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직전의 기단보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지역은 서울과 용인지역으로 북쪽에서 당항진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고구려가 신라의 당항진을 육로로 공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통로이다. 신라의 당항진 방어 핵심 거점 및 한산주 지배의 거점이 바로 이 지역이다. 신라군이 한강일대에서 고구려군은 막지 못하면 당항진의 배후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중간 용인 할미산성이 그나마 당항진 배후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할미산성의 조사 결과를¹⁰⁾ 보면 6세기 후반경에 축조되어 7세기 초반까지 적극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폐성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림 3] 중부지방 신라 산성과 교통로

라지역은 아차산성, 반월산성, 대모산성 등의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7세기 전반 이후에 신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는 6세기 중반 이후 중심연대가 설정되는 한강 이남의 신라 산성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603년 북한산성(아차산성) 전투, 629년 낭비성(반월산성) 전투 등에서 신라가 승리한 이후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고 산성의 활용이 본격화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산성 배치와 관련하여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로를 설정하면 그림 3과 같다. 신라

10)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용인 할미산성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구와 유물로 보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 교통로 정비는 군사적 진출과 관련하여 정비되었다¹¹⁾. 그 최초의 기록은 5세기 후반에 나타난다. 『삼국사기』 소지왕조에 “관도를 정비하고 우역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5세기 후반은 신라가 소백산맥 일대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구축하였던 시기였다. 순흥 비봉산성, 보은 삼년산성, 문의 일모성 등이 축조되었다. 경주에서 이들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추풍령로, 죽령로)가 정비되었다. 6세기 중반 국원소경(충주)이 설치되면서 서라벌에서 국원소경에 이르는 교통로(계림령로)도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군 공취와 함께 죽령로는 영서지역으로 확장되었다¹²⁾.

553년 이후 서라벌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는 신라 교통로는 크게 두 방향의 루트가 정비되었는데 하나는 서라벌에서 당항진에 이르는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한산주에 이르는 통로이다. 이들은 당시 신라가 방어거점으로 축조하여 활용한 산성을 통해서 대강의 노선을 짐작할 수 있다. 도로의 개척과 관리는 병부에서 담당하였고 이것이 병부에서 분화되어 승부, 선부 등이 설치된 것은 통일기 이후이다. 이는 교통로의 개척과 관리가 병부에서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신라 산성은 신라 간선교통로를 따라서 배치되어 교통로의 안전한 확보와 중심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4.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대중국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에서 가장 핵심지역은 당항진과 그 배후의 방어거점인 당성 일대이다. 6~7세기 중부지방 신라산성 분포를 보면 이 핵심지역을 방어하는데 적절하게 방어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부지방 신라산성의 발굴결과를 보면 6세기 후반에 축조되어 활용된 산성들은 대부분 한강이남 지역에 위치한다¹³⁾. 이를 지도에 옮겨보면 그림 4와 같은 선을 설정할 수 있다.

6세기 후반 고구려는 돌궐, 수 등과 대결하면서 남쪽 국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6세기 말 이후 신라가 적극적으로 수·당과 연결되자 남쪽 국경에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였다. 고구려는 우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당항성(진)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한강을 중심으로 방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온달의 출정 이후¹⁴⁾ 보다 적극적으로 한강 이북으로 진출을 단행하였고 630년을 전후로 임진강 일대에 방어체

11)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정복국가의 등장은 교통로의 개척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군사활동과 신점령지의 지배를 위해서는 교통로의 정비와 유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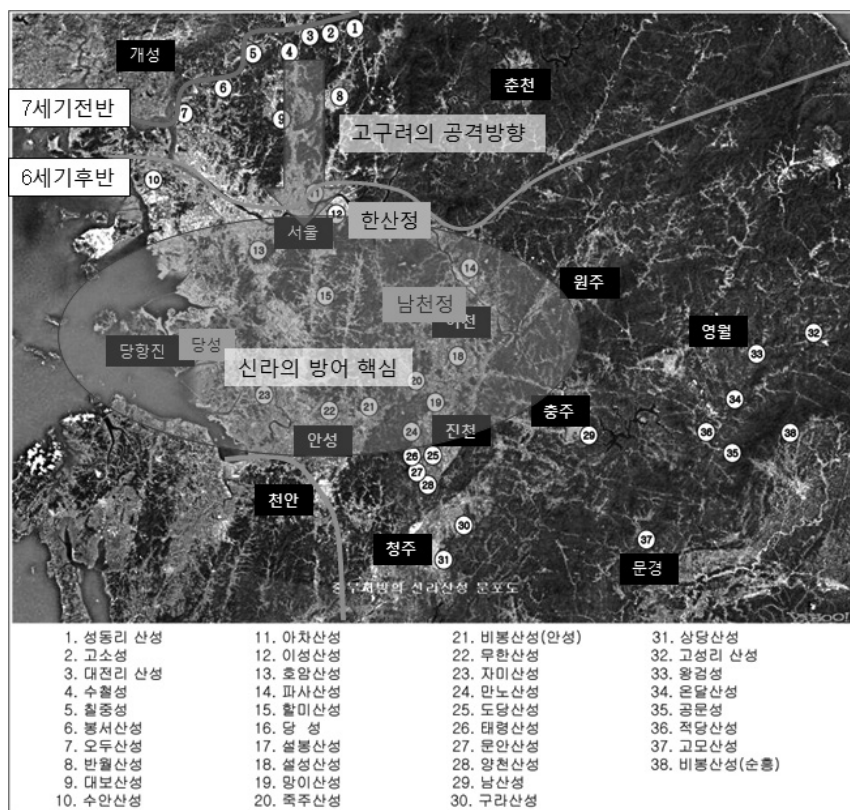
12) 신라의 함경도 지역 진출은(마운령비, 황초령비) 일시적이기는 하였지만 10군 공취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서라벌에서 함경도 남부 지역에 이르는 길은 동해안 연안해로나 강릉을 거쳐서 북상하는 육로가 있다. 하지만 죽령을 지나서 영서 내륙을 통과하여 철령을 지나 안변에 이르는 길도 있다.

13) 이전 설봉산성, 설성산성, 안성 죽주산성, 망이산성, 평택 자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하남 이성산성 등이 발굴조사 결과 6세기 후반에 신라에 의하여 축조되거나 수축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4) 온달의 출정한 것은 영양왕 초로 590년대로 추정된다.

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임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항쟁을 펼치게 되었다¹⁵⁾. 임진강 일대로 신라가 방어거점을 북상시킨 이유는 한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의 제해권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강 하구는 경기만 연안해로의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이 교차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신라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가 되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 일대에 산성을 축조하고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강 하구(강화도 포함) 일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당항진이 고구려 수군의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성과 당항진 일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신라 산성이 동서 방향으로 선을 이루며 분포된 것은 백제나 고구려가 당항진의 배후를 노리는 것을 차단하여 신라의 서해 진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하는 전략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6~7세기의 신라의 산성 축조와 활용, 교통로의 개척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한 의도는 보다 명확해 진다. 바로 당항진을 통해서 서해로 진출하려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거점으로 산성을 축조하고 이를 교통로로 연결하였던 것이다.



[그림 4] 신라의 당항진 방어 전략과 영역변화

15) 630년대부터 칠중성이 신라와 고구려의 격전지로 등장하고 있다. 인근 호로그루는 고구려군의 남진 통로로 활용되었다.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 일 교 ■ 수원여자대학교

1. 서언

당대의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는 크게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중 당과 신라의 교류는 해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신라의 견당사, 승려 그리고 유학생은 주로 해로를 이용해 중국의 산둥반도에 도착하였다. 이시기 당의 수도인 장안을 중심으로 약 7개의 대도가 있었고, 그 중하나가 장안과 등주를 연결하는 육로였다. 아마도 登州地方을 통하여 당을 출입하던 신라 견당사들은 登州-萊州-靑州-淄州-齊州-鄆州-滑州-汴州-鄭州-洛陽-陝州-華州-長安에 이르는 길을 통하여 당의 수도인 장안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물론 이 경로가 아닌 운하와 수로를 이용하여 변주에 도착하고 변주에서 장안까지 연결되는 경로도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에서 장안까지 도착하는 경로는 慶州-唐恩浦-黃海 北部 沿岸航路 혹은 中部 橫斷航路-登州-長安을 잇는 北路와 慶州-會津-黃海 南部 斜斷航路-江淮地域-長安을 잇는 南路가 있을 것이다.

장안에서 산둥반도 그리고 해로를 통해 다시 경주까지 이르는 노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크로드의 기착점인 장안과 연결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실크로드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안에서 산둥반도까지의 육로와 산둥반도에서 한반도까지 이르는 해로를 통해 양국의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중국에서의 교통사 연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견당사의 왕래를 통해 장안에서 산둥까지의 육로와 이를 통한 문화 교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20세기 중국 교통사 연구 현황

20세기를 기점으로 근대적 의미의 교통사가 中國正史編纂과 역사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학문이 되면서 電報, 郵傳, 道路, 運輸 등 역사적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後世의 학술사 회고의 論著 뿐만 아니라 경제사·사회사·역사지리가 이에 속하며 또한 정치사·경제사·문화사·군사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사는 아직도 중국사 연구의 중요한 연구 방향 혹은 類別로서 존재하고 있다. 비록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專門史나 斷代史의 연구 회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학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王子令의 「中國交通史研九一〇年」¹⁾, 凍國棟 『二十一世紀唐研九經濟卷』 제8장 『交通運輸』²⁾, 曹家齊 「宋代驛傳制度研究總述」, 『宋代制度史研究百年』³⁾, 「宋代交通史研究八十年述評—宋代交通史諸論之一」⁴⁾ 등이 있다.

역대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고대교통사는 陸路交通·驛傳制度·內河航運과 海上交通 4방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의 兩者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고대 교통사연구의 기초적 성격의 내용이다. 육로교통과 역전제도는 王朝 통일 등 정치·군사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통일시대(宋朝를 포함)의 기술이 비교적 많아 秦漢·唐宋·元明清시기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王子令의 『中國交通史研究一〇〇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로도와 역참제도에 대한 연구는 唐宋시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한과 원대 명칭의 순이다. 사료기록의 상황을 보면 明清시기가 가장 풍부하지만 이 시기의 도로와 역전은 前代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 알기도 쉬워서 사료의 주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양상을 보인다.

명·청시기의 도로와 역참에 대한 연구는 전대와 비교하여 이미 풍부하고 근대 제도를 고친 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송의 도로와 역전의 연구는 어느 정도 중국 고대사 연구의 뛰어난 업적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고대교통사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송시대 전후의 정치국면과 제도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통해 당시 교통상황의 변화와 원인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통사 연구 성과는 당·송의 주요문제를 다루고 있고 서로 고증하고 있다. 따라서 당·송도로와 역전제도의 연구는 토론과 학술회고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중국교통사 전체 혹은 당·송 斷代 교통사를 막론하고 모두 세기의 종결이 되었다.

1) 王子令, 「中國交通史研九一〇年」, 『歷史研究』, 2002.

2) 凍國棟, 『二十一世紀唐研九經濟卷』 제8장 『交通運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2.

3) 曹家齊, 「宋代驛傳制度研究總述」, 『宋代制度史研究百年』, 상무출판사, 2004.

4) 「宋代交通史研究八十年述評—宋代交通史諸論之一」, 『송사연구통신』, 2011.

3. 당대의 육로 교통-장안에서 산동반도

長安에서 山東半島까지의 교통은 春秋戰國時期에 이미 大道가 개통되었다. 史念海는 그의 논문『戰國時期的交通道路』⁵⁾에서 전국시기에 열국의 城都를 중심으로 교통도로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안 서쪽의 함양은 秦의 수도였고, 登州의 서남쪽에 齊의 수도는 臨淄였다. 진의 수도 함양에서 渭水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면, 函谷關과 雒邑을 지나 동쪽의 魏의 수도 大梁(지금의 河南 開封)을 지나 동북으로 방향을 바꿔 다시 濟水를 따라 내려오면 平陰(지금의 山東 平陰縣東)을 지나고 바로 齊의 수도 임치(지금의 山東 淄博市 東)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안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大路는 당대 이전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있던 중요한 노선이었다.

唐代 登州에서 장안까지의 노선에 대하여 嚴耕望은 등주-낙양 노선을 登州-蔡州-靑州-淄州-齊州-鄆州-濮州-華州-鄭州-洛陽⁶⁾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낙양-장안 노선은 洛陽-陝州-華州-長安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학자 아오야마는 등주-장안 노선을 등주-채주-청주-제주-운주-화주-변주-정주-낙양-섬주-화주-장안으로 주장하고 있다⁷⁾. 이를『元和郡縣圖志』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地名	入道	文獻出處
登州	西南至上都三千里. 西南至東都二千一百四十里. 北至海三里. 西至海四里, 當中國往新羅. 渤海過大路. 東至文登縣界大海四百九十里. ……管縣四: 蓬萊, 牟平, 文登, 黃.	『元和郡縣圖志』卷第11, 河南道7
文登縣	西北至(登)州三百二十五里. ……成山, 在縣東北一百八十里	『元和郡縣圖志』卷第11, 河南道7
萊州	西南至上都二千七百六十里. 西南至東都一千九百里. 東北至萊州三百四十五里.	『元和郡縣圖志』卷第11, 河南道7
靑州	西南至上都二千四百五里. 西南至東都一千五百五十里. 東北至萊州三百四十五里.	『元和郡縣圖志』卷第10, 河南道6
淄州	西南至上都二千二百九十五里. 西南至東都一千二百里. 東至靑州二百二十里.	『元和郡縣圖志』卷第11, 河南道7
齊州	西南至上都二千一百五里. 西南至東都一千二百里. 東至淄州一百九十里.	『元和郡縣圖志』卷第10, 河南道6
鄆州	西南至上都一千八百二十里. 西南至東都九百六十里. 東北至齊州二百八十里.	『元和郡縣圖志』卷第10, 河南道6
濮州	西南至上都一千六百五十五里. 西南至東都七百九十五里. 東北至鄆州一百七十里. 西南至滑州二百一十五里.	『元和郡縣圖志』卷第11, 河南道7

5) 史念海, 『中國歷史地理論叢』, 1991년 1집.

6) 嚴耕望, 『唐代交通圖考 第6卷』.

7) 青山定雄, 『唐代之陸路』,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研究』 吉川弘文館, 1963, pp.3~5.

滑州	西南至上都一千四百四十里. 東北至濮州二百二十五里. 南至汴州二百二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8, 河南道 4
汴州	西至上都一千二百八十里. 西至東都四百二十里. ……此至滑州二百二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7, 河南道 3
鄭州	西至上都一千二百四十里. 西至東都二百八十里. 東至汴州一百四十里. 東北至滑州三百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8, 河南道 4
洛州	西至上都八百五十里. 東至鄭州二百八十里. ……西北至陝州三百五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5, 河南道 1
陝州	西至上都五百二十里. 東至東都三百五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6, 河南道 2
虢州	西北至上都四百三十里. 東至東都四百五十三里. 東至陝州一百三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6, 河南道 2
華州	西至上都一百八十里. 東至東都六百八十里. 東至虢州二百三十里.	『元和郡縣圖志』卷 第 2, 關內道 2

위 표를 보면 장안에서 등주까지의 거리는 약 3008里 이다. 하루에 걸어서 300里를 간다고 계산하면 장안에서 등주까지는 약 21일 정도가 소요된다. 신라를 떠나 해로를 통해 등주에 도착한 견당사, 승려, 유학생이 등주에서 장안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약 21일 정도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당과 신라의 교류

신라와 당간의 특히 등주에서 장안까지의 육로를 통해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 졌고, 두 나라 사이에 물자와 문화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럼 우선 사신의 왕래를 통해 교류되었던 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당에서는 서적을 비롯한 물품이 신라로 전해졌다. 입당한 견당사에게 서적을 하사함으로써 중국의 불경과 같은 서적이 신라로 유입되었다. 또한 사신의 왕래를 통해 조공무역이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물품이 교환되었다.

당과 신라의 교류는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사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활발히 교류했던 시기이다. 우선 신라와 당간의 서적이 교류하면서 당의 서적이 신라에 전해져 신라에서 불교와 유교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다음으로 신라와 당의 교류는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가 아니었고, 쌍방간의 활발한 물질문화교류였다.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특징인 조공 무역을 통해 귀족층의 소비를 촉진하였고, 이는 서로의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리고 조공무역 뿐만 아니라 사무역이 발전하면서 쌍방간의 물품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신라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고, 당으로 유학한 신라 유학생들이 신라로 돌아오면서 당의 문물을 가져와 신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당대의 수도인 장안 지금의 서안 주변에는 지금도 한반도 특히 신라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興敎寺의 圓測法師塔이었다. 원측법사는 어렸을 적에 신라를 떠나 당나라에 왔고, 법상종을 익히고 서안의 西明寺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官이 주도하는 불경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여 법상종이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말년에는 낙양에 거주하였다.

寶鷄麟遊縣九成宮遺址 “萬年宮碑陰題名”. 이 碑陰題名에 “左領軍衛將軍臣金仁問”이라고 적혀있다.

昭陵博物館新羅眞德女王石像과 底左銘文, 이는 宋代 宋敏求의 『長安志』, 元代 駱天驥의 『長安志圖』 등에 “昭陵十四蕃君長石像”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신라 진덕여왕석상이다.

乾陵六十一蕃臣像과 新羅使者石像. 건릉육십일번신상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陳國燦, 章群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신라사신의 석상이라고 명확히 밝힌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拜根興 「唐朝與新羅關係史論」에서 神道東側東南角에 활을 들고 머리가 없는 석상이 신라의 사신이라고 언급하였다.

周至縣王子臺新羅慧超祈雨處. 혜초의 왕자대기우에 관하여 卞麟錫의 『唐長安的新羅史迹』, 陳景福의 『西安與海東』에서 혜초가 지금 서안 남부의 大興善寺에 머물면서 기우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 성 일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이 병 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¹⁾

당성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구봉산(표고 165.7m)에 위치한 산성이다. 현재 화성시의 영역은 고려, 조선시대의 남양도호부를 모태로 한다. 이 남양도호부의 발원이 된 지역이 당성으로서 현재 화성시 서신면, 송산 면, 마도면 일대이다.

최초 당성군을 차지한 백제는 그 명칭을 당항성(黨項城)이라 하였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성을 정복하게 되고 백제는 웅진(공주)로 천도하게 되었으며, 고구려는 경기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이때에 고구려가 사용한 명칭은 당성이었다. 그 후 555년 신라가 한성을 점령하면서 당성이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는 항구로 기능하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의 관심이 몰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당성군을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친 시기는 통일신라시기 경덕왕(742~765)재위 때였다. 당시 당나라의 도움으로 신라의 통일이 가능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의 의미였다.

1. 당성의 지정학적 의미²⁾

당성의 지리적인 위치는 서쪽으로 바다와 연결되는데 이 지역은 바다의 수심이 얇고 내륙으로 수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고대의 항구로서 조석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작업이 가능한 점이 항구로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

1)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2) 『고려사절요』세종실록 권48 지리지 경기 남양도호부 『고려사』 권 제56 제10 지리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 8년조, 15년, 흥덕왕 4년 권34 제3 지리1, 권35 잡지 지리2 한주 당은군조.

록에서 보이는 대당 항로의 출발점으로서 사용된 것은 바로 해류와 바람 등의 조건이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 팔곡동의 사당 설화에서도 시기에 따른 항로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당성이 입지한 곳은 서해를 바라보면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여 군사적인 요충으로서 방어에 대단히 유리한 고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면에는 내륙으로 이어지는 성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결국 당성의 서해 관문으로서 교통의 최전선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신라가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인 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당시 사회적인 요충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교류의 요충지 당성³⁾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크게 세 경로가 있었다. 첫째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쪽 북상하여 요동반도 끝의 대련, 여순까지 간 후에 산둥반도의 등주(봉래)로 남하하는 항로이다. 이 항로의 장점은 가장 안전하고 계절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된 항로라는 점이다. 옛날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 방식이 제일 안전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항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해를 직단하는 항로이다. 이 항로가 당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서해를 바로 횡단하기 위해서는 최단거리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땅은 한국 쪽으로 돌출해 있는 산둥반도이다. 산둥반도로 직항하는 코스는 2개의 루트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황해도 장산곶까지 올라간 후에 서진하여 횡단하는 방법이다. 장산곶에서 산둥반도까지는 대략 250km이다. 이 항로는 수도가 개경이었던 고려시대에 많이 애용되었는데, 개경을 출발해서 예성강을 따라 강화도, 교동, 백령도 등을 지나 서행하는 방법이다. 바람을 제대로 만나면 하루 만에 산둥반도 최동단인 성산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람이 맞아야 하므로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이 제한되고, 중간에 섬이 없어서 피난항이 없고, 대양에서 길을 잃을 우려가 있었다.

다른 횡단법은 경기만에서 출발하여 덕적도를 지나 산둥반도의 등주나 청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이때 당성이 주요한 출발지가 되었는데, 지금의 마산포나 화랑포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항로는 황해도에서 출발하는 항로보다는 안정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삼국시대에 신라가 이 항로를 애용했다. 북쪽은 고구려, 남쪽은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신라로서는 서해안을 따라 도는 연안항로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강화-백령도를 거치는 직단항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항로와 당성(당항성)이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와 항구가 되었다.

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5년조, 권34 잡지3 지리1m 『신당서』 권48 지33하 지리7하, 『낭해화상비』, 『해동역사』 권40 교빙8.



당성이 황해 연안의 성으로서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다학문적인 연구는 단순히 성의 역사적인 역할 뿐 아니라, 한국고대 및 중세사에 있어서 황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흐름의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을 통한 실크로드의 황해 지역의 관문으로서 당성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실크로드는 결국 중국 동해안 소주와 항주의 실크 생산지와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과정상에 산둥이 있다는 점이며 황해는 결국 실크로드 경로의 마지막 고리의 하나로서 문화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⁴⁾.

3. 전략적 기지 당성⁵⁾

삼국시대부터 당성이 주목받는 지역이 된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당성의 독특한 지형과 해상교통로의 요지라는 지리적 입지조건이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당성은 중국 산둥반

4) 당성과 황해문화, 배기동, p 22

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3년, 권10 신라본기 제10 흥덕왕, 권28 백제본기 의자왕 3년, 권37 지리4 『고려사』 태조총서 권 제1, 『신당서』 동이전 백제

도와 통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구이고, 연안항로에서는 충청권과 경기만을 잇는 접경지대에 위치한 요충이었다.

하지만 신라에게 당성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5세기까지도 신라는 삼국 항쟁에서 제일 뒤쳐진 국가였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시행해서 한성백제를 압박하던 시기에는 거의 고구려의 보호국 수준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신라에게는 고구려와 백제에는 없는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신라는 한성을 사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양쪽에서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신라는 곤경에 빠졌다. 신라는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당성은 신라가 당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다. 삼국 중에서 한성과 경기 지역을 확보하는데 제일 유리한 국가가 신라였다. 남한강 수로가 신라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즉 병력과 물자를 육로로 이송해야 하는 백제나 고구려는 수로를 이용하는 신라에 비해 5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신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지가 당성인 것이다.

4. 당성과 불교⁶⁾

당성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모두 한 번씩 차지한 영토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때는 당성, 신라시대에는 당항성으로 불리었다. 삼국의 항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한강유역과 더불어 대중국 교통로였던 당성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항성(黨項城)에 비정되는 서신면의 당성(唐城)은 국제외교와 정치, 군사뿐 아니라 문화유입 및 교류의 창구였다. 특히, 원효와 의상 이 당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 잠을 청했던 지점이 남양만 일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성은 불교문화 유입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원효가 바다의 관문 당주(唐州)지역에 도착해 큰 배를 구해 창파를 건너려고 했다”

여기서 당주(唐州)는 당성(唐城) 즉 당항성(黨項城)을 말하는 것이 다. 원효가 유학길에 다시 오른 661년은 백제가 이미 신라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바닷길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원효와 의상이 육로를 통해 당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해상통로서 가장 적합한 곳을 찾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당항성(黨項城) 뿐이기도 하다.

5. 결어

위에서 간략하게 요약한 당성의 지정학적 의미, 중국교류의 요충지 당성, 전략적 기지 당성, 당성과 불교 등 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된 모든 내용은 1차 사료에서 인용되어 서술한 부분들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문헌이외의 것을 인용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성 관련 1차 사료는 총 34편으로 자세한 목록을 조사하여 보았

6) 『입당구법순례행기』, 『삼국사기』 권35 잡지 지리2

다. 당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1차 문헌 중 삼국사기가 30번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성 관련 1차 문헌

資治通鑑	唐會要	冊府元龜	文館詞林	文苑英華
續高僧傳	宋高僧傳	全唐文	祖堂集	續日本記
太平廣記	說郛	別本韓文考異	唐國史補	唐大詔令集
元和郡縣志	삼국사기	신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신당서
대동지지	세종실록지리지	일본서기	입당구법순례행기	고려사절요
낭해화상비	동계집	삼국유사	송고증전	신동람
월광사원원랑선사비	증보문헌비고	태종실로	해동역사	

삼국사기에 당성이 많이 인용되어 그 당시 삼국가운데 당성이 주요한 요충지로 역할을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중에서도 신라본기에서 14회, 백제본기에서 8회, 고구려본기에서 3회 인용되어 삼국 중에서도 당성과의 관계는 신라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중	언급 문헌 횟수
신라본기	14
백제본기	8
지리	5
고구려본기	3
합 계	30

조사된 결과의 몇 개의 예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

▶4년(서기 829) 봄 2월, 당은군(唐恩郡)을 당성진(唐城鎭)으로 만들고, 사찬 극정(極正)에게 가서 지키게 하였다. 四年 春二月 以唐恩郡爲唐城鎭 以沙湲極正往守之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흥덕왕 4년

▶한산주(漢山州) 당은현(唐恩縣)에서 길이 10척, 넓이 8척, 높이 3척5촌이 되는 큰 바위가 저절로 1백여 보 이동하였다. 漢山州唐恩縣石長十尺 廣八尺 高三尺五寸 自移一百餘步

▶2월, 수성군(水城郡, 경기 수원)과 당은현(唐恩縣, 경기 화성)을 합쳤다.

二月 合水城郡唐恩縣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 8년조, 15년

- ▶당은군(唐恩郡)은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 이 군에 속한 현은 둘이다. 거성현(車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상[거(車)로도 쓴다.]홀현(上忽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용성현(龍城縣)이다. 진위현(振威縣)은 원래 고구려의 부산현(釜山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領縣二 車城縣 本高句麗上[一作車]忽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삼국사기 권35 잡지 지리2 한주 당은군조

- ▶본래의 신라 땅에 3주를 설치하였다. 왕성 동북쪽의 당은포(唐恩浦) 방면을 상주(尙州)라 하고, 왕성 남쪽을 양주(良州)라 하고, 서쪽을 강주(康州)라 하였다. 옛 백제의 땅에 3주를 설치하였다. 백제의 옛 성 북쪽 웅진 어구를 웅주(熊州)라 하고, 그 다음 서남쪽을 전주(全州), 그 다음 남쪽을 무주(武州)라고 하였다. 옛 고구려 남쪽 지역에 3주를 설치하였다. 서쪽으로부터 첫째를 한주(漢州), 그 다음 동쪽을 삭주(朔州), 그 다음 동쪽을 명주(溟州)라고 하였다. 9주에서 관할하던 군, 현은 무려 4백50개 소였다.[방언으로 말하던 향(鄉)·부(部)·곡(曲) 등 잡다한 것은 여기에 모두 적지 않는다.] 신라 지역의 넓이와 길이가 이때 가장 컸다. 신라가 쇠약해지자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 영토가 날로 줄었다. 마지막 왕 김부(金傅)가 나라를 바쳐 우리 태조에게 의지해오므로 그 나라를 경주(慶州)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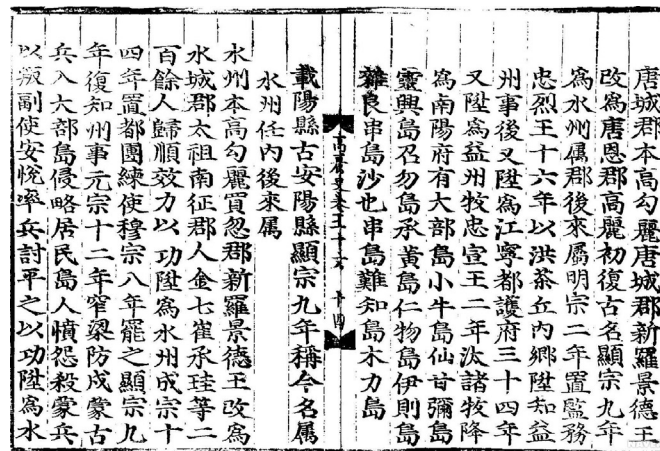
新羅疆界 古傳記不同 杜佑通典云 其先本辰韓種 其國在百濟高麗二國東南 東濱大海 劉昫唐書云 東南俱限大海 宋祁新書云 東南日本 西百濟 北高麗 南濱海 賈耽四夷述曰 辰韓在馬韓東 東抵海 北與濊接 新羅崔致遠曰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此諸說 可謂近似焉 若新舊唐書皆云 卞韓苗裔在樂浪之地 新書又云 東距長人長人者 人長三丈 鋸牙鉤爪 搏人以食 新羅常屯弩士數千 守之 此皆傳聞懸說 非實錄也 按兩漢志 樂浪郡距洛陽東北五千里 注曰 屬幽州 故朝鮮國也 則似與雞林地分隔絕 又相傳 東海絕島上有大人國 而人無見者 豈有弩士守之者 今按新羅始祖赫居世 前漢五鳳元年甲子開國 王都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 脫解王九年 始林有雞怪 更名雞林 因以爲國號 基臨王十年 復號新羅 初赫居世二十一年 築宮城 號金城 婆娑王二十二年 於金城東南 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周一千二十三步 新月城北有滿月城 周一千八百三十八步 又新月城東有明活城 周一千九百六步 又新月城南有南山城 周二千八百四步 始祖已來處金城 至後世多處兩月城 始與高句麗百濟 地錯犬牙 或相和親 或相寇鈔 後與大唐侵滅二邦 平其土地 遂置九州 本國界內 置三州 王城東北 當唐恩浦路曰尙州 王城南曰良

州 西曰康州 於故百濟國界 置三州 百濟故城北熊津口曰熊州 次西南曰全州 次南曰武州 於故高句麗南界 置三州 從西第一曰漢州 次東曰朔州 又次東曰溟州 九州所管郡縣 無慮四百五十[方言所謂鄉部曲等 雜所不復具錄] 新羅地理之廣袤 斯爲極矣 及其衰也 政荒民散 疆土日蹙 末王金傳 以國歸我太祖 以其國爲慶州

- 삼국사기 권 제34 제3 지리1

▶ 본래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으로 신라 경덕왕 때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옛 이름으로 다시 돌아갔다. 현종 9년(1018)에 수주(水州)의 속군(屬郡)으로 삼았으며 뒤에 내속시켰다.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16년(1290)에 홍다구(洪茶丘)의 내향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시켰으며 뒤에 뒤에 다시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시켰다. 34년(1308)에 다시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정리하면서 남양부(南陽府)로 강등시켰다. 대부도(大部島), 소우도(小牛島), 선감미도(仙甘彌島), 영흥도(靈興島), 소물도(召勿島), 승황도(承黃島), 인물도(仁物島), 이척도(伊則島), 잡랑곶도(雜良串島), 사야곶도(沙也串島), 난지도(難知島), 목력도(木力島)가 있다.

- 고려사 권 제56 제10 지리1



▶ 본래 고구려의 당성현(唐城縣)인데, 신라가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옛이름 [唐城]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무오(1090)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는데, 뒤에 인주(仁州)에 옮겨 붙였으며, 명종(明宗) 2년 임진에 【곧 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8년.】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 경인에 고을 사람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에 벼슬하여 정동행성 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었으므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되고, 뒤에 또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34년 무신에 또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 2년 경술에 모든 목(牧)을 없앴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어,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1이니, 재양(載陽)이다.

南陽：都護府，本高句麗 唐城縣，新羅改爲唐恩郡，高麗復古名。顯宗戊午，屬水州任內，後移屬仁州。明宗二年壬辰，始置監務。忠烈王十六年庚寅，以縣人洪茶丘任元爲征東行省右丞，陞爲知益州事，後又陞爲江寧都護府，三十四年戊申，又陞爲益州牧。忠宣王二年庚戌，汰諸牧，降爲南陽府，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例改爲都護府，屬縣一，載陽。四境，東距水原十五里，西距花之…

- 세종실록 권48 지리지 경기 남양도호부

▶ 당성군(唐城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당성군(唐城郡)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고려(高麗) 초에 옛 이름으로 복구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수주(水州)의 속군(屬郡)이 되었으며, 뒤에 <인주에> 내속(來屬)하였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1290)에 홍다구(洪茶丘)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했으며, 뒤에 또 승격하여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가 되었다. <충렬왕> 34년(1308)에 다시 승격하여 익주목(益州牧)이 되었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도태(淘汰)시키면서, 강등되어 남양부(南陽府)가 되었다. 대부도(大部島), 소우도(小牛島), 선감미도(仙甘彌島), 영흥도(靈興島), 소물도(召勿島), 승황도(承黃島), 인물도(仁物島), 이척도(伊則島), 잡랑곶도(雜良串島), 사야곶도(沙也串島), 난지도(難知島), 목력도(木力島)가 있다.

- 고려사절요

전략적 요충지

▶ 8월, 백제가 다시 고구려와 모의하여 당항성(党項城, 경기 화성)을 빼앗아 당나라와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임금이 사신을 보내 당 태종에게 위급함을 고하였다.

八月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告急於太宗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 3년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임금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는데, 신라의 당항성(党項城)을 빼앗아 신라가 당나라로 조공하러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다. 임금이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왕 덕만(德曼, 선덕여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를 철수하였다.

三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 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의자왕 3년

당성에 관한 여러 학술 논문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역사학이나 고고학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성격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고대 문헌을 토대로 한 역사학적인 연구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토대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암시적인 단서들을 확인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학술적인 연구에서 단순히 국내적인 자료 뿐 아니라 외국 측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 지역의 고대와 중세의 문물 및 인적교류가 한반도로 전파 또는 유입되는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북위 불상의 동방 전파 과정 그리고 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 연안의 교류 방식과 과정의 이해는 앞으로 당성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당성은 산성이란 직접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불교사적인 의미 등과 함께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개념과 황해 문화권의 관점에서 그 의미성을 확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从大陆文化与海洋文化的 特质看宁波海洋文化

모 이 다 ■ 링보박물관

【摘要】中国古代的农业社会特点、“天下一统”的世界观以及文化、宗族观念造就了中国文化内敛的特点，并逐步转向为封闭。而以商业文化为基础的海洋文化则展现出开放、冒险、索取的特性，表现出外向性的特点，并带有强烈的侵略性。宁波面向辽阔的太平洋，有着海洋赋予的独特因子。同时，也背靠广阔厚重的内陆腹地，有着大陆赋予的基因。因此，宁波及其所创造的地域文化是具有内敛化特征的中国内陆文化与具有外向化特质的海洋文化相互交流融汇的产物，并形成宁波海洋文化输出为主导的宁波对外文化交往、浙东文化及其展现出的海洋因子、宁波商帮和重商主义等显著特点

黑格尔曾经把海洋文化当作区别中西方文明的一道界限，他在《历史哲学》一书中曾说，中国、印度、巴比伦等东方文明是土黄色的内陆文化，占有耕地的人民封闭自守，并没有分享海洋所赋予的文明，而西方文明是蓝色的海洋文化。应该说，黑格尔的这种论断看到了东西方在海洋文化发展程度上的差异，但也无疑武断地否定了东方文化中富含的海洋文化因子和东方民族精神中的海洋意识。

中国大陆文化内敛化及其发展的保守封闭化倾向

法国启蒙思想家孟德斯鸠在其《论法的精神》一书中指出，“人类受多种食物的支配，就是：气候、宗教、法律、施政准则、先例、风俗习惯。结果就是在这里形成一般的精神”。从世界地理角度观察，东亚是一块较为封闭的地理区域。在太平洋、喜马拉雅山脉等地理环境的包围下，处在黄河流域的诸多部落相互交流，不断融合，形成了华夏民族，并创

造了以农本经济、宗法制度、天下主义等为标志的悠久灿烂的中华文化。正是得益于相对封闭的环境,这一文化获得了一个比较稳定的发展空间,并表现出一种内在的内敛性。

首先,中国古代社会是一个农业社会,农业是国家主要的生产部门。“亚洲的农业,从来都以劳动集约性著称于世,(这种生产方式)以人力劳动为主,……亚洲文明就是在以手工为主的劳动集约性耕种,加上适宜的灌溉体系所产生的剩余农产品的基础上发展起来的”。较为封闭的环境、广阔的耕地和相对适宜的气候条件使得农业在中国这片大地上得以极大发展,支撑着整个社会的运行和华夏文化的高度发展。在古代中国农业就是国家的根本。自古以来,“本末”之论一直是历代论述的核心之一。“今殴民而归之农,皆著于本,使天下各食其力,末技游食之民转而缘南亩,则畜积足而人乐其所矣。可以为富安天下,而直为此廩廩也”。对于统治者来说,要想维持长治久安,驱使黔首“转而缘南亩”从而发展农业是关键与核心。“士农工商”,“农”被排在统治阶级“士”之下,“坐商行贾”则被视为“末技游食之民”从而加以抑制。基于此,在对外方面,除去一些穷兵黷武者,中国历史上大部分统治者对于战争的态度是审慎的。即使在中国国力强盛且有能力大规模向外扩张之时,统治者对这一点也有清醒认识,“汉家庶事草创,加四夷侵陵中国,朕不变更制度,后世无法,不出师征伐,天下不安,为此者不得不劳民。若后世又如朕所为,是袭亡秦之迹也。”可见汉武帝充分意识到了持续战争对国家经济和民生的危害,大规模进攻匈奴只是为了保障生产的稳定和人民的安全。以农业为主导的生产方式也决定了古代中国扩张领土的动力有限,统治者对自己疆域的要求标准在于是否适宜农耕、是否能养活百姓。生活于此一文化之下的普通民众,一方面满足于男耕女织的田园生活,另一方面也不得不被束缚在土地之上,从而总体上缺乏对外的冒险、开拓。所以,以农业为主的生产方式直接决定了中国文化的内敛性倾向。

其次,“天下一统”的世界观。东亚这个相对封闭的地理位置以及长久以来中国在这一区域文化发展上的优越造就了中国文化中独特的世界观。所谓的“天下”并非是指地理范围上的全世界,而是一个以中国为中心的世界。所谓“一统”指的是将文化意义上中华文明的核心地区统一起来,纳入中央政权的管辖。在这一世界观的指引下,中国发展出了一套独特的“内圣外王”的处世准则。一方面,强调“普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滨,莫非王臣”。另一方面,中国人坚信一些人类共同的道德规则放之四海而皆准,中国只要保持自身内部的平衡与稳定,保障人与土地的结合,保障社会关系的有序与安定,保障优秀文化的传承与发展,这样天下文明就能繁荣昌盛,“天下有道”的道德境界就会实现。一个道德趋于完善的社会实体会散发出强大的道德感召力,会吸引周边四夷“自化来附”,四夷归化完成后,中华文明的版图就进一步扩大,下一轮四夷来附的过程又重新开始,这样经过这种文化由文明中心向四夷不停地传播,最终会达到“天下大同”、“协和万邦”的终极理想。这就是孔子提出的“远人不服,则修文德以来之。既来之,则安之”。马端临在《文献通考》自序中总结道:“至於沙碛之滨、瘴海之外,固未尝穷兵黷武,绝大漠、踰悬度,必欲郡县其部落,衣冠其旃毳,以镇耀当时,而夸示后世也。”在“内圣”的指导下,中国注重自身文化发展,并一直处于

区域的领先地位,也吸引了周边国家“朝圣”,一定程度上实现了“外王”。但同时也缺乏对外扩张的原始冲动。因此,独特的“天下一统”的世界观主观上导致了中国文化的内敛化。

此外,“仁者爱人”的思想让中国不可能以一种侵掠的方式对外扩张,“百善孝为先”的家族宗法观念让中国人“父母在不远行”……中国形成了一整套以儒家为核心的思想体系和行为准则,也形成了以内敛为特质的中国文化。

然而,当这一文化处于领先发展的地位,当这一群体在具有天然优越感的同时始终以一种谦逊的姿态对待四夷的时候,中国在内敛的同时以保持着开放和包容。但当这一文化发展逐步放缓,受到外来文化的冲击,自傲便转变为自满,“天下”不再是一个开放包容的“天下”,而是一个封闭的“天下”。海禁、勘合贸易、长城等成为中国对外的标志物,中国文化也由此从开放的内敛转变为闭关锁国的内敛。

海洋文化的外向化及其发展的侵略化倾向

海洋文化,特指缘于海洋而生成的文化,它包括了人类对海洋的认识、利用和因有海洋而创造出的精神的、行为的、社会的和物质的文明生活内涵。海洋文化的本质,就是人类与海洋的互动关系及其产物。从以海洋文化为主体的西方文化来看,海洋文化是一种具有外向化倾向的文化。

首先,海洋的独特性质造就了海洋文化的外向化。在古人眼中,海洋是广阔无垠的,漫无边际,这就无形中造就沿海族群广阔、开放的胸怀。海洋又是变化莫测而难以掌控的,这一方面使族群看到了事物的变化,认识到世界的非永恒性,因此产生了迥异于内陆文化安土重迁、不求变化的海洋文化,这一文化不安于现状,习惯于变化并追求变化;另一方面,这种海洋的难以掌控也使人类认识到了自身的渺小和脆弱,然而在克服对海洋的恐惧之后,沿海的族群便会产生征服海洋的冲动和自信,从而形成创新、冒险的海洋精神。因此,海洋给予人类的是开放、冒险的外向倾向。同时,与中国文化内敛性的开放不用,海洋文化的开放性不是基于自身文化的优越性的,而是基于对事物难以掌控的认知上的,不是被动的、给予式,而是主动的、索取式的。

其次,海洋文化的基础是商业文化。西方海洋文化的发源地希腊地处半岛,三面临海,岛屿如星,陆地贫脊,农业不发达,粮食需要进口,因而决定了他们必须从事海上贸易。曲折的海岸线,风浪不大的海洋便成为希腊人交通运输的主要通道,而海上运输又是工商业发展的便利工具,由海上文明发展出的也就必然是工商文明。地理环境等因素迫使欧洲人必须通过商业来维持自身的发展。即便是在中世纪,以满足领主及其家人需求为目的、有着鲜明自然经济特征的庄园,也从来就很难达到真正意义上的自给自足,它与外界有着紧密的联系,存在着产品依赖于市场的经营倾向,并且地产越大,对市场和货币的依赖越深,庄园经营中市场因素的作用日益明显和重要。商业经济一方面蚕食、打破自给自足的自然经济并驱除自然经济必然带有的内敛性和封闭性,另一方面则积极向外寻求更丰富的资料来

源和更大的市场,从而使其外向性得到极大地拓展。

正是开放、冒险、索取等一系列的特性,海洋文化同样也会走向与内陆文明相反的另外一个极端——侵掠。从古希腊以来,西方人的海洋史便一直是一部血与火的历史。西方哲学家也毫不讳言这一点。黑格尔说:“大海邀请人类从事征服,从事掠夺”。这不谛于说,欧洲人的海洋史是一部征服史、掠夺史,是一部以征服、掠夺为荣的历史。翻开欧洲人的海洋史,每一种记载无不证明这一点。自15世纪末欧洲人开始世界性的远航以来,他们每到一处,便意味着战争与流血。西班牙人对美洲的殖民,葡萄牙人对印度、巴西的殖民,以及相继来到东亚的葡萄牙、西班牙、荷兰、英国、法国、美国等国对东南亚的殖民,无一不伴随着掠夺、屠杀、强迫劳动、贩卖人口等罪恶行径。威廉·豪伊特在《殖民和基督教,欧洲人对待所有的殖民地人民的通俗历史》一书中指出:“所谓基督教人种在世界各地对他们所能奴役的一切民族所采取的野蛮的和残酷的暴行,是世界历史上任何时期、任何野蛮愚昧和残暴无耻的人种都无法比拟的。”欧洲的发展,很大程度就是建立在对殖民地掠夺的基础上。此外,甚至有些国家的统治者还和本国的海盗勾结起来,在海洋上横行霸道,征服、掠夺、屠杀,无所不为,使其海洋文化带有极强的扩张性,以至侵略性。

以中国大陆文化为内核、以海洋文化为外在的宁波文化

宁波面向广阔的太平洋,因此天然地海洋文化的因子,或者说,宁波文化的起源实际上就是海洋文化。7000年前,河姆渡人睁眼看海洋,首开了原始人的海洋意识,“刻木为舟,刻木为楫”,在河姆渡遗址出土了完整的陶舟、木桨、以及一只中间挖空、横断面呈弧形、一端收敛的尖圆形独木舟残骸,说明那时人们已掌握了简单的造舟技术。被称为“有舟氏”河姆渡先民借助舟楫涉足海上,向海洋索取生活资料,标志着人类活动范围由陆地扩大到海洋。而河姆渡人首创的稻作文化、制陶文化、建筑文化往后借助海洋传播到了海外,实现了初步的海外文化交流。

与此同时,随着发端于黄河流域的内陆文明持续发展和不断南下扩张,宁波必然地吸纳这一“黄色文明”,并成为所谓“一统”意义下的中华文明核心地区。春秋吴越时期是内陆文明对宁波地区的第一次影响,但此时的宁波依然是“断发文身”的蛮荒之地,越地“西则迫江,东则薄海,水属苍天,下不知所止。交错相过,波涛濬流,沈而复起,因复相还。浩浩之水,朝夕既有时,动作若惊骇,声音若雷霆。波涛援而起,船失不能救,未知命之所维”。越人“水行而山处,以船为车,以楫为马,往若飘风,去则难从”。晋永嘉年间,西晋的东迁,大量北方士族南下,带来了以儒家思想为核心的制度礼仪、衣冠文物,使江浙一带的经济迅速发展,南北文化也开始融会。中唐时期,安史之乱之后的唐王朝丧失了北方藩镇的实际控制权,中国经济南移,包括宁波在内的江浙地区成为赋税重地,也逐步成为文化中心。南宋定都临安(杭州),而宁波无疑南宋经济文化的中心之一。

发端于海洋文化,又深受中华内陆文明的影响并逐步归属于中华文化核心地区,宁波形

成了以中国大陆为内核、海洋文化为外在的独特地域文化，并在大陆文化内敛化与海洋文化外向化之间实现了完美的平衡。其一，宁波保持了大陆文化的内敛化，保留了“修文德以来之”的“内圣”，固守着“仁者爱人”的思想、“百善孝为先”的家族宗法观念等一整套以儒家为核心的思想体系和行为准则，并进一步地以这一内敛化约束、控制海洋文化外向化而导致的侵掠冲动，以一种和平的方式对外交往。其二，宁波又保留了海洋文化中的外向性特质，有着创新、冒险、开拓、重商等一系列精神和观念，并以此来突破中国内陆文化内敛性而导致的封闭和保守。兼具中国内陆文化和海洋文化特质，以中国内陆文化的内敛约束海洋文化的侵略倾向，以海洋文化的外向化冲破中国内陆文化的闭关锁国倾向，这就是宁波文化平衡的艺术。

宁波海洋文化的表现特征

兼具中国内陆文化和海洋文化并完美实现二者平衡的宁波表现出了与全球诸多沿海城市乃至同为中国古代“海上丝绸之路”始发港城市不同的特征。

其一，输出为主导的宁波对外文化交往。纵观对外文化交往的历史，宁波表现出输出为主导的特性。公元十世纪的前半叶，越窑的制瓷技术被传授到了朝鲜半岛全罗道康津与全罗北道扶安等地，朝鲜半岛因此烧制出了“制作工巧、色泽尤佳”的“翡色”瓷器，并且迅速发展成为青瓷的输出国；日本僧人千光荣西、道元，高丽僧人义通、高丽王朝文宗第四子义天，都曾在明州学习佛法，回国后成为当地佛教高僧。而兰溪道隆、无学祖元等高僧则东渡日本传播佛法，极大地促进了日本佛教的发展；南宋时期，已经成为江南范式的浙东佛教建筑被直接移植到日本，成为镰仓时代建筑风格的新形式，被称为“天竺样式”或“大佛样式”；南宋时期的陈和卿、伊行末等明州工匠东渡日本时，将中国的木雕、石刻艺术直接传播到日本，促进了日本镰仓时代雕刻艺术、石结构建筑与石刻艺术的发展；宋元明州（庆元）车轿街、石板巷一带，画坊林立，职业画家陆信忠、金大受、陆仲渊等佛画作品，被日本舶商和僧侣争相购买携往日本，成为日本寺院收藏品和临摹的范本……究其原因，宁波是以中国内陆文化为核心的，并对朝鲜半岛、日本群岛一直保持着“文化势差”，且一直保持开放态度，这使得以上地区源源不断来到宁波并带去优秀的文化。相比较而言，北方的登州在春秋时期就受到了中国内陆文化代表之一齐鲁文化的影响，海洋文化因素收到了较大的削弱。加之其临近北方游牧民族这一地理特性，登州逐步由贸易港转变为军港，由兼具内敛性和外向性转变为以内敛性为主导的文化。而南海的广州虽然在秦汉经营南粤时期就已经显赫一时，成为中国南方最为重要的贸易港口，但是由于地理条件的限制，中国内陆文化对其的影响相对较小，“文化势差”也没有有效地凸显。加之统治者对异域奇珍异宝的极度重视，广州的对外交往更多地侧重于输入，而不是输出。

其二，浙东文化及其展现出的海洋因子。浙东文化与齐鲁文化、湘楚文化、巴蜀文化、岭南文化等一样，是华夏传统文化的重要组成。浙东文化以鲜明的区域特色及厚重的学术

底蕴在中国文化史与思想史上占有重要的地位。明清两代,以王阳明、黄宗羲为代表的学术文化成为了浙东文化的精髓和闪光点,也推动浙东文化发展至繁荣时期,并以其鲜明的学术个性对几千年传统文化作了批判性的总结。阳明心学是对传统的程朱理学的一种反动,使长期甘心于奴隶地位的人们开始觉醒,起来冲破礼教的思想牢笼,它对程、朱理学的批判不应仅仅看作是儒学内部的学术纷争,而是一场涉及广泛的思想大革命。明末清初的黄宗羲在哲学思想上继承了“心学”的合理内核,但又突破了心学的框架,其强调主体修养上的“事功”方向,提倡建功立业,认为学问需要与社会实践紧密结合,其所宣扬的“经世应务”充分体现了当时社会的时代精神。同时,黄宗羲还以后蒙思想家的目光对几千年的封建制度作了一番深刻的审视,并对改革君主政治体制提出了具体的设想,“天下为主君为客”及其对皇帝的权力制约机制、“公非是于学校”的舆论监督机制、倡导“工商皆本”的经济思想等等,都明显在努力挣脱封建思想的束缚而透射出民主的光芒,并对后来孙中山等中国资产阶级革命家产生了深远的影响。而一代大儒朱之瑜远赴东瀛,对日本文化乃至其资产阶级革命明治维新都产生了积极的影响。浙东文化首先是中华文化,是基于中国儒学等传统文化的发展,但又表现出完全不同乃至“大逆不道”的民主启蒙思想。其内因主要是南方——特别是浙江经济的繁荣——推动了资本主义萌芽的产生,但宁波海洋文化中开放、创新、冒险、开拓的精神也发挥了不可估量的作用,这也正是这一启蒙思想在浙东而不是在其他地方产生的原因。

其三,宁波商帮和重商主义。在中国十大商帮中,宁波帮是少数几个依靠海洋发迹的商帮之一。宁波地处“浙东门户”、江海要津,居于中国大陆海岸线中点,历史上南北洋往返的船只,往往以宁波作为停泊中转港,并以其所载南北各地物产与当地土特产交换,从而导致了鄞县、镇海、慈溪一带商人创设南号与北号,自行置船装运,于是形成了宁波帮的南北号行业,与贸易有关的运输业逐渐发达。沙船是现代轮船问世之前主要的海上运输工具,宁波帮中的许多家族都是从沙船业起家的,如镇海的李也亭家族、慈溪的董耿轩家族等。轮船业兴起后,宁波帮又捷足先登,发展现代海运业,以至后来他们成为世界海运业中一支不可小觑的力量,精英辈出。与此同时,许多甬籍商人与“红帮”裁缝也跨海出洋,走向海内外各大商埠。孙中山先生于1961年视察宁波时评价“宁波人素以善于经商闻,且具坚强之魄力”。也有人将宁波帮喻为中国的犹太民族。而宁波帮之所以成功,一方面有着海纳百川、兼容并蓄的精神,有着不甘人后、开拓进取的精神,有着风雨同舟、团结互助的精神,有着精明务实、应变会通的精神,这是海洋文化因子所给予的;另一方面,有着见利思义、诚信为本的精神,有着崇尚文教、追求儒雅的精神,有着脚踏实地、勤俭敬业的精神,有着爱国爱乡、报效桑梓的精神,这则是根植于灵魂的中华内陆文化使然。可以说,宁波将中国内陆文化与海洋文化完美的结合起来,而宁波帮则将之发扬光大。

【法】孟德斯鸠著,张雁深译,《论法的精神》,北京,商务印书馆,1961年,第305页。

【美】罗兹·墨菲著,黄磷译,《亚洲史(第四版)》,海口,海南出版社,2007年,第21页。

【汉】班固：《汉书》，卷二十四上，北京，中华书局点校本，1964年，第1130页。

【宋】司马光：《资治通鉴》卷二十二汉武帝征和二年四月条，北京，中华书局点校本，1956年，第726页。

【元】马端临：《文献通考·自序》，北京，中华书局点校本，2011年，第22页。

【东汉】袁康、吴平辑录：《越绝书》卷四，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年，第29页。
《越绝书》卷八，第58页。

《管子》“发、朝鲜之文皮”的考古学探索

——兼论公元前6—3世纪中国山东地域与东北亚的贸易和交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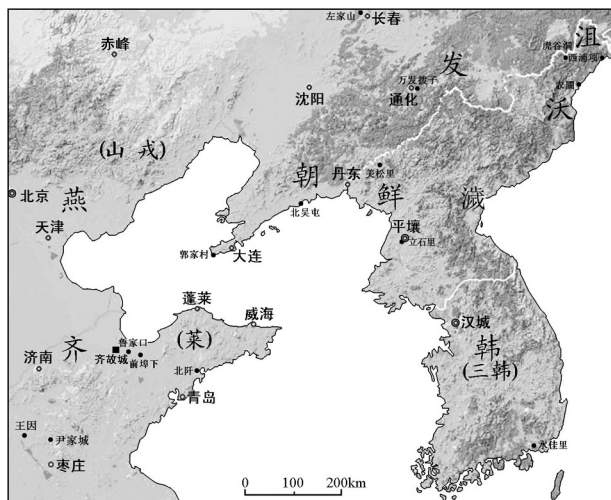
王 青 ■ 山东大学文化遗产研究院

公元前6—公元前3世纪是中国历史上的战国时期（相当于东周时期的后期），此时期的山东地区与东北亚开展贸易往来最活跃的是齐国。齐国地处周王朝的东部沿海，控有北海（也称勃海，约指今渤海及北黄海）南岸的广阔地带，再加上开国以来就有“通商工之业”的传统（《史记·齐太公世家》），故齐国的对外贸易一直比较活跃，尤其春秋晚期（前567年）伐灭胶东半岛的强莱，为齐国与东北亚各族的跨海交往和商贸联系打开了门户。但有关齐国通过海路与东北亚各族群的交往，古文献中只有“发、朝鲜之文皮”、“斥山之文皮”等寥寥数语，历代的注疏考证也多语焉不详，给研究带来很大困难。好在这些年来随着考古资料的增加和动物考古的不断深入，为这一问题的探索提供了必要条件。日本的松田寿男和韩国的姜仁旭先生曾先后著文，对《管子》所载“文皮”相关问题作过专门分析，甲元真之先生对朝鲜半岛遗址出土的毛皮动物作了分析，取得了重要成果¹⁾，中国考古学界目前尚未进行专题研究。本文将结合考古资料和相关研究成果，探讨“发、朝鲜之文皮”的实际背景和齐国通过海路获取“发、朝鲜之文皮”的可能性，进而考察齐国与东北亚的贸易和交通问题。谬误之处还请批评指正。

1) 松田寿男：《苏子の貂裘と管子の文皮》，《早稻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纪要》3辑，1957年，收入氏著《松田寿男著作集—东西文化の交流》3集，1987年；姜仁旭：《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한국고대사연》64号，2011年；甲元真之：《東北アジアの初期農耕文化——自然遺物の分析として》，《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论文集Ⅱ：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文献出版1991年。滕铭予译文《东北亚地区的初期农耕文化——以自然遗物为中心》，《东北亚考古历史信息》1997年2期。

一、“发、朝鲜之文皮”释义和齐国对名贵动物毛皮的需求

据《管子·揆度》记载：“桓公问管子曰：‘吾闻海内玉币有七策，可得而闻乎？’管子对曰：‘……发、朝鲜之文皮，一策也；……’”《管子·轻重》记载：“桓公曰：‘四夷不服，恐其逆政游于天下而伤寡人，寡人之行为此有道乎？’管子对曰：‘……发、朝鲜不朝，请文皮、毳服而为币乎？……一豹之皮，容金而金也，然后，八千里之发、朝鲜可得而朝也。……’”另据《尔雅·释地》记载：“东北之美者，有斥山之文皮焉”，《淮南子·地形训》也载：“东北方之美者，有斥山之文皮焉。”这是有关发、朝鲜出产动物毛皮的主要文献史料。需要说明的是，学界一般认为《管子》一书非一人一时之作，近年张固也先生对此书的思想体系和各篇组成结构做了深入研究，认为是春秋之际至战国晚期逐渐形成的先秦古籍，是齐国稷下学士之作，而非秦汉时人的伪作²⁾。《尔雅》和《淮南子》则为西汉学者采集先秦和秦代旧文或旧说编辑而成³⁾，成书晚于《管子》。



图一 东北亚地区东周至汉代国族分布及出土毛皮动物遗骸的先秦时期代表性遗址位置图

发，又称北发⁴⁾，历代解释不清，多笼统视为东北地区的族群，“国近朝鲜⁵⁾”。近代以来，何秋涛在其《王会篇笺释》中首次提出，发族应在第二松花江上游的支流辉发河一带，明代这里的辉发国或“即古发国旧壤”。上世纪80年代，王洪峰先生曾根据新发现的考古资料进一步指出，辉发河上游（吉林省南部的东丰、柳河、辉南、磐石等县市）西周至汉初的考古遗存有些自身特色，可能与濊貊系统的北发有关⁶⁾。关于古朝鲜的地望，学界目前还存在

2) 张固也：《〈管子〉研究》，齐鲁书社2006年。

3) 吴枫主编：《简明中国古籍辞典》，吉林文史出版社1987年。

4) 《史记·五帝本纪》载：“南抚交趾，北发……北山戎、发、息慎。”其中可能有错简和衍文，发应即北发。

5) 此为何如璋说，转引自马非百：《管子轻重篇新注》460页，中华书局1979年。

6) 王洪峰：《吉林省辉发河上游地区原始文化简析》，《考古》1985年3期。

较大分歧。林沄先生曾经指出,西周中晚期至战国汉初流行于东北地区大部(含松花江流域)的东北系青铜曲刃短剑,应是土著的濊貊、真番、朝鲜等族使用的兵器⁷⁾。后来他又进一步指出,在公元前三世纪初燕国占有辽东半岛之前,辽东一带为箕氏朝鲜之地⁸⁾。近年有研究者也持类似观点⁹⁾。根据这些考证和分析,我们大致可以做出判断,发族(北发)可能活动于东北腹地的辉发河上游一带,辽东半岛则是朝鲜(古朝鲜)的重要分布地域(图一)。需要说明的是,东北亚史学界一般把古朝鲜(包括箕氏朝鲜)置于青铜时代后期进行讨论和研究,则《管子》所言朝鲜大致是指古朝鲜。

上引《揆度》、《轻重》两篇对“文皮”没有详细说明,只是笼统言为“一豹之皮”,不过《地形训》、《释地》两篇的“文皮”,东汉高诱、东晋郭璞曾分别注曰:“文皮,虎豹之皮也”,“虎豹之属,皮有缛者。”《释地》宋人邢昺疏曰:“文皮,虎豹之属,其皮毛有文采、细缛,故谓之‘文皮’焉。”另,《说文》:“文,错画也,象交文”,意即交错的纹理;“缛,繁采色也”,意即繁密的彩饰。可见,这里的“文皮”是概指虎豹等野生哺乳动物名贵的花纹漂亮的毛皮。又,《诗经·豳风·七月》载:“取彼狐狸,为公子裘”,《三国志·乌丸鲜卑东夷传》裴注引《魏书》曰:鲜卑“又有貂、豹、鼬子,皮毛柔蠕(缛),故天下以为名裘”,直言名贵毛皮是用来制作裘服的。由此可知,诸篇所言花纹漂亮的“文皮”应主要用于制作裘服,至于《揆度》所言作为“玉币”的“文皮”和“毳服”(按指以落毛兽皮制作的衣服),也并不是要制成货币(皮币),而是泛指“财货币帛”,马非百先生认为是与发族和古朝鲜进行贸易交换的媒介¹⁰⁾。

已有文献史料还能透露出,齐国上层贵族拥有裘服制品比较普遍,其对名贵毛皮的需求是很大的。如《管子·小匡》载:“又游士八千人,奉之以车马、衣裘,多其资粮,财币足之,使出周游于四方,以号召收求天下之贤士”;《晏子春秋·内篇》载:“景公之时,雨雪三日而不霁,公被狐白之裘,坐堂侧陛。……乃命出裘发粟与饥人”;《晏子春秋·外篇》载:“景公赐晏子狐之白裘,玄豹之茝(按指衣边),其赏千金,……晏子辞而不受”;《史记·孟尝君列传》载:“此时孟尝君有一狐白裘,直千金,天下无双,入秦献之昭王”。《孟尝君列传》之“狐白裘”,《史记集解》引韦昭曰:“以狐之白毛为裘。谓集狐腋之毛,言美而难得者”;《汉书·匡衡传》也有“狐白之裘”语,颜师古注云:“狐白,谓狐腋下之皮,其色纯白,集以为裘,轻柔难得,故贵也。”可知,狐白裘要收集狐狸腋下“轻柔难得”之纯白毛皮才能制成(故有成语“集腋成裘”),更说明对原材料的需求量之大,狐皮显然也应属名贵毛皮之列。

据《周礼·天官》记载,周王朝设有“司裘”及“掌皮”职官,专门负责制作和管理裘服、皮服,以作为王室冕服制度的重要组成部分,从而形成了生产裘皮服饰的王室贵族手工业。《管子·揆度》载,管子对曰:“令诸侯之子将委质者,皆以双武(虎)之皮,卿大夫豹饰,列大夫豹幘。”由此推测,齐国等诸侯国可能也实行了包括裘皮服饰在内的冕服制度。而据《周礼

7) 林沄:《中国东北系铜剑初论》,《考古学报》1980年第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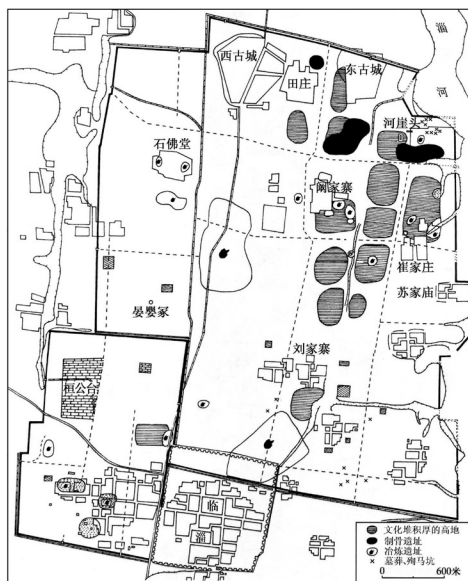
8) 林沄:《“燕亳”和“燕亳邦”小议》,《史学集刊》1994年2期。

9) 任伟:《西周封国考疑》,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4年。

10) 马非百:《管子轻重篇新注》,中华书局1979年。

《考工记》记载,作为“六工”之一的“攻皮之工”设有函人、鲍人、鞣人、裘氏、韦氏等五个工种,专门负责加工制作甲冑和裘服等。学界一般认为,《考工记》是春秋末年齐国人记录手工业生产技术的官书,即齐国制定的一套指导、监督和评价官府手工业的技术制度¹¹⁾。由此可知,齐国有着比较完善和发达的生产裘皮服饰的官营手工业。

齐国都城即今临淄齐故城,根据新公布的该城址历年考古发现看,在大城东北部已发现有5处制骨作坊遗址,使用时期以东周为主,少数可早到西周或更早,其中4处的面积约在1万平方米以上,最大的苏家庙村西遗址有近10万平方米(与冶铁遗存共出),比较单纯出土制骨遗存的河崖头南遗址有5.7万平方米(图二)。这些遗址出土制骨遗存丰富,包括大量经过锯切和磨制的骨料、牙料和一些骨器等¹²⁾。如果与《考工记》的“六工”(攻木—木作、攻金—铸造、攻皮—制皮、设色—染色、刮摩—制玉、抔埴—制陶)相比照,齐故城已发现的冶铸、制骨、制陶等手工业遗存中,最有可能与“攻皮之工”相关的就是这些制骨作坊址,其数量和规模仅次于冶铸遗存,这在东周列国都城中是比较罕见的¹³⁾。尤其它们都集中分布于大城东北部,这一带是春秋时期姜齐的公室所在(曾发现大墓和殉马坑),很可能属于齐国的官营手工业。这些也从某种程度上说明,齐国生产裘皮服饰的官营手工业比较发达,其对名贵毛皮的需求应是很大的。



图二 临淄齐故城平面图

(据《临淄齐故城》图六简绘,苏家庙村西遗址和崔家庄北遗址的制骨遗存与冶铁遗存同出)

11) 吴枫主编:《简明中国古籍辞典》,吉林文史出版社1987年;戴吾三编著:《考工记图说》,山东画报出版社2003年。

12)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编著:《临淄齐故城》,文物出版社2013年。

13) 参见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编著:《中国考古学·两周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

二、先秦时期东北亚出产的名贵毛皮： 齐国获取“发、朝鲜之文皮”的可能性

通过查阅有关文献史料,可知齐国获取动物毛皮或裘服制品的途径大致有三:一是境内自产。如《管子·揆度》载,管子对曰:“令‘诸侯之子将委质者,皆以双武之皮,卿大夫豹饰,列大夫豹幘。’大夫散其邑粟与其财物,以市虎豹之皮,故山林之人刺其猛兽,若从亲戚之仇……”;二是他国赠送。如《左传·昭公二十九年》载:“公赐公衍羔裘,使献龙辅于齐侯,遂入羔裘,齐侯喜,与之阳谷”;三是从外地贸易而来。如上引“发、朝鲜之文皮¹⁴⁾”。其中《昭公二十九年》之“羔裘”应即《周礼·天官》所载用黑羔皮制成的天子“大裘”,这一方面说明此类羔裘价值连城,另一方面也说明通过第二种途径获得裘服比较罕见而且代价昂贵,因此不会是齐国获取毛皮或裘服的主要途径。剩下的第一和第三种途径,即齐国境内自产和外地贸易而来的具体情况如何,因为文献史料的严重不足,则需要结合考古资料做进一步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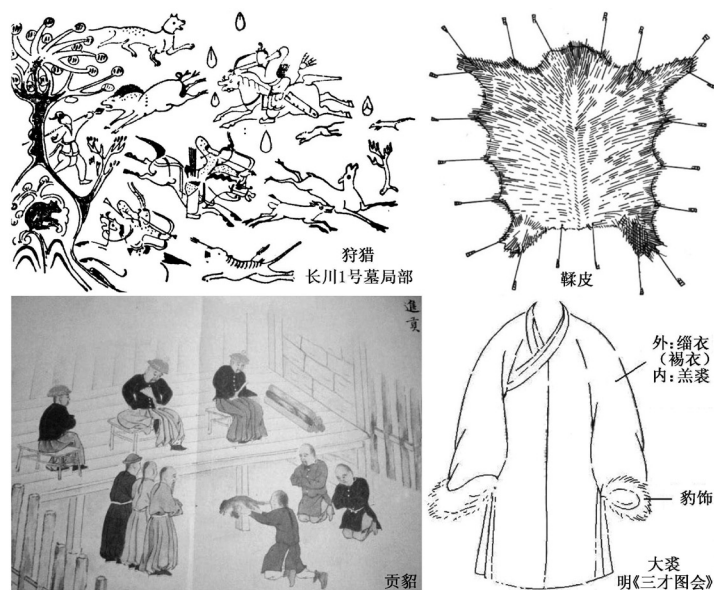
我国古代随着社会的发展和进步,逐渐对毛皮动物的经济价值有了认识,如《诗经·豳风·七月》载:“取彼狐狸,为公子裘”,孔颖达《正义》曰:“取狐与狸之皮,为公子之裘。丝麻不足以御寒,故为皮裘以助之。”何况有些毛皮动物(如貂、狐、鼬)的肉质本来就不适于食用,或口味不佳或营养不高,反而其毛皮具有御寒保暖性能,经济价值较高。所以就逐渐出现了专门猎取毛皮动物以开发利用其经济价值,也就有可能在遗址中发现这些动物的遗骸。因此,尽管古代的动物毛皮和裘服制品早已腐烂无存,无法获得实物例证,但我们可以通过分析考古遗址中出土的毛皮动物遗骸的信息,来间接获取毛皮及裘服的证据。尤其近些年来动物考古发展较快,发掘出土的动物遗骸经过鉴定的显著增加,为从考古学角度进一步分析提供了难得条件。为了使结论最大程度达致合理可信,我们把齐国所在的山东地区和发、朝鲜所在的东北地区置于整个东北亚之中(包括朝鲜半岛),把时间范围扩大到先秦时期(本文指新石器至商周时期,个别延至汉代),对整个东北亚主要地域先秦时期各遗址经发掘出土和鉴定的野生哺乳动物(包括名贵毛皮动物)遗骸进行统计和比较,通过这种方式来考察山东地区和东北地区先秦时期出产动物毛皮、尤其是名贵动物毛皮的有关情况。

根据《礼记·玉藻》等文献记载及相关青铜器铭文,可知周秦时期上层贵族使用的名贵裘服主要有羔裘、狐裘、虎裘、狼裘、豹裘、熊裘、貂裘、貉裘,平民使用的则是鹿裘、羊裘等¹⁵⁾,其中除了羔裘、羊裘是家畜羊的毛皮制成,其余都是野生动物毛皮制成的,裘服的衣边和袖口也都用野生动物毛皮作装饰(参见图三之“大裘”)。1964年出版的《中国经济动物志·兽类卷》则总结出现代用于制作裘服的名贵野生毛皮动物种类,主要有貂、狐、

14) 据《管子·轻重》载:“代之出,狐白之皮……(桓公)即令中大夫王师北将人徒,载金钱之代谷之上,求狐白之皮”。不过,马非百以代国晚出,认为此条记载不实,说见氏著《管子轻重篇新诠》。今按,此条中“载金钱之代谷之上”,与下述齐国货币基本不出境相矛盾,颇为可疑。

15) 许嘉璐:《中国古代衣食住行》,北京出版社2002年;李岩:《周代服饰制度研究》,吉林大学2010年博士学位论文。

貉、水獭、虎、豹、熊、獾等食肉动物，食草动物中只有麋皮较好¹⁶⁾。与周秦时期认定的野生名贵毛皮动物种类相比，没有狼而多出水獭、獾和麋。考虑到文献史料和铜器铭文的记录不全，还有以后新发现补充的空间，以及周秦贵族除了裘服以外其它目的使用毛皮的情况（如车饰），我们就以现代认定的野生名贵毛皮动物（外加狼）作为统计和讨论的基础。



图三 一组从狩猎毛皮动物到制为裘服的图像参考资料

山东地区经过半个多世纪的考古工作，新石器和商周时期遗址已经发掘几百处，多数都出土了野生动物（哺乳动物、鸟类、鱼类、贝类等）遗骸，又以新石器遗址发表动物鉴定报告为多，其中30余处经较大规模发掘并鉴定发表的野生动物种类较多，宋艳波博士近年对这批资料做了综合收集和研究¹⁷⁾，我们在此基础上选出5处出土野生毛皮动物种类较多的遗址¹⁸⁾（表一、图一），其它遗址基本不见或很少出土。分析这5处有代表性的遗址，其出土的名贵毛皮动物种类有两个显著特点：

一是时代变化较明显，时代愈晚种类愈少。潍坊前埠下和兖州王因两遗址属于后李文化晚期至大汶口文化中期，出土的名贵毛皮动物种类最多，共有虎、狐、貉、狼、貂、水

16) 寿振黄主编：《中国经济动物志·兽类》，科学出版社1964年。另参见王殿军：《长白山的毛皮动物》，《博物馆研究》1991年1期。

17) 宋艳波：《海岱地区新石器时代的动物考古学研究》，山东大学2012年博士学位论文。

18)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等：《山东潍坊前埠下遗址发掘报告》，《山东省高速公路考古报告集（1997）》，科学出版社2000年；周本雄：《山东兖州王因新石器时代遗址出土的动物遗骸》，《山东王因一新石器时代遗址发掘报告》，科学出版社2000年；宋艳波等：《即墨北阡遗址2007年出土动物遗存分析》，《考古》2011年11期；周本雄：《山东濰县鲁家口遗址动物遗骸》，《考古学报》1985年3期；卢浩泉等：《山东泗水县尹家城遗址出土动、植物标本鉴定报告》，《泗水尹家城》，文物出版社1990年。

獾、獾、麂8种,单个遗址出土5种,其余大汶口文化中晚期至商周时期遗址出土的种类明显减少,只有5种,单个遗址只出土2—3种。尤其是商周时期的遗址,一般都很少出土毛皮动物了,如桓台前埠和济南大辛庄遗址(商代)只出土1种(分别为貉、虎),济南王府遗址(东周)很少见到野生动物遗骸,临淄齐故城历年发掘的商周墓葬也不见野生动物随葬¹⁹⁾;

二是深山区出土较少,山区周围的丘陵平原地带出土较多。山东深山区的遗址发掘较少,目前所知只有近年发掘的沂源黄崖洞遗址(北辛文化)出土动物经过鉴定,但也只有獾一种,其余都不是毛皮动物(斑鹿、野猪、兔子)²⁰⁾。位于沂蒙山区西南麓的泗水尹家城遗址,则出有虎、狐、小麂3种,尤其在东周灰坑中出土了2件完整的虎下颌骨,还出土了几件可能用于狩猎毛皮动物的铲形平头铁镞(原称B型刀),可知很可能是从山区狩猎来的(图四)²¹⁾。《晏子春秋·内篇》也载:“(齐)景公上山见虎,下泽见蛇”,如果这条可信,也说明山区理应出产名贵毛皮动物。但这样的遗址毕竟是少数,多数遗址都在山区周围的丘陵平原地带,如前埠下、王因、鲁家口等,北阡遗址也在丘陵地带。

表一 东北亚地区先秦遗址出土野生哺乳动物遗骸统计表
(粗体并加下划线者为名贵毛皮动物,粗体者为可能的“班鱼皮”动物)

地区	遗址	地理位置	距今年代	野生动物种类
山东地区	前埠下	潍坊市	7800—5000	<u>虎、狐、貉、狼、狗獾、麂、猫、野猪、斑鹿、獐、野猪、中华鼯鼠</u>
	王因	兖州市	7000—6000	<u>虎、狐、貉、狼、獾、水獭、山猫、麋、狗、獐、水鹿、白唇鹿、野猪</u>
	北阡	即墨市	6500—5500	<u>貉、狗獾、猫、斑鹿、獐、兔、麋、马鹿</u>
	鲁家口	潍坊市	5500—4000	<u>狐、貉、獾、猫、獐、麋、东北鼯鼠、斑鹿</u>
	尹家城	泗水县	4500—2000	<u>虎、狐、小麂、豹猫、斑鹿、麋</u>
东北地区	北吴屯	辽宁庄河县	7000—6000	<u>虎、貉、棕熊、獾、斑鹿、獐、狗</u>
	左家山	吉林农安县	6000—4000	<u>虎、狐、貉、黑貂、狼、水獭、獾、豺、野猫、麝、斑鹿、马鹿、狗、獐、野猪</u>
	郭家村	辽宁大连市	5500—4000	<u>豹、貉、熊、狼、獾、麂、野猫、斑鹿、獐、狗、麝、马鹿、鲸</u>
	万发拨子	吉林通化市	4500—1500	<u>虎、熊、狗獾、水獭、麂、野猪、马鹿、狗、水牛</u>
朝鲜半岛	西浦项	朝鲜清津市	6000—3000	<u>熊、狐、海狗、海驴、海豹、海豚、鲸、山猫、斑鹿、马鹿、狗</u>
	农圃	朝鲜清津市	6000—4000	<u>虎、狐、狼、水獭、海狗、海豹、海驴、鲸、麝、马鹿、狗、朝鲜羚羊、野猪</u>
	美松里	朝鲜义州郡	5000—3000	<u>虎、豹、狐、鼬、斑鹿、獐、狗、马鹿、野猪</u>
	虎谷洞	朝鲜茂山郡	5000—2000	<u>黑貂、高丽獾、高丽鼬、野猪、狗、马鹿</u>
	立石里	朝鲜平壤	3000—2000	<u>狐、獾、水獭、鼬、斑鹿、獐</u>
	水佳里	韩国金海市	5000—4000	<u>熊、獾、海豚、鲸、獐、斑鹿、山猫、野猪</u>

19) 宋艳波等:《桓台唐山、前埠遗址出土的动物遗存》,《东方考古》5集,科学出版社2008年;宋艳波等:《山东济南大辛庄1984年发掘动物遗骸分析》,《东方考古》5集,科学出版社2008年。临淄齐故城、济南王府遗址的发掘出土情况,承山东省考古所魏成敏、孙波先生惠告。

20) 承宋艳波博士惠告。

21) 山东大学历史系考古教研室:《泗水尹家城》,文物出版社1990年。



图四 山东泗水尹家城遗址出土的周代虎下颌骨(T234H370:1、2)

东北地区的先秦时期遗址出土野生哺乳动物遗骸很普遍,但经过较大规模发掘和系统动物鉴定的遗址还不多,大约只有山东地区的三分之二,甲元真之先生曾对这批资料做过综合收集和分析²²⁾,我们在此基础上补充新资料选出4处有代表性的遗址²³⁾(表一、图一)。这4处遗址出土的名贵毛皮动物种类也有两个特点:

一是出土种类丰富,时空变化不明显。包括了虎、狐、貉、狼、熊、貂、水獭、獾、麝等所有9种,而且在时间和空间上的多寡变化都不明显。如新石器时代的3个遗址出土的名贵毛皮动物有4—7种,而以商周至汉魏时期遗存为主的通化万发拨子遗址,出有5种名贵毛皮动物,差别不大,该遗址的动物鉴定者汤卓炜先生还特意指出,出土的狗獾可能与获取毛皮有关²⁴⁾。另外,该遗址地处长白山山区腹地,与地处沿海地带的大连郭家村和庄河北吴屯两个新石器时代遗址相比,出土的名贵毛皮动物种类也差别不大;

二是单个遗址出土的种类都较多。只有庄河北吴屯是4种略少,其余3处都在5种以上,农安左家山则达到7种,其它未列入统计的遗址出土两三种名贵毛皮动物也较多,如黑龙江海林细林河遗址和辽宁大连羊头洼遗址就出土了2种(分别是熊、狼和狼、獾)²⁵⁾。

通过以上分析可以发现,山东地区和东北地区出土的名贵毛皮动物存在较为明显的不同,尽管东北可供统计和分析的遗址数量比山东少,但东北无论是大的时空范围还是单个遗址,其出土的名贵毛皮动物种类都比山东多,尤其商周时期遗址出土的种类明显比山东多。综

22) 甲元真之:《東北アジアの初期农耕文化——自然遺物の分析として》,《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论文集Ⅱ: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文献出版1991年。

23) 傅仁义:《大连市北吴屯遗址出土兽骨的鉴定》,《考古学报》1994年3期;陈全家:《农安左家山遗址动物骨骼建东及痕迹研究》,《青果集》,知识出版社1993年;傅仁义:《大连郭家村遗址的动物遗骨》,《考古学报》1984年3期;苏拉提萨、汤卓炜等:《吉林通化王八脖子聚落遗址动物遗存初步分析——新石器时代晚期至魏晋时期》,《环境考古研究》3辑,北京大学出版社2006年。

24) 苏拉提萨、汤卓炜等:《吉林通化王八脖子聚落遗址动物遗存初步分析——新石器时代晚期至魏晋时期》,《环境考古研究》3辑,北京大学出版社200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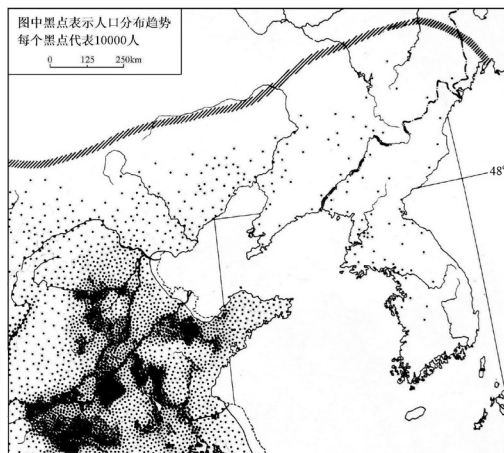
25) 陈全家等:《黑龙江海林市细林河遗址出土的动物骨骼遗存研究》,《考古》2004年7期;东亚考古学会:《羊头洼》,1932年东京。

合考虑各种情况,造成这种差别的原因主要有三个:

一是两个地区先秦时期的经济形态有明显不同。山东至少从距今6000年前后的大汶口文化早期就已基本确立了以农业为主的经济形态(胶东半岛可能在大汶口文化中晚期),而东北地区即使到东周时期多数地方狩猎采集仍是很常见的经济模式。所以,东北遗址出土野生动物遗骸很常见,无论数量和比例都远远高于山东,而山东地区遗址出土的家畜(猪狗牛羊等)则远远多于东北;

二是两个地区先秦时期的人口分布形势明显不同。在经济形态不同的背景之下,历史上东北的人口一直比较稀疏,无论总量和密度都远远低于山东。陈正祥先生早年曾根据《汉书·地理志》的记载,对西汉晚期(公元2年)的人口分布做了经典复原,结果清楚显示,当时人口主要分布在黄河中下游地区,东北等边远地区则人烟稀少(图五)²⁶⁾。这一人口形势至少可以上推到新石器晚期,延续至今也没有根本改变。这就使得山东的自然环境从很早就受到人类大规模的干预和破坏,野生动物尤其是要求领地较大的食肉动物的生存空间遭到严重挤压,因此其种群数量远远低于东北;

三是两个地区的地理环境有明显差异。东北大部都处于北纬40—50°,以山东长岛至吉林辉发河流域计算,比山东纬度偏北5°以上,气候比山东寒冷很多(如长白山区每年0℃以下有3—5个月,为全国最冷地区之一),且幅员辽阔,多深山密林,再加上历史上少有人类破坏,所以野生动植物资源丰富,尤其盛产高质量的名贵毛皮动物,种类能占全国的一半以上,其毛色浓密而鲜亮,保暖防水性能极佳,冠于全国,如《长白汇征录》就载:“貂皮最能御寒,遇风更暖,著雪即消,入水不濡。……(长)白山左近森林荫翳,产貂尤佳。²⁷⁾”



图五 西汉晚期(公元2年)黄河中下游及东北亚地区的人口分布形势图

(引自陈正祥著22页附页“西汉人口分布”图局部)

26) 陈正祥:《中国文化地理》,三联书店1983年。

27) (清)张凤台:《长白汇征录》,吉林文史出版社1987年。

事实上,有很多资料都证明,东北地区在秦汉以来一直是中原王朝最重要的名贵动物毛皮供应地。据《三国志·乌丸鲜卑东夷传》记载,汉魏时期活动于东北地区的鲜卑、夫余、挹娄等国曾向中原进贡土特名产,其中就有名贵的貂皮,如夫余“其国善养牲,出名马、赤玉、貂狝、美珠”,挹娄“出赤玉、好貂,今所谓‘挹娄貂’是也”,裴注引《魏书》曰:“(鲜卑)又有貂、貉、鼬子,皮毛柔蠕,故天下以为名裘”。成书晚于《三国志》的《后汉书·东夷列传》也有类似记载,唯夫余之“貂狝”录为“貂、貉”,注曰“貉似豹”。属于汉魏南北朝时期的高句丽虽少见向中原进贡毛皮的记录,但吉林集安发现的高句丽墓葬长川1号墓,则有表现山林中围猎虎、貂、鼬、鹿、野猪(树洞中还有一只黑熊)的壁画(图三)²⁸⁾。迨至唐代,《新唐书·北狄传》记载,活动于东北腹地的室韦、大拂靺鞨和黑水靺鞨都来贡献过貂(貂鼠)。清代这种纳贡就更多了,据《黑龙江纪略》载:“咸丰以前,五月纳貂之期,各部大会于齐齐哈尔城,卓帐荒郊,皮张山积”,仅黑龙江城(今漠河县兴安镇)每年就要交纳貂皮4200张²⁹⁾,并留下了达斡尔人向当地清朝官员贡貂的场景资料,以及有关鞣制毛皮的民俗资料(图三)³⁰⁾。

民国以来,1935年,齐齐哈尔的达斡尔人共猎获熊5、水獭4、狐狸30、貂20、狼20、獾130只,辽宁省东部山区各县40年代中期每年可收购水獭皮和熊皮各数百张。直到上世纪七八十年代,东北三省仍然盛产名贵动物毛皮,如黑龙江省80年代初一年就收购各类野生毛皮40余万张,其中紫貂、貉、狐、獾、水獭等名贵毛皮近9000张,吉林省延边地区1973年收购东北虎皮48、豹皮40、水獭皮91、紫貂皮753张,1978—81年共收购獾皮5720、狐皮和貉皮3659张,辽宁东部山区1980年收购狐皮达2350张。³¹⁾这些资料足可让我们想见先秦时期东北地区盛产名贵毛皮的景象。

根据以上分析可知,山东地区在先秦时期出产名贵毛皮动物比较少,且随着时代发展、人口增加和环境变迁,到商周时期名贵毛皮动物已很少见。东北地区则整个先秦时期毛皮动物一直比较丰富,时代变迁不明显,商周时期仍然很多,且因为气候寒冷和高山森林,毛皮的质量上乘。这足以证明,《管子》所载齐国从东北亚获取“发、朝鲜之文皮”是有现实需求的,其历史背景也是真实的,再加上来自辽东半岛的同时期青铜短剑的发现(详下),我们完全可以作出判断,齐国应从东北亚获取了名贵动物毛皮;而且,“发、朝鲜之文皮”很可能是当时东北地区所产名贵毛皮的总称,古朝鲜不过是因为地理位置靠近齐国(北发则靠近古朝鲜),遂被齐人目为东北各族的代表而冠于“文皮”之首,而所谓“文皮”既不会像历代注疏家认为的那样只有虎皮和豹皮两种,也不会是仅指花纹漂亮的毛皮,应该包括那些

28) 吉林省文物工作队等:《集安长川一号墓》,《东北考古与历史》1982年1辑。

29) (清)徐宗亮等:《黑龙江述略》,黑龙江人民出版社1985年。

30) 转引自姜仁旭:《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한국고대사연》64号,2011年。

31) 详见程继臻:《张广才岭老爷岭地区经济兽类资源的利用与管理》,《自然资源研究》1985年2期;肖增祜:《辽宁珍贵稀有兽类资源现状》,《辽宁林业科技》1987年4期;杨伯然:《长白山区的野生兽类》,《延边农学院学报》1990年4期;邱宝鸿等:《延边珍稀经济兽类资源及种群变动趋势的探讨》,《吉林林业科技》1995年2期;谷文双等:《达斡尔族狩猎业考述》,《黑龙江民族丛刊》1997年4期。

毛色比较单调没有文缟的水獭皮、貂皮和狐皮等。

除此之外,朝鲜半岛也有多处先秦时期遗址出土了名贵毛皮动物遗骸,甲元真之也对这批材料作了综合收集和分析,我们在此基础上选出6处遗址作为代表(见表一、图一)³²⁾。甲元氏明确主张,这些遗址出土的虎、豹、熊、狐、獾、黑貂、水獭、高丽獾、高丽鼬等动物,应是为了获取毛皮而猎获的,尤其像平壤立石里遗址,其出土的獾、鼬、水獭、狐狸、熊等毛皮动物遗骸,能占到所有野生兽类遗骸的近三分之二,因此该遗址很可能是当时的毛皮贸易中心。以平壤为中心的西北朝鲜曾是古朝鲜的活动地域,故我们推测,齐国获取的“发、朝鲜之文皮”很可能还包括了来自朝鲜半岛的毛皮。

另外,朝鲜半岛的沿海遗址往往出土大量的海生哺乳动物遗骸,种类包括海豹、海豚、海狗、海驴(海狮)、鲸等(见表一)。据《三国志·乌丸鲜卑东夷传》记载,活动于今朝鲜东海岸的濊人“其海出班鱼皮,土地饶文豹,又出果下马,汉桓时献之。”按,此处之“班”应通“斑”,意即颜色驳杂³³⁾,所谓“班鱼”应指海豹、海狗等毛皮有斑点的海生哺乳动物,与这些考古发现相符。这些海生哺乳动物如海豹的毛皮厚而光滑,御寒防水性能较好,可做成衣物、鞋帽、帐幕等³⁴⁾。目前所知,海豹等海生哺乳动物几十年前曾多见于我国东部沿海,如辽宁葫芦岛一带上世纪50年代四五月间经常见到几十头海豹,黄东北亚岸的东沟、庄河、新金海域和胶东半岛沿海也可见到³⁵⁾,朝鲜半岛和日本沿海也较多见。这提醒我们,我国东部沿海尤其北方沿海的遗址是否也能出土此类海生哺乳动物的遗骸,甚或发现了其毛皮价值。至于齐国获取的“发、朝鲜之文皮”中是否包括了产自朝鲜半岛的“班鱼皮”,现在还没有确凿证据,有待以后考古资料的验证。

三、齐国与东北亚的贸易货品和交通商路

根据已有的考古发现,山东和东北两个地区的相互交往约始于距今6000年前后的大汶口文化早期,至距今4500—3400年间迎来一次高潮,来自山东龙山文化和岳石文化的陶器等文化因素,从胶东一带通过庙岛群岛大量进入辽东半岛,足以改变那里的土著文化面貌,一些文化因素还深入到东北腹地继续传播,影响深远。笔者此前曾指出,辽东半岛出土的较标准的“黑薄亮”龙山文化陶器,应是龙山移民初上半岛带去和以后频繁的南北交往中输入的³⁶⁾,此类遗存的族属很可能就是《尚书·禹贡》冀州条记载的“乌夷”,大连郭家村遗址出土的豹、熊、貉等名贵毛皮动物遗骸则与乌夷制作和入贡“皮服”不无关系³⁷⁾。由此可见,

32) 甲元真之:《東北アジアの初期农耕文化——自然遺物の分析として》,《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论文集Ⅱ: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文献出版1991年。

33) 参见《辞源》2055—2056页“班”字条,商务印书馆2009年。

34) 肖增祐:《辽宁珍贵稀有兽类资源现状》,《辽宁林业科技》1987年4期。

35) 肖增祐:《辽宁珍贵稀有兽类资源现状》,《辽宁林业科技》1987年4期。

36) 王青:《试论山东龙山文化郭家村类型》,《考古》1995年1期。

37) 王青:《〈禹贡〉“乌夷”的考古学探索》,《北方文物》1995年4期。

史前时期山东和东北的毗邻地带通过海路进行的物品交换或贸易已经达到一定规模。历史进入东周时期,通过上节分析可知,齐国与东北亚的贸易活动可以确定输入了名贵毛皮,进一步检核考古资料可以发现,双方的贸易货品还有铜兵器,以及可能的铜礼器等,人员的相互往来也趋于频繁。

1965年在山东长岛县大竹山岛发现一座墓,随葬5件铜器,其中有1把短剑(原称匕首),有剑格并饰变体兽面纹,茎部为透雕蟠虺纹(图六)³⁸⁾。笔者曾依据同出铜器将此墓断在春秋中期³⁹⁾,这个时期山东地区也陆续开始用铜剑作为作战兵器,但是侧刃较直、剑身略长的柳叶形,无剑格及纹饰,剑茎上也没有纹饰,如蓬莱辛旺集墓地出土者(图六)⁴⁰⁾。大竹山这种形制的短剑为山东所未见,近年来已有学者指出,其应属于北方文化圈的“花格剑”,这种短剑目前已发现70多把,主要分布在甘肃、陕西、山西、河北等地,流行于西周晚期到战国早期⁴¹⁾。尽管在辽东半岛尚无此类短剑发现,但从地理位置可以断定,大竹山短剑应是通过海路从北面得来的。

几乎同时,1960年在大连旅顺楼上墓地发现了1把属于春秋中晚期的柳叶形剑(图六)⁴²⁾,与蓬莱辛旺集出土的柳叶剑形制比较接近,而同时期辽东半岛流行的兵器是东北系曲刃短剑(详下),楼上的这把柳叶剑显得非常突兀,显然是外来的,从地理位置同样可以断定,它应是通过海路从胶东半岛得来的。春秋中晚期胶东和辽东分属莱国和古朝鲜的辖境,大竹山剑和楼上剑的发现说明,这两地在春秋时期就已经有所来往,而且楼上这把柳叶剑还装有通常与东北系曲刃短剑配套使用的T形剑柄,说明对这种柳叶剑的特点比较了解,也比较珍爱。

进入春秋晚期以来,从东北地区输入的铜短剑明显增多了。笔者近年在山东已发表的东周考古资料中,发现了2把属于东北文化圈的曲刃短剑,出自栖霞杏家庄和日照市,还有3把这种短剑的仿制品,出自栖霞金山、昌乐岳家河、新泰周家庄遗址(图六)⁴³⁾。这几把剑属于春秋晚期至战国时期,时空位置都落在齐国境内。这种曲刃短剑在东北大部及朝鲜西北部发现最多,目前已出土近千把,因此是东北文化圈流行的兵器。而同时期山东地区流行的是由柳叶形剑发展来的平直刃长剑,为黄河长江中下游华夏文化圈最常用的兵器,仅山东地区就发现了上千把,所以发现的这2把曲刃短剑显然是外来的。目前在辽东半岛已发现了几十把曲刃短剑,如大连卧龙泉、楼上、尹家村等地都有出土(图六)⁴⁴⁾。所以,杏家庄短剑应是通过海路从辽东半岛获得的,日照出土的战国晚期短剑则是从胶东或辽东输入的。东北系短剑尽管比较短,不利于近身防卫,但有比较粗壮的剑脊,不易折断,还有

38) 李步青等:《山东省长岛县出土一批青铜器》,《文物》1992年2期。清理者将此墓断在战国前期。

39) 王青:《海岱地区周代墓葬与文化分区研究》,科学出版社2012年。

40) 烟台市文物管理委员会:《山东蓬莱县西周墓发掘简报》,《文物资料丛刊》1980年3期。

41) 井中伟等:《中国北方系青铜“花格”剑研究》,《边疆考古研究》13辑,科学出版社201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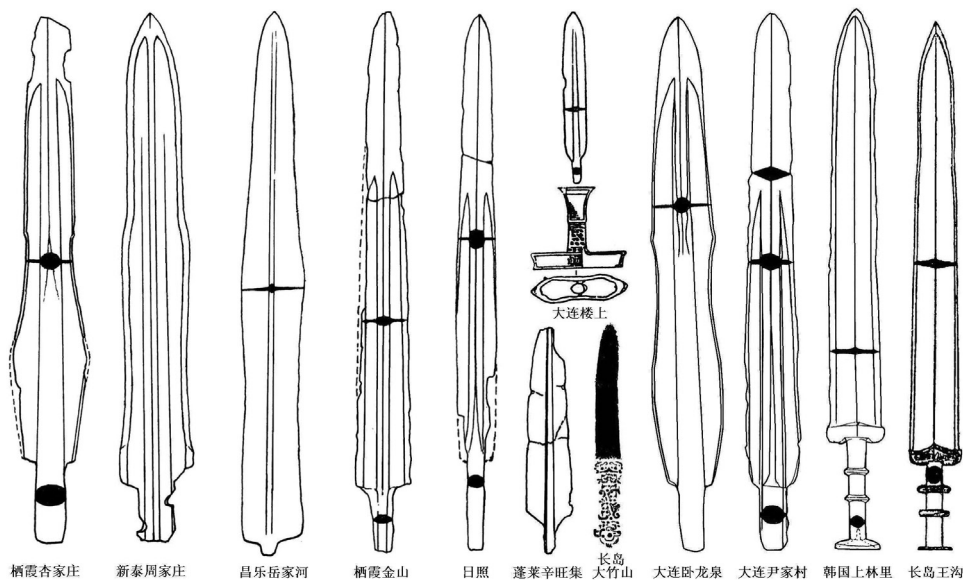
42)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编著:《双砣子与岗上》,科学出版社1996年。

43) 王青:《山东发现的几把东北系铜短剑及相关问题》,《考古》2007年8期。

44)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编著:《双砣子与岗上》,科学出版社1996年。

比较发达的节尖和血槽，能有效提高刺杀的效力。这说明，齐人应该是对东北系短剑的特性有了比较多的了解才仿制的。

另据报道，韩国完州上林里遗址曾一次出土了26把铜剑，都是剑身较长的平直刃长剑（图六）⁴⁵⁾，显然属于华夏文化圈的兵器，学界一般都认为来自中国。笔者曾指出，这些剑多数的脊部都稍微隆起，并因此显出宽浅血槽，与齐国的某些华夏系长剑（齐式剑）比较接近，所以这批铜剑很可能是从齐国传入的⁴⁶⁾。这些剑多未经磋磨和开刃，推测是祭祀行为的遗留，这又为山东所未见。根据《三国志·乌丸鲜卑东夷传》等文献的记载，战国以降直到汉代，朝鲜半岛中南部的土著民族为韩或三韩，可能是他们通过直接或间接贸易的途径从齐国输入了这些铜剑半成品，再按当地风俗用于祭祀。



图六 胶东和辽东半岛、朝鲜半岛出土铜剑举例

1973—75年在长岛王沟发掘了一处东周墓地，这是目前为止胶东出土最丰富的东周墓地之一，共清理发掘了19座墓，出土铜礼器19件，其中多数都是齐并莱国之后的墓葬⁴⁷⁾。就长岛当时的矿冶条件和文化水平来讲，这些质量较好的礼器显然不是本地铸造的，都应是外来的，发掘者就认为10号大墓的墓主可能是被田和“迁于海上”的姜齐末代国君康公⁴⁸⁾。但这并不意味着所有高档奢侈品都是从临淄带来的。例如10号墓出土的2件铜壶，发掘者虽然注意到其与河北唐山贾各庄燕墓出土的铜壶都是嵌错铜器，但并未细究。这2件铜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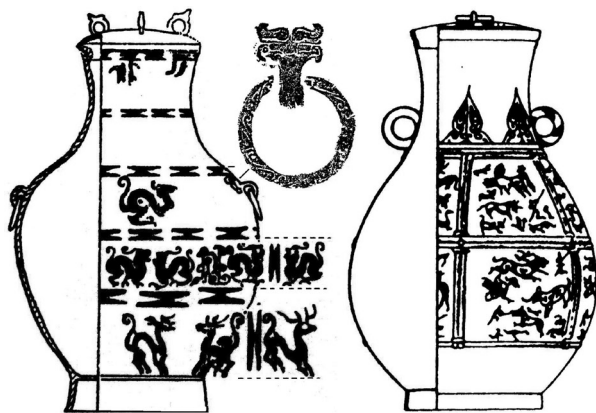
45) |(韓)全榮來：《完州上林里出土中國式銅劍 關——春秋末戰國初中國青銅器文化 南韓流入問題》，《全北遺跡調查報告》6輯，1976年。

46) 李慧竹、王青：《後期青銅器～初期鐵器時代中國山東地域 韓國間 交流》，(韓)《白山學報》64號，2002年

47) 烟台市文物管理委员会：《山东长岛王沟东周墓》，《考古学报》1993年1期。

48) 林仙庭：《“迁康公于海上”地望考》，《管子学刊》1992年2期。

形制和纹饰相同，器表纹饰为形象生动的动物纹，装饰技法采用嵌错红铜工艺，使铜壶显得格外华丽（图七）。唐山贾各庄出土的那件嵌错铜壶形制和工艺都很相似，只不过纹饰是狩猎动物纹（图七）⁴⁹⁾。而王沟铜壶各组动物纹之间以铁砧形窄条纹饰带相隔，这种铁砧形应是对箭靶“侯”的摹画，狩猎的意味很浓，所以这种动物纹应是另一种形式的狩猎动物纹。另外，王沟铜壶的辅首兽面也是比较典型的燕式风格（图七）。近年有论者指出，这种单纯表现狩猎动物纹的嵌错铜器属于燕代风格，是受北方文化圈影响发展而来，与华夏文化圈三晋等国多见表现宴饮、乐舞、弋射、采桑、战争场面的嵌错铜器不同⁵⁰⁾。由此可以推测，王沟这2件铜壶很可能来自燕国。辽东半岛目前还没有发现同时期随葬铜礼器的墓，无法断定是通过辽东输入的，但也不能完全排除这种可能。



图七 长岛王沟(左)和唐山贾各庄(右)出土铜壶

从以上分析可知，东周时期齐国与东北亚的贸易货品除了名贵毛皮之外，还有铜兵器剑，铜礼器壶可能也是。相信随着以后田野考古和研究工作的开展，还会发现其它种类的贸易货品。目前已知的这些货品多数属于春秋晚期以来，可知与齐国伐灭强莱掩有胶东半岛有直接关系，当然，与齐国和燕国的交往不断加强，以及战国晚期燕国统一辽东半岛也有很大关系。对此，在有关地域发现的齐国和燕国货币也很能说明问题。

东周以来，随着社会经济的发展和商贸往来的加强，华夏各国纷纷铸行金属货币，靠近北方的齐、燕、赵等国以大量铸行刀币著称。燕国铜币（刀币、刀范、圜钱等）在山东素有出土，据有关学者统计已有17地，均在齐国境内（有的与齐币同出），其中包括胶东的长岛、蓬莱、龙口（原黄县）、莱州（原掖县）、牟平、招远、即墨、平度等县市（位置见图八），如牟平城会1984年曾一次出土9公斤约300枚“匱”刀币，平度的即墨故城1987年则出土了1500枚⁵¹⁾。这些发现说明，燕国商人在齐国的商贸活动非常活跃，已深入到齐国腹

49) 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河北省唐山市贾各庄发掘报告》，《考古学报》1953年1期。

50) 宋玲平：《东周青铜器叙事画像纹地域风格浅析》，《中原文物》2002年2期。

51) 孙敬明：《考古发现与齐币探索》，氏著《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

地的胶东一带。尽管齐燕之间的交往路线是以渤海西岸的陆路为主,但考虑到胶东对岸的辽东半岛发现了更多燕币(大连地区就有50余地),如旅顺三涧堡蒋家村、新金县徐大屯乡北岚村、瓦房店凤鸣岛等⁵²⁾,地处辽东最南端的旅顺铁山镇牧羊城汉代城址也有始建于战国后期的线索,可能发挥着戍卫城堡和商贸集散中心的作用⁵³⁾,所以有些燕国商人很可能是从海路通过庙岛群岛进入胶东的。

齐国货币已发现于山东大部,但基本不出齐国境内,对此有关学者已经指出,其背景可能是齐国当时实行国家铸行货币、不得出境和用于随葬的缘故⁵⁴⁾。换言之,齐国货币不见于辽东半岛等地,并不意味着齐国商人不曾进出辽东,相反,从上述来自东北的名贵毛皮和青铜短剑看,齐国商人显然已进入辽东等地,与各族进行了一些接触和商贸活动,不仅对各类货品有了深入了解,对当地的风土物产可能也有所掌握,如《管子·地数》曾载:“燕有辽东之煮”,意即燕国的辽东出产海盐,这一信息就可能是由商人提供的,至于辽东海盐是否也在货品之列,则未可知。

依据上述这些考古发现并参照当地的地形地貌,就不难勾勒出当时齐国与东北亚交往的两条主要交通路线。一条是从临淄向东北行,再沿胶东半岛西北岸至蓬莱、长岛、辽东一线,在半岛段大致即今国道G206左近。这是一条历史悠久的交通干道,早在史前时期就已存在,如莱州湾南岸的潍县鲁家口大汶口文化中期遗址,就出土了具有胶东土著文化风格的菌状钮圈底罐等,发掘者认为其时已与胶东半岛西北岸有所联系⁵⁵⁾。西周至春秋时期的莱国都城龙口归城遗址也在西北岸,汉代西北岸分布着掖县、曲成等10多个县,是半岛县城最密集地带。胶东半岛西北岸只在滨海地带带有狭窄平原,是古今城市和人口的主要分布带,再加上遵海而行地理标识比较明确,所以成为胶东进出山东内陆的交通干道之一。至东周时期,西北岸的蓬莱、龙口、招远、莱州等县市出土的齐燕货币,大多数也在这条干道沿线,充分展现出这条干道的重要作用⁵⁶⁾(图八)。近年有学者从齐币的地理分布复原了胶东半岛交通路线,但没有标出这条干道,显然是有欠缺的⁵⁷⁾。

52) 王嗣洲:《大连市三处战国货币窖藏》,《考古》1990年2期。

53) 此承旅顺博物馆王嗣洲先生惠告。附按,牧羊城位于旅顺老铁山西南麓海滨,这一带是大连地区先秦时期遗址分布最密集之地,不知与斥山是否有关系,暂记于此。

54) 孙敬明:《考古发现与齐币探索》,氏著《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张光明:《齐刀币研究概论》,《齐国货币研究》,齐鲁书社2003年。

55)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山东队等:《潍县鲁家口新石器时代遗址》,《考古学报》1985年3期。

56) 孙敬明:《考古发现与齐币探索》,氏著《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

57) 陈隆文:《先秦货币地理研究》,95页图二,科学出版社2008年。

献,看看这种观点是否可信。《尔雅》、《淮南子》成书以后的相当长时间内,斥山未见于史籍,直到隋唐时期重新出现,如《隋书·地理志》载:东莱郡文登县“有文登山、斥山、芝罘山”,唐代日本僧人圆仁著《入唐求法巡礼行记》载,赤山浦附近的“赤山纯是岩石,高秀处即文登县青宁乡赤山村。山里有寺,名赤山法华院。”这里都未提及“斥山之文皮”。直到宋初乐史在其所著《太平寰宇记》中,才认为文登县的斥山即《尔雅·释地》的斥山,元代于钦著《齐乘》同之并进一步指出,斥山在文登县东南六十里海滨,至清儒郝懿行著《尔雅义疏》则进一步发挥,不仅指出斥山在荣成县(为清代从文登县析出)南一百二十里,而且认为斥山应出产文皮,并引《管子》所言“发、朝鲜之文皮”,认为隔海相望的朝鲜另有出产文皮的斥山。今人张政烺先生在上世纪50年代又提出,荣成斥山是海边的小山,不出虎豹,故《尔雅》“斥山之文皮”就是《管子》“朝鲜之文皮”,荣成斥山应是与黄海对岸古朝鲜开展海上贸易的海口⁶⁰⁾。1979年,马非百先生出版《管子轻重篇新诂》,遂总结性提出,“文皮”是发及朝鲜的特产,斥山则是齐国获取“文皮”的贸易港口,具体位置在山东荣成南⁶¹⁾。迄今,这已经成为一种颇为流行的观点⁶²⁾。

通过以上梳理不难发现,斥山荣成说其实是迟至北宋初年才出现的,经过历代不断阐发,才逐渐与《尔雅》“斥山之文皮”发生联系,最后又与《管子》“朝鲜之文皮”联系起来,期间的证据链条并不严密连贯。但也不能因此强求古人,尤其在面对文献史料如此匮乏的情况下,我们也只能认为“斥山之文皮”与“发、朝鲜之文皮”有联系,即齐国可能是通过贸易港口斥山获得了发和朝鲜的名贵毛皮。但要说《尔雅》斥山是否一定在荣成(明代以前的文登)则是另一回事。

首先,《隋书》之所以记录了斥山,将其与秦皇曾经登临过的文登山和芝罘山并列,其背景应是隋王朝完成了全国统一之后,与朝鲜半岛的交往重新步入正轨,文登斥山作为与黄海对岸高句丽、百济、日本等国的贸易港口才开始变得重要起来,直至唐代发展成为我国东部沿海重要的对外港口赤山浦,但其基本前提是这时期已经实现了横渡黄海的直航,唐代日人圆仁就是从新罗西熊州海岸(约在今韩国忠清南道泰安半岛一带)直航到赤山浦的(约需三昼夜)。而据今人研究,从胶东向东直航朝鲜半岛的航路是在汉代才初步开通,直到隋唐时期才正式稳定下来⁶³⁾,在先秦时期尚不具备这样做的技术条件,这是我们首先要注意的问题;

其次,现在多认为荣成斥山也称赤山,意即山体发红的山,证据就是圆仁《入唐求法巡礼行记》记载的赤山,而我们从其“赤山纯是岩石”的用词也确能得出这样的结论(现在仍可见其红色山石)。但问题是,胶东半岛上岩石呈红色的山体不在少数,并不限于荣成斥山一

60) 张政烺:《上古时代的中朝友好关系》、《五千年中朝友好关系》,开明书店1951年;收入氏著《甲骨文与商周史研究》,中华书局2012年。

61) 马非百:《管子轻重篇新诂》,中华书局1979年。

62) 史为乐主编:《中国历史地名大辞典》,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5年。

63) 陈隆文:《先秦货币地理研究》,科学出版社2008年;牟元珪:《古代山东在中韩关系史上的地位》,《第三届韩国传统文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山东大学出版社2009年。

处,如《太平寰宇记》记宋代与斥山同在文登县的召石山,“其下石色尽赤焉”,元《齐乘》同之,并说莱阳县北二十里有火山,“山多赤石,故以火名。”另外,通过百度地图简单搜索,还能查到胶东沿海有不少类似山名,如威海环翠区羊亭镇火焰顶(笔者儿时爬过)、荣成成山头上的红山、海阳行村镇红山、即墨鳌山卫镇红石山、青岛黄岛红石崖、胶南琅琊镇火山、日照河山镇火山,以及蓬莱境内的多座山体(详下)。显然,如果说斥山(赤山)是以岩石呈红色而得名,则胶东沿海实际上有很多符合条件的山体⁶⁴⁾;

第三,荣成市现在已发现的东周遗址非常少,只有滕家镇马草芥墓群1处⁶⁵⁾,至于早年朱活先生提及的荣成石岛一带曾出过齐刀币,笔者近年几经努力也未得到确凿的证据⁶⁶⁾。况且即使出土了齐国货币,也不能构成《尔雅》斥山在荣成的重要证据,因为这里的东周遗存太少,实在是当时非常偏远的“化外之地”,根本不具备发展成为贸易港口的社会条件。由此可见,《尔雅》斥山在荣成这种晚出的说法是不能成立的,我们只能另寻他处了。

根据上文对交通路线的分析不难看出,齐国与东北亚交往的两条陆上交通干道的交汇点和终点都在胶东半岛最北端的蓬莱一带,而且这里出土齐燕刀币的地点比较确定的已有3处⁶⁷⁾。此外,目前在蓬莱对岸的长岛县诸岛上也发现了齐燕刀币⁶⁸⁾,还有王沟墓地等重要遗存,可知这里是齐国国境的北界所在。换言之,蓬莱、长岛一带具备了成为贸易港口必需的社会条件,这是我们作出进一步判断的基本前提。另据地质部门的研究,现今蓬莱、烟台一带是山东省新生代火山岩的集中分布区之一,有多座第三纪以来火山爆发形成的山体,岩石多呈红色或红褐色、紫色。最典型的如蓬莱西北郊1.1公里的丹崖山,岩壁直立陡峭,基岩长年裸露风化而呈微红色,因此得名“丹崖山”,山上则是举世闻名的蓬莱阁⁶⁹⁾。据调查,此山自东向西分布有厚层石英岩、紫色薄层硅质板岩、青灰色厚层板岩及紫红色薄层石英岩等不同岩性地层⁷⁰⁾。另据地质调查和分析,蓬莱北沟镇一带的迎石山、赤山、红山、刘家沟镇红石山、大季家镇火山等,也都基本如此⁷¹⁾。可见,蓬莱的丹崖山等山体具备了斥山(赤山)得名的地质条件。

64) 于钦《齐乘》认为,斥山“盖以海滨广斥得名”。按,《尚书·禹贡》载:青州“厥土白坟,海滨广斥”,孔颖达疏曰“海畔迥阔,地皆斥卤,故云广斥。”于氏“海滨广斥”当由此出,但《禹贡》原意是说青州沿海平原上的盐碱滩涂广布,而据笔者所见,胶东海边诸山植被较多,并未受到海边盐碱的明显影响。于氏引“海滨广斥”比附斥山,与实际情况不符。

65) 国家文物局主编:《中国文物地图集·山东分册》,中国地图出版社2008年。

66) 朱活:《从山东出土的齐币看齐国的商业和交通》,《文物》1972年5期。此文言及荣成出过齐刀币,或引为荣成石岛出土,但笔者委托威海文管所张云涛先生数次前往调查,始终未获确切线索,只能存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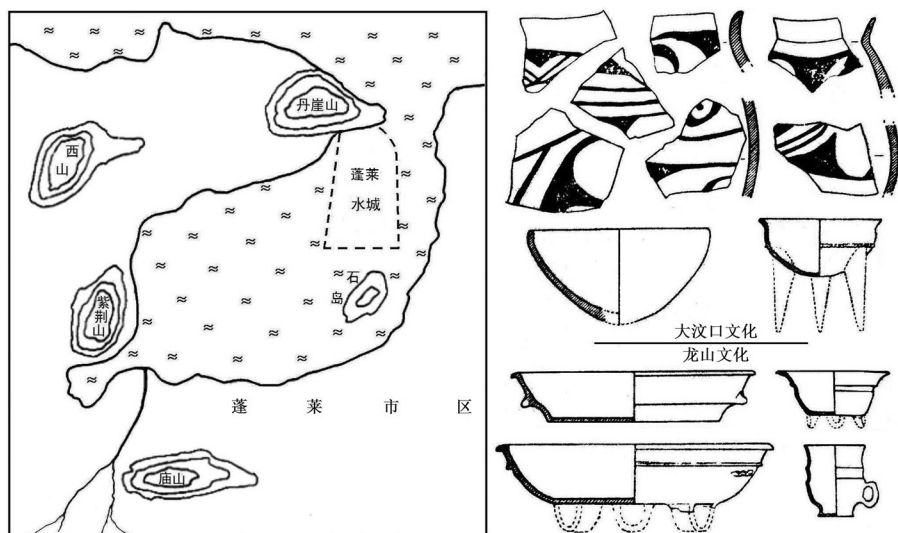
67) 孙敬明:《考古发现与齐币探索》,氏著《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张光明:《齐刀币研究概论》,《齐国货币研究》,齐鲁书社2003年。

68) 孙敬明:《考古发现与齐币探索》,氏著《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张光明:《齐刀币研究概论》,《齐国货币研究》,齐鲁书社2003年。

69) 李殿河:《山东蓬莱丹崖山角砾状石英岩特征及其成因》,《山东地质》1985年2期。

70) 袁晓春等:《蓬莱阁丹崖山岩体加固保护技术研究》,《文物保护与考古科学》2001年1期;刘兆成:《蓬莱阁丹崖山安全监测与分析》,《山东国土资源》2011年10期。

71) 曹家欣:《山东庙岛列岛与蓬莱沿岸地貌》,《海洋学报》1989年5期;郭柳平等:《山东蓬莱迎口山火山地貌景观》,《太原师范学院学报》2007年1期。



图九 蓬莱丹崖山周围唐代以前地理环境复原(左)及紫荆山遗址出土陶器(右)

(左图据曲连福等文图1加绘蓬莱水城、蓬莱市区)

丹崖山南麓山脚下即为明代始建、保存至今的蓬莱水城，据曲连福等先生的实地考古调查，唐代以前这里的水域远比明代水城要大，是海侵时期海水侵入泻湖形成的一个小港湾，现在位于城区西郊的紫荆山当时应在港湾之滨，西郊石岛当时则在港湾之中，丹崖山也因此更加突出湾口，作为贸易港口和航海避风港的地理条件比较优越（图九）⁷²⁾。紫荆山东麓还发现了史前遗址，面积3万平方米，通过早年的小规模试掘得知，该遗址内涵较丰富，出土有各类陶、石、骨质生产和生活器具，及猪、羊、鹿和贝类遗骸⁷³⁾。尤其是出土的大汶口文化陶鼎、钵、彩陶和龙山文化陶鼎、壶、杯、盘等（图九），大多与辽东半岛南端同时期最重要遗址郭家村遗址出土的同类器基本相同，证明当时存在海上南北交往，对此已有包括笔者在内多人指出过⁷⁴⁾。紫荆山遗址是胶东半岛最北端的史前遗址，也是距离辽东半岛南端最近的胶东陆上遗址，所以这条海上通道很可能是从紫荆山出发，向北经长岛北庄、大口等遗址到达郭家村一带的（牧羊城、尹家村与郭家村毗邻）。而从蓬莱、长岛、大连等地发现的齐燕货币、铜剑、墓葬等相关遗存看，这条海上通道显然在东周时期得到了很好延续。因此，根据以上分析我们认为，东周时期齐国与东北亚交往的贸易港口斥山不在荣成石岛，很可能在蓬莱西郊附近，其中丹崖山至紫荆山一带尤其值得注意。

72) 曲连福等：《登州古港的港区变迁》，《蓬莱古船与登州古港》，大连海运学院出版社1989年。

73) 山东省博物馆：《山东蓬莱紫荆山遗址试掘简报》，《考古》1973年1期。

74) 佟伟华：《胶东半岛与辽东半岛原始文化的交流》，《考古学文化论集》2集，文物出版社1987年；王青：《试论山东龙山文化郭家村类型》，《考古》1995年1期。

五、结论和余论

综合本文分析，主要有如下结论：通过考古遗址出土毛皮动物种类的分析可知，山东地区先秦时期出产的名贵毛皮动物较少，而东北地区整个先秦时期毛皮动物一直比较丰富，且因为气候寒冷和高山森林，毛皮质量上乘，证明《管子》所载齐国从东北亚获取“发、朝鲜之文皮”有着现实需求和真实背景，此“文皮”应是东北所产名贵毛皮的总称，泛指齐国能获得的东北各种名贵毛皮，朝鲜半岛出产的毛皮可能也在此列；进一步分析相关考古资料又能发现，双方的贸易货品除了动物毛皮，还有铜兵器剑以及可能的铜礼器壶等，人员的相互往来也趋于频繁；目前所知的这些货品大多属于春秋晚期以来，可知与齐国伐灭莱占有胶东半岛有直接关系，与齐国和燕国的交往不断加强，以及战国晚期燕国统一辽东半岛也有很大关系；结合相关考古发现和地学研究成果，齐国获取东北名贵毛皮等特产的交通路线主要有两条，即从临淄出发沿胶东半岛西北岸的干道和经即墨城穿过胶东腹地的干道，这两条干道的终点都在蓬莱；其贸易港口《尔雅》斥山（赤山）应在今蓬莱西郊附近（丹崖山至紫荆山一带尤其值得注意），不在历代主张的荣成石岛⁷⁵⁾。

我们知道，东周时期的齐国是东方大国，其国力的强盛是以发达的手工业生产和商贸活动为支撑，这一点在东周列国中显得比较突出。现有考古资料表明，齐国与东北亚的交通和贸易范围可能较大，是当时东北亚各国各族相互交往的重要内容，为秦汉以来中原王朝经营东北亚奠定了部分基础。当然，与本文主题有关的两个重要环节还有待继续深化与完善，一是有关“发、朝鲜之文皮”的细节问题，如本文论及的有关遗址出土的毛皮动物遗骸数量和比例，以及可能是猎取毛皮动物的工具和加工毛皮的工具等，尚未进行详细统计与分析；二是有关齐国与东北亚交通和贸易的细节问题，如蓬莱丹崖山和紫荆山一带目前尚未发现明确的周代遗址，已经辨识出来的齐国与东北亚的贸易货品还比较少等。这些都有待以后进一步的考古工作和研究。但同时也能看出，国家出现以后，政府或贵族阶层有意识地对商贸加以控制，使其能为自己服务，可能是导致普通贸易货品不多、特定货品较多的重要原因，不同于史前时代的民间来往和自然播迁。

75) 《淮南子·地形训》载：“东北方之美者，有斥山之文皮焉”，宋《太平御览·地部》录为“东北方之美者，有徒格山之文皮焉”，以“徒格山”代替“斥山”。日本的松田寿男先生主张两山实为一山，并认为“徒格山”在《管子》等书记载的齐桓公征伐过的屠何国境内，后来为《汉书·地理志》所载辽西郡14个县之一“徒河县”，在今辽宁锦州西北一带。又引《晋书·慕容暉传》有“徒河青山”，属意此山为徒格山，亦即斥山。说见《苏子の貂裘と管子の文皮》，《早稻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纪要》3辑，1957年，收入氏著《松田寿男著作集—东西文化的交流》3集，1987年。今按，松田氏观点看似与《尔雅》、《淮南子》之“东北方”地理方位相符，但两书又载“东方之美者，有医无闾之珣玞琪焉”，此山一般认为即今辽宁西部的医巫闾山，与松田氏主张的“徒格山”相隔很近，这又与医巫闾山在“东方”的地理方位相矛盾。实际上，围绕《尔雅》、《淮南子》“东北方”和“东方”的矛盾之处，或以为是错简所致，还可能涉及到先秦时期的青州和营州之辩，历代史家莫衷一是，本文暂不论及。附记于此。

Archaeological Probe on the <Guanzi> Recording “Striped Furs from Fa and Choson”

—Together with the trade and transport between Shandong China and Northeast Asia during 6–3B.C.

Wang Chi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handong University)

Abstract

Qi State (齐国) was a powerful state in the Eastern region during Later Eastern Zhou Dynasty (6–3B.C), its handicraft production and trade economy was very developed and active. But because of poor documentary sources, the research about the trade contacts between Qi and Choson (朝鲜, ancient Korean) which located on the north of Beihai/Bohai (北海或勃海) is largely unknown. Based on field archaeological materials and zoo archaeology results, this paper made a textual research about “striped furs (𪚩𪚩«) from Fa (发) and Choson” recorded by <Guanzi> (《管子》), and then made a deeply archaeological analysis of their trade goods, transport routes and trade port.

This author draws the conclusions as follow: 1) During Pre-Qin Dynasty period, fur animals and striped furs which produced from north of Haibei region were more abundant than Shandong region, so Qi State imported striped furs from Choson and Fa which recorded by <Guanzi> should be real; 2) The two sides’ trade goods should include bronze weapon swords and probably ritual bronze vessel Hu (壶) besides striped furs, and their personnel exchanges were also relatively frequently; 3) There had two transport routes of Qi and Choson, which started from capital Linzi (临淄) northeastward to Beihai; 4) The end point of these two routes should be today’s Penglai Municipality (蓬莱市) which on the northernmost of Jiaodong (胶东) Peninsula, and the trade port Chishan (斥山或赤山, red hill) should be situated in west coast of Penglai, and not be the traditional view location —south coast of Rongcheng Municipality (荣成市) which on the easternmost of Jiaodong Peninsula.

東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 효 재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서언

한·중·일을 잇는 東아시아 항로상의 제사유적의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청동기시대부터로 구릉 정상부에 환호를 파 제단을 만든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삼국시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제사는 국가의 중요 행사로 변화된다. 실제 고대사회에서는 제정일치 제도였기 때문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 행위는 왕의 권력과 비례하였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 관련 기사들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제사 관련 시설들이 왕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겠다



[그림 1] 화성 당성과 죽막동 그리고 오키노시마 유적의 위치도

그러나 1992년 전북 죽막동 발굴조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적은 일본의 오키노시마 섬에서도 확인되었다. 왜 이런 곳에 제사유적이 형성되어 있을까? 죽막동은 서해안 해안 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항해의 중요한 요충지이며, 오키노시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대 해안항로를 통한 무역과 교류는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써 이에 대한 안녕을 바라는 것 역시 국가적인 중대사였을 것이다.

2015년 화성 당성의 망해루지 추정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토제마가 확인되었다. 고대 백제부터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중국과 교역의 중요한 항로로서 당성 역시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증거들이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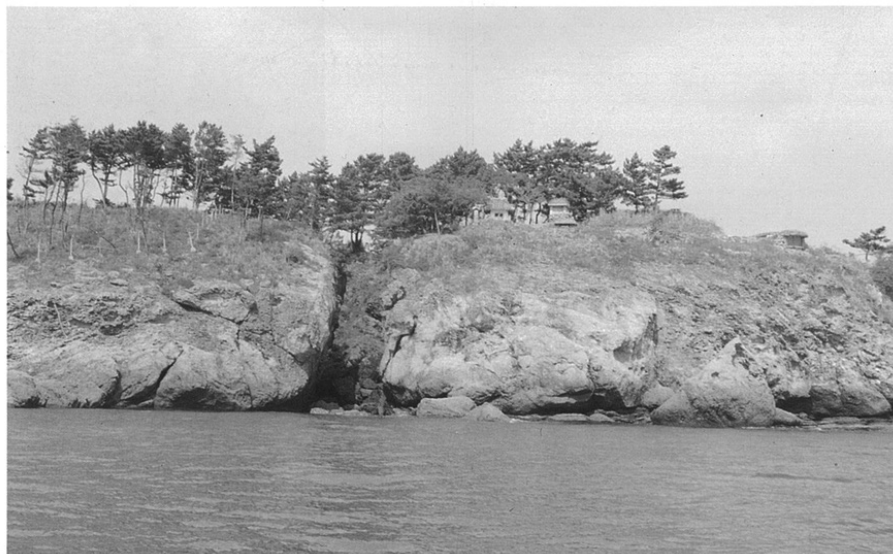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한국의 죽막동과 일본의 오키노시마 유적의 의미를 살펴보고, 당성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제사유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한국 부안 죽막동 유적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절벽 틈새로 부딪치면서 괴상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당의 북, 바라 소리가 메아리치며, 굿판이 시작된다.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방인들까지 모여들었다.

죽막동 유적은 한반도의 서해안,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모서리에 위치한다. 변산반도는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나와서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된다(사진 2). 9m나 되는 간만의 차는 큰 파도를 일으킨다. 이렇듯 높은 파도와 주변의 환경은 이 부근

의 많은 섬들과 이 장소를 항해하고 특히 정박하는 것을 위험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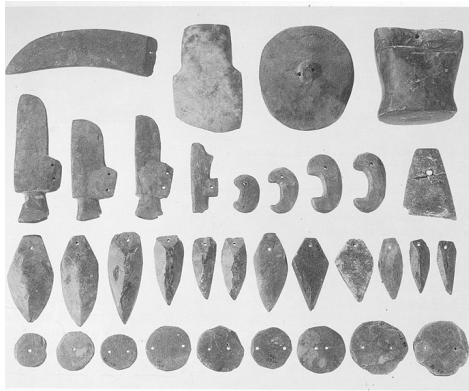


[그림 2] 죽막동 원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증거들은 수세기를 걸쳐 이곳에서 정박과 의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어떤 의식은 적어도 5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때문에 이곳은 그런 행위의 잔존물이 쌓인 고고학적 유적이며, 또한 현재까지도 그런 의례가 이뤄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여행의 행운을 빌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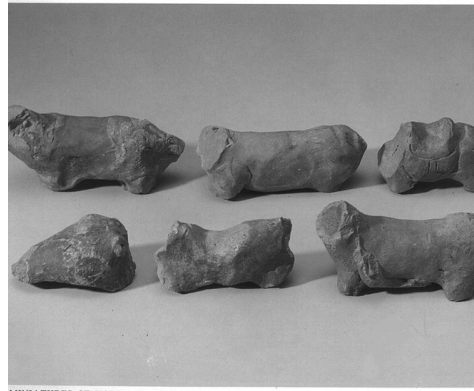
죽막동 유적은 국립전주박물관이 1992년에 발굴했다. 그 발굴은 20×10m 범위에 걸쳐 20-30cm의 문화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대가야 양식의 금동말장식, 철제무기류, 구슬, 토기를 포함한 800점 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철부, 칼 그리고 갑옷과 소형 석제 모조품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구멍이 뚫려있었는데 아마도 나무에 걸기위한 용도로 보인다.

그 소형 유물들은 유물층에서 시기와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토기와 함께 섞여 나왔다. 예를 들어 중국 자기는 퇴적층의 시기를 알려 주는데, 중국 남조의 479년에 만든 가마에서 구워졌다. 중국 거울의 모조품은 이것이 복제품일지라도 권력을 나타낸다 한국 왕족의 왕관을 풍성하게 장식하는 한국스타일의 옥장식품인 곡옥은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빛나고, 많은 유물의 편 사이에서 금동 안장의 파편이 놓여있다. 죽막동에서의 발견된 이 놀라운 유물들 중에서 몇 은 3, 4세기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유물들은 삼국이 번영하던 시기 중 대가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죽막동의 사례처럼 한국에서 확인되는 왕들의 무덤 부장품과 벽화의 기록들을 보면, 중국에서 수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図模造品 MINIATURE EFFIGIES, Stone

[그림 3] 부안 죽막동 유적의 각종 석제모조품



MINIATURES OF HORSE, Clay, L. 7.1-12.3cm

[그림 4] 부안 죽막동유적 출토 토제마

비록 죽막동에서 확인되는 얇은 퇴적층은 층서학적인 상하퇴적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물의 연대는 퇴적의 순서에서, 그리고 의례 순서에서 확인되었다. 죽막동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의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토기들과 함께 부식되기 쉬운 물질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향아리는 아마도 신에게 받치는 음식과 음료였을 것이고, 토제마는 특별히 해신에게 받쳐지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철촉과 청동령(방울)을 담은 대형토기는 5-6세기 대가야와 관계된 것으로 7세기에 다시 한번 토기와 그 내용물만을 신께 받쳐졌다.

한반도의 고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관계는 문헌 기록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고대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으로 통하는 항로인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이 많아 운항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해상교통은 해안가를 끼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안의 죽막동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로의 정거장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일본 오끼노시마 유적

한국에 죽막동 유적이 있다면, 해외에서 유사한 다른 의례 증거가 있는 곳은 일본 규슈 남부지역의 오끼노시마 섬이다. 이곳 역시 한국과 일본의 항해루트 사이에 절벽 위에 위치해 있다. 이 유적 역시 죽막동 유적과 마찬가지로 5-6세기 초 대가야 양식의 말장식과 중국 남조의 자기들이 출토되었다.

무나카타 가문은 세 바다여신과 그들을 숭배하는 성지 중 오끼노시마 섬에 있는 오끼츠노미야로 불리는 성지를 숭배한다. 세 성지와 여신 모두 일본의 가장 오래된 일본서기 기록에 언급되어있다. 이 신들은 아마도 바다의 안개와 파도를 관장하고 숭배받기를 원한다. 오

끼노시마 섬은 그 자체로 숭배된다. 이 곳에 들어오는 것은 여성에게 금기되고 남자라고 해도 일 년에 한번 큰 의례행사에 만 허락된다. 의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로 다른 성지들을 순방한다. 이 섬이 고대로부터 유지되어오던 이와 같은 금기로 인해 섬이 유지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특이하게 고고학적으로 고대의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현재 확인된 8만점의 국보로 지정된 유물과 23곳의 의례 유적이 확인된 것있다. 가장 이른 시기 의례는 거대한 바위 위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이후 바위그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아마도 그러한 장소의 변화는 고대 제사를 위한 봉헌물과 장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에서 알려져 있듯이 국가적인 의례는 약 400-900년 사이에 이곳에서 수행되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두 여신의 성지는 고대부터 변화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오키노시마 섬 주변에는 또한 4-7세기에 준하는 고대 고분이 보존되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전방후원분으로 열쇠 구멍의 모양이며, 마치 혼슈에 있는 야마토의 신흥국가들의 것과 비슷하다. 이들 중 몇몇은 붉게 칠한 석실을 갖고 있다.



[그림 5] 오키노시마 섬의 제사유적

또한 이 섬 주변에서는 야요이시대에서 고분시대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발견됐다. 기원전 2세기 야요이시대 주거지와 주변 배수구가 노출되었는데, 그들 중 어떤 것은 창고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역시 후기 죠훈시대-야요이시대에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철과 토기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장인은 아마도 철 제작공정을 한국에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인 토고타카주카는 성지의 가장 이른 시기인 '큰 바위 의례'와 동시기인 4세기에 세워졌다. 상류층의 무덤은 바다 근처의 해안가, 섬 주변의 무덤군으로 옮겨졌다.

고분시기의 미야지다게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긴 23m의 석실을 갖고 있다. 검, 금동마구류, 그리고 유리와 같은 위세품이 이 무덤의 주인을 텐무 천황의 아내의 아버지, 무나카타로 추측하게 한다.

한반도, 특히 고구려와 가야의 영향은 그들이 무덤을 축조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또한 제사의례 증거는 한반도와 오키노시마와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른 시기의 의례는 다섯 지점에서 밝혀졌는데 봉험품을 봉헌하는 의례가 바위 위에서 행하여졌다. 제물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동경, 옥팔찌, 철제 무기류와 도구, 활석제 의례용구, 곡옥, 유리와 토기를 포함한다. 추가로 12개 유적이 바위그늘에서 발견되었다. 유물은 이곳에서 5-7세기에 의례가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유물은 유사하지만 대부분이 석제 모조품이다. 그렇지만 신라의 금반지 역시 발견되었다. 7-8세기로 추정되는 세 유적은 바위 그늘과 한데 유적이다. 중국산 도자기, 금동용두, 방추차, 바늘, 악기 그리고 인형들이 발견됐다.

8-9세기 퇴적층은 한데에 있다. 늦어도 818년까지 쓰였던 동전이 발견됐다. 한 공간에서 활석제 의례용구뿐만 아니라 토기, 철제 무기류, 도구, 청동그릇 그리고 종, 거울, 금동 방추차, 바늘 등의 금속류가 다양하게 나왔다. 나라 삼채토기와 황실에서 사용하던 동전 또한 발견됐다.



[그림 6] 오키노시마 유적

IV. 결론 : 고대 화성 당성의 의례적 행위

2015년 화성 당성의 3차 발굴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당성의 삼국시대 격변지의 무대로서 인식되어오던 역사학적 관점 이외에 또다른 발견이 있었다. 이는 화성 당성 망해루지에서 출토된 토제마들이다. 한국의 산성에서 토제마가 발견된 사례들은 간간히 있으나, 이번 당

성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제마는 지금까지 당성에서 출토된 것을 다 합치면 23개나 된다. 죽막동에서 보았듯이 토제마는 고대 제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써 당성에서 발견된 이번의 토제마는 중국과 해상교역의 핵심지로서의 당성에 대한 의례적 행위를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이곳에서 확인된 팔각건물지는 한·중·일 삼국의 고대 제사 의례의 중요한 증거로써 당성이 위치한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7] 당성 출토 토제마와 팔각건물지

日本세토나이가이->한국 남·서해안->중국의 황해 연안을 잇는 원거리 국제 항로는 海上 교역의 重要루트였다. 한반도 남·서해안에는 수많은 섬과 복잡한 해류관계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장거리 항해의 안전과 교류 성공을 위한 초인간적인 힘에 의존하는 원시 제사의 양상이 오키노시마와 죽막동 그리고 당성 항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의 초인간적인 존재에 의존하려는 원시신앙의 발생은 한·중·일을 잇는 국제연안항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음에 틀림없다.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 유 전 ■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 발굴조사 동기와 경과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작은 섬 장도는 일찍부터 장보고 장군이 해상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청해진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 오고 있었다. 이 장도는 밀물이 될 때는 작은 섬이 되지만 썰물이 되면 큰 섬인 완도와 물으로 연결되어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썰물 때는 큰 섬과 왕래될 뿐 아니라 섬 주위로 목책의 잔재를 볼 수 있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장도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기록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청해진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 당나라와 신라에서 활동한 장보고의 활동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도에 장보고의 청해진 본영이 있었다고는 전해오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놀랍게도 한국방송공사인 KBS였다. KBS의 제안으로 198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장도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전해오고 있는 청해진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완도군에서 속칭 將軍섬으로 불리고 있는 이 將島를 주목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현황조사를 통해 장도에서 수습되는 유물 편들이 8세기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편, 토기 편 등이 다수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이로써 이 장도가 일단 청해진과 관련이 있는 유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한 장도가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이 있었던 섬일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KBS에서는 이듬해 1983년 신년월단 특별기획으로 장보고와 장도유적에 대한 내용을 크게 방영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 9월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의 중요성을

인정해 장도청해진유적을 사적 제 308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적으로 지정된 후 이 유적의 정비, 복원 필요성이 완도군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드디어 1989년 장도 청해진유적의 복원 정비에 대한 예산이 1차적으로 책정되었다. 이로써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청해진발굴 계획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함으로써 1990년 현지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이 마련되게 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장도유적발굴조사 책임자로서 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제1차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1992년도 제2차 조사, 1993년도 제3차 조사까지 발굴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 7월 국립민속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일단 장보고유적의 발굴조사는 일시 중지되었다. 그 후 1995년도 제 4차 조사가 실시되고 1996년도 제 5차 조사, 1997년도 제6차 조사로 장도 청해진 조사의 발굴조사는 일단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장도의 접안 시설 등 여러 가지 더 밝혀져야 할 조사가 남아있어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했다. 1998년 필자는 국립민속박물관장 근무를 마치고 다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최종적으로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즉 2000년과 2001년도 조사를 끝으로 일단 장도의 발굴조사가 완료되었다. 그간의 조사에 관한 내용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 將島淸海鎭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II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이 번 발표하는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장도청해진유적발굴조사 보고서를 요약 발표하게 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를 대별하여 유구, 유물, 기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유구에는 성곽유구와 건물지유구 그리고 특이유구로 구분된다.

첫째, 성곽유구를 보면 장도에 마련되었던 청해진의 성곽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통일신라기의 판축토성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4곳의 치와 한 곳의 高臺가 마련되었음이 확인되어 향시 청해진 성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건물유구로는 출입시설인 문지와 아울러 성내에서 여러 동의 건물터도 확인되었다.

셋째, 특이한 원목열과 잔목열이 발견되어 선착시설과 방어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ㄷ자형 시설은 선박의 접안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제사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고 식수원인 우물도 확인되었다.

3. 출토유물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에는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기타로 대별 할 수 있다.

기와류는 전체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역시 통일신라시대 기와 편이 대부분이고 고려시대 기와편도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기와 편에 大, 王, 本, 舍草, 官, 東, 天, 寺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 편들도 출토되어 청해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토기류에는 사면편병, 편병, 항아리, 동이, 주름무늬 병, 광구병, 시루, 토기완 등이 있고, 자기류로는 중국자기가 대부분이었고 이어 조선백자, 분청사기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고려청자는 소량 출토되었다.

고려청자의 경우 초기청자는 출토되지 않고 11-12세기 순청자가 대부분이며 13세기 상감청자 7점이 출토되었다. 순청자는 대부분 무문이고 기종은 대접과 접시이다. 분청사기는 상감분청, 귀얄분청, 덩병분청 그리고 분장을 하지 않은 회청자로 나누어지며, 조선전기인 15-6세기에 사용된 것이다. 백자는 대부분 바닥편 만 수습되었다. 대체로 17-19세기 백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함께 출토된 청화백자는 18-19세기에 사용된 것이다.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사발과 대접, 접시 등이다.

중국자기는 자기 가운데 장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이다. 중국 자기는 청자로 대부분 晚唐期 浙江省 越州窯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색은 황색과 녹색을 띠고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고 치밀하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는 굽 접지 면이 넓어 만당기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이 중국자기는 중국에서 7세기경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9세기 전반에 유행한 청자형식이다. 이 시기 신라는 당과 서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교역 활동을 통해 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백자는 河北省 邢州窯 또는 定窯에서 만든 玉緣形 아가리를 갖는 백자편도 출토되고 있다. 이처럼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중국 자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것은 청해진이 당시 교역의 중심지로 중국 자기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장도 출토 중국청자의 질은 우수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도 귀족층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당시 장보고의 활동상과 위상을 알 수 있는 교역 품임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多罐 또는 注子로 추정되는 기종은 중국에서도 부장품 즉 제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최상품의 청자와 함께 장도에서 실시된 국가 제사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기타유물로서는 청동화살촉, 금속제 비녀, 청동핀셋, 청동대접, 청동조각도, 철제못, 솥, 철제끌, 어망추, 납석제 그릇, 청동제 뒤꽂이, 철제문고리, 육이항아리, 청동장식패, 청동교구, 청동저울추, 상평통보, 철술, 철제장식패, 청동향로 다리 및 손잡이, 철제유공부, 철부, 철촉, 철제창, 청동대접, 청동거울, 철제자물쇠, 방추차 등으로 대부분 생활유물이다.

4. 발굴조사 성과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에 역사기록으로 남아있어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청해진은 고고학적인 자료의 빈곤으로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그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역 부족이었다. 80년대 들어와 완도군 장좌리에 위치하는 장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장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때 청해진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발굴조사 전 우선 장도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으로 198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했고 이 후 1991년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2001년까지 10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청해진의 실체가 대부분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발굴조사 결과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곽과 그 관련시설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성곽은 장도의 자연지형을 따라 총 길이 890m, 잔존 최고높이 2.5m가 확인되고 섬 입구방향으로 내성을 둘러 출입구를 보강했음도 들어났다. 토성벽의 양측 기초바닥에는 폭 5-6m에 나란히 평행되게 1-2단의 석열을 마련 성곽 하부 폭으로 하고 양 석열 사이의 공간에 판축토로서 토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최다 18겹의 판축층이 확인되었다. 성곽에는 4개소에 관측시설인 치가 마련되었음도 밝혀졌다.

둘째, 청해진 섬에 둘러져 있는 원목열과 잔목열은 장도유적에만 보이는 독특한 시설로 원목열은 섬의 서남부 해안을 따라 330m까지 확인 되었다. 설치 방법을 보면 섬 둘레를 따라 깊이 80cm 내외로 U자형 도랑을 파고 그 안에 직경 40cm 내외의 원목을 촘촘하게 세워 놓은 것으로 방어용 또는 접안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이 원목열을 따라 마련된 잔목열도 확인되었는데 이 잔목열은 원목열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 뒤로 나란히 마련되어 있었다.

셋째, 장도에서 본다면 제일 앞쪽으로 잔목열이 마련되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목열이 나란히 박혀있는 다음으로 수상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적심이 그리고 이어 ㄷ자 형태의 판축유구와 판축유구 중앙에 석축우물이 발굴되었다. ㄷ자 판축유구는 접안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넷째, 성곽내부에서는 굴립주 건물 2개소와 석축기단 건물지 3개소 버린 기와 무지 2개소와 배수로로 시설 1개소도 확인되었다.

다섯째, 특이한 매납유구 1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매납유구는 직경1m, 깊이 70cm의 원형구덩이 인데 이구덩이에서 토기항아리 와 편병, 철제 솔, 철제소반, 청동 병, 철기 등 인위적으로 묻었던 것으로 주변의 제단 성격의 건물터와 함께 제사유구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유구로 판단되는데 즉 기록에 신라가 청해진 조음도에서 중사를 거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구로 여겨지고 있다.

여섯째, ㄷ자 유구 내에 있는 우물을 발견했는데 원형으로 만든 현존높이 5.8m에 이르고

있다. 바닥은 나무를 이용 우물 井자로 깔고 그 위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해 쌓아 올렸다. 井자각 내에서 편병, 주름무늬 병, 동이 등의 토기류와 따비, 청동 용기, 주전자 꼭지 등 금속제 유물도 출토되었다. 이 밖에 성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배수시설 과 다수의 건물터도 확인되었다. 원목의 시료를 가지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9세기, 초 중반으로 밝혀져 이 원목열은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에 마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5.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몰락

장보고는 완도에서 태어나 젊어서부터 무예가 출중했다. 장보고는 신라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으로 일찍부터 눈을 국외로 돌려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무렵인 신라하대에 들어와 신라의 서해와 남해안 일대에 노예상과 중국 해적들이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탈하고 심지어 노비로 팔아먹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장보고는 분개하여 중국에서의 벼슬을 버리고 귀국하게 된다. 당시 신라조정도 이 노예상과 중국 해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를 소탕하기 위해 당나라 무령군 소장으로 있던 벼슬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온 장보고는 828년(신라 흥덕왕3년) 4월, 신라조정에 건의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청해진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와 중국 당나라와 일본도 아우르는 삼국 무역체계를 구축하면서 특히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무역, 운수, 선박제조 및 수리등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와 같이 장보고는 바다로 진출하여 해적과 노예상을 소탕하고 동북아 해상권과 무역권을 손아귀에 넣어 명실공이 해상왕국을 건설한 선구자였다. 한편으로 해외 동포를 모아 당과 일본에 신라촌, 신라방 등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치외법권적 특권 및 자치권을 확보하고 국제무역의 기반을 조성했다. 더구나 장보고는 신라조정의 민애왕을 살해하고 신무왕을 세웠다. 그러나 신무왕이 왕위에 올라 6개월 만에 병으로 죽게 되자 뒤를 이어 태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문성왕이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려 했으나 장보고의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왕비로 맞아 드릴 수 없다는 조정신하들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장보고는 모반을 꾀했으나 오히려 그의 부하였던 염장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문성왕 13년(서기 851년) 2월 청해진은 폐지되고 그곳 주민들을 내륙의 碧骨郡 즉 金堤로 집단 이주 시켰다. 이로써 청해진은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말았다.

6. 청해진의 실체

완도 본섬과 불과 180m 떨어져 있고 면적 약 12만 5천 평방미터에 지나지 않은 작은 섬 장도가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만 현지에서 장군섬이라 불리었을뿐

완도에 부속된 하나의 작은 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적발굴조사를 통해 판축 토성으로 쌓은 둘레 890m, 최대높이 2.5m, 4곳에 관측시설인 치를 갖춘 성곽이 있었고 높이 3-4m, 지름 30cm, 5-60년생 소나무를 촘촘히 박아 만든 방어용 목책시설, 배의 접안 및 하역시설 등 유구와 제사용 철제소반을 비롯 기와편 2만 여점 등 유물 3만여 점의 출토를 통해 청해진 본영의 존재와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 출토 유물들은 대부분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물이고 더구나 중국산 고급 자기가 많이 출토된 것은 당시 장도가 대 중국무역의 전진기지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그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 장도가 통일신라시대 청해진 본영이 있었던 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7. 맺는말

지금까지 장도의 유적발굴조사와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실크로드를 통해 멀리 당과 페르시아 상인들로부터 유입된 물자의 판로를 개척해 시장경제와 유통원리를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해진 시절부터 계승, 발전된 조선술과 항해술은 고려 창건의 토대를 쌓았으며 조선시대로 이어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이끌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해운업과 조선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된 것도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닌 청해진 이후 면면히 이어온 전통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해운업, 조선업이 위기를 맞아 풍전등화의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보고 정신으로 뭉쳐 새로운 해상의 성장 동력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將島淸海鎮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將島淸海鎮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莞島文化院 1985. 張保臯의 新研究

황금부영이 2004. 고고학자 조유전의 한국사미스터리

동아시아 결상이식의 분포와 교류

松浦 宥一郎 ■ 前 東京國立博物館

1.はじめに

中国の原始・古代(新石器時代~春秋戰國時代)に「玦」(*)と呼ばれる石製品がある。「玦」は環形の1ヶ所に細長い切れ目を入れたもので、英文字の「C」字形を呈する。石製、軟玉製、蚌製、骨製があるが、大部分は軟玉製の「玉玦」である。この「玉玦」は墓の副葬品として発見される場合が多く、しかも被葬者の耳の辺りから1対で出土する例が多いので、耳飾に使わ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

※ 「玦」: 中国語ではjue, 日本語ではけつ(ketu)

日本の縄文時代前期に盛行した「玦状耳飾」もこの中国の「玦」と同形をしており、中国の「玦」の形をした耳飾という意味で、「玦状耳飾」という名称の由来となっている。

近年、中国東北地区の新石器時代の紅山文化以前に遡る興隆窪文化において、最古の「玉玦」の発見があった。これに匙形の玉器である「匙形器」(靴筥状をしている)が相伴している。この「匙形器」と「玉玦」の組み合わせは、日本の縄文時代前期の福井県桑野遺跡で出土している。しかも、中国の興隆窪文化期と日本の縄文時代前期の年代がほぼ同じであるために、両者の関連性が問題になった。

しかし、中国においては、出土している「玦」の全体的な集成が行われておらず、現状では、まだ中国新石器時代の「玦」の全容が把握されていない。そこでまず、中国新石器時代の「玦」の出土資料の集成を行った(松浦 2013「中国新石器時代の玦の研究と展望—出土の玦の概要と今後の課題」『玉文化』第10号)。それに基づいて、今回はとりあえず中国新石器時代の「玦」の出土資料の概要、研究の現状と日本の「玦状耳飾」との関係について述べる。

2. 「玦」の名称と用途・使用法

「玦」の名称については、古代の玉器について考証した清朝の金石学者瞿中溶の著『奕載堂古玉圖録』(1802年)や吳大澂の著『古玉圖考』(1899年)に小形円形の璧に1ヶ所狭長な切れ目が入る玉器を「玦」として図示しているが、以来これらの清朝の金石学者による「玦」の名称が踏襲されてきたものである。

しかし、鄧淑蘋氏によれば、「玦」は佩用の玉器で、耳飾としての「玦」は甲骨文や金文には出ていない文字で、東周の古典に記載がある「瑱」(「みみだま」の意)が正確な名称であると主張する。『詩経』の鄭玄の注に「瑱、充耳也」あるように、「瑱」は「充耳」の別名で、「充耳」は髮笄から「紃」という絹紐で垂下して耳傍に充てる耳飾であるという。

現実に遺跡から発見される「玦」の用途については、墓址中に埋葬された以外の頭部の両耳の位置から出土する例があり、中国の大方の研究者が「耳飾」と考え、「耳飾玦」、「玦耳飾」、「玦形耳飾」、「玦状耳飾」等と称している。ただし、鄧聰氏は耳飾だけではなく他の用途とも考えられることから「玦飾」と呼んでいる。日本でも藤田富士夫氏は縄文時代の「玦状耳飾」も耳飾以外の用途の可能性もあるとして、「玦飾」としている。すなわち、藤田氏は、耳朶に装着が不可能なものがあり、それらは首飾りや胸飾、頭額飾等別の装身具や佩用品として用いられたと考えている。

玦は耳飾なのか、基本的に耳飾でも他にも用いられたのか、耳飾ではなく佩用品として用いられた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さらに中国新石器時代玦の出土状態の検討を行うとともに他の玉製垂飾品との関係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ろう。

先述のように、中国の「玦」は発掘調査による出土状態が埋葬者の両耳朶部に1対で位置しているものが多いことから基本的には耳飾と推定されている。日本出土の玦状耳飾も同様に考えられる。耳飾であるとすれば当然その使用方法が問題となろう。しかし、玦の使用法については、鄧淑蘋氏が述べるような「瑱」と呼ばれる東周時代の耳飾の儀礼的な用法が新石器時代の玦に用法にそのまま適応されるとは考えられないが、藤田氏が主張するようにこれまで新石器時代の場合は耳朶に直接装着する場合に耳朶に穿けられた孔に玦の切れ目から装着したか、あるいは玦の切れ目により耳朶に挟んで装着したのか、あるいはまた耳朶に穿けられた孔から紐などで垂下して用いたのかなどの使用法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3. 中国新石器時代の「玉玦」の時期と分布

玦の出土遺跡は現在 60 数ヶ所ほどである。調査、報告されている新石器時代の遺跡数のわりには玦の出土遺跡は意外に少ない。しかも、出土地域、出土文化期に偏りがみられ、新石器時代に普遍的に存在するものではない。地域的には、東北地区、長江中流域、長江下流域、嶺南地域の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が、大部分は玉器の豊富に出土している長江下流域に集中している。仰韶文化の盛行した黄河流域では1ヶ所の遺跡以外にはみられず、現状では中国東北地区から長江流域までの華北地域には分布していない。なお、玉玦が大部分であるが閩台地区、嶺南地区には軟玉製ではない水晶製などの石玦が比較的多く出土している。玦の出土地域、出土文化期は以下の通りである。

東北地区：興隆窪文化（B.C.6500—5000）、趙宝溝文化（B.C.5000—4500）、紅山文化（B.C.4500—3000）

黄河中流域：中原（河南）龍山文化（B.C.2500—2000）

長江中流域：大溪文化（B.C.4800—3500）、屈家嶺文化（B.C.3000—2500）、薛家崗文化（B.C.3500—2000）

長江下流域：河姆渡文化（B.C.5000—3000）、馬家濱文化（B.C.4500—4000）、崧澤文化（B.C.4000—3000）、良渚文化（B.C.3000—2000）

閩台地区：曇石山文化（B.C.2500—2000）、円山文化（B.C.2500—1）、卑南文化（B.C.3500—300）

嶺南地域：石峽文化（B.C.3000-2000）

4. 中国新石器時代の「玉玦」の地域的特色

以下に地域的に出土遺跡と玦の概要と特徴について記す。

（1）東北地区出土の玦

出土した遺跡は9ヶ所で、黒龍江省1遺跡、内蒙古自治区7遺跡、遼寧省1遺跡で、約41点の玦が発見されている。興隆窪文化期の遺跡5ヶ所から17点、趙宝溝文化期の遺跡1ヶ所から1点、紅山文化期及び並行期の遺跡の遺跡3ヶ所から23点が出土している。

査海遺跡・興隆窪遺跡出土の玉玦は中国新石器時代最古のものでいずれも興隆窪文化期に属するC字形玦である。紅山文化期並行期（小南山文化？）の小南山遺跡の玉玦11点は径9~10cm超大型品である。

（2）黄河中流域出土の玦

黄河中流域出土の玦は、現状では河南省孟津県小潘溝遺跡出土の1点だけである。新石器時代時代末期の中原または河南龍山文化期のものである。正円形に近く、断面は扁平形をなす、外径1.2cmの小型品である。

（3）長江中流域出土の玦

重慶市巫山県大溪遺跡で44点、湖北省宜昌市清水灘遺跡で1点、湖南省懷化市高坎壟遺跡で1点で計46点玉玦が出土している。巫山県大溪遺跡出土の31点は、大溪文化期のものであり、宜昌市清水灘遺跡出土の1点、懷化市高坎壟遺跡出土の1点は屈家嶺文化期のものである。

多くの玉玦を出土した大溪遺跡では、楕円形に近いもの、環形で内孔が大きいもので、外径4~5cm大型ものが多い。中に1点環体の切れ目が外に向ってペンチ状に伸びている特殊なもの、蚌製玦1点がある。他に半欠状の一端の小孔を穿孔して勾玉状にしたものがある1点ある。玦を出土した墓址のうち被葬者の性別が分かるものは、男性2基、女性6基で、他に小児墓4基（女兒1基で3基は性別不明）がある。玦は頭部付近に位置していたものが多いようである。

（4）長江下流域・太湖周辺地域出土の玦

密集して発見されている地域で、浙江省・江蘇省・安徽省に集中して発見されている。浙江省8遺跡、江蘇省14遺跡、上海市1遺跡、安徽省2遺跡、江西省1遺跡、湖北省1遺跡で出土し、約30遺跡に及ぶ。河姆渡文化期のものは浙江省余姚市河姆渡遺跡出土の11点だけである。馬家浜文化期の遺跡12ヶ所から110点、崧澤文化期の遺跡10ヶ所から66点、良渚文化期の遺跡5ヶ所から6点、薛家崗文化期の遺跡4ヶ所から7点以上、計約190点以上出土しているが実際はさらに増えるであろう。

江蘇省高淳県薛城遺跡の馬家浜文化層で、玉玦4点と骨製玦1点が出土している。玉玦は円環形で、外径6cm、内孔も大きく径3cmを測る超大型品がある。骨製玦も断面扁平な楕円形に近い形をなし、外径5.8cm、内孔径3.6cmを測る大型品である。

江蘇省常州市圩墩遺跡は馬家浜文化期の墓址約120基が発見され、玉玦5点が出土した。41号墓の被葬者は40才前後の男性で、環形で扁平な玉玦1点が出土、43号墓の被葬者は

32 才前後の女性で玉玦 1 対 2 点が出土し、いずれも短い円管形の玦である、44 号墓の被葬者は 35 才前後の女性で玉玦 1 対 2 点が出土し、環形で扁平である。43 号墓と 44 号墓の 1 対の玉玦は頭部の両耳の位置にあったものであろう。

崧澤文化期の 63 基の墓址のうちの 5 基から玉玦 7 点が出土した。5 基の被葬者の性別は女性 1 基、児童 2 基で他の 2 基は不明であるが、女性が埋葬された 53 号墓では人骨頭部の両耳の位置から 1 対の玉玦が出土している。高さのある円管形近いものである。

江蘇省金壇市三星村遺跡では馬家浜文化期の墓址 1001 基が発見され、玉玦 63 点の出土している。玉玦は 3 型式に分類されており、A 型は 16 点で、外径 1.1cm ほどの小型品 11 点と外径 2.4cm ほどの 5 点、B 型は 25 点で、外径 3~4cm ほどで、内孔の周縁に短い斜面をつくりだしているもの。C 型は 22 点で、径 5cm 前後の大型品（外径の最大のものは 7cm 超大型品）で、円環形で、器体は細い環帯をなすので切れ目の長さはきわめて短くなっている。

江蘇省南京市北陰陽營遺跡は 271 基の墓址が発見されたがそのうちの 7.3% にあたる 37 基に玉玦 46 点が出土した。2 個一対での出土は 4 基あり、3 個出土したものは 1 基ある。多くは被葬人骨の耳部付近の位置から出土したと報告されている。

なお、良渚文化期は豊富な宝器的な種々の玉器の盛行した頂点に立つ時期であるが玉玦を出土した遺跡も数量も少ない。

薛家崗文化期出土の玉玦は、2 遺跡 7 点である。

(5) 閩台地区出土の玦

福建省の 2 遺跡で曇石山文化期の玉玦 2 点が出土している。

台湾では台東市卑南遺跡で玉玦 1287 点をはじめ、円山文化、卑南文化期の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卑南遺跡は卑南文化を代表する遺跡で、1500 基以上の墓址が発掘された。墓址は大部分が石板棺墓（箱形石棺墓）で単人埋葬であるが 2 体あるいは 2 体以上の複人埋葬もある。これらの墓址から 1338 点に及ぶ玉玦が出土しており、しかも多くは埋葬者の耳部に位置していたという。

卑南遺跡出土の玉玦は、連照美氏によってⅠ・Ⅱ・Ⅲ・Ⅳの 4 種 15 型式に分類されている。Ⅰは環形ないし円形の器体で、典型的な C 字形玦である。大きくは環形で内孔が大きいものと、円形で、外径 3cm 以下で、内孔も小さく 1cm 以下のものがある。Ⅱは円形の器身外縁帯に 4 個の突起を有するもので、外形は楕円形あるいは正円形に近く、内孔が正円形で大きいもの、外形が隅円方形で内孔が円形で大きいものに分けられる。Ⅲは外形が長方形で縦長方向に切れ目が入り、内孔がきわめて小さく、狭長な長方形と真正な長方形、細長の長方形の切れ目の端部が外側に翻るものとに分類される。Ⅳは卑南文化の玦を特徴付ける人獣形耳環あるいは人獣形玦、双人獣形耳環あるいは双人獣形玦、多環獣形耳環あるいは多環獣形玦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双人獣形耳環と多環獣形耳環の頂部は器身外縁帯に 4 個の突起を有するⅡの玦と同一で関連を窺わせる。ちなみに、これらの種類の出土数はⅠが 584 点、Ⅱが 653 点、Ⅲが 44 点、Ⅳが 6 点で、円形の器身外縁帯に 4 個の突起を有するものももっとも多く、環形・円形の C 字形玦が次いでいる。C 字形ではないⅣがはたして耳環であるか否か検討を要する。

(6) 嶺南地域出土の玦

広東省では曲江県石峡遺跡で玉玦 15 点、水晶製の石玦 2 点、水市白泥銀州遺跡で玉玦 2 点、清遠県西山遺跡で石玦 1 点、珠海市海鏡湾遺跡で玉玦 3 点、珠海市平沙棠下環遺跡でも多くの石製垂飾品とともに玉玦 1 点と、水晶製の石玦 1 が発見されている。石峡遺跡では大きい環形の C 字形玦と、卑南文化に特徴的な環の外縁に四個の突起を有する玦の突起を弧形に変えた装飾を有する大型 C 字形玦が出土しているが特徴である。

香港特別行政区においても、涌浪遺跡で石玦 10 点（うち水晶製 2 点）、東湾仔北遺跡で石玦 13 点が出土している。

また、香港特別行政区の南 Y 島赤柱遺跡で水晶製・石英製玦等の工房址が発見されている。澳門特別行政区黒沙遺跡においても水晶製・石英製玦とその未成品や材料が大量に出土しており、工房址と考えられている。

5. 玦の型式分類

C 字形玦の型式的分類は外形の形状によって、基本的に I. 円筒形（円柱形）ないし円管形、II. 内孔の大きい円環形ないし環形、III. 円形で a. 内孔が約 1/3 ほどのもの、b. 内孔が約 1/3 以下の小さいもの、IV. 楕円形や円形の変容したもの I～IV 型式に分類されよう。I には中膨らみのものも含められる。II には環帯の切れ目の両側が幅広になっているものがある。また、III には内孔の周縁を磨いて斜面をつくり出しているものがある。これらは細分の要素とすることもできる。ただ、内孔の周縁を円く短い斜面を磨いて作り出しているものや器体の断面の形状、厚みの厚さ、薄さに関しては強いて細分の要素とすべきはいま少し検討が必要であろう。

I～IV 型式については、特に地域的な相違もみられない。時期的関係についても今のところ特に著しい特徴が存在するとは考えられないが、なお検討したい。

また、器体の外径の大きさにより、3cm 以下は小型品、3cm 代は標準品、4～5cm 代は大型品、6cm を越えるものは超大型品とすることができよう。大型品は長江流域を含めてそれ以南の新石器時代後期後半に多いようである。

6. 玦の起源

現状では中国東北地区の興隆窪文化期の査海遺跡や興隆窪遺跡の出土例が最古であり、遼寧省や内蒙古の遼河流域に玉玦の起源があるとみられるが当該地の玉器文化の中で醸成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近年、興隆窪文化の研究から玉器そのものの起源について研究されつつある。

鄧聰氏は、中国新石器時代に中国東北部に起源した玉玦が中国国内、ロシア沿海州、韓国、日本に拡散普及していき、東アジアの玦飾文化を形成したと述べている。この意見は、大方の中国の研究者に共通するものであろう。鄧氏は玦飾の製作技法において、東北部と長江流域の玦飾の切れ目の線切割技法が用いられ密接な関係にあるという。また、両者に鋸切割もあり、南嶺地域と台湾の玦飾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に示されるように、東アジアの玦飾は中国東北部の製作技法によっていると説を補強されている。

7. 中国新石器時代の玦と日本の玦状耳飾

玉玦の起源地とみられる興隆窪文化期の玦は筥状垂飾(匙形器)を伴っている。それと年代的に近い日本の縄文時代前期に盛行した玦状耳飾は両者ともにC字形で同一の形状を呈しており、しかも福井県桑野遺跡で靴筥状の匙形器が共伴して出土した状況から、川崎保氏等は、日本の玦状耳飾の出現が中国東北部の新石器時代の興隆窪文化に求められるという。藤田富士夫氏は中国江南地域からの伝来ルートを考えている。中国の研究者も査海・興隆窪以前は藤田氏のように江南から日本へ波及したものと考えていたと思われる。いずれにしても日本の玦状耳飾は軟玉製ではないが蛇紋岩など特殊な、中国でいう軟玉に近い「似玉」を用いている点も中国の玉玦を意識したものである可能性は高い。

しかし、一方、従来から日本の玦状耳飾が中国の影響を受けず日本独自の起源、すなわち日本自生説がも唱えられているので、中国の玦と日本の玦状耳飾との比較研究がなされる必要がある。

中国からの伝来ルートが日本列島の北方からという説と南方からという説の両説があるが、いずれにしても韓半島の「玦」と中国・日本との関係が問題となるであろう。

8. おわりに

なお、出土した玦の集成から得られた結論の概要については、次の通りである。

新石器時代の玦は、中国東北地区の興隆窪文化が最も古く、紀元前 6000 年頃に「C」字形のものが出現する。

また、仰韶文化の盛行した黄河地域では、玦は新石器時代末期の龍山文化に 1ヶ所発見されている以外にはない。基本的に青銅器の出現している二里頭文化でも存在しないが、次の商代に玉玦が登場してくる。

一方、新石器時代後半期の長江中・下流域に玉玦が集中して発見されている。しかし、中流域では大溪文化と屈家嶺文化には存在するが、それ以降の石家河文化では発見されていない。下流域においても太湖周辺の、河姆渡文化—馬家浜文化—崧澤文化と系列的に、しかも集中的に出土しているが、新石器時代後期後半の良渚文化では豪華な宝器的な玉器文化が形成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玦の発見例は少ない。

なお、玦の起源地と考えられる東北地区では新石器時代後半に一旦途切れ、中原の二里頭文化と平行する時期の夏家店下層文化(B.C.2000—1500)に再登場してくる。中原では商・周時代に盛行するが、漢代には消えてしまう。

中国南方においては、福建、台湾、香港、広東から発見されているが、水晶製などの石玦が多く、卑南文化や石峽文化に器の外縁に突飾を有する特異なC字形玦が存在する。

結論的には、中国新石器時代の玦は、内蒙古を中心とする東北地区、長江中・下流域および太湖周辺地区、台湾地区、南方地区の4ヶ所に分布の核をもち、発達したのである。

今後も、玦の用途、使用法、製作技術、材質、起源、および日本の玦状耳飾の完形等の基本的問題の研究が課題となろう。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 위원장

강봉룡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최미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장호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상임위원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기중 (당진시청)
조이현, 김형서 (세한대학교)
송두범 (충남연구원)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학술 및 분과위원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심재영 (세한대학교)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답사위원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사무국

임은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황일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5 분과회의 [13분과 / 14분과 / 15분과 / 16분과]

찍 은 날 _ 2016년 7월 2일

퍼 낸 날 _ 2016년 7월 6일

주최 · 주관 _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후 원 _ 충청남도, 당진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